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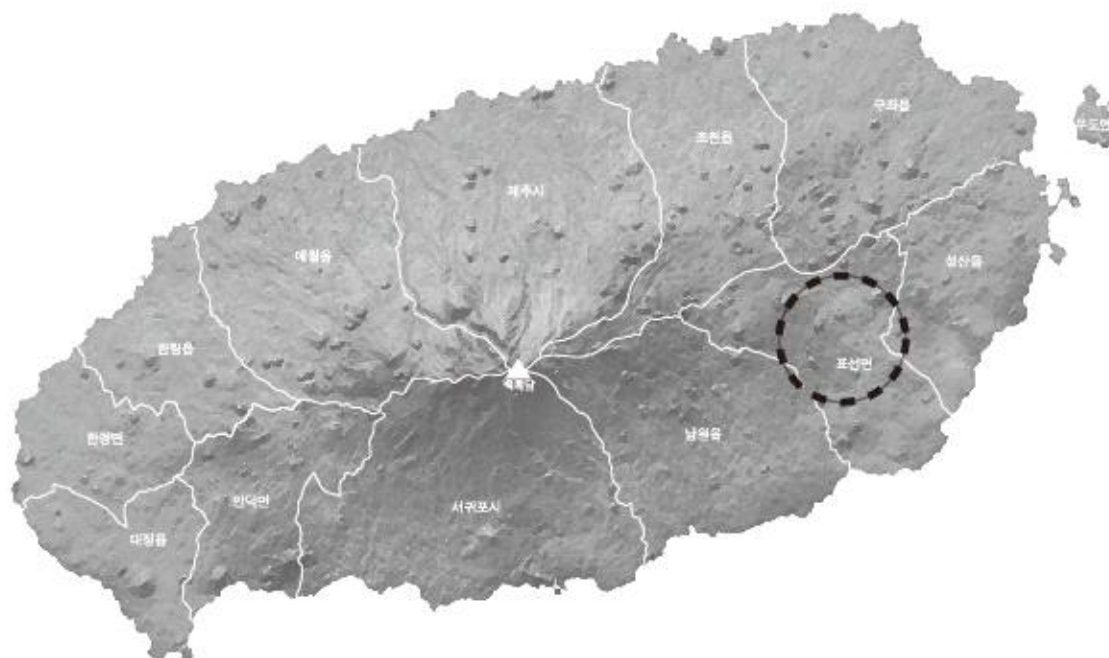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01-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순자
조사지점 표선면 성읍1리

17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7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표선면 성읍1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25
3. 발일	34	4. 들일	71
6. 의생활	190	7. 식생활	115
8. 주생활	153		

제2절 어휘

1. 인체	195	2. 육아	202
3. 친족	208	4. 의복	212
5. 음식	217	6. 가옥	226
7. 생업	231	8. 수와 단위	243
9. 민속	246	10. 신앙	249
11. 자연	249	12. 동물	257
13. 식물	267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표선읍 성읍1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송순원(남, 1937년생)
이미생(여, 1931년생)
현신생(여, 1934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마을 2. 제보자 일생	송순원	00:57:26	○
2. 제보자 일생				
3. 밭일	구술 3. 밭일	송순원	01:23:45	○
4. 들일	구술 4. 들일	송순원	00:47:35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	×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이미생 송순원	01:04:41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밥과 국, 죽류	현신생 송순원	00:46:10	○

	구술 7. 식생활 2 범벅과 수제비, 장아찌와 회, 장 담그기, 떡류, 소와 고물, 별식, 기타	현신생 송순원	01:24:40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1 구조 1	송순원	00:29:20	○
	구술 8. 주생활 2 구조 2	송순원	00:59:56	○
	구술 8. 주생활 3 구조 3 연장	송순원	00:15: 49	○
9. 신앙	구술 9. 신앙	송순원	00:08:59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구술 11. 놀이 1-연~숨바꼭질	송순원	1:32:38	×
11. 놀이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1 출생, 혼례	송순원 현신생	00:47:34	×
	구술 12. 통과례 2 상례 1	송순원 현신생	00:27:35	×
	구술 12. 통과례 3 상례 1, 제 례	송순원 현신생	01:14:32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송순원	01:00:33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음성)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얼굴과 머리	송순원	00:38:46	○
	어휘 1. 인체 2 상체, 하체	송순원	00:34:57	○
2. 육아	어휘 2. 육아 1 발달, 재롱과 놀이	송순원	00:23:48	○
	어휘 2. 육아 2 생리와 질병	송순원	00:23:48	○
3. 친족	어휘 3. 친족	송순원	00:28:30	○
4. 의복	어휘 4. 의복	현신생 송순원	01:32:12(녹음)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주식 부식	현신생 송순원	01:05:57(녹음)	○
	어휘 5. 음식 2 별식 1	현신생 송순원	00:16:09	○
	어휘 5. 음식 3 별식 2 부 엿과 그릇 1	현신생 송순원	00:28:16	○

	어휘 5. 음식 4 부엌과 그릇 2	현신생 송순원	00:43:31	○
	어휘 5. 음식 5 부엌과 그릇 3	현신생 송순원	00:22:40	○
6. 가옥	어휘 6. 가옥 1 형태와 배치, 내부구조 1	송순원	00:51:39	○
	어휘 6. 가옥 2 내부구조 2, 연장	송순원	00:19:39	○
7. 생업	어휘 7. 생업 1 농업 1	현신생 송순원	00:58:46	○
	어휘 7. 생업 2 농업 2	송순원	00:54:26	○
	어휘 7. 생업 3 농업 3, 어업, 기타	송순원	00:05:37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송순원	00:22:47	○
9. 민속	어휘 9. 민속	송순원	00:32:56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송순원 현신생	00:47:47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들			
	어휘 11. 자연 2 바다, 시후, 날씨	송순원 현신생	01:24:04	○
	어휘 11. 자연 3 방향	송순원 현신생	00:04:49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가축	송순원 현신생	00:27:29	○
	어휘 12. 동물 2 벌레와 곤충, 들짐승, 날짐승, 바다동물	송순원	00:56:51	○
13. 식물	13. 식물 1 풀 1	송순원	04:51	○
	13. 식물 2	송순원	00:46:19	○
	어휘 13. 식물 3 풀 2 나무, 열매, 바다식물	송순원	04:48:39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순자 #1: 송순원 #2: 이미생 #: 현신생)

1. 조사 마을

101001 @ 삼촌, 이 마을 그 형성이 어떻게 됐덴 헐 거예, 아 그것 쫘 알아줍서?

101001 #1 이 마을이 형성이 어떻게 이 돼어신고 허니까 우리도 어린 때 그 어른덜 곤는 거 보면은 육백년 돼엇덴 허는디.

101001 @ 예.

101001 @2 자단리?

101001 #1 곳산이라서.

101001 @ 곳산?

101001 #1 개난 나무 베여 데껴된 그대에 지금 폭나무영 느티나무영 잇는 게 그때는 제일 작은 걸로 냉긴다는 게 켈 작으니까 제일 작으니까 냉긴 거. 그래서 나무로 헤가지고 마을이 생긴 지가 육백 년 됐다 이렇게 저 나무를 봐서.

101001 @ 예.

101001 #1 누게 뭐.

101002 @ 뭐 천년이여 뭐여 영 골암선계마는. 이 성읍리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로 이뤄졌수가?

101002 #1 강씨 홍씨 이씨. 성읍리는 잡씨가 별로 없수다.

101002 @2 강씨?

101002 #1 강씨 이씨 홍씨 송씨 조씨 그 외 무슨 뭐 신씨니 뭐 이런 성들은 별로 엇어마썸.

101003 @ 음, 그러면 거의 일가 방상들이 좀 많으켜예, 여기예.

101003 #1 예.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허면서 살아가는 거예 알아줍서?

101003 #1 지금이나 농사 지영 살아신디 농사 힘들엿덴 농사덜 설러부러된 이젠 식당허는 사름 전부 밧은 임대 쥐 불엇주 뭐. 자기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성읍리 십프로 웨카? 십프로 안 웨주. 우리 동네도 한 칠십호 웨는데 세 사름벧기 농사 안 지어.

101001 @ 그러면은 성읍리는 멧 개 마을로 형성된 거라마씨?

101001 #1 우리가 살고 잇는 디는 하동.

101001 @ 아동?

101001 #1 하동.

101001 @ 아 하동예.

101001 #1 서하동 동하도 서상동 동상동 이렇게 해서 네 동이주.

101003 @ 아아, 무사 옛날 책 읽당 보면 진사리여 무신 거여 이런 말덜도 잇언
게?

101001 #1 글썄 난. 진사리 말도 허긴 허는 디 날 별로 그런 건.

101001 @ 삼춘이 켜 오면은?

101001 #1 나가 큰 후제는.

101004 @ 동상 동하 서상 서하. 이렇게 네 개 반예.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내
창 바위 굴?

101004 #1 굴은 너분못케 잇고 소쟁이케 잇고 또 원남케 잇고 그케 생이케엔
현 디가 잇는디 생이케는 우로 들어가곡 우로 나오는벧김 못허는 케가 있어. 들어
가는 입구는 흔 사름벧기 못 들어가는다.

101004 @ 예.

101004 #1 안네 들어가면은 이 방 너서 이 방 합친 것만이 넓어.

101004 @ 어어.

101004 #1 한 사름 들어가곡 한 사름 나오곡 못허는.

101004 @ 거는 생이케. 곱으레 땡기고 허엿수가?

101004 #1 우리가 곱으로 땡긴게 아니고 스삼사건 지나서 보니까 그디 뭐 소뻘
긋튼 거 잇는 거 보니까 폭도들이 살아나지 아년가 생각이.

101004 @ 건 생이케고 다른 케들은?

101004 #1 다른 켜 이디 넓은케 잇고 수쟁이케 잇고 원남개케 잇고.

101004 @ 그런 데서는 살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예?

101004 #1 그렇게는 아녀보고 웨정 때에 아버지네가 왕 폭격허민 케에 숨을라
고 우리 어린 때 케에 간 돌로 상자리놔서.

101004 @2 상자리예?

101004 #1 음.

101004 @ 상자리허는 거는 무신 말이우과?

101004 #1 켜상 모양으로 켜켜하게 울통불통 허주게.

101004 @ 케는?

101004 #1 밑창이 울통불통허니까 돌로 멘썩허게 깔앗다니까.

101004 @ 거기는 잠자거나 앓양은에 할 수 잇는 거라예?

101004 #1 폭격 올 때 그디 강 그 피신히젠 그디 간.

101004 @ 어느 케마썩?

101004 #1 어디? 아시케엔 현 디가 잇어. 요디.

101004 @ 아시케?

101004 #1 가시리레 가는 길 이편이.

101004 @ 이 동네는 꿔들이 으라 개 이신 편이우다예?

101004 #1 아니 세 개.

101004 @ 세 개?

101004 #1 생이래까지 네 개 잇엇구나.

101004 @ 오름은 이디 유명헌 오름 잇지 아녀우과?

101004 #1 여긴 영주산. 저 모지악 여기서 쯤 큰 오름은 영주산허고 모지악벧긔 없고. 이 근처는. 여기는 남산봉 잇는디 남산봉은 저거 오름은 크지 안 허여. 족아.

101004 @ 그러면 성읍리 지경에 오름은 세 개?

101004 #1 예.

101004 @ 그 오름마다 얹힌 이야기덜도 잇어마씨?

101004 #1 성읍리 저 경계 내에 잇는 오름은 좌보미라고 잇어. 좌보미 동산 아홉 형제엔 허는디 동산이 숫자가. 촌 그건 거리가 멀주. 이디서 한 오 킬로 혼 육 킬로쫌 가야.

101004 @2 예.

101004 @1 그러면은 그 남산봉허고 영주산은 ㄱ튼 겨우과? 딱나?

101004 #1 딱나주게. 남산봉은 여기 보이는데 기고 영주산은 이쪽에 잇는.

101004 @2 큰 거.

101004 @ 아, 영주산에 얹힌 이야기 이런 거는?

101004 #1 영주산에 얹힌 이야기가 뭐 잇어? 그대로 거기서 소 길르고 돌 길루 곡만 허단에 이 지금은 마을별로 공동묘지 생기니까 그디 공동묘지 **.

101004 @ 음, 경허여도 다른 마을하고 트나 갖고 오름이렌 안 해근에 산이엔 허지 아녜니까예? 영주산은.

101004 #1 영주산은 저게 원래 산으로 돼 잇어. 요디 모지악엔 현 거 오름으로 돼 잇어.

101004 @ 제주도에 산이 몇 개 엇인디 여기 영주산 잇텐 허멍 그런 말도 잇어 예. 그 다음에 내도 잇어마씨?

101004 #1 내?

101004 @ 예.

101004 #1 올란이내엔 헨에 한라산에서 바로 직행 오는 내만 왓텐 허면은 이 남문동네 스방 사는 전부 물들영 해나신디 이젠 하천을 절로 이젠 막 크게 만들어 부리니까 뭐 물이 이레 오지 아녀는디 그 전에는 그거 만들기 전에만 큰내만 왓텐 허면 남문 동네 사는 사름은 전부 사오십 호 정도는 물바다가 돼여났주.

101004 @ 아아, 그 정도로 물이 넘치는 거라예? 아아, 그러면은 내는 그거 하나?

101004 #1 예.

101004 @ 올란이는 무신 말이우과?

101004 #1 올란이엔 허니까 모르주. 어릴 때부터 올란이내창 올란이내창 허니까.

101004 @ 그 다음엔 바위, 큰 엉덕이나 바위 잇수가? 유명한 바위들?

101004 #1 큰 바위는 없고 저기 가면은 백반통엔 현 딴 가면은 바위가.

101004 @ 예.

101004 #1 아메도 한 십 메다 높은 텔 거라, 우리 이렇게 안양은 열 발 둘레가 돼여.

101004 @ 아아.

101004 #1 그 놈을 이 시에서 아저간 보젠 멧 번 돌아봐도 지금도 가져가지 못허연.

101004 @ 지금도 있어예? 그 이름은 뭐엔 해?

101004 #1 선돌엔 허주.

101004 @ 선돌?

101004 @2 제주시는 무사 가져가젠 허는 거 닻수가?

101004 #1 모르주 뭐 그건 뭐?

101004 @ 선돌에 엽형 사람들이 그 돌 거시면 동티난다 그런 말은 안 하고?

101004 #1 그런 건 없고.

101004 @ 물들은 어떤 물들이 잇수가?

101004 #1 먹는 물 시건이엔 현 큰물 잇엇는디, 삼백육십오일 그물아도 물 브뜨지 아니주. 가시리 물 엇인디 가시리 사름들이 이 물을 길어단 먹엇는디 그걸 하천 공사 허멍 다 부서벗주. 이젠 물 안 앓아.

101004 @ 시건이물이 엇어저불엇구나예? 시건이물에 대한 엽힌 이야기들은 하신디 다른 거는?

101004 #1 동네마다 물통이 잇긴 잇엇는디 먹는 물통이. 동네 거는 언마 크지 아니니까 계난 대개 올란이물은 옛날도 잔치가 결혼식을 허나 영장이 나나 허믄 동네에서 부주로 막 허벽으로 강 물 질어죽고 마차 잇는 마차 행 간 사름은 도라무통 실렁 강 물 실러다주고 경 허멍 해나신디.

101004 @ 아, 계문 시건이물은 올란이내에 잇는 거?

101004 #1 올란이허고 연결웬 디라.

101004 @ 아아.

101004 #1 거기 췁풍산엔 현 디도 잇고. 췁풍산은 돌로 이렇게 바로 췁풍 모양으로 쳐진 돌이 잇어. 겐디 그 우로 물이 떨어지주게. 우리 어릴 때도 큰내가 안 온 때는 그디 강 우리 물 맞고 해난딘디. 하천 공사 허면서 **

101004 @ 계난 그런 게 문제라예?

101004 #1 다 뿌좌부런.

101004 @ 이젠 하천 해봐야 물도 하나도 엇언게.

101004 # 비오당 계문 엇어.

101004 @ 정소암은 어디우과?

101004 #1 정소암은 저 우에. 영주산 바로 서쪽 그디. 그 지금 그기다 저수지허는 디주.

101004 @ 저수지 만들안마씨?

101004 #1 지금 만들암주.

101004 @ 이제?

101004 #1 내년까지 완공엔.

101004 @ 원님들이 정수암놀이 헛덴 이런 말들 허잖아예?

101004 # 정수암놀이라고 헛 헛나다고 허든만. 제난 우리가 육지 문화재로 민속 경연 갈 때에 정소암놀이 가와서. 천안.

101004 @ 계영 상 받안 읍디가?

101004 #1 뭇.

101004 @ 상 받아 완?

101004 #1 국무총리상 받안.

101004 @ 대통령상 받았 읍디가?

101004 #1 아니.

101004 @2 건 채고상이고.

101005 @ 그 다음에 삼춘, 이 마을에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잇수가?

101005 #1 기관 아무 것도 엇주.

101005 @ 그래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거?

101005 #1 농협허고 신탁은 잇고.

101005 @ 학교는?

101005 #1 이게 바로 학교고.

101005 @ 학교는 초등학교?

101005 #1 초등학교뿐.

101005 @ 유치원?

101005 #1 유치원은 잇고예?

101005 @ 유치원은 잇고예? 다른 우체국은 없고.

101005 #1 우체국은 없고 전화국은 잇어.

101005 @ 계믄 기관은 전화국 농협?

101005 #1 신탁.

101005 @ 신탁.

101005 @2 학교.

101006 @ 그 정도갯다예? 아까 전화국허고. 예전에는 어떤 일허젠 허민 접 운영 헛잖아예. 접들.

101006 #1 서로 서로.

101006 @2 계, 계.

101006 #1 그렇게 해놔주. 옛날은 접이 많아. 이 산담접엔 현 사름덜토 잇고, 남 자덜토 접 허는 게 많고. 여즈덜토 접이 많았주. 큰일 나민 뭘 쏘로 갓당 부주해주 고 이렇게 접이엔 현 게.

101006 @ 삼춘이 들엇던 접은 어떤 게 어떤 게 잇수가?

101006 #1 우린 갑장훼허고 동네에서 친목회베킨.

101006 @ 아까 산담접은?

101006 #1 산담접은 혼 이십오년 동안 허단이 산담이 전부 공동묘지 가버리니 간 산담이 필요엇이니까 해산해부런.

101006 @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난마씨?

101006 #1 소임엔 현 사름 잇주게. 책임자 소임. 소임 한 사람허면은 이거는 개 인으로 갈랑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돈 모엿당 선들 선들 말일 뒤편이면은 뒤편 혼 머리 추렴허영 팔월맹질에도 그렇게 허명 돈은 갈라쓰지 아녀곡.

101006 @ 일은 ㄴ찌 간 번 거를 팔월맹질허고 선들 게영 그걸 이십오년?

101006 #1 이십오년 헛주.

101006 @ 그런 거 말고 화단접 이런?

101006 #1 화단접은 잇어났어. 겐디 다른 딴 다 잇어도 우리 동네 잇어.

101006 @2 화단도 잇수가?

101006 @1 어어. 그 화단접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수가?

101006 #1 그것도 집집마다 올레 차례로 돌아가명 해여. 그 책임 일년씩.

101006 @ 일년씩. 그러면 지금 화단접은 몇 명이서 운영허는 거라마씨?

101006 #1 이 동네는 전부 해.

101006 @ 이 동네, 하동은?

101006 #1 이 동네 가입허고 싶은 사름은 누구라도 가입행 헐 수 잇어.

101006 @ 돈을 내근에 운영허는 거우과?

101006 #1 딴 동네서 빌어갈 때는 임대료를 받는다 우리 동네서 사용헐 때는 무료.

101006 @ 으음, 성읍리는 공동묘지가 크니까 아직도 화단을 이용허는 건가마 씨?

101006 #1 계난 이 공동묘지 생긴 후에는 화단을 사용 안 헌텐 허니까.

101006 @2 계도 접은 잇고예?

101006 #1 병원에서 바로 공동묘지 와버리민 필요가 엇주.

101006 @ 그 화단 쓰는 사람은 이실 거 아니?

101006 #1 작년에 어디 도에서 무시거게 저 댜니? 곤젠허난 잇어불엇저.

101006 @ 탐라문화제마씨?

101006 #1 탐라문화제 갈 때 그거 행 가왔주.

101006 @ 삼춘 상여소리허고. 으음, 계난 요즘은 실질적으로 쓰지는 안 허고?

101006 #1 보관만 허고.

101006 @2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101006 @1 지금 여기서 만들어 언제쯤 만든 거마씨?

101006 #1 만들 건지 오래수다.

101006 @ 아아, 그 옛날 화단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수가?

101006 #1 화단 천으로 일부러 육지로 허영 주문해야돼여. 그 왜에는 남으로 텨는 주체적으로 나무 그튼 건 만들 수 있이난에. 옆이 돌르고 우에 영 더프는 옷은 육지로 맞추왕은에.

101006 @ 육지로. 동네 어른덜끼리 바농질 허영 만든 건 아니고?

101006 #1 바농질허영 그렇게 만들 순 엇어.

101006 @2 물켓낭은 몇 개우과?

101006 #1 다섯 개.

101006 @2 다섯 개.

101006 #1 다섯 개우다.

101006 @ 다섯 개. 그 다음에 이런 잔치허젠 쓸집이여 뭐여 허는 거?

101006 # 동네서 많이 그런 것들 헛주.

101006 @ 그런 것도 혼번 굴아줘봅서. 큰아덜 잔치허젠 허난 어떻 헤낫수가?

101006 #1 동네에서 접꾼 아닌 사름덜도 협조해주주마는, 접꾼덜은 한 이삼일 전에부터 왕 협조해주주게. 옛날은 다 집의서 허니까 삼일 동안 하루 드야지 잡아야지 가문잔치 해야지 삼일을 계속 그 친목헌 사름은 계속 왕 삼일동안 동상 가.

101006 @ 그게 예전에는 잔치허젠 해도 쓸 엇이난 잔치 허는 사름한이 쓸 혼가마니 갖다주고 허지 아님니까?

101006 @2 술?

101006 #1 쓸로도 가져가곡 허주마는 접꾼덜은 더 내놔 모영 앓다주주.

101007 @ 거는 약정한 대로 이렇게.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성읍 같은 경우는 민속마을이니까 남은 풍속이 많아예? 가장 큰 풍속이 어떤 게 남아신고마씨?

101007 #1 지금 풍속엔 해봐야 남은 거는 초가집덜벧낀 남아 잇는 거 엇어.

101007 @ 초가집.

101007 @ 해마다 성읍리 축제도 험수게.

101007 #1 마을축제.

101007 @ 예.

101007 #1 그거는 관광 보존마을이니까 관광손님덜 많이 오게 헐랴고 허는 거 지뵈.

101007 @ 특별하게 허는 건 옛날 풍습은 이 초집 이는 거?

101007 #1 예.

101007 @ 경해도 다른 지역보다 노래 같은 경우도 하영 남아 잇잖아예?

101007 #1 예, 노래같은 건 옛날 노래덜.

101008 @ 음, 그 특산물? 성읍리 특산물은 뭘?

101008 #1 성읍리는 특산물엔 현 게 별로.
 101008 @ 경해도 요즘?
 101008 #1 서쪽드레 가민 특산물이 많은디 여기는 주로 지금은 별로 아녀는디
 우리 커울 때는 고구마허고 뭐 저 감자허곡.
 101008 @ 예.
 101008 #1 또 무신 거 무허고 거벧긴 특산물엔 현 게 엇어.
 101008 @ 요즘도 늬빠 하영 갈아마씨?
 101008 #1 요즘도 늬빠.
 101008 @ 특산물은 늬빠렌 허믄 뉘켜예.
 101008 #1 쉼 많이 허는 게 무수라.
 101009 @ 무수를 쉼 하영 갈아예? 이 마을 자랑거리엔 허믄 뉘우과?
 101009 #1 자랑거리렌 잇어. 큰 나무나벧기.
 101009 @ 아직도 성담도 남아 잇고.
 101009 #1 성담도 허기야게.
 101009 @2 웃음.
 101009 #1 옛날 식으로 지금 잇질 아녀.
 101009 @2 으음.
 101009 #1 옛날은 담 넓이가 상당히 넓엇수다. 이 담을 일로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곡 적이 와가민 총도 쏘으는 총구녁이 잇수다.
 101009 @ 성에 올라가민.
 101009 #1 사삼사건 당시에 그렇게 해났는지 그루후제 사삼사건이 해지 해버리
 니까 돌덜 가져당 밧담덜 실러 당 밧담도 해부니까 돌이 원 없는 자리가 잇어났수
 다.
 101009 @ 아아.
 101009 #1 계난 그게 보존마을이 왜니까 복원허렌 헨에 전부 돌로 다 만들어
 놓긴 했는디 옛날만이 넓게 만들지 못 허연.
 101009 @ 이런 성담 우에도예?
 101009 #1 높이도 옛날만이 못허곡.
 101009 @ 여기는 또 벅수머리우과? 우석목 돌하르방.
 101009 #1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남문 동문 서문만 잇주.
 101009 @ 음, 이 동네서 돌하르방이렌 안 허연 옛날에 뉘렌 불럿수가?
 101009 #1 이 지금도 잇주.
 101009 @ 우성목?
 101009 #1 무석목. 무석목은 말 못 곶으니까 무성목이엔 무신 헤실 테주.
 101009 @ 말 못 곶으니까.
 101009 #1 아무거엔 곶아도 줌쫌허난.
 101009 @ 옛날은 그런 식으로 애길헛구나? 여기에 그 돌멩이 쌓아갓고예?

101009 #1 탑.

101009 @ 여기는 탑 몇 개 있어났수가?

101009 #1 성읍리는 요디 표선리레 가는디 거옥대동산이렌 현 동산인데.

101009 @ 예.

101009 #1 그디 탑을 쌓았는데 그게 왜 탑을 쌓았느냐 허니까 어르신덜 곤는 거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표선면 가면은 매봉엔 현 디가 잇는디.

101009 @ 매봉?

101009 #1 매봉을 비추면 마을에서 매봉을 비추면 해가 켜다해서 탑을 쌓다는 거야. 겐디 도로 허면은 그 높은 동산을 부좌불어서.

101009 @ 아이고.

101009 #1 길 빼면서.

101009 @2 일이 생겼지예?

101009 #1 생기명말명. 우리 동네도 칠십 전에 혼 해에 혼 으섯 사람이 죽어서. 우리 동네도.

101009 @ 칠십 전 사람이?

101009 #1 그 따문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따시 지금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탑을 쌓아났는디 그 따문엔달만 허니까.

101009 @2 아마 그 때문일 거우다.

101009 @ 계난 그 거옥대동산을 허물어똥 헛는데 지금 거기 거옥대 이십디다.

101009 #1 탑 동산이 남은 게 이시난 찢르단 남은 디가 쌓주게.

101009 @ 으음.

101009 @2 정자리가 아니고.

101009 #1 정자리가 아니우다.

101009 @ 그래도 동네에서 이제 저게 싸아야갯구나 헛나 보구나. 거옥대는 하나밖에 있어난마씨? 쥔 오랜 게 거기 거옥대구나예?

101009 #1 가정집의는 탑을 못 쌓게 허니까. 성읍리는 가정집의는 탑을 안 쌓아.

101009 @ 자랑거리는 그것 말고도 향교도 있고.

101009 #1 생교 잇주.

101009 @ 일관현도 있고. 이런 관아 건물 한 것도 성읍리 자랑 아닌가마씨? 제주도 에 잇는 데가 거의 여기밖에 없으니까.

101009 #1 생교가 원래 저 고성 있어났는데.

101009 @ 예.

101009 #1 고성 잇다가 성읍리로 옮겨 오면서 요디 성전터엔 현 디가 있어.

101009 @ 성전터?

101009 #1 거기를 지을라고 재료를 갖다 댓는데 그날 즈녁에 그 불 난에 그 재료가 타버리니까.

101009 @ 예.

101009 # 위님이 완 이디 짓지 말렌 헨 안 지엇젠 험디다.

101009 @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

101009 #1 간 자리가 그딜 갖추게. 성전 자리는 그디 질 처음 짓젠 험낫덴 험디다.

101009 @ 그 다음은 아까 느티남하고 그 다음에.

101009 #1 팽나무.

101009 @ 이것도 오래 쥔 거잖아예?

101009 #1 하여간 육백오십 칠백년 쥔실 거라.

101009 @ 폭남에도 얹인 이야기가 이십디다. 옛날 거기 물 골른 거 먹으면 어평헌다.

101009 #1 그 나무도 시방 잇어.

101009 @ 그냥 잇어예?

101009 #1 우리도 그걸 질어당 먹어봤는디, 나무가 요렇게 생겼는디양?

101009 @2 가운데양.

101009 #1 가진 벌이가 물이 혼 허백 정도가 골라. 이 물이 생전 안 붓당 생전 안 몰라. 옛날 눈 시치믈 좋덴

101009 @ 가지 벌어진 디를 뭇렌 굴아마씨? 가지벌이?

101009 #1 가지 영 벌어젼주기.

101009 @ 거기 이런 호쟁이가 생긴 거라예?

101009 #1 지금도.

101009 @ 지금도 물골라마씨?

101009 #1 엇일 뎌 엇주.

101009 @ 그게 폭남이우과?

101009 #1 팽나무.

101009 @ 그 다음에 느티나무간 뭔가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허면 브름분다.

101009 #1 아니, 그거보단 저것이 나무가 이상험니다. 혼 해도 남쪽에 므녀 이파리가 돌을 적에 잇고 북쪽에 돌을 때가 잇고. 므녀. 게믈 어른덜 말씀이 저 가지도 므녀 돌는 짝이 풍년이 든다. 이파리 므녀 돌는 짝이 풍년이 든다. 남쪽에 므녀민 남쪽에 풍년 들고 북쪽에 허면은 북쪽에 풍년들고.

101009 @ 그 나무도 폭낭?

101009 #1 느티나무.

101009 @ 느티나무예? 그런 거 잇고 여기에 유명한 게 당도 유명하잖아예?

101009 #1 당이 여기 혼 나가 알기로 혼 다섯 개. 당 지금 다섯 개 혼 ** 잇어 낫는디.

101009 @ 당 이름은 어떤 거.

101009 #2 낮은 당 잇고 높은 당 잇고.

101009 @ 음.

101009 #1 또 잔인믈 가면은 저건 저건 배염당엔 허긴 허는디 흥나 있고. 안 할망 있고.

101009 @ 예.

101009 #1 저 거세기 문우당 있고. 문우당엔 현 당은 얼라이덜 머리 허멀 나면 은 메 행강 그디 강 ㅋ시허믈 우리 어린 때도 봐난.

101009 @ 허물당이고? 안할망은?

101009 #1 바로 현 청사 있는데 그디 있어.

101009 @ 거난 성읍리본향은 어디우과?

101009 #1 본향은 모르쿠다. 우린 어디산디.

101009 @ 아, 게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당은 요즘은 어디마씨?

101009 #1 안할망한티 가. 옛날 할망인디 성격이 상당히 좋아났젠 험니다. 게난 췌 지영 영창에 들어간 사름 많이 다니곡.

101009 @ 예.

101009 #1 그 당에. 또 학생덜 시험보레 가젠 혈 때 그때덜 판 디서도 와. 난산 리 같은 디도. 게난 우리 장인 산 때 곤는 거 보니까 삼달리 사름이 이 제주시에 재판을 받으레 가는디 삼달리서 바로 이제 그저 시에ㄱ지 가젠 허믈 머니까 성읍리 에 왓당 누영가젠 오단에 아 질레에서 그 사름이 오단 보니까 장평이 담고냥에 머 털 처박안 시난 그걸 심어아져완에 그걸 잡안에 정성헤 간 안 할망안티 텡경 간 췌 를 면헤 나왔젠.

101009 @ 으음, 게난 그 장평 정성헤된 갓구나예? 아아.

101009 #1 이딘 대개 어디 시험 치레 갈 때. 그런 때덜은 판 부락에서도 많이 왔어.

101009 @ 그게 안 할망예? 알앗수다. 이 마을에 대헤 유명한 거 소리꾼덜도 많 다든가 이런 것덜 그거 곱아봍서?

101009 #1 소리꾼덜이 많았는데 거의 돌아가셔버리고. 지금은 살아잇는 분은 남 자덜은 엇고 여자덜 흔 두 분 쯤 살안.

101009 @ 소리 잘허는 분마씨? 누구누구 잘해마씨? 할망.

101009 #1 우리 할망.

101009 @ 이미생 할망예?

101009 #1 형순디 이미생 송민선엔 현 사름.

101009 @ 또 송침이네. 옛날부터 이 송침이가 노래를 잘 불렀구나.

101009 #1 몰르쿠다.

101009 @ 웃음. 삼춘네 일가우과?

101009 #1 우리허고 일가는 아닌테 그 사름네가 원래 어디 대정 사름인디 처가 가 이 성읍리니까 성읍리 완 살아십주게.

101009 @ 예.

101009 #1 살단에 죽어버리난 그 사름네가 일가가 엇수다. 족보상으로 하도 일가만 붙여달렌 혜연 우리신디 완 일가로 헨에 족보도 만들고 헛는데. 그 사름네 서대정 살단보난 초상이 어디 신고 모르고 아들 헛나 잇는다.

101009 @ 신평 쪽에도 송씨 잇고 그 다음 여기 송지준 하르방네는 ㄱ튼 일가 아니렌 헛잖아예?

101009 #1 누게?

101009 @ 송지준 하르방네?

101009 #1 예예 그딤.

101009 @ 송침이도 으라 가지네.

101009 #1 본이 일곱 가지.

101009 @ 예예. 알앗수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제부턴 삼춘 나고 자란 과정 들어보쿠다. 언제 어디서 낳서 어떻게 살앗수가?

102001 #1 우리 낳기는 여기서 한 오백 메다 쯤 가면은 우리 아버지네 그 살단 자런디, 거기서 낳안에 나가 열네 설에 일차 습격을 성읍리 들엇는다, 내가 국민학교 육학년 때에 일차 습격 들언 성읍리 춤 불타불언 헛는데, 거기서 살단에 거기서 결혼허고 살고 허단에 나가 한라산에 도벌목을 많이 헤낫수다게.

102001 @ 예.

102001 #1 도벌목 헤단에 땅 우리 아버지가 백오십 평 짜리 사주난 나대로 집을 완전히 수리 못허언 군인 가불어서. 군인 간 그 지금 처허고 결혼은 군대에서 휴가완 결혼허고.

102001 @ 혼자 독수공방하셧네. 군인 가부니까.

102001 #1 게난 씨아버지네 허고 ㄱ찌 살앗주.

102001 @2 음.

102001 #1 ** 나 십이월달에 결혼허고 뒷해 나니까 구월달에 구 개월 만이 제대헨 오난 그 집 짓어난 디가 딱로 살렌 헨에 딱로 살안.

102001 @ 삼춘 집 짓단 싸둔디 간 살앗네.

102001 #1 갓다완 제대헨 완.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들을 한 거라마씨?

102002 #1 우리 아버지넨 농사. 나가 결혼헨에 우리 장인이 물을 많이 헛는디 당신은 장인이 자식이 없어.

102002 @ 음.

102002 #1 게난 우리 집 사름도 저거 장인 자식이 아니라.

102002 @ 음.

102002 #1 우리 그 장인 처가 우리 집 사름 고모주. 계난 고모네 집의 완 어릴 때부터 살명 허니까 딸로 헨에 거기서 살안 결혼식도 해주고.

102002 @ 그러면 아버지 고향도 성읍이고?

102002 #1 예, 우리 십사대째.

102003 @ 성읍리가. 어머니는?

102003 #1 어머니는 가시리고.

102004 @ 어머니는 가시리에서 여기 씨집은 거구나예? 그 다음에 삼춘, 어린 때는 어떤 놀이들 해신고예? 삼춘네 어린 때는.

102004 #1 비석치기엔 헨에 돌로 저기 맞추고 돌생기[돌쟁기] 다마치기허곡. 고냥치기엔 현 거는 동전 엮이난 사그망치주제기 툄랑 고냥치기 허곡.

102004 @ 고망치기허고? 그것만 해봣디가?

102004 #1 그것벳기 더 험 게 뭐 잇어?

102004 @ 몰탈락은 아녀보고.

102004 #1 몰탈락은 나가 열일곱 설부터 마차허기 시작을 몰탐을 베완.

102004 @ 그때는 마차허민 어떤 일을 현 거마씨?

102004 #1 마차 일은 많주. 팔월나면은 출 비면은 밧디 놀엇당 마차로 실영와야 주. 뭐 돛가래도 허민 마차로 시꺼가야지. 전부 마차벳기는 운반험 게 엮이난. 차도 엮고 아무것도 엮이난 마차로만.

102004 @ 그거는 우리 집 일 말고 남의 집 일도 허는 거우과?

102004 #1 하루 일 해봐야 하루 혼 팔백 원. 팔백 원벳기 일당도 못 받안.

102004 @ 그 마차를 이 동네는 바레기렌 험니까?

102004 #1 바레기. 구루마, 구루마.

102004 @ 아아.

102004 #1 그때는 마차조합이 잇어.

102004 @ 음.

102004 #1 성읍리서도 마차가 좀 많긴 헛는디 열두 사름이 조합을 헛는디. 짐새엔 현 게 잇어이. 짐새.

102004 @ 예, 예, 예.

102004 #1 팔월에 비면은 새가 파랑, 새파랑허주. 그거 당케에 실렁 가는 것도 조합에 들지 못허민 운반을 못허여. 겨울 틀면은 황모로 뿔 짜냐 허민 뜸.

102004 @ 예.

102004 #1 뜸은 인삼밧디 더끄는 거. 그것도 실러가곡. 마차 험 일은 하주.

102004 @ 짐새는 어떤 식으로 만들엇던 거우과?

102004 #1 짐새는 팔월나민 비주. 팔월 멩질 낫나믄 비여야 돼여. 그 색깔이 파랑험 때 비면은 몰류와도 파랑현 냥 잇어. 김을 부찌는 거는 안 허여마씨?

102004 @ 김 부치는 거는

102004 #1 그 사름네가 짱 허주게.

102004 @ 짐새로만 푯는 거라예? 깨끗허게만 헤갓고, 그걸 청새로 비영 허는 겨우과?

102004 #1 황새는 가을에 비주.

102004 @ 뜸은 황새로 허고? 으음.

102004 #1 저걸로 뜸 짜주.

102004 @ 아아, 짐새는 청새로 비영 허고 황새로 황모엔도 허여?

102004 #1 황모엔도 허고 새엔도 허곡. 새로 많이 헛주.

102004 @ 어딘 가난 익은 새엔도 헛디다.

102004 #1 어딘 가난 늙은 새엔도 허는 디가 잇어.

102004 @ 늙은새엔도 헛디가? 그걸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마차조합에서.

102004 #1 예.

102004 @ 육지로 수출허젠 허난 당케로 간예?

102004 #1 당케 가야 베에 실를 거난.

102005 @ 그 다음엔예, 그 공출? 삼춘도.

102005 #1 보리 공출.

102005 @ 일제 때 공출헤난 거 들어봔디가?

102005 #1 아, 우리 아버지네 공출허는 걸 나가 봤주. 보리벧긴.

102005 @ 감저는?

102005 #1 고구마는 빼데기 헤영 푯는 건 봤는다. 낫그릇 많이 공출헤가고.

102005 @ 으음, 삼춘네 것도 낫그릇.

102005 #1 우리 아버지네 집의도 제사허난 저 가져가지 못허게 힘으로 구들 청장에 올려놔신디 어떻사 알아신디 면에서 완 좇아가부런. 그땐 면서기덜.

102005 @ 그게 다 총뿌랭이 만들젠 허멍 가져간 거 아니라예?

102005 #1 그게 춤 낫그릇 비행기 만든덴 허더고. 일본 간.

102005 @ 아, 비행기가 만드는 저기고. 그 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거난예? 공출 때문에 막 배고팠던 경험은 엇어마씨?

102005 #1 하영 잇주.

102005 @ 어떻 배고팠수가?

102005 #1 보리 공출 헤면은 경 아녀도 식량이 모지랜디 보리공출 멧 가마 허민 바쳐버리면은 팔월 나면은 쫄 떨어지면은 어머니네 종달리나 함덕 근방에 내년 보리 나민 물어주켄 허멍 장례 빚져. 우리 그렇게 허멍 살안.

102005 @ 장례 빚지레예? 굶영은에 장례 빚정 온 덴 헤도 또 굶잖아예? 굶을 때 뭐 구황식물로 행 먹는 거 잇어마씨?

102005 #1 먹을 게 아무 것도 엇주 뭐. 고구마나 이시든 땅 팡 묻엇당 겨울에 땅 팡 묻엇당 그거나 청 먹음벧기 원.

102005 @ 밥도 두 끼만 먹고 영 헤시켜예.

102005 #1 두 끼 먹을 때가 해주. 게난 놈의 일 허레 가면은 놈의 일 어디 이시
민 그런 디만.

102006 @ 으음. 집에는 먹을 거 없고. 사삼 때도 하영 힘들게 살았지. 사삼 애
기 해봅서?

102006 #1 사삼 때 힘들었주. 우리 아버지네 집의 세 거리랴는디 우연에 조눌도
눌고 피눌도 눌고 쉼 먹을 출눌도 눌고 헛는다. 게난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
니고 그 곡석눌에 완 불을 부쳐부니까 집 윗이니까 그땐 게연 집 세 거런디 두 거
런 타불고 혼 거리 안 탄 헛는다 스삼사건에 그렇게.

102006 @ 뭐 피해보거나 이런 건 었고?

102006 #1 피해는 불 부쳐부니까 그놈덜 완 불 부쳐부니까 다 타벗지.

102006 @ 사람이?

102006 #1 사람이 죽거나? 뭐허진 안 하고.

102006 @ 성읍은 돌아가신 분은 하지 아녀지 않읍니까?

102006 #1 1차 습격 때에 성읍리사 흐루에 일차 습격에 죽은 사름이 마흔 사름
이 죽고 이차엔 다섯 사름인가 죽고 헛주. 이차에는 성을 쌓아버리니까 성 안티렌
못 들어오니까 성벧긔 다니는 사름은 죽여분 거주.

102007 @ 음, 그 다음에 결혼은 중매결혼 헛디가? 연예결혼 헛디가?

102007 #1 나 군대 가기 전에 좀 알앗단애.

102007 @ 예.

102007 #1 게난 자꾸 편지로 지금 집의, 아버지네안티 이제 그디 강 새각시 구
해근에 자꾸 편지를 허난.

102007 @ 그 전에.

102007 #1 안면은 잇엇고.

102007 @ 어떻 알아수가?

102007 #1 같은 동네난.

102007 @ 그때부터 마음에 연정은 품어났구가. 그렇게 해서 연애반 중매반.

102007 #1 그렇주.

102007 @ 만나기도 허고예?

102007 #1 군대 가기 전에 만나단.

102007 @ 군대 휴가 완 결혼해볼엇구나?

102007 #1 그때도 휴가 오젠 허면은 이 신부 사진 편지 소굽에 봉토 소굽에 보
내지 않으른 휴가를 안 줘. 딱 사진 낱 신부 사진 낱 보내사.

102007 @ 음, 게른 강 결혼행 올 걸로 해근에.

102007 #1 특별휴가에 헛 십오일 주주.

102008 @ 그 다음에 사주도 봤겟다예?

102008 #1 사주보난 좋으난 잘 살암주. 진짜.

102008 @ 웃음.

102008 #1 촌에서 하영 벌어서.

102008 @ 하영 벌었수가?

102008 #1 아이덜 칠남매 다 결혼시키고 아덜덜 성제 시에 간 집 사고. 우리 이것도 내가 이 팔십이년도에 지었는디 이거.

102008 @ 예.

102008 #1 팔십이년 지을 때에 쳃아덜, 큰아덜 줄 거난에 아시에 큰아덜 이름으로 집을 건축허가 받은 땅 이전도 아덜 이름으로 이전해볼곡. 게난 난 시방 삼십이년 저 집 웃이 놈의 집 살암서. 놈의집 살암서.

102008 @ 웃음.

102008 #1 게난 나 재산새 안 내.

102008 @ 삼촌 기초연금 받암신게에.

102008 #1 재산이 었어. 재산새 십원도 안 내.

102008 @ 미리 다 줘불언?

102008 #1 우리 막냉이아덜은 열아홉 설에 나가 재산을 줌 이전을 했주. 아메도 줄 거난 해분덴 허연. 세무소에서 벌금이 천만 원 나와불어서.

102008 @ 증여세 나와불엇구나?

102008 #1 세무서에 어떻게 간 아이고, 아저씨 성질 급허겐 험디겐. 무사 일년 스물 말 미성년자가 안 텔 건디 열아홉 설에 해부난 벌금으로 이거 천만 원이우텐. 막 스정해연 칠백만 원 물어서.

102008 @ 웃음. 미성년잔 돈도 벌 수도 없는디.

102008 #1 미성년잔 재산 이전에 췌덴 벌금이렌.

102008 @ 벌금 물명까지도 다 분깃해불언예?

102008 #1 경허난 좋긴 허고 이젠.

102008 @2 자식덜이 너무 착허우다게. 지금 가끔 들려오는 애기덜 보면 그렇게 자식덜안테 재산 물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안 본다고 허는 거라예.

102008 #1 부모 박대허면은 반환 좇아앗아불주.

102008 #1 법이 경 됩수게.

102008 @2 최근에 바파지긴 헛는데.

102008 #1 좇아 앓아불주뒈.

102008 @ 용돈 받암수가?

102008 #1 용돈은 아저오주게. 용돈은 아저오는디 밧 임대해도 돈은 통장으로 부쳐줘불어. 나 그거 아니라도 먹영 살 거난.

102008 @ 자식들안테 밧 임대허연 농사 지엄서마씨?

102008 #1 아니, 아니. 놈이 허는디 나신디왕 임대료 가이네 통장으로 부쳐줘.

102008 @ 아이고 분깃해도게 살아생전에야 밧 나오는 거는 삼춘네가 먹어사주. 그거 안 해도 먹을 많이 잇는 생이라예. 삼춘 통장에 돈이 한 모냥이라.

102008 #1 나 그런저럭 오륙십만 원 나오난 그걸로 먹영 살주봈.

102009 @ 알아수다. 옛날에 결혼할 때에 혼수품 결혼 예물 이런 것도 해줬마
씨?

102009 #1 옛날은 그런 거 없주.

102009 @ 우리 여자 삼춘은 뭐 행 와십데가?

102009 #1 이불허고 퀘허곡.

102009 @ 이불허곡 퀘허곡.

102009 #1 그거라 원.

102009 @ 삼춘이 해 준 거는?

102009 #1 나 해준거 나 군대가 이신 놈이 뭐 해줘.

102009 @ 결혼허젠 허민 여자 안테도. 여자 집에를 보내는 거 잇일거 아니마
씨?

102009 #1 여자 집에 보내는 건 옛날은 없고.

102009 @ 아아, 여자들만 해오는 거?

102009 #1 계난 여자덜 하영 해오지 아녀주게. 이불 헛나 퀘 하나.

102010 @ 경허곡. 그 다음에 결혼은 어디서 헨마씨?

102010 #1 아버지네 집의서.

102010 @2 아, 집에서예?

102010 @ 아버지네 집에서. 사진도 잇수가?

102010 #1 사진이 어디 잇어. 돈이랑말앙. 돈 잇어사 사진 찍주.

102010 @ 삼춘 집 마당에서만 저기 해수가?

102010 #1 톨탕 옛날은 가마 타곡 허영.

102010 @ 여기서. 아버지네 동네는 어디라난마씨? 거기는.

102010 #1 일로 이렇게 가면 사거리.

102010 @1 ㄴ튼 하동?

102010 #1 아니 그디는 동동.

102010 @ 동동.

102010 #1 동하동.

102010 @ 동하동. 거기까진 물을 탕 가곡.

102010 #1 여잔 가마 타고.

102010 @ 여자 삼춘네는 집이 어디?

102010 #1 저 느티나무 잇는디 바로 거기라.

102010 @ 그 느티나무 동네는 무슨 동네우과?

102010 #1 동하동. 동하동에서?

102010 #1 서하동.

102010 @ 서하동으로 가마. 여자 삼춘은?

102010 #1 가마타고.

102010 @ 가마 타고 옛날식으로 헛 거네예.

102010 #1 아주 옛날식이주.

102010 @ 그 기러기우과? 뭘우과? 이런 거?

102010 #1 아이고.

102010 @ 그런 건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현 거라?

102010 #1 가마 탕 오민 여기 왕 난 처가침의 강 상 받곡 새각신 시집이 왕 상 받고 허민 그게 결혼식이주.

102010 @ 상 받고 그게 결혼식? 받을 때 뭘 나와십디가?

102010 #1 신부상엔 해근에 옛날은 우리도 어린 때 그렇게 해 봤는디 신랑이 왕 상 받은 때난 신부가 왕 상 받은 때나 그 이 신랑이나 신부나 저 밥을 다 먹지 아녕양?

102010 @ 예.

102010 #1 옆에 영 아이덜 앓아시민 조끔식 수까락으로 떠 주주게. 그거 얻어먹을라고 아이덜 막.

102010 @2 창문에?

102010 #1 신부가 왕 앓이민 막 창문에 왕 밀리멍덜 뭘.

102010 @ 삼춘도 얻어먹어본 경험 잇어?

102010 #1 우리도 얻어먹어봤 어린 때.

102010 @ 얼마나 맛좋아예?

102010 #1 맛 좋주. 그때 곤밥이엔 현 게 힘들주.

102010 @ 성읍리 같은 경우는 피썰도 먹는 동네 아니라예?

102010 #1 피썰 많이 먹엇주.

102011 @ 신혼 살림은 어디서 현 거 결혼행은?

102011 #1 계난 아버지네 집의서 일년 살안 나가 군대 가기 전에 초가집 짓단 수장도 안 헨 나가 완엔 수리헸주.

102011 @ 결혼허니까 그냥 우리 여자 삼춘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삼춘이 제대 헨 완에 그?

102011 #1 흔 이십오년 살단 이디 집 짓언.

102012 @ 자제분은 어땡 똤마씨?

102012 #1 칠남매엔 허난.

102012 @ 계난 녹음허젠 허난 물어보는 거.

102012 @ 칠 남매. 아들 똤이고 딸은 똤 개?

102012 #1 아덜 둘.

102012 @ 딸 다섯. 젤 맏이가 누게우과?

102012 #1 맏이가 아덜.

102012 @ 아덜. 음 손지들은 똤이라마씨 다 합쳐.

102012 #1 딸이나 아덜이나 다 두 개라. 겐디 세 번채 딸만 네 개라.

102014 @ 음,

102014 #1 그 웨엔 다 둘씩.

102014 @ 완전 부자네. 자식들 결혼은 어떤 식으로 시켰수가?

102014 #1 어떤 식으로. 찡찡찡 찡 찡 찡 찡 생활이 좀 나아져가니니까 옛날 예식장이 어디 셔? 우리 아이덜은 다 예식장에서 헛주.

102014 @ 집에서 헛 사름은 엇고?

102014 #1 집에서 먹기만 헛주 예식은 예식장에 간.

102014 @ 집에서 아까 칠남매를 다 집의서 결혼시켰수가?

102014 #1 집이서.

102014 @ 다 집의서 일이 큰일엇겟다.

102014 #1 그렇지. 나가 우리 양모 부친네가 두 부체가 나가 살아났는디 그디 두 부체 삼년씩 육년 헤여, 장인 돌아간 삼년씩 육년 헤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간 육년 헤여. 나가 큰일을 혼 ㄱ만이 생각해보난 한 삼십 번은 헤진 거 다향.

102014 @ 음.

102014 #1 아이덜 다 결혼 시켜, 산담 헤여. 게난 나가 돈을 하영 벌엇젠 허난.

102014 @ 기둥 뿌리 안 먹을 일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헛잖아예?

102014 #1 하영 허주.

102014 @ 큰아덜 결혼헛 때는 도새기 멧 머리카 잡앙은에 결혼헛수가?

102014 #1 그때는 도새기 세 개. 지금은 다섯 개 ㄹ섯 개 잡아. 케긴 막. 그때는 도감 케깃반도 톡 허는 사름이 잇어.

102014 @ 예.

102014 #1 그 사름 빌어근에 헛는디 이제는 막 케기 썰영 내불민 지네 먹고 싶은냥 아상 먹어. 잔치밧디 가나 영장밧디 가나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 거.

102014 @ 잔치밧디든 영방밧디든 허젠 허면 반 놓는 거 잇잖아예? 그디 뭐뽕 뽕마씨?

102014 #1 고기가 족으니까 우의 전이엔 헛 게 잇어. 저 ㄱ뽕ㄱ르엔 헛 거 허영 지정 접시 동글락허게.

102014 @ 경허영 무신 거랜 헤여 그거를 반?

102014 #1 케깃반.

102014 @ 여기는 둠비 안 헤여?

102014 #1 안 허여.

102014 @ 표선도 안 허고.

102014 #1 그런 거 허는 디는 엇어. 이제는 허는디.

102014 @ 이젠 허고. 게난 고기는 딱 석 점.

102014 #1 음, 고기 석점 허영 수에 ㅎ나 뽕.

102014 @ 더프는 건 이름은?

102014 #1 전.

102015 @ 무슨 전 허여?

102015 #1 케기 접시에 더끄는 거 전이엔 허여.

102015 @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사위 자랑 해봅서?

102015 #1 사위 자랑 허난 마나 사위덜도 착하고 잘 사난 뭐. 게곡 나가 나 시
방 저 우리 셋뜰 사는 딴 시에 살아도 시청 옆이서 장사헌텐 해봣자 ㄴ자 혼번 가
보지도 못 해서. 뜰 사는 디엔

102015 #1 갈 일이 엇주게.

102015 @ 뜰은 여기 읍니까? 안 읍니까?

102015 #1 뜰하고 사원 오ندي 우리 아이어명은 혼 멧 번 가왓텐 허고라마는
난 어디. 시청 어디 그 짜장면 장사허는디 난 안 가뵈.

102015 @ 음.

102015 #1 뜰 두젠 흥난 부산 가고 흥난 일본 가고 시에 세 개 세 사름만.

102015 @ 예, 육지랑 일본 간 뜰도 잇구나예? 아들들은?

102015 #1 아들덜은 다 시에 살암서.

102015 @ 메느리 자랑 해봅서?

102015 #1 메느리덜도 다 착허여. 저거 아니라.

102015 #1 나 팔순잔치 사진.

102015 @ 아아. 메느리가 다 출런? 큰메느리?

102015 #1 큰메느리영 죽은메누리영 몽창 속앗주. 돈 하영 들엇주.

102015 @ 메느리마씨?

102015 #1 큰뜰은 요 붉은 옷 입은 게 큰뜰이라.

102015 @ 여기가 큰뜰.

102015 @ 이것도.

102015 #1 그건 죽은메누리.

102015 @ 여기도 뜰.

102015 # 그게 이 짜장면 장시허는 세번채 뜰.

102015 @ 여기가 제일 큰뜰이고. 둘은 님앗저.

102015 #1 저 췌이 앓인 건 알로.

102015 @ 이젠?

102015 #1 그건 막둥이뜰.

102015 @ 막둥이뜰, 여긴 누게우과?

102015 #1 건 네번차.

102015 @ 딸들이 딸 다섯이구나. 다 와났구나예? 일본에서도.

102015 #1 일본에서 사위ㄴ지 와났주.

102015 @ 어느 거우과? 일본에서 사는 뜰은 이거?

102015 #1 어.

102015 @ 이디 영 님안네.

102015 #1 그 안경 쓴 게 일본 사위라.

102015 @ 이거?
 102015 #1 이쪽에 거. 저쪽엔 거는 손지고.
 102015 @ 여기 손지우과?
 102015 @2 일본 사원
 102015 @ 여기는 두에 누게우과?
 102015 #1 큰아들이고.
 102015 @ 큰아들은 멧 살마씨?
 102015 #1 쉬은넷.
 102015 @ 큰아들? 큰 아들은 지금 멧 살마씨?
 102015 #1 쉬은넷.
 102015 @ 완전 손지들이 다 커신게. 이거 다 손지 아니?
 102015 #1 아니, 두 번째 사위고.
 102015 @ 여기 사위?
 102015 #1 막둥이 사위만 바빴 직장 바빴 오지 못헤영 다 와난.
 102015 @ 아이고게, 재산 엇어도 돼쿠다. 사진 속에 짝 차 잇는데 뭐?
 102015 #1 손손지 봐신디.
 102015 @ 손손지까지 다 봐불언예? 모두 엇수가? 이거 말고 가족에 엇인 이야
 기 중에 아이고 나 누게 때문에 고생헐저. 누게 때문에 나 살앗저 허는 말 이런 말
 이시거나 헛 말 곱아줍서?
 102015 #1 아이덜 때문에 고생허는 거는 엇고, 우리가 저 큰딸 춤 학교 시가지
 못 헛 게 쥔일. 다른 것덜은 허는 체 헤신디. 자이 헛 때는 농사는 하영 헤낫지 둘
 만이라부난 늙은 빌지 못허지. 그때 우리 유채 만 평까지 갈아나서.
 102015 @ 유채 막 환금작물 헛 때로구나.
 102015 #1 계난 자이보고 학교 흘 수 엇이. 이젠 막 지 학교 안 보내쥔젠 원성
 을 해. 계난 둘만 우린 밤이 줌 멧 시간 안 자쥔주.
 (중략)

3. 밭일

103001 @ 삼촌, 이제는 밭일예? 이 성읍리에서 밭일은 예전에 어떤 일들을 하
 영 헛수가?
 103001 #1 밭일은 무시거 헛 거라. 옛날은 이디가 이 우리는 안 봐서 그 우리
 춤 조상님들이 애길 허는 거 보면, 이 성읍마을이 원래가 산곶이랴[산꼬시라서].
 산곶.
 103001 @ 음.
 103001 #1 전부 나무. 산곶인디 이걸 전부 비여내고 이거 마을을 만들엇텐 허는

다.

103001 @1 예.

103001 #1 계난 그때 당시에 밭을 뿔로 일궈놓고허니 밭을 만들엇는고 허니 따비.

103001 @ 예.

103001 #1 따비 두 갈래 따비가 있어. 이 북군에는 따비가 하나고, 이딘 두 갈래.

103001 @ 음.

103001 #2 이걸로 썩밧을 갈아엮어서 밭을 만들기 시작했주.

103001 @ 음.

103001 #1 계연 따비가 막 우리도 역은지 후제도 따비 가전 갈래 뎡겨났는디, 이젠 따비가 거의 엮어져벗주마는 그렇게 해서 이 저 성읍리가 농사를 허기 시작한거주.

103001 @ 음, 쟁은에 그 밭일 종류는 어떤 종류 잇는 거마씨?

103001 #1 종류는 겨울엔 보리 갈고,

103001 @ 예.

103001 #1 밀 갈고 여름 나민 조 갈고 산디 갈고 믯물 갈고 피 갈고 그거 ㄱ랑 좁쌀이엔, ㄱ랑조엔 현 게 있어.

103001 @ ㄱ랑조, 예.

103001 #1 그거허곡 헐 살앗주뒤.

보리농사

103002 @ 예, 알아수다. 계문 이제 보리 농사, 농사를 여긴 용시렌도 곶암수가?

103002 #1 어?

103002 @ 여기는.

103002 #1 농스 다 헛어. 농스 다 헤여 영.

103002 @ 농스. 계민 보리농스 지어봣주예? 보리농스 짓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헌고양?

103002 #1 보리농스를 짓젠 허민 보통 보리는 겨울 뽕영 입동이 뽕면은 봄이 뽕면은 밭 저 돛통에 그 돛걸름.

103002 @ 예.

103002 # 돛걸름을 마당에다가 내여.

103002 @ 예.

103002 #1 보리씨 거기다 뽕영 췌 또 마당에 강 돛걸름을 불르주.

103002 @ 예.

103002 #1 돛걸름을 마당에다 내여.

103002 @ 예.

103002 #1 또 뒤집어놔 보리씨 거 돛가레 불르주. 두집어놔 씨 밋디 밋디 뿌령
쟁기로 밋을 갈아엎어근에 현 것이 그 보리농사주.

103003 @ 음, 계난 씨를 걸름에 이제 헨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구나예?
예, 그 다음에 보리밭 걸름 허젠 허면은 걸름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허는 거라마
씨?

103003 #1 걸름.

103003 @ 어떻게 만든 거?

103003 #1 그거.

103003 @ 예.

103003 #1 이 소 오양간에다 소 길루다근에 소걸름도 갖다 놓곡. 돛통에.

103003 @ 예.

103003 #1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검질 같은 것도 갖다 놓곡 이렇게 해근에 일
부러 보리 농사 짓젠 그 돛걸름 만들젠 막 허주.

103003 @ 음.

103003 #1 거의 거의 소털을 많인 안 길봐도 멧 개씩은 길루난 소걸름덜토 많
이 갖다 놓곡 그렇게.

103003 @ 음, 계난 그 소걸름예? 여기는 쉼걸름?

103003 #1 쉼걸름.

103003 @ 쉼걸름을 게른 돛통에다 또 집어 놓는 거라마씨?.

103003 #1 어.

103004 @1 경혜영 이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리는 언제 간다고마씨?

103004 #1 입동 돼여사.

103005 @ 입동에. 입동에 해서 이제 가는 거고, 보리씨는 아까 어떻게 뿌린 거
라마씨?

103005 #1 돛걸름에 해다 낵.

103005 @ 으.

103005 #1 이디 마당에 짹허게 갖다 놔놔 씨 뿌령.

103005 @ 음.

103005 #1 쉼로 불령.

103005 @ 음.

103005 #1 또 이 놈을 걸 뒤집엉 또 씨 뿌령 쉼로 불령 이거 모여놔당 뒷날은
밋디 시꺼다근에 시꺼다근에 저 듕성듕성 놓주게.

103005 @ 예.

103005 #1 듕성듕성 농민은 여자덜이 강 이젠 돛가레 논다고 해서 돛가레 강
놔 손으로. 돛가레 허끄민 갈아엎으주.

103005 @ 갈아엎으면 낵.

103005 #1 음.

103005 @ 으, 돛가레를 읊길 때는 어떤 식으로?

103005 #1 쉼로 읊기주게.

103005 @ 쉼로. 예.

103005 #1 질메 지왕은에 돛가레착엔 헛 게 잇어, 멍탱이. 멍탱이에 돛가레 담
앙 혼 갓당 밧디 강 뿌리주.

103005 @ 예, 그?

103005 #4 것도 쉼질메도 잇어사 시끄는 거주게.

103006 @ 예, 맞수다. 쉼질메도 잇어사 헛. 그 옛날도 보리밧 보리 나면, 보리
종류부떠? 보리 종류 이 성읍에서.

103006 #1 솔보리. 솔보리.

103006 @ 솔보리.

103006 #1 지녕이보리허곡 그거라.

103006 @ 지녕이보리 보리는 두 가지?

103006 #1 것보리가 잇어어. 것보리.

103006 @ 아, 것보리. 것보리는 어떤 겨우과?

103006 #1 것보리는, 쫄보리는 이 껍데기가 안 썩와지는데 것보리는 껍데기가
썩와져.

103006 @ 음.

103006 #2 거 맥주헛 거, 술 헛 거.

103006 #1 맥주맥허고 틀려.

103006 @ 게문 주녕이보리는 뭐우과?

103006 #1 맥주맥. 지금 말로 맥주맥이라. 지녕이보리가 맥주맥이고.

103006 @ 지녕이보리허고 것보리하고는.

103006 #1 것보리가 잇어서.

103006 @ 어떤 식으로 트나마씨?

103006 #1 모양도 틀려.

103006 @ 어.

103006 #1 방울 자체가 쫄롬쫄롬허고 이 껍데기가 썩와져 잇어.

103006 @ 아, 요즘은 그런 보린 엇수가?

103006 #1 엇어, 엇어.

103006 #2 줄보린 밥해먹는 보리.

103006 #1 쫄보리가 밥해먹는.

103006 #2 줄보리밥이 맛싯텐 헤나신디 그 것보리엔 헛 건 완전 팡보리.

103006 @ 팡보리. 팡보리가 것보리구나.

103006 #2 팡보리가 그 저 곶알 술이나 허곡 허는 사름덜 허는 거 누룩허는 거.

103006 @ 누룩허는 거. 밥 허젠 허민 맛이 없구나예?

103006 #2 맛 엇인 거. 쉼 못생긴 거.

103007 @ 여기도 보리밭 블라수가?
 103007 #1 봄 나민. 보리 나민.
 103007 @ 그 얘기 한번 해줍서.
 103007 #1 그거는 왜냐든 겨울에 눈이 오면은 땅이 갓으민 땅이 들리지주게.
 103007 @ 예.
 103007 #1 게민 이 보리 뿌리가 땅하고 비어져.
 103007 @ 예.
 103007 #1 게민 이걸 블라줘야만 뿌리가 땅에 부평은에 크주. 경 아년 현 거는 많이 저 죽어봄도 허여.
 103007 #2 죽어불어, 죽어불어.
 103007 @ 죽어불어. 경허니까 게민 보리 블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블르는 거라.
 103007 #1 사름덜로 허고.
 103007 #2 이녁 보리만씩덜 블랏주.
 103007 #1 이녁 보리만씩..
 103007 @ 발로 똑똑 블르는 거라예? 보리 블리젠 허영 연날리거나 이렇게 허진 않고?
 103007 #1 아니 아니.
 103007 #2 발로 블라불민 카져불게.
 103007 #1 물 잇는 사름은 이녁 물 가져다 강도 블리곡 허여.
 103007 #2 들로 보리 블라불민 보리가 웨여?
 103007 #1 웨여. 카져벼도 아무통도 안 험니다. 금방 자라나니까.
 103007 #2 블르는 사름은 블라도 안 블르는 사름은 안 블라.
 103007 #1 안 블랑 내부는 사름도 많고.
 103008 @ 경허든 죽어불고예? 보리밭 검질은 어떻 멧수가?
 103008 #1 봄에 메주.
 103008 @ 멧 번 메여?
 103008 #1 흔 번.
 103009 @ 보리밭 검질은 흔번 메든 곳. 보리밭 검질은 흔번 매든 곳? 그 보리 밭 검질들은 어떤 거 잇어마씨?
 103009 #1 겨울에, 겨울에 나는 풀이 틀려.
 103009 @ 음.
 103009 #1 요새 무신?
 103009 @ 이름?
 103009 #1 이름은 콩풀이옌도 허곡. 요새 무신 풀이니?
 103009 #4 진쿨?
 103009 #1 진쿨. 진쿨에도 허곡. 거 두 가지가 나주.

103009 @ 보리밭되는 이제 콩쿨허고.
 103009 #1 겨울에 나는 풀이 두 개라.
 103009 @ 진쿨은 콩쿨허고예? 진쿨은 그 꽃 영?
 103009 #1 꽃 피곡 줄 영 줄 번어.
 103010 @ 줄 번는 거. 그 보라색 닳은 꽃 피는 게 진쿨이우과? 그 다음에 어, 보리 이제 갈면 수확은 언제 허는 거?
 103010 #1 오월단오 댜사주게.
 103010 @ 오월단오예?
 103010 #1 단오 지나사.
 103010 @ 예, 수확하는 과정? 보리 비는 것부터 이제.
 103010 #1 보리는.
 103010 @ 으.
 103010 #1 호미 잇어이. 육지는 낮이엔 허는디 이디는 호미렌 허는디. 호미로 강 손으로 비영 낱.
 103010 @ 예.
 103010 #1 이거 물좌근에 무꺼.
 103010 @ 예.
 103011 #1 게문 집의 시꺼왕 보리틀 허영 홀타.
 103011 @ 보리틀로? 으.
 103011 #1 보리틀도 저 사진 찍영 가켄 허민 베와주커라.
 103011 @ 예, 알아수다.
 103011 #1 그걸로 허영 홀타근에 도께로 두드리나 경 안 허영 물 잇는 사름은 돌로 갓당 돌로도 불려.
 103011 @ 음.
 103011 @2 아 고고리틀?
 103011 #2 예.
 103010 @ 보리틀로 현 다음에, 게문 쓸방울만 뜯라지는 거예? 그 다음에 보리 물랑 무끄젠 허면 뭘로 무꺼수가?
 103010 #1 그 보리남탱이로 뭉주게.
 103010 @ 그냥 보리남탱이로?
 103010 #1 보리께로.
 103010 @ 보리께렌 허여, 그걸.
 103010 #1 남탱이가 그걸. 무꺼.
 103010 #2 남탱이가 경 쫄르지 아녕 길쭉길쭉 나주게.
 103010 @ 예예.
 103010 @2 영해영예.
 103010 #1 이거를 혼 줌 심영.

103010 #2 영허민.
 103010 #1 탁 데와당 이걸 갈랑 무끄주게.
 103010 @2 제께, 제께?
 103010 #2 이레나 이제나 그레 모관디레나 ㄴ틀 겨우다.
 103010 #1 무끄는 식은 비슷헐 테주.
 103010 @ 이 보리 헐 다음에 놀 놀거나 영도 행 놔줍니까?
 103010 #1 보리놀 비 완직 허민 놀어놏당 허곡 집의 왕도 놀어들엄서 빠당 홀트주, 그냥 내벳당 비오민 어떻헐 말이라게. 멍 장마가 심헐 뎡디게. 놀엄들엄 비올 때 집안에서 홀트고 날 좋을 때 마당에서 홀트곡 경헤놏주.
 103012 @ 보리놀덜은 집집마다 다 잇는 거예?
 103012 #1 놀엇주.
 그렇게 하고. 그 보리쫄 장만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헤야웨?
 103012 #1 보리강 ㄴ레.
 103012 #2 ㄴ레에 곶양 헛수다.
 103012 #1 저 물방아, 물방아.
 103012 @ 예.
 103012 #1 물방아. 물방에에서 곶아다근에 그걸 물방에서는 껍데기만 까지지 집의 왕 정ㄴ레로 보리 거퍼.
 103012 @ 음.
 103012 #1 거평 그걸로 밥을 헤영 먹엇주.
 103012 @ 아까 삼춘, 물방아렌 헛주마는 옛날은 물방에엔 안 헛짚우과?
 103012 #1 물도 헛어.
 103012 #2 물그랑.
 103012 #1 물그랑이엔 헛주.
 103012 @ 물그랑.
 103012 #1 물그랑에.
 103012 @ 계난 물그랑.
 103012 #1 옛날말로 물ㄴ레.
 103012 #2 물그랑에 물을 메완에 맏들.
 103012 #1 물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도 허곡.
 103012 @ 예예.
 103012 #2 물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도 허곡.
 103013 @ 으, 경허영 물그랑 이제 한 거라예? 그 다음에 보리쫄로는 뭘 헤 먹은 겨우과?
 103013 #1 밥 행 먹엇지게.
 103013 #2 밥 헤영 먹주게.
 103013 @ 밥만 헤영 먹언?

103013 #1 무시거 혈 말이라.

103013 #4 여름에 보리밥만 허고 겨울에 조팝만 허고.

103013 @ 웃음.

103013 #2 죽도 썬먹고.

103013 @ 보리로 해 먹은 거는?

103013 #1 보리쥬 낱 죽도 썬 먹었주게. 보리죽.

103013 @2 보리죽.

103013 #2 보리쥬 낱 죽 하영 썬 먹었수가?

103013 @ 죽 하영 썬 먹어수가?

103013 #1 죽 썬 먹주게.

103013 @ 그 다음에 여름에 일 다 끝나면은 보리 보까근에 뭐 멘들아?

103013 #1 개역 멘들아. 개역.

103013 #2 보리개역.

103013 @ 보리개역. 옛날은 보리개역 하영 먹어서예?

103013 #1 지금도 허주마는 옛날은 그 저 보리ㄴ슬 끝나면은 장마 때 돼가민 우선 보리 혼 말 정도 보까근에 ㄴ레에 미리 곱아.

103013 #2 보리 흘틀 땀 보리개역 먹으멍 보리 흘타.

103013 @ 아아.

103013 #1 그거 먹젠 일부러덜 만들엇주.

103013 #4 유채 빌 때 먹젠게.

103013 #2 유채비곡 보리허젠 우선 개역을 멘들앗주.

103013 @ 개역을 우선 만들어서예? 예.

103013 #2 지금 장에 간 보난 처나서라마는.

103013 #1 지금은 돈만 아저가민 벨 게 다 잇수다.

103013 #4 오천 원치씩 무경 폼디다.

103014 @ 경혜영은 이제 보리쥬 허젠 허면.

103014 #4 기궤방에서.

103014 #1 그만 그만.

103014 @ 보리 이제 그 정ㄴ레로 행은에 곱 거 아니라예? 여러 가지 체도 나오
고.

103014 #1 아, 체는 엇주게. 쫄로만 뵈 건디.

103014 @ 예.

103014 #1 굵은 방울이 두 개씩 벌러지는, 벌러지는 거라. 거피민.

103014 @ 거피면? 아아,

103014 #1 두 개씩 벌러지는 거.

103014 @ 계문 그 옛날 보리체도 나올 거 아니우과? 그걸 뵈렌 험니까? 여기서
는.

103014 #1 보리 거필 땐 체가 안 나온덴 허난.
 103014 @ 그땐 안 나오곡. 만약에.
 103014 #2 보리 거필 때 보리개역 나오주게. 스투기.
 103014 #1 스투기.
 103014 #2 도새기 줘부는 거.
 103014 @ 거 일름을 뉘렌 해?
 103014 #2 보릿ㄴ르.
 103014 @ 보릿ㄴ르. 보리ㄴ를 보리체엔도 해?
 103014 #1 보리체엔도.
 103014 #2 체는 저 방엿간에서 허는 거가 체주.
 103014 #1 방엿간에 체가 나오주게.
 103014 @ 아아.
 103014 #2 몰라근에 보리.
 103014 #1 몰ㄴ래서 골 땐 보리체가 나오는 거고.
 103014 #2 집의 왕 몰랑은에 쓸 거필 때 나오는 거는 보릿ㄴ르.
 103014 @ 보릿ㄴ르고.
 103014 #1 보릿ㄴ른 식량 모지린 사름도 먹기도 헛고. 먹어도 관게 엇인 거난.
 103014 @ 게난 몰그랑에서 나올 때는 보리체고. 게문 그 체로는 뉘허여?
 103014 #2 도새기.
 103014 #1 도새기.
 103014 @ 체는 도새기 주곡 쏘이 나왕 정고레로 헐 대는 보릿ㄴ르가 나오는 거
 라예? 으으.
 103014 #2 보릿ㄴ르도 도새기 줘부는 거.
 103014 @ 예, 짓도 도새기 줘부는데 없는 사름덜은.
 103014 #1 그것도 먹엇주게.
 103014 @ 그것도 먹기도 허고예? 그 다음에 보리 저기 이거 홀타나면 나머지
 남뎡이는 뉘허여?
 103014 #1 남뎡이 무경 낫당은에 무시거 허여? 뉘.
 103014 #2 밧디도 낄아불곡 술아불곡.
 103014 #1 밧디도 낄아불곡 저 무시거 어디.
 103014 #2 화장실 돛통에도 낄아불곡.
 103014 #1 돛통에도 많이 놔불주. 걸름 만들젠.
 103014 @ 걸름 만들젠. 그걸 짓이렌 험니까?
 103014 #1 도새기짓.
 103014 #2 보릿짚.
 103014 #1 집 소곱에 아상 도새기 짓도 주곡.
 103014 #2 도새기통에 담아놓민 짓가 돛걸름이 웰 거? 도새기가 붉아 놓민.

103014 @ 예, 거고 그 다음에 삼춘, 보리 해나면 그 ㄴ시락? 고시락은?

103014 #1 ㄴ시락은 낫당 굴묵 질엇주게. 방에. 방 뜻뜻허렌 굴묵 질어서.

103014 @ ㄴ시락예?

103014 #2 굴묵도 질고 밧디서 케와부는 사름은 케왕 밧디 허꺼도불곡.

103015 @ 삼춘, 이 보리농스허멍 아이고, 그 보리농스허멍 잊어불지 못허켜 헌 거 잊지양?

103015 #1 하주.

103015 @ 하지예? 곶아뽑서? 그 한 거?

103015 #1 어떻 말이라. 삭삭 더운디 앓이민 누게 물 혼 적 주진 안 허고 앓이민 춤 아, 춤 죽어불고 싶은 생각날 때가 하주.

103015 @ 예, 게난 거기 죽어불고 싶은 생각 말곡 재미진 일은?

103015 #1 재미진 일은 있어. 보리 비당 뚝 찰찰 낭 앓인 놈이 재미진 일이 있어게. 뚝 찰찰 나민.

103015 #4 더 못전디주기.

103015 @ 웃음.

103015 #1 영 뚝 썰엇주. 수건 잇어서게 영. 영허영 썰엇주. 수건이 잇엇어게.

103015 #2 수건도 이런 디 걸챇주게. 뚝 나가민 걸챇 따끄곡. 경 아녀민 녹 어독양 못 험니께.

103015 @ 이 불더위에 허는 일어난예? 옛날에에.

103015 #1 막 더운 때만 허는 일어난.

103015 #2 모가지에 수건을 물 적정 걸챇주.

103015 @ 보리 갈 때엔 힘들지 안 험디가?

103015 #1 보리 갈 때는 겨울에 허는.

103015 #2 겨울에 허는 거난 힘들곡 뒬.

103015 @ 다른 덴 가면 보리 갈 때가 손 곱아불곡 그거.

103015 #1 여자덜은 게 아침에 세백이 강 그 걸름 헤쓰젠 허면은 손 실렘은 헐테주. 지금은 장갑 찢주마는 옛날은 장갑 잇엇어?

103015 #2 챗번 갈 땐 손 실려도 부지런히 헤가민 경 손 실럽게 일을 허여게. 뚝이 출출 남주.

103015 #1 헤가민 어떻 안 허주.

103015 #2 경 손 부지런히 손 실려운 게 엇주.

103015 #1 겐디 그 돛가레 농당도 옛날은 간식으로 ㄴ멀범벅 헤가민 이 돛가레 농단 손으로 그냥 먹어서 물 셔? 싯젠 허난 물 셔?

103015 #4 간식은 무신 간식 말이우과?

103015 #1 검질로 싹싹 썰어뒬 그냥 먹엇주.

103015 @ 간식이 범벅이라났수가?

103015 #1 범벅이나뻬기 먹을 거 있어?

103015 @ 돛가레 헐 때 씨 헐 때 그때덜 감저 청 허면 그거 먹엇텐 험디다. 그 손으로.

103015 #1 감저청.

103015 #2 돛가레 허끌 때?

103015 #1 그것도 먹엇주게.

103015 #2 먹엇주게.

103015 @ 그 손으로예?

103015 #1 검질로 싹싹

103015 #2 그건 온말이고 밥 먹어낫수다. 정심도.

103015 @2 이상허게 걸름 넷던 손은 강 손을 씻으면 깨끗험디다.

103015 #1 깨끗험니께.

103015 @ 깨끗험니께.

103015 #2 예.

103015 #1 이게 아메도 이건 돛걸름에도양 그 기름기가 잇는 모양이라.

103015 @ 음.

103015 @2 깨끗헤여마씨.

103015 #1 쉼걸름 나나도 발이 깨끗험니다.

103015 @ 게난 마사지 톨 거주게. 다 예?

103015 #2 맞사지 산디?

103015 @ 춤말 온말?

103015 @2 춤말, 온말.

조농사

103016 @ 삼춘, 이젠 조 불립주, 이젤랑. 조 불리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해마 씨?

103016 #1 보리 비여불면은 보릿그를 초불 갈주게.

103016 @ 예.

103016 #1 쟁기로. 초불 갈앗당 저거 유월절이 브더가민 두불 갈앙 조를 불리주 게. 이 유월절 보통 저.

103016 #2 유월절에 불리는 거주.

103016 #1 아니 유월절이 전 삼일 후 삼일 허는디 전 삼일은 저 쪼끔 이 마을 에서 쪼끔 떨어진 디.

103016 @ 음.

103016 #1 그쪽으로가 므녀 한 이삼일 므녀 농사를 허고, 이 가름 쪽에는 가름 팻엔 해근에.

103016 #2 좋은 밋이난.

103016 #2 유월절이 낫나민 마걸이밋이엔 보통 마가 지나갈 무렵에 저 게난 건

후 삼일에 줄 농사하고 그렇게 하고.

103017 @ 그렇게 허는 거고. 조팻디도 거름을 헵니까?

103017 #1 거름은 무신 거름. 그때 아무 것도 없주.

103017 @ 조팻디 거름을 엇어예?

103017 #1 보리 갈아난 밋은 그 돛걸름 놔놔니까 조가 좋넌 허는 이유가 거주 게. 걸름 놔놔난.

103019 @ 아, 걸름 놔놔난예예. 맞수다. 줍씨는 어떤 식으로 빼여마씨?

103019 #1 게난.

103019 @ 조 불리는 순서를 한번 곁아봅서.

103019 #1 두볼 갈면은 물을 갖당은에 불려. 불리민 소로 장기로 간 디는 높은 디가 잇고 야튼 디가 잇거든.

103019 @ 예.

103019 #1 게민 물로 불리민 어느 정도 수평이 돼여. 이젠 줍씨를 뿌려 씨 가볼 립엔 허영.

103019 @ 씨 뭐렌마씨?

103019 #1 씨가볼림엔 헨예.

103019 #2 씨 막아지는 거. 막아지는 거.

103019 #1 씨 가볼린덴 허영 막아지는 거엔 허연

103019 @ 그러면은 두 번 허영은에 간 다음에 줍씨를 빼엿찌예?

103019 #1 아니, 간 다음엔 일단 혼 번 불령.

103019 @ 불린 다음에.

103019 #1 또 씨 빼영 또 혼 번 불려.

103019 @ 게민 갈지는 앓는 거예? 게민 그렇게 밋 씨 뿌린 거를 그 무신 씨 헵 니까?

103019 #1 줍씨주게. 줍씨.

103019 @ 아니, 아니. 줍씨 허면은 알씨여 웃씨여 이런 말은 안 허여?

103019 #1 산디는 알씨 웃씨 허는디 산디는 갈기 전의 빼영 갈아놔 우의 또 혼 불 빼영 물로 불리는디 조는 경 아녀주.

103019 @ 조는 그냥 안 허영은예예.

103019 #1 혼 번에.

103020 @ 예예, 그 다음에 그 조 밋 불릴 때는 어떤 식으로 헛수가? 삼춘, 하영 현 거 아니?

103020 #1 어어?

103020 @ 조밋 불리는 거. 씨 빼영 불릴 때?

103020 #1 불릴 때 어떻 허여 사름도 너댓 사름 돼고 물도 혼 이십 두 돼주게.

103020 @ 조 밋 불렀던 거, 어떤 식으로 불렀던 거 곁아줍서?

103020 #1 뱅뱅 돌아댕기멍

103020 #2 선 믱쉬 선 믱쉬 이끄민.

103020 #1 물덜이라놓니까. 이끄는 아녕 사름이 잇어.

103020 #2 그 조름에 선믹쉬 돌아가는냥 좇아다니멍.

103020 #1 익숙헌 물들이니까 어떤 사름은 이끄지 아녕 이 저 막텅이로만 영허
영 그리쳐가민 물덜이 이 막텅이 꾀을 딱랑 돌아다녀.

103020 #2 이꺼사주게.

103020 #1 진짜. 그렇게 해연 불리단에 그 중간엔 물 걸런 해나신디 처음 우리
어린 때 밧 불리레 간 때는 그 처음 앞에 사근에 그 인솔허는 사름이 막텅이 영 허
영 가가민 물덜이 그 막텅이만 보멍 좇아 텅겨. 게난 물덜이 숙달이 뵈 거주.

103020 @ 댜 앞에 선 물을 무신 물?

103020 #1 선물허여.

103020 @ 선물. 게믄 선물 따라서 뒤에 것덜이 다.

103020 #1 다 딱라 텅기주.

103020 @ 선물예? 그리고 그때 선물 앞에서 같이 하는 사람을 뭘엔해?

103020 #2 밧불리는 사름게.

103020 @ 밧불리는 우두머리 물 주인?

103020 #2 물 주인. 물 이끄는 사름. 것가 저 무신 거 선물 이끄는 사름.

103020 #1 그걸 뭘엔 해나신디 걸 모르겠네.

103020 @ 옛날은 테우리 이런 말은 안 해낫겠네.

103020 #1 테우리는 그만이 강 밧 불리는 밧 동산에 걸 물 임제를 보고 테우리
렌 헛주. 물 임제보고.

103020 @ 아아, 게믄 물 임제는 그 행은에 이렇게?

103020 #1 강 그만이 앞양 보기만 허여. 일은 아녀.

103020 @ 일은 안 해?

103020 #4 밧임제가 테우리내시 정심 해가곡. 고기 굽곡 막 잘 출렁. 고기만 구
믄 잘 출린 거 옛날에.

103020 #1 나도 테우리 혼 이삼십년 해먹어낫주.

103020 @ 삼춘, 테우리 갈 댜 어떻 헉디가? 댜 처음에 밧 불리젠 허민 거기에
제도 지내고 현텐 허멍.

103020 #1 아니.

103020 @ 경은 아녀?

103020 #1 져 백중에벳기 제 지내지 아녀고.

103020 @ 아, 밧 불릴 때는 제는 안 해마씨? 게난 테우리 행 가난 뭘 줍디가?

103020 #1 뭘 줘. 테우리밥엔 허영 딱로 해여 가.

103020 #2 테우리만 나시 정심을 잘 허여가. 테우리만 먹을 거. 물임제가 먹을
거.

103020 #1 테우리는 테우리 짝세 딱로 해영 가.

103020 #2 물임제만 트로 해가곡.

103020 #1이디는 백메딘 이디는 반지기라.

103020 @ 계민 곤밥을 허영 가는 거라.

103020 #1 여기는 고기 혼 머리 쾡 가민 여긴 혼 머리 너댓사름이 다 먹어야 돼.

103020 @ 테우린 강 ㄴ만이 앓은덴 허명. 강

103020 #4 물 임제니까.

103020 #2 물 간수만 허는 거.

103020 @ 아아, 직접 일을 허거나 일은 안 허고?

103020 #2 물 빌영 허는 사름이, 선ㅁ쉬 이끄는 사름이 잇주게. 밧 잘 불리는 사름이 선ㅁ쉬 이끄렌 허영 물 혼나 이끄민 그 조름에덜 영 이레 갓당 저레 갓당 몰아댕기멍 허는 것이 저 챗번 물 이끄는 사름이 선ㅁ쉬 이끄는 사름.

103020 @ 선ㅁ쉬 이끄는 사름예? 계민 그 밧 혼 번 불리젠 사름이 멧 사름 필요허여?

103020 #2 사름 하영.

103020 #1 물이 한 이십 두면은 한 육 명은 허여. 앞의 혼 사름 옆에 두의 혼 사름.

103020 @ 도망가지 못허게.

103020 #2 경혜영 모두 청은에 잘 불리렌.

103020 @ 아아.

103020 #1 물이 허터지민 잘 못 불려. 뭉치게 허젠. 계난 허터지지 못허게 사름 이 딱 들어상.

103020 #2 막아사는 거주.

103020 @ 삼춘 도구가 물 말고 다른 거.

103020 #1 밧 불릴 때 도구는 막댕이벳기 필요엇어.

103020 @ 아아, 계민 물 안 해 갓고 밧 불리젠 허면 도구 필요헌 거? 물 안 빌민?

103020 #1 저 서쪽디레는 남테엔 현 거 잇잖아. 남으로 만든 거이. 그거는 물 메왕 쾡잖아.

103020 @ 예.

103020 #1 이디는 그런 거 아녀.

103020 @ 아아, 여기는 남테가 엇수가?

103020 #2 없어 그런 거.

103020 @ 아, 섬비로도 안 허고. 무조건 물로만. 아, 이 동네는 물들을 하영 질 찾구가.

103020 #1 서쪽더렌 물이 없주게. 옛날도.

103020 @ 이 동네는 물이 하난.

103020 #1 이 촌더레벳기는.

103020 #4 물로 밧을 공거 아니주게. 품을 샅을 물엄수게.

103020 #2 물품은 물어사 물을 빌려 주는 거. 테우리가 잘 먹는 이유가 그 물 빌려준 그 인정으로 잘 먹는 거 아니? 물임제로.

103020 @ 그때 고기 구웠덴 혜신디 무신 퀘기로?

103020 #1 오토미주, 보통.

103020 @ 여기는 이쪽 오토미가 나난예? 으음.

103020 #1 테우리 나신 막 생각허주.

103020 @ 예, 예.

103020 #1 아 진짜.

103020 @ 예, 게난 그때는 다 그 믰쉬들은 다 물?

103020 #1 물, 물.

103020 @ 쉼는 아니고 다 물예?

103020 #1 이 저 물 숫자가 모지런디 쉼도 허긴 헛어.

103020 #2 쉼는 느령 밧 못 불러.

103020 #1 쉼는 물보단 걸어가는 동작이 뜨주게. 게난 쫓아 탕기질 못허여.

103021 @ 게믄 대부분 성읍에서는 물로 헛다예? 조팍딘 검질은 어떤 식으로 멧수가?

103021 #1 여자들 멧주.

103021 #2 조팍디 검질 여자도 메곡 남자도 메곡 뭇.

103021 #4 남자도 멧주게.

103021 #2 조 나가민 다섯 잎 나가민.

103021 #1 요 정도 뛴기 시작허민 메여.

103021 #2 파니로 다 만든 거난 혼 파니 혼 사름씩 앓앙 쪽 허게 앓앙.

103021 @ 멧 불 메여마씨?

103021 #2 세네불 메여사.

103021 #1 두불 메믄 사름 세 불 메는 사름,

103021 #2 조팍디도 세불은 메야주게.

103021 #1 깨끗허주게.

103021 @ 맨 처음 메는 검질은 무신 검질헛니까?

103021 #1 초불검질.

103021 #2 두불.

103021 #1 세번 메민 세불.

103021 @ 초불 헛 때는 스끄는 거?

103021 #1 아니, 두불에가 소까.

103021 #4 벌레기 들르는 거?

103021 #1 벌레기 들른다고 해서 초불은 이 씨 스끄는 것보단 검질을 주로. 검

질 뽑기 목적이주.

103021 @ 아까 벌레기 돌르는 거는 무신 말이우과?

103021 #2 그것이 벌레기 돌르는 거.

103021 #1 초불메는 거를 벌레기 돌르는 거.

103021 @ 두불 메는 거는?

103021 #1 시 스끄는 거 두번 켜.

103021 @ 두 번 게난 다시 물어보커라예? 초불은 벌레기 돌르는 거?

103021 #1 으.

103021 @ 그때 벌레기는 무신 말이우과?

103021 #1 검질만 뽑는 거주게.

103021 #2 큰 검질만 매는 거,

103021 @ 큰 검질만 뽑는 거. 조 말고 큰 검질만 뽑는 거예?

103021 #1 조 스끄고.

103021 @ 두 번째는 아까?

103021 #1 조 스끄곡.

103021 #2 깨끗이 방수 벌영 세우는 거?

103021 @ 방수 벌영근에 스끄는 거는 두불.

103021 #1 요 손 사이에 이 정도 간격으로.

103021 @ 이 손을 주먹을 따 췌영 이, 이 사이로예? 아, 방 벌이는 거.

103021 #2 포부 뜯 것도 엇고.

103021 #1 두 개 부뜨민 고고리가 줄주게.

103021 @ 예예, 그거를 방수 벌인다고예? 방수는 뭐우과?

103021 #1 방수는 이 방에 세운다 말이여.

103021 #2 두 개 부뜯 것도 엇고.

103021 #1 두 개 부뜯 것도 엇고. 간격이 비슷하게 방수 먹이는 거.

103021 @ 방수 먹이는 거. 그 방수가 주먹을 쥐면?

103021 #1 대개 맞아.

103021 @ 주먹 정도로 하나씩.

103021 #4 매번 주먹 췌는 건 아니고.

103021 #1 검질을 조 메여 가른 알아져가주.

103021 @ 검질맬 때는 손

103021 #4 골게, 골게.

103021 @ 골게로?

103021 #1 골갱이.

103021 @ 골갱이로, 시불 검질은

103021 #1 떨어진 거. 조도 잇당 두 개 그런 것도

103021 @ 그거를?

103021 #1 세 번째는 막 쉬와.

103021 @ 젤 어려운 게 두불검질. 삼춘 다른 데 가서 조사할 때보난 한 잎 이렇게 나잖아예?

103021 #1 작박. 다음 나오는 게

103021 @ 작박이렌 곶아?

103021 #1 작박 침 질러져

103021 @

103021 #1 물 들엉 썩주게.

103021 @ 그때는 고고리도 안 난텐 허

103021 #1 이 작박

103021 #2 마구레기.

103021 #1 썩어붙어.

103021 #2 마구레기.

103021 @ 걸 마구레기?

103021 #1 그런 건 다 뽑아

103021 @ 예.

103021 #1

103021 @ 그런 말도 싹 날 때도 족박처럼 모양허니까 족박이엔? 콩도 그런 식으로 싹 나면 불름니까?

103021 #2 콩은 작박이엔

103021 #1 엇주.

103021 #2 한 입 두 입.

103021 @ 한 잎 두 잎 산디 ㄴ튼 거는?

103021 #1 산디도 마찬가지로.

103021 @ 무사 조 만

103021 #1 조는 처음 나올 때 작박 모양으로 작박엔 그 작박에 침 질러젠 허젠 허주.

103021 #2 산디 나오

103023 #1 산디 아시에 모습 짝허게 나오니까.

103023 @ 예예. 그 다음에 게문 그 아까 조가 이제 유월절 전 삼 후 삼 이렇게 했지예? 수확은 언제헤마씨?

103023 #1 수확은 상강일 돼사

103023 @ 수확허는 순서 혼번 곶아줘봅서?

103023 #1 조도 마찬가지로. 무경 췌로 집의 시꺼왕.

103023 @ 음.

103023 #1 조코고리 툇앙 도께로

103023 @ 아까 보리는 보리로 무꺼

103023 #2 조남탱이로 무꺼져.
 103023 @ 조남탱이로 무꺼져.
 103023 #4
 103023 #2 조 남탱이
 103023 #1 고고리 탁 허게 갈랑 무끄민
 103023 #2 보리도.
 103023 #1 보리 무끄는 식으로.
 103023 @ 별도로
 103023 #1 께 덴들앙 무끄는 게 있어.
 103023 @ 무신 거?
 103023 #2 믱물.
 103023 @ 믱물로.
 103023 #2 믱물 쿵.
 103024 @ 그 다음에 마당질허는 거 어떻 해?
 103024 #1
 103024 @ 도끼로 도끼로만 쫓나.
 103024 #1 도끼로 밑에 건 털어진 거 저쪽더레 밀려뒀
 103024 #2
 103024 #1 멧 번 흔 번만.
 103024 #2 대체로 청 잘 불려진다고.
 103024 #1 저펜이션 여저덜 처근에 조팡울 안 털어진 건 또 두
 103024 @
 103024 #2
 103024 #1 나가 마당질을 오죽헐수가?
 103024 #2 아지방은 일 아녀낫수.
 103024 #1 일
 103024 #1 학교허당 그냥 해병대 지원.
 103024 #4 선생 가부난.
 103024 #1 학교 선생으로 살단.
 103024 @ 그다음에 덩드렁
 103024 @ 조혈 때
 103024 #2 조각메기도 마끼로 두드렁 털어낫주.
 103024 #2 도끼 못 부짖 거는.
 103024 @ 도끼도
 103024 #1
 103024 @ 예,
 103024 #2 골아드렌 허는 것만 골아게.

103025 @ 좁쌀, 좁쌀 장만은 어떻 헛수가?
 103025 #1 물고랑에 강 두 번만 굴민
 103026 @ 그 다음에 이제 좁쌀로는 어떤 것덜 헤 먹어신고?
 103026 #1 조팝
 103026 #4 여름엔 보리밥만 먹고.
 103026 @ 으.
 103026 #4
 103026 @ 조로 해근에.
 103026 #2
 103026 @ 술도 허고.
 103026 #2 술은 차좁쌀해사. 흐리좁쌀.
 103026 #2 술은 매 좁의서 부제칩.
 103026 @ 좁쌀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강?
 103026 #2 우리 밥 헤 먹는 모힌좁쌀.
 103026 @
 103026 #2 대 흐린조.
 103026 #2 ㄴ랑좁쌀 피쌀 님은 거라. 보기가 힘들어.
 103026 @ 흐린좁쌀은 어떤?
 103026 #2 흐린좁쌀은 보리쌀에 놔도 찰찰 차좁쌀 피삭헌 거 대개 우리 먹는
 거는 모인좁쌀을 하영
 103026 @ 모힌좁쌀을
 103026 #1 흐린좁쌀은 밥 분량이
 103026 #2 흐린좁쌀은
 103026 #1 아무 밧
 103026 #2 모인좁쌀은 완전 좋은 밧 아니른
 103026 @ 다른 지역 가면은 밥은 흐린좁쌀 여기는 땅이 안 좋으니까
 103026 #2 모인줄 많이 가니 그걸로
 103026 #1 농사를 그걸로 주로 허니까.
 103026 #4 밥이 하니까.
 103026 #1 가름쪽에 가름팻 일토지나 아너면은 갈아봐도 돼질 아녀.
 103026 @ 예에, 흐린좁쌀 용도는 주로 뭐 현
 103026 #1 흐린좁쌀은 이따 곤밥 먹는 그런 디 서끄곡, 흐린좁쌀은 보리쌀에라
 도 놓민 밥이 맛이 모힌좁쌀 까락까락헝은에게.
 103026 #1 살락허고.
 103026 #2 살락허곡.
 103026 @ 삼춘네 살락헌 밥만 먹언 살안?
 103026 #2 흐린좁쌀은 밧이 많이 갈질 못허주기.

103026 @ 살라헌 거만 하영
 103026 #2 우린 살라헌 밥 먹영 살아서.
 103026 @ 계난마씨. 계난 그 살라헌 감저도 ㄴ치
 103026 #2 감저 썰어놓곡 보리썰 놓곡.
 103026 #1 식량 불르젠 허는. 감저.
 103026 @ 식량예?
 103026 #2 아이고 살라헌 줍썰도 사람마다 잘 못 먹엇수다게. 이신 사름 먹엇주
 었은 사름 줍썰도 감저나 혼 방울 먹고 허영덜.
 103026 @ 이제 감주ㄴ튼 거.
 103026 #1 감주는 흐린줍썰로 허여.
 103026 #1 흐린줍썰로 허여.
 103026 @ 감저는
 103026 #1 모힌
 103026 #2 한쪽은 혼 비.
 103026 #1 반반.
 103026 #2 반반 부쩍에.
 103026 @ 그렇게 반반 부쩍 떡은 무신
 103026 #2 친떡.
 103026 #4 친떡 아니우과?
 103026 #2 알착 우착 몰라
 103026 #1 뭐엔사 글아
 103026 @ 고달 붙인 거?
 103026 #2 맞다. 알 고달 맞다.
 103026 #1 ㄴ 알앙 땡기면서
 103026 @ 고달, 징 부쩍
 103026 #1 고달 들
 103026 #2 고달 ㄴ는 거.
 103026 @ 아, 이 성읍은 옛날 조 해도 다 모힌줍썰이엇구나.
 103026 #2 산뿔 해도 옛날 저 무신 거니 그 목장에 가는 산뿔.
 103026 #4 산뿔가 세 가지우다.
 103026 @ 예.
 103026 #2 혼가
 103026 #4 예, 갈산뿔
 103026 #2
 103026 #2 줍썰답은 산디는 좋은 거?
 103026 @ 세 가지? 쯔 좋은 건 무신거?
 103026 #4 세양비.

103026 @ 세양비.
 103026 #2 젤 녹산디. 또 세번째는 갈산뒤.
 103026 @ 그 다음에
 103026 #2 갈산뒤.
 103026 @ 세양비?
 103026 #4 세양비가 어떤
 103026 @ 밧 좋은 디 갈곡? 쓸은?
 103026 #2 쓸은 막 좋아.
 103026 #4 쓸도 좋곡. 흐려.
 103026 @ 걸 세양비렌 산디 이파리
 103026 #2 똑 같아. 이파리는
 103026 #4 색깔이 틀려, 색깔이.
 103026 @ 어떤 색깔이우과?
 103026 #2 갈산디엔 현 건 거멍, 새양비엔 현 노랑허곡. 갈산디가 노랑허고 새
 양비 완전히 노랑 완전히
 103026 #4 녹산디가 노리주.
 103026 @ 것도 노리곡. 다 노랑허덴 허믄
 103026 #4 아니, 막꿇딘 건.
 103026 #2 갈산딘 막 굿인 피 가는 디 가는 거.
 103026 @ 갈산디는 가름팻디 허는 거는?
 103026 #2 새양비.
 103026 #4 녹
 103026 #4 새양비
 103026 @ 그거를
 103026 #4 쓸도 흥뽀 줄곡. 녹산디가 쓸이 흥뽀 좋아. 망울이
 103026 @ 새양비는 망울이 흑고
 103026 #4 곱고.
 103026 @ 곱고예? 새양비?
 103026 #4 새양비가 좋은 거.
 103026 @ 두번째 거는?
 103026 #4 녹산디.
 103026 @ 녹산디.
 103026 @ 오늘 수확입니다.
 103026 #1 석상베도 잇어낫주.
 103026 @ 아, 석상베는 뭐우과?
 103026 #1 석방베라는 거는 완전 흐린거.
 103026 @ 것도 산디?

103026 #1 겐디 막 흐려.
 103026 #1 그건 식량용으로선 잘 안 갈아.
 103026 @
 103026 #1
 103027 @ 예예예. 그 다음에 조찍은 뭐 헛수가?
 103027 #1 조찍은 물
 103027 @ 그것은 식량이구나. 믹쉬 식량예? 다른 걸로
 103027 #1 쉼 주당 남은 거는 쉼 또꼬냥에 돛통에 갖다놔 걸름 허곡.
 103027 @
 103027 #1 쉼 먹당 #1 쉼데치.
 103027 @ 몰데췌 안 허여?
 103027 #1 물
 103027 @ 게도 물은
 103027 #1 더 잘 먹긴 허주. 물은 골려 고사리 많이 골려 내고.
 103027 @ 다른 것덜은
 103027 #1
 103027 @ 먹당 나머
 103027 #2 쉼데치.
 103027 #1 먹은 줌자는 뉘새김이 소는 누워서 뉘새김질 허젠 누워서 허니까 오
 래 물은 잘 때도 누웁 자지 아녀.
 103027 @ 요즘 물덜은 누웁 잡디다.
 103027 #1 이른 봄에.
 103027 #2 물 누워가민 뺑 걸려
 103027 @2 죽는덴.
 103027 #1 이른봄에 추웠당
 103027 #2 요새 물덜은
 103027 #1 요새 물덜은 물은 다 정신 두린 거.
 103027 @ 누우면 죽는다고.
 103027 #2 누우민 뺑 걸렸젠 이상허다, 이상허다.
 103027 @2 게난 몽고서는 집의 쉼도 잇고 쉼도 쉼을 먼저 보내예?
 103027 #2 나갈
 103027 @2 잇몸으로 물은 그러면 가당 남은 걸
 103027 @2 그 반대로 허면 쉼이 죽어마췌. 먹은 걸 엇어.
 103027 #2 물은 복복
 103027 #1 여기서는 집에 잇단 물이 믹녀 나갑주게. 췌명만 뉘면은 물은 나가는
 더 소는 한 이십일 간
 103027 #2 뜯어먹을 거 엇어부난.

103027 #1 뜯어먹을 거
 103027 @2 혀로 감양 뜯.
 103028 @삼춘, 조 농사허명은에 기억거리?
 103028 #1 ㄱ만히 앉안 봄만 헛주.
 103028 @ 힘들거나 헛던 추억담 하나 곱아줘봅서?
 103028 #1 추억담 무신 거 있어.
 103028 @ 아까 마당질 하영 헛덴 허명.
 103028 #1 마당질은 도계로만 두드렛주워.
 103028 #2 입으로.
 103028 @ 도계헛 때도 노래도 부르멍 허는 거 아니예?
 103028 #2 ㄱ쉬울털
 103028 #1 밧블리는 소리나 허주.
 103028 #2 ㄱ쉬 내모는 소리. 영주산더레 올리는 소리.
 103028 #1 어러러러러 오오오오우/어러러 어러러 어러러어려서 어야동 에이에이
 이이/어러어러털/ 유월절 전 삼일 후 삼일이이야 줍씨가 박세기에서 달락달락 춤만
 추는구나/ 오우 어러러 에야똥 에이이이 /월월월 하자/ 앞목이만 들여몰고 밧목이나
 자쳐상 담에염 돌아갈 때 잘 블러진다 어이 어러러러러 이야동 이이어허러/월월어
 랑/
 103028 #1 밧 그거민 밧 천
 103028 #2 ㄱ생이덜 배고팜쩌.
 103028 @2 안목은 어디우과?
 103028 #1 산쪽이 앞목이우다. 항상 담에염 가민 저쪽더레 게난 이쪽은 덜여밀
 고 저쪽은 물을 자치고.
 103028 @2 예를 들면 물이 여기 잇으면
 103028 #1 이쪽에.
 103028 @2 이쪽에.
 103028 #1 선물 다음은 선물 이끄는 바짝 ㄱ찌 들어사곡, 이쪽은 떨어정 사야
 이 물이 돌아가멍 블라지는데 이 물이 이디서가 영 담에염더레 돌아갈 물이 엇어.
 밧목은 들이밀고
 103028 @ 밧 게믄 선물은 앞목에. 아까 이제 불른 노래는
 103028 #1 밧블리는소리.

콩농사

103029 @ 밧블리는소리 알앗수다. 자 게믄 콩도 갈앗지양?
 103029 #1 콩도 갈주.
 103030 @ 콩은 언제 가는 거우과?
 103030 #1 유월절 해나민

103028 @ 콩은 유월절 콩 갈젠 허민 준비허는 거 잇어마씨?
 103028 #1
 103032 @
 103032 #1 거름 엇이난 씨 빼영 쉼로 갈앙 헛주.
 103033 @ 콩밭 검질은 어떻 메연마씨?
 103033 #1 콩밭 조팻 검질 메는 거나 마찬가지로라. 두번.
 103033 @ 소끄고 허는 거.
 103033 #1 워낙 좇인 디나 잇이민 뽑아불카 콩은 소끄지 아녀.
 103033 @ 조나 콩은 검질이 더 할 어떤 검질덜 주로 낫수가?
 103033 #1 어어?
 103034 @
 103034 #1 대개 이디는 제완지에 현 검질이 잘 나.
 103034 @ 제완지.
 103034 #1 제완지가 많아.
 103034 @ 제완지예? 콩 ㄴ튼 경우는 언제
 103034 #1 마찬가지로라.
 103034 @ 언제?
 103034 #1 상강일 지나사.
 103035 @ 콩은 어떤 식으로 수확해 오는 거라마씨?
 103035 #1 꺼끄지.
 103035 @ 이건 꺼끄는 거.
 103035 #1 영 대영
 103035 @ 낱은 밀리멍 허는 거? 어어, 꺼끈텐 해예?
 103035 #1 거껌젠
 103035 @ 탈곡은 어떻.
 103035 #1 집의 옛날 탈곡헐 게 무시거 셔?
 103035 @ 콩 종류도 으라 가진가마씨?
 103035 #1 옛날은 콩종류는 별로.
 103035 @ 어떤 종류덜 같아수가?
 103035 #1 장콩엔 그거 같앗주.
 103035 @ 장콩. 요즘은 장콩덜
 103035 #1 방울이 더 커.
 103035 @ 아아.
 103035 #1 옛날 건 방울이 혹질 아녀낫주.
 103035 @ 음.
 103035 #2 줌진콩.
 103035 @ 줌진콩.

103035 #1 콩늑물콩 틀리고 장콩 틀려.
 103035 @ 예예, 여기는
 103035 @ 콩지름은 아녀?
 103035 #2 콩
 103035 #1 집의서 콩지름 키얌젠 허주.
 103035 @ 예,
 103035 #2 옛날 파랑 독새기콩도 잇엇고 흰콩 장콩 존존헌 거 잇어낫주게.
 103035 @ 독새기콩은 어떤 겨우과?
 103035 #1 똥글랑똥글랑
 103035 @ 그 다음에 흰콩은?
 103035 #2 푸린콩ㄴ치록.
 103035 @ 푸린콩은
 103035 #1 푸린콩은 퍼렁허주. 익어도 퍼렁허여.
 103035 @ 장콩은?
 103035 #2
 103035 #1 장도 다 헛주.
 103035 @ 아니 종류가 콩 종류가 독새기콩허고 장콩허고 ㄴ튼 거?
 103035 #2 비슷한 건디 색
 103035 @ 종류는 특난 거.
 103035 #1 이름만
 103035 #2 장콩엔 헌 건
 103035 @ 흰콩은?
 103035 #2 흰콩은
 103035 @ 독새기콩은 파란 거?
 103035 #2 청콩이엔 헌 거
 103035 @ 게민 독새기콩이 청콩이우과?
 103035 @ 흰거는 알이 썩도 희고 장콩은 즈진 거.
 103035 @ 흰콩은 속도
 103035 @ 게민 청콩이 푸린콩이우과?
 103035 #2 청콩이 푸린 거.
 103036 @ 주로 콩주름도 허고, 주로 콩은 뭘엔 쓰는 거?
 103036 #1 장허곡.
 103036 #2 ㄴ르 곶양.
 103036 #1 죽도 썬 먹고. 그거주 무신.
 103036 @ 여기는 둥비같은 건 하영
 103036 #2 우리 므슬서 둥비 ㄴ튼 거 아녀.
 103036 @ 표선도

103036 #2 어디 판 므에서 헤여 오는 거. 두부
 103036 @2 여기서 반 놓을 때 돛레기에 석점 허고.
 103036 @ 반 놓는 거. 잔치 때 반?
 103036 #1 잔치할 때 반? 꿩반.
 103036 @2 예.
 103036 #1 꿩 석 점 낵 우에 수에 놓니다.
 103036 @ 둥빈 안 놓고예?
 103036 #1 므물헝
 103036 @ 그 전을 뒀헝 해?
 103036 #2 전.
 103036 #1 그거는 남자덜이 만들어. 전 지지는.
 103036 @ 얼마니
 103036 #2 후라이판
 103036 #1 접시에 고기 낵 게른 쏘곱 하영 들어신디
 103036 @2 게란 거기에 돛레기 석 점허고 수에.
 103036 #2 수에도 놓고 고기가 하영 들엇는디
 103036 #1 일포밭디도 경허곡 이 잔치밭디도 경헝니다.
 103036 @ 잔치밭디 아
 103036 #1 영장날은 바육고지
 103036 @ 아아. 바위꼬지.
 103036 @ 대를 바위렌 헝니까?
 103036 #2 대에 꿩난 바위고지주.
 103036 #2 를
 103036 #1 대를 칼로 훌텅 만들주게. 길이가 이만은 허여.
 103036 @ 삼십센치도 넘은
 103036 #1 꿩 석 점을 꿩엇을 때에.
 103036 @ 예.
 103036 #1 영 들르민 고기 힘으로 오그라지게 힘으로 대나무를 일부러
 103036 @ 옛날에 구덕
 103036 #1 바육꼬지 잘 헝저.
 103036 @ 바위 들르는 바위 허는 식으로 얹게 헤갓고. 게른 밥에.
 103036 #1 고깃반 허는 사름이 잇어.
 103037 @ 그거는 영장밭디 갓을 때. 그 다음에 콩 꺼경 헤신디다가 탈곡은 도
 리깨질 게른 콩쩍.
 103037 #1 들.
 103037 @ 쉼은 안 줘?
 103037 #1 쉼은 안 먹어.

103037 @ 아아.
 103037 #1 뜰 불도 테와불곡.
 103037 @ 그걸로.
 103037 #2 밥헐 때 아니.
 103037 @ 여기는
 103037 #2 그 전에
 103037 #1 보리찍은 연기가 많이 나주게.
 103037 #2 억새로.
 103037 #1 가을에 억새 반 때 옛날 반검질이엔 허영 놀엇당 일년 내낭
 103037 #2 억새로 밥허는 디
 103037 @ 거를 반검질
 103037 #2 뜰랑 빈 거 반 검질.
 103037 @ 아아.
 103037 #2 어웁이
 103037 @ 익은 거는 반검질?
 103037 #2 선 때 빈 건 풀검질.
 103037 @ 그거는 꼭 억새로만 해?
 103037 #1 그게 이 나모 억새남이 조금 췌주게.
 103037 @ 예.
 103037 #1 그게 타는 다른 검질보다 오래 가.
 103037 @2 므디니까.
 103037 #2 새는 안 돼고. 새가 어웁검질만이 불숨는
 103037 #1 불치가 많이 놀아텨기주.
 103037 #2 불치도 많이 놀곡. 불 숨은 디가.
 103037 #1 보리찍은 연기가 많이 나.
 103037 #1 여름에 눈 다 멜라진덴 허난.
 103037 @ 보리찍으로. 보리는. 그 다음에 삼춘, 콩 농사는 여기는 하영은 안 헛
 구나예?
 103037 #1 콩 농사 벨로
 103038 @ 경험, 추억 같은 거는
 103038 #2 몰라.

밭벼 농사

103039 @ 산디는 여기 하영 갈아실 거 님아.
 103039 #2 산디는
 103039 #1 흔 천평.
 103039 #2 갈산디덜은

103039 #1 갈산디.

103039 #2 목장밭

103039 #1 썰밭 이겨근에 처음 피 갈아. 쉼로 병탱이 즈근 새왓жат암젠 그거 잣
양 그디 톨로 불령 피를 헤 먹 내년에는 적감밭엔 허영 그걸 갈양 믱물을 갈주.

103039 @ 믱물.

103039 #1 그 다음에 산디를 갈주.

103039 @ 화전

103039 #1 거기 강 갈산될 갈아.

103039 #2 제일 곳은 산디.

103039 #1 다른 산디는

103039 @ 쟁은에 거의 산디로.

103039 #1 완전 숙성돼 불주.

103039 @ 그걸 숙전이

103039 #1 썰밭 숙전

103039 @ 한 번 돌아가면 맨 처음에 저기 헨 거를 뭐 헨다고.

103039 #1 이게 쉼로 이렇게 병탱이를 갈양 얹어놓면은 은 이걸 사람 손으로
즈근즈근 새왓жат암저.

103039 @ 새왓 잣암저.

103039 #1 새왓 잣 이걸 잣아 이디강 피씨 불

103039 @ 그거는 불리는 거 아니라예? 그 다음에 아까 믱물허는 거.

103039 #1 적감밭이엔 피 갈아난 다음에 적감밭이라.

103039 @ 피 갈아난 다음에 적감밭은

103039 #1 어른덜 골은난

103039 #2 새 적감은 두불이 익어가는 거. 밧이 익어가는 거.

103039 @ 쟁은에 밧이 두불 허는 거를 적감밭. 적감밭디는

103039 #1 믱물

103039 @ 세번 쟁는 아까 뭐렌

103039 #1 숙전 돼는 거.

103040 @ 알아수다. 게몬 그 산디를 갈아봔주. 게몬 아까 그런 데 가서 갈산디
를 허는 거고. 이 갈산디 녹산디도 헛텐 .

103040 #2 녹산디나 갈산디나

103040 #1 그건 곳인 밧디 갈아도 돼여.

103040 @ 그건 곳은 종네기고. 삼춘네 어떻게 가는 거 순서대로 골아줘봔서?.

103040 #1 저거 쉼명 지나민 강 초불 갈주게. 초불 갈앗당 저거 망중 혼 십일
전이 산될 갈주. 산디가 보통 열이를 만이 나는데 시기 맞췄 날짜 맞췄 .

103040 @ 같고. 그 산, 저기 산뒤 갈 때는 뭐 걸름허거나 허진 앓고예? 그 산디
씨도 빼영

103040 #1 그거는 아니라.

103040 @ 어떻?

103040 #1 초불 갈양 낫당 산디씨 산디씨 빼영 물로 불리주.

103040 @ 계난

103040 #1 그거 쉼로 이 사이는 비니까 두불을 빼는 거.

103040 @ 계난 그거를 옷씨 알씨

103040 @ 먼저 뺐 씨는?

103040 # 알씨주게.

103040 @ 계민 이렇게 두번째 뺐

103040 @ 빼는 거는 산디벳기 엇수가?

103043 @ 아아, 산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산디밧디 검질은?

103043 #1 검 목장은 두번

103043 #2 시민 메고.

103043 #1 대개 이제 썩밧 이 벨로 검질이 잘 안 나.

103043 #2 믱물

103043 #2 믱물 갈아난 다음에 씨가 정 나주.

103043 @ 네, 가름밧되는 세불을 메냐돼예?

103043 #1 두불도

103044 @ 산디밧디는 어떤 검질이

103044 #1 그것도 마찬가지로. 겨울.

103044 #2 제완지. 춤제완지.

103044 @ 으.

103044 #1 제완지도 두 가지.

103044 #2 여름 농사는 제완지

103044 #1 대롱제완지 잇고 춤제완지 잇고.

103044 @ 대롱제완지 춤제완지는 어떻 톨난 거?

103044 #1 이파리가 작으면서 대롱제완진 이파리가 더

103044 @ 이파리가 더 넓어예? 대롱제완지 춤제완지는

103044 #2 목장 대롱

103044 #2 춤제완지 완전히 좋은 제완지. 대롱제완진 나쁜 거. 막 줄번영

103044 #1 춤제완지는 밧갈췌출엔 허영 그거 밧갈췌는 겨울

103044 @ 춤제완지는? 아 출이구나.

103044 #2 춤제완지는 풀 중에 췌 일등.

103044 #2 아무디나 나지

103045 @ 산되는 어떤 식으로 수확해마씨?

103045 #1 집의 가르차냥 영 마주 낡 때려.

103045 @ 아아.

103045 #1 풀지 아녕 소독 ㄱ린덴.
 103045 @ 소독 ㄱ렘쩌.
 103045 #1 이 풀영 요 쏘곱 영 폐와냥 딱리주.
 103045 @ 아, 게난 이걸 영 폐왕 다른 거 하고
 103045 #2 좋은 으물
 103045 #1 소독 소독칠 때가 산디 여문 거만 떨어
 103045 @소독 ㄱ린다
 103045 #1 소독 때려뒀은에.
 103045 @ 이것도 도계로 허는 거마씨?
 103045 #2 도계로 아년 때 클로 홀트는 거.
 103046 @ 옛날에는 주로 다 도계로 헛구나예? 산디로는 뭐해마씨?
 103046 #1 으?
 103046 @ 산디쫄로는
 103046 #1 산디밥엔 허영. 건 제스 때
 103046 @ 곤밥이렌 산디밥엔도
 103046 #2 제사 때 헐 때 곤밥.
 103046 #2 산디
 103046 #1 산디로 밥을 허니까 산디밥이주.
 103046 @ 어쨌든 곤밥?
 103046 #2 어쨌든 곤밥.
 103046 @ 여기도 산디쫄로
 103046 #2 곤떡헐 땐
 103046 #1 장 날 때나 대소상 떡을 다섯 가지. 그거를 거의 산디쫄하고 피쫄하
 고
 103047 @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해나면 찌?
 103047 #1 찌은
 103047 #2 산디찌도 물 잘 먹어. 물출.
 103047 #1 질기는 물은 우아래 니빨이 소는 이빨이고 산디찌을 주면은
 103047 @ 거는 췌는
 103047 #1 안 쥐.
 103047 @ 물출로 주로?
 103047 #1 물은 씹어먹는 디 췌는 먹어냥
 103047 @ 게도 산디헐 때는 아까 보리 조 불릴 때는
 103047 #1 그렇주게. 마찬가지로.
 103047 @ 것도 불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삼춘은 낭그늘에서 보기만 허여?
 103047 @2 웃음.
 103047 @1 웃음.

103047 @ 피농산 어떻 지엿수가? 삼춘.

103047 #1 피.

103047 @ 예.

103047 #1 대개 옛날은 새왓 갈앙 많이 헛고. 산에 콧은빳.

103047 @ 음.

103047 #1 탄 농사 못허는 피는 쪼끔만 헛 밧은 잘 크니까. 목장에 강.

103047 @ 피도 불러마씨?

103047 #1 피도 불리고.

고구마 농사

103049 @ 우리 성읍에서 감저도 싱것수가?

103049 #1 고구마.

103049 @ 예.

103049 #1 고구마는 하영 싱건.

103049 @ 감저 싱그젠 허면 어떤 준비가

103049 #1 그거. 보릿그르.

103049 @ 예.

103049 #1 보릿그르 초불 갈아놋당 감저꿀 장마에 많이 커이. 크는냥 찰라당 그
더 강 두불 갈면

103049 @ 감저꿀을 만들젠 허면

103049 #1 이것은 저 봄에.

103049 @ 봄에.

103049 #1 하여튼 삼월

103049 @ 음력?

103049 #1 아.

103050 @ 삼월 이십일 전에 감저씨를 물어봅서.

103050 #1 파니를 요만이 만들어이.

103050 #1 여기 이렇게 싱그주게. 우의 비니루 더끄곡.

103050 @ 비니루 더퍼근에

103050 #1 비니루 엇인 때는 요 갇일 팡 쉼걸름 이디 갇다 낱, 쉼걸름 우의 흑
더평 그건 알로 빨리 열 내우젠 깃는 거.

103050 #1 쉼걸름을

103050 @ 모종 놓는 거예?

103050 #1 그때는 비니루가 없을 때. 이 우의 내불민

103050 @ 게문 모종 질루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라마씨?

103050 #1 두어 둘 이상 걸리주.

103050 @ 게문 그 감저 가는 시기는?

103050 #1 유월절 돼야 놔.
 103050 @ 보리그르에 허는 거난예?
 103050 #1 제일
 103050 #2 꿀 기차당 놓는 거.
 103051 @ 꿀 기차당.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감저밧디도 검질 헛수가?
 103051 #1 걸름.
 103051 #1 걸름이 헐 거름 잇어서. 아주 옛날에는 걸름엇주게.
 103051 #2 꿀 기차당
 103051 @ 꿀 기차당
 103051 #2 파니 만들앙 꺾꺾 질렁
 103051 #1 고구마는 잘 살아.
 103052 @ 예, 꿀 기차당 감저밧디도 여름에
 103052 #1 흔 번.
 103052 @ 흔 번? 그.
 103052 #1 안 메는 디도 잇어. 이 검질 나는 게 숨을 못 쉬주.
 103052 #2 아까 제완지 나민
 103052 #1 속 감자 놔놔민 속이 엇어져부러.
 103052 #1 감자에 몰령.
 103055 @ 그 다음에 감자 수확은 언제 허는 거우과?
 103055 #1 입동 돼사.
 103055 @ 입동 돼사. 감자 수확허는 거는 다른 거 허고 어떤 식으로 줄 더껴져 불고 허민?
 103055 #1 줄 걷어뎡. 손으로 파는 사름도 잇고. 쉼로 강 갈아놔근에 줯는 사름도 잇곡.
 103055 @ 줯는 사름도 삼춘네 감저는 언제 적부 갈아봔?
 103055 #1 감저 설러분 지가 이십오년.
 103055 @ 잇어부럼서예?
 103055 #1 전분공자 저 서귀포까지 서귀포 전분공장까지 감저 실런 폴레 가나.
 103056 @ 옛날에는 감저들
 103056 #1 구텡이 팡. 땅.
 103056 @ 그 말 곱아줍서?
 103056 #1 구텡이 팡. 한 일메다 둘레는 약 일메다 오십 둘레로 파면은 이 정돈 돼주게.
 103056 @ 예.
 103056 #1 이디가 이십 가마 이상 들어. 가에는 이 조칩이 잘 안 썩주게. 조칩 같은 거 감자 비와냥 땅 수평 막 비와냥 땅 수평 요렇게 만들어야 돼.
 103056 @ 경사지게.

103056 #1 검질 더평 우의 흑 낱.
 103056 @ 무신 검질 더퍼?
 103056 #1 이견 아무 검질 더퍼도 웨여. 검질 더평 검질 안 보이게 잘 불르주게.
 103056 @ 예.
 103056 #1 그 저 바람 들어가지 말렌. 경허영 그 다음에 느람지 새 허영 느람지 여편 둘렁.
 103056 @ 예.
 103056 #1 우의
 103056 @ 주지도 것도 절차가 복잡허우다예? 게영 놔두민 안 썩어?
 103056 #1 이렇게 만저 보면은 감저가 놔근에 한 일주일 사이는 막 열이 올라와.
 103056 @ 아아.
 103056 #1 그때는 주쟁이도 올라주고 이 저 열이 만헤불민 썩어부니까.
 103056 @ 아아.
 103056 #1 도수는 손 짐작삼앙
 103056 @ 흐뎡 뜻인 때고 허니까.
 103056 #1 완전 겨울 들영 안 견어보는디 그 전이는 자꾸 견어보고.
 103056 @ 그치록허영 씨감저
 103056 #1 봄 낱 씨감저 사례 텅기는 사름이 오죽 한다고.
 103058 @ 어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그 감저꿀은 뭐 헛수가?
 103058 #1 쉼도 맥이고 들도 맥이고.
 103058 @ 그건 무끝 때는 뭇로
 103058 #1 그거는 새허영 께틀어야 웨여.
 103059 @ 께가 필요헌 거라예. 지대로 감저 절간감저도
 103059 #1 절간헐 때 자리를 잘
 103059 @ 예.
 103059 #1 무슨 바람 들민이 바람이 잘 통헐 때 되도록이면 동산 이런 디 강 잔디밭 허민은 그디 강 감젓기계로 들이치멍 썰어. 물 널영 물랑. 게 혼 두어 번 뒤 집어 줘야 웨이. 견어.
 103059 @ 들밤이도 강 견어봄디가?
 103059 #1 비왓직허민 갑자기
 103059 #1 생기리헐 때도 밤에
 103059 @ 성읍은 생기리도
 103059 #1 생기리도 절간 설러부난 생기길 헛어. 절간 헐 때 보다 나 이 집 짓은 후제도 생기릴 헤신디.
 103059 @ 감저헐 때 들밤이 뵈데기 좇어난.

103059 #1 그땐 글쟁이.

103059 @ 예.

103059 #1 글쟁이를 폭는 거 만들엿베키 해 볼 방법이 떨어진 건 손으로도 잡고, 밤의도 비왓직허민

기타 농사

103060 @ 예, 맞수다. 삼춘 여기서도 수박도 갑니까?

103061 #1 춤웨도 안 허고.

103062 #1 고치도 자기 영업으론 안 허고.

103062 @ 고치는 어느 계절에 갑니까?

103062 #1 다 싱것주.

103062 #2 사단근에 이녁 먹을 건 이녁대로.

103062 @옛날에는 다 씨로.

103062 #1 모종 그 자리서 옮겨 싱것주게.

103062 @ 씨로 바로 허는 게 아니고.

103062 #2 이녁 그때는 하영 .

103062 #1 영업으론 허지 아녀고.

103063 @ 녹물 같은 것도

103063 #2 가는 사름 이녁 먹을 거나 허주.

103063 #1 풀지는 아녀고.

103064 @ 늠빠도 하영 갈아뵈?

103064 @ 여기는

103064 #2 생기리

103064 #1 생기리 갈 때는 소로 이렇게 파닐 멘들면 씨를 사름 손으로 이렇게 뉘서.

103064 #2 지금도 마찬가지로.

103064 #1 지금은 기계로 허지마는 옛날은 손으로 일일이 찢었다고. 천 평 헐라고 허면 여자 네 사름.

103064 @ 씨 허는 게 힘들겠다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행 그 늠빠도 종류가 으래 갠 잇엇텐 험니다.

103064 #1 종류가 옛날은 다짱무수허곡.

103064 @ 예.

103064 #1 생기리무수베키는.

103064 @ 씹.

103064 #2 씹

103064 #1 열무엔. 이디 자기 먹을 거베키는 장스로는.

103064 @ 춤

103064 #1 늪빼보고 춤노물이렌 허주.
 103064 @ 이 우에 거예?
 103064 #2 늪빼 드는 것도 춤노물. 늪빼 안 드는 것도 춤노물.
 103064 #2 배추 말고는 다 춤노물.
 103065 @ 여기 지실도
 103065 #1 감자. 감자는 심는 사름은 지금도 심어.
 103065 #2 우리 성읍리도 싱그는 사름 신가?
 103065 #1 그 전에
 103065 #2 지실을 여라 해 그거 허당덜 망헛수다.
 103065 #1 나도 병이 한 삼년
 103065 @2 같은 밧되서 하면 그렁수가?
 103065 #1 하나 들어 전렴이[절러미] 웨 잡질 못헛니다.
 103065 #2 이젠 문딱 더데기병.
 103065 #1 그 밧되가 잇어가면 그밧되 따시 낱은 걸리는 거.
 103065 @ 더덕.
 103065 #2 더더기병. 더닥더닥허난.
 103065 @ 멘짝 트
 103065 #2 멘짝헌 게 엇어.
 103065 @ 전염병.
 103065 #1 봄에 놓는 감저는 더멩이병이 안 걸려.
 103065 @ 겨울에.
 103065 #2 지금 파는 거.
 103065 #1 지금 파는 거는 병을 잘 안 걸립니다.
 103067 @ 믱물 농사는 언제 허는 거
 103067 #1 팔월 십오일을 중심으로 믱물농사를 허주.
 103067 @ 그걸 한번 곶아줍서.
 103067 #1 불치허고 쉼을 고를 쳐. 여자덜이 구덕에 접아낱 허주.
 103067 @ 거는 빼는 게 아니고.
 103067 #1 이것도 방수가 맞아야 웨이. 비슷비슷허게. 손가락으로 영 접아놓면
 은 뭇로 나무로 섬피 만들영 꾹엇어.
 103067 @ 예,
 103067 #1 씨 묻어지게.
 103067 @ 게문 삼춘, 혼 파니에다가 곶을 굶는 거.
 103067 #1 혼 파니 쉼로 모멸 곶 굶을 때.
 103067 @ 곶 굶는 거
 103067 #1 소 쟁기로.
 103067 @ 혼 파니는 여기는 파니가 크구나.

103067 @ 쉼 쟁기로
 103067 #1 골 치주.
 103067 @2 골벧 가정.
 103067 #1 모멸컬름 논덴.
 103067 #2 불치에 씨를 서꺼낫당 골 처가는냥 구덕 뿌러메 구덕에 그 아까 설
 피엔 현 거. 걸로 짝 막아지민 꺾나는 거.
 103067 @ 거는 씨 믈컬름 놓는 게 일이구나.
 103067 #2 질 중요현 거지.
 103067 #1 거 많이 놔도 안 돼곡 죽영 혼변 계속 그만이
 103067 #2 방수를 쪽 벌여 나가사.
 103067 @ 방수 벌영 나. 모멸씨
 103067 #2 믈컬름, 믈컬름.
 103067 #1 우리 믈컬름 놔줍서 영 허주.
 103067 @ 믈컬름 놔줍서. 재로 불치로?
 103067 #2 불치로.
 103067 @ 아 게난 옛날부터 그 무시거. 강이도 등 고려분다 들어봄디가 삼춘.
 103067 @ 바당에 갱이 여름에는
 103067 #2 갱이라 공중이주.
 103067 #1 여기 공중이가 있어.
 103067 #2 노란공중이 다리 혼 착 빠져
 103067 @ 예.
 103067 #2 그것가 지쳐 믈 다리 혼 착이라.
 103067 #2 공중이가 다리 빠진덴
 103067 @ 그 믈혈 때 그 말을 허는 거라예? 무사
 103067 #1 다리 빠지게 지치난
 103067 #2 걸름 날르젠 허난 지천.
 103067 #1 숙전웬 밋되는 새왓 갈아 적감밋의 울통불통현 디 진짜.
 103067 #2 아무 밋되도 걸름 날르는 걸름 날라다 이디 거 구덕디레 주는 이디
 구덕 걸름 날르젠 말로
 103067 @ 공중이.
 103067 #1 흐루 저물앙
 103067 #2 아저당 비와줘사 날라다 담아당.
 103067 @ 정허난 이제 믈검질 날르젠 허난.
 103067 #2 아닌 게 아니라 공중이가 다리가 빠져.
 103067 #1 공중이 다리 빠져.
 103067 @ 웃음. 게난 다리 빠져시난 이 녀석이 믈컬름.
 103067 #2 빌 때랑 밋되 아저냥 싸여놓주.

103067 #1 뒷날

103067 #2 밧 갈아가민 그거 걷어 거름 더 걸름을 놉니께. 담으레 담아가는 사람이 지치덴 공중이가 다리 빠졌다.

103067 @ 그때 공중이는 그때 보여.

103067 #2 바글바글.

103067 #1 이 전날, 널 믱멸을 전날이 불치를 믱너 시꺼낭 밧디 강 놀주게. 놀엇당 누 누람지 이 쏘곶에 공중이가 하.

103067 @ 아아.

103067 #1 경허영 누람지

103067 @ 튀당 보면 다리를

103067 #2 다리 빠진 공중이덜이 잇어.

103067 @ 예예, 아아, 가이네가.

103067 #2 모멸걸름

103067 #1 지칭.

103068 @ 그 다음 삼춘, 담배 애기도 헤나신디 담배 농사도 헤봄디가?

103068 #1 아버지네가 허는 거 봤주 우린

103068 @ 어떤 식으로 험디가?

103068 #1 봄에.

103068 @ 봄에.

103068 #2 그때는 담배를 이 전매청에서 받아가났어.

103068 @ 예.

103068 #1 삼사백 평 쫘은 담배를 심영 허면은 아침이 강 툷아다근에 이디서 여꺼. 여꺼근에 어디 집 안네 대개.

103068 #2 그늘에.

103068 #1 쉼막에 집 안에 강. 이거 요만씩 허영 접을 짓읍디다게. 열 개 낱 혼 접 푸는 걸 봐났주.

103068 @ 직접 담배 헐 때도 다 썰멍

103068 #1 일꾼 오멍 썰영 피우렌 찢주.

103068 #2 이녁냥으로 썰멍.

103068 #1 이녁냥으로 농약도 안 들어갓지 담배 이파리벧기. 세상 약이 다 들어갓주마는.

103068 @ 맞수다. 삼춘도 그런 담배도 피와판.

103068 #1 잎담배, 잎담배.

103068 #1 우리 열

103068 #2 담배

103068 #2 우리 열일곱 그디 가난 다른 피우라

103068 #2 지서 정문에 근무허기 시작헤.

103068 @ 그때가 사삼혈 때우과?

103068 #1 지서 정문 근무는 나 열일곱 술부터 시작헐.

103068 @ 알아수다. 여기까지 허कु다. 오늘 막 지친 거 닻고.

103068 @2 오늘 많이 베웠수다. 그때 공중이는 말죽인가마씨?

4. 들일

소기르기

104001 @ 삼춘 그 쉼 질룰 때는 어떤 식으로 헐 질랏수가?

104001 #1 어떻헐 질와게. 저 봄 나면은 산에 올리곡, 입동 돼민 집에 아져당 마귀 메영 출 주고 쳇명 돼민 또 산에 올리곡 그렇게 허면서 게난 일년에 육개월은 산에서 살고 육 개월은 집에서 살곡.

104002 @ 쉼도예, 돌만이 아니라. 그 쉼 종류는 어떤 쉼들이 잇어마씨?

104002 #1 옛날 토종.

104002 @ 토종, 종류도 뭐 여자 쉼도 이실 거고 남자 쉼도 이실 거고예, 옛날 여기서 불르는 말로?

104002 #1 암쉼엔 허고 부렁이엔 허고, 이 암놈은 여자고.

104002 @ 예.

104002 #1 부렁이엔 헐 게 숫놈인디.

104002 @ 예.

104002 #1 부렁이엔 헐 거는 저 집집마다 잇진 안 허여.

104002 @ 아아.

104002 #1 게민 산에 강 봄에 강 놓을 때는 대개 그 부렁이가 같이 따라가민 부렁이 하나면은 암놈을 보통 사십 개 정도를 교미를 시키주게.

104002 @ 아아, 게민 올 때는 새끼 데령 오는 것덜도 이신가마씨?

104002 #1 아니, 새끼를 저것이 십 개월 돼야 나니까.

104002 @ 음, 음.

104002 #1 여름에 강 봄에 강 허면은 대개 집의왕 나갈 때 새끼를 낳 나가. 집 의서.

104002 @ 아아, 육개월 썩이난예? 아아, 경허고 그 털 색깔에 따라서도 불르는 일름이 트나마씨?

104002 #1 응.

104002 @ 아.

104002 #1 황소가 잇고 얼룩소가 잇고.

104002 @ 예.

104002 #1 까만쉼.

104002 #1 검은쉐엔 허고.
 104002 @ 검은쉐엔 허고.
 104002 @2 식쉐는 어떤 거우과?
 104002 #1 식쉐는 노린털에 꺼문털 박아진 게 식쉐.
 104002 @ 으음.
 104002 #1 검은털 혼 줄 박아지고.
 104002 @2 얼룩소하고는 다른 거지예?
 104002 #1 얼룩소는 흰 털허고 노린 걸 박아진 거를 얼룩쉐엔 허고.
 104002 @ 음. 건 게문 어럭쉐?
 104002 #1 어. 얼룩쉐허고 식쉐허고는 틀려.
 104002 @ 틀려예, 예. 그 다음에 그 쉼도 뿔 모양에 따라랑도 트나지예, 삼춘?
 104002 #1 영 영 박아진 놈 작박드리엔 허고.
 104002 @ 응 작박드리 뒤로 이렇게 박아진 거.
 104002 #1 앞으로 박아진 거는 잘 모르겠네.
 104002 @2 곧추뿔.
 104002 #2 영 돌아온 놈 잇주게.
 104002 @ 이렇게 앞으로 영 돌아오는 거?
 104002 #1 이 두이로 자빠진 건 작발드리엔 허는디 앞으로 돌아온 거는 거 잘 모르.
 104002 @ 그 다음에 뿔 엇인 건?
 104002 #1 뿔 엇인 거는 별로 없어.
 104002 @ 별로 없어예?
 104002 #1 토종은 뿔 엇인게 없어.
 104002 @ 아, 그 다음에 이 적이 뿔이 흔들리는 거?
 104002 #1 어?
 104002 @ 뿔이 흔들리는 거?
 104002 #1 흔들리는 거는 그게 뿔이렌 헨다마는. 뿔 혼드는 쉼이 있어.
 104002 @ 예.
 104002 #1 건드리면은 흔들흔들헨 게 그게 있어. 그 잇는디 일름을 모르겠네.
 104003 @ 널랑 노인 튼냉은에 알앙 놔둬서. 그 쉼은 보통 어디에 이용헨 거라 마씨?
 104003 #1 어디에 이용. 그자. 저 어린 때 좀 영 뿔 쓸만 헨 놈은 골랑은에 밧을 그리치주. 밧 그리칠 땐 처음은 이 멍에를 씌워서 처음은.
 104003 @ 음.
 104003 #1 돌을 꼭다리에 돌아매서.
 104003 @ 예.
 104003 @2 꺾엉.

104003 #1 이꺼 다니멍 저 밧 가는 거 모양으로 꺾엉 다니멍 그 허주게. 경헨
흔 메칠 헤지민 그 다음은 밧 갈레 가민 처음은 익숙허지 아녀니까 사름이 흔 사름
이 소를 이꺼야 돼여.

104003 @ 예.

104003 #1 경허영 그 밧을.

104004 @ 아, 그거를 밧 ㄱ리친덴 험니까?

104004 #1 밧 ㄱ리친덴.

104004 @ 예, 그 다음에 그 질, 질드리젠 허면 이 동네 영 헤영 몰앙 다닐 거
아니라예? 게믄 그 두에 거 그 돌을 무슨 돌이엔 험니까?

104004 #1 그거, 이 저 팡돌엔 현 게 잇어. 돌에 영 흐끔 영 납수룩헌 놉 허영
고냥 딸랑.

104004 @ 예.

104004 #1 고냥 딸랑 그디 철사로 무경, 무끄주. 철사로 아녕 판 거로 무끄민
돌에 꿰어져부러.

104004 @ 그치록 무끄는 돌 이름은?

104004 #1 그냥 팡돌엔 허여.

104004 @ 여기에선 팡돌엔 허여예?

104004 @2 다른 동넨 곰돌.

104004 #1 곰돌.

104004 @ 예.

104004 @2 고망 딸라젓덴 헨예예.

104004 @ 예, 그 다음에 질드리기 전의 쉼은 뭐렌 험니까?

104004 #1 질드리기 전에

104004 @ 새췌 ㄱ리친덴

104004 #1 새췌엔 현 건 처음 길들이기 시작허는 게 새췌 ㄱ리친덴.

104004 #1 새송애기 ㄱ리친덴.

104001 @새송애기 ㄱ리친다고. 췌는 나이는 어떻 췌니까?

104005 @2 흔 설 두 슬.

104005 #1 한 설은 금송 두 설은 다간 세 설을 나민 네설부턴 나릅. 다습.

104005 @ 게영 열 설까지 세어봄서?

104005 #1 열 설꺼지는 세질 못허주게. 다숫꺼지벳낀.

104005 @ 으습은?

104005 #1 으습은 우리 잘, 그때에 헐 때 췌 질룰 때는 다습꺼지 헛주 다습 넘
어가민 폴아부나 어디 무판에 보내부난 허는 따문에. 다습 이상 웨어가민 새끼도
잘 안 덴 행은에 폴아불어.

104005 @ 으음. 게믄 그 저기 아까 부랭이는 하영 안 헌덴 헛잖아예? 밧가는
거는 누게가 가는 거우과?

104005 #1 소 임제가 밧 갈주.

104005 @ 쉼은 어떻 쉼로 밧 갈아?

104005 #1 무사 아까 안 갈아서게. 멍에 썩웁.

104005 @2 질 들인 쉼?

104005 #1 질 들인 쉼로 그걸로 갈주.

104005 @ 그 암쉼?

104005 #1 암놈도 허고 숫놈도 상관 없고.

104005 @ 밧갈쉼은 무신 걸 밧갈쉼?

104005 #1 밧갈쉼

104005 #1 부렁일 보고 밧갈쉼엔 말은 안 허여.

104005 @ 암쉼ㄱ란

104005 #1 숫놈은 밧갈쉼엔 허곡 암놈은 밧 밧갈쉼엔 말은 안 허여.

104006 @ 아, 밧갈쉼?

104006 @ 그 다음에 이제 삼춘 쟁기로 옛날 밧갈아. 여기는 쟁기를 뒀든 헛수가?

104006 #1 쟁기. 잠대엔 허주.

104006 @ 잠대 여기 영 허영 허면 여기 손 잇고, 영 뒀는가?

104006 @2 응. 앞에 조금 나와. 들벵이뿔 잇고, 무클.

104006 #1 이거는 성애가 뒀는 거고.

104006 @ 이거는 성애가 뒀는 거고. 긴 거예?

104006 #1 영 오그라진 건 몽콜이 뒀는 거고.

104006 @ 이렇게 허는 거는 이렇게 뒀는 거구나예.

104006 #1 몽콜.

104006 @2 우의로 하나 올라가.

104006 #1 이거는 설칫.

104006 @ 가운데로 간 거는 설칫.

104006 #1 계난 이거 허고 이거 허고 연결시키는 게 이 설칫이라.

104006 @ 이 설칫. 이건 뒀우과?

104006 #1 이건?

104006 @ 손잡이?

104006 #1 이거는 ㄱ만 시라.

104006 @2 양주머리.

104006 #1 아, 양주머리 맞아.

104006 @ 예, 양주머리.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영 허면은 이 끝에. 뒀, 밧 갈젠 허면 뒀 해야 뒀 거우과?

104006 #1 그디 보섭 끼우주.

104006 @ 보섭. 보섭 밑에는?

104006 #1 보섭 밑에는 없어. 보섭 밑에는.
 104006 @ 벧은 어디 허는 거우과?
 104006 #1 벧은 보섭 우에 허주게.
 104006 @ 아아.
 104006 # 요것이 보섭이면은.
 104006 @ 예.
 104006 #1 요 사이에 벧을 메와.
 104006 @ 여기 우에. 벧, 그 다음에 벧 허면은 이 옆에는 무신 칼 닳은 것도 있지예?
 104006 #1 벧칼.
 104006 @ 벧칼. 그 다음에 또 부분 명칭 잇을 게 뭐 잇수가? 여기 허당 보민 여기에 무신 고망 딸라정 끼우는 것도 잇지 아녀우과?
 104006 #1 이디 고냥 딸랑 끼우는 건 엇고.
 104006 @2 설칫에 설칫. 설칫 우에.
 104006 #1 설칫 우에는 이 설칫이 우티레 올라가지 못허게 이 설칫에 그로 고냥 딸랑 끼우주게.
 104006 @ 여기? 으. 거는 무신 거렌 해마씨?
 104006 #1 설칫 그 저 우에 끼우는 거?
 104006 @ 뜸은 뭐우과?
 104006 #1 으.
 104006 @ 뜸?
 104006 #1 뜸엔 현 이거 설칫 구멍을 뜰르면은 이게 올렸다 영허영 그로 뜸을 주주.
 104006 @ 아아. 여기가 뜸이고예?
 104006 #1 계민 즉 지금 말로는 뽕이라. 요런 식이주. 올랐다 내렸다.
 104006 @2 계난 건 무신 애기냐 허면 요것이 돌이 있으면 이걸 약간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냐. 설칫 내리는 거라. 뜸 가지고.
 104007 @ 뜸으로 해서 조정을 허는 거라예, 예? 그거는 쟁기하고 그 짐 시끄젠 허면 이렇게.
 104007 #1 질메.
 104007 @ 질메가 잇잖아예. 질메도 그 부분 명칭이 잇어마씨?
 104007 #1 아니, 부분 명칭. 암놈 숫놈 거나 물에 지우는 거는 비슷헌디, 그 몸 부피에 따라 질멧가지를 넓게 허느냐 좁게 허느냐 물은 부피가 없으니까 질멧가지를 줄영 족게 만들곡.
 104007 @ 예.
 104007 #1 밧갈쎄 쫘은 등따리가 넓으니까 넓게 만들고.
 104007 @ 이게 질멧가지. 질멧가지도 두 개 아녀우과예?

104007 #1 앞 뒤 잇주.

104007 #2 앞가지허고 뒷가지허주.

104007 @ 앞가지 뒷가지허고 이 옆에도 낭으로 영.

104007 #1 거 잇어.

104007 @ 건 뭇렌 헤마씨?

104007 #1 그걸 몰르겟네이.

104007 @ 이 앞에도 안에 이렇게 또.

104007 #1 건 도곰.

104007 @ 이건 도곰예? 이런 식으로, 여기 영허영 베 무꺼알 거 아니?

104007 #1 이 질메가 췌 우의 낫을 때에.

104007 @ 예.

104007 #1 췌 베아뎡이 알로 행은에 이디 오랑엔 현 게 잇어.

104007 @ 아아.

104007 #1 @ 오랑예?

104007 #1 그건 무끄지 안 허민 질메가 도망가주게.

104007 @ 베아뎡이에 무끄는 거를?

104007 #1 오랑.

104008 @ 오랑. 그 다음에 삼춘 멩에?

104008 #1 멩에는 좀 나문디 영 흐쫄 영 오그라져, 흐쫄.

104008 @ 이렇게 헤영은에 생기지 아녜수가예? 멩에, 그 다음에 영 허영은에
여기 나무 잇고. 영.

104008 #1 그건 멩에는 잘못 그릇주.

104008 @ 잘못 그릇수가?

104008 #1 멩에 이게, 이게 멩에라고 허면은.

104008 @ 예.

104008 # 이게 일찍선 뻬는 게 아니라.

104008 @ 이렇게.

104008 #1 반달형으로.

104008 @ 반달형으로,

104008 #1 이쪽에 베 무끄곡 이쪽에 베 무끄고 허영

104008 @ 이 베는 뭇렌 허여?

104008 #1 줄대.

104008 @ 무신 대?

104008 #1 줄대.

104008 @ 줄대. 이 목에 허는 거는?

104008 #1 어느 거?

104008 @ 멩에

104008 #1 아 건 접게 건.

104008 @ 접게. 접게 해갖고 이 멍에 허게 되면 그 다음에 영 잠대에 허는 거?

104008 #1 잠대에 허는 게 그게 거 아, 뭇이여, 자꾸 허어나신디 나도 만들어도 나고 해신디.

104008 @ 삼춘은 잠대 잇지 안헤예?

104008 #1 우리 집의 잇는 거 쥐불엇주. 옛날은 필요 엇이난, 아 알아지겄는디 튼내지 못허겄네.

104008 @ 솜비줄은 어디우과?

104008 # 어.

104008 @ 솜비줄 허는 거?

104008 #1 솜비줄엔 현 건?

104008 @1 건 이 동네 아니구나?

104008 @2 잠대하고 멍에하고 이어지는 줄이야.

104009 @ 튼넹 놔둬서. 것도. 멍에 그림을 너무 이상허게 그려졌저. 그 다음에 목장예, 여기서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헨마씨?

104009 #1 목장은 접원이 있어. 접원.

104009 @ 접원? 접으로 허는 거우과?

104009 #1 성읍리가 동쪽 목장 서쪽 목장 동목장 서목장 허여.

104009 @ 아아, 삼춘네는 어느 목장이우과?

104009 #1 우린 서목장.

104009 @ 게믄 서목장 관리를 어떻 허는 거 곶아줍서.

104009 #1 서목장은 조합원이 처음 우리가 목장 설립헐 땐 사십 명 허단에 나 이 돌아가셔불고 츠츠 젤 내중엔 혼 십오명 쯤 웨어 나신디 십오명 댜 때에 내가 소를 안 허게 댜니까 나가 나도 떨어져불엇는디.

104009 @ 예.

104009 #1 지금도 목장을 허고 잇어.

104009 @ 아, 지금도예? 예.

104009 #1 동목장에는 시방 접원이 네 사름인가 싯젠 허고 서목장은 혼 열 멧 사름 잇는 것으로 나가 아는디.

104009 @ 아직도 쉼 키우는 사름이 잇구나예?

104009 #1 동목장을 어딘고 허니까 영주산을 동목장으로 허고 이 모지악을 옛날은 그 모지악을 보고 무찌오름이라고 헛는디.

104009 @2 무찌오름.

104009 #1 그것이 서목장이주.

104009 @ 게믄 거기를 목장을 경계로 해서 쳇명 때 내보내고 입동 되면 디물리는 거구나예. 게믄 거기에서만 계속 산 거네. 쉼 보레도 가사 댜 거 아니우과?

104009 #1 그디 목감을 목감 정해서 월급 주면서 육 개월동안 데령 쓰주.

104009 @ 음, 목감은 누구를 데령 쓰는 거우과?

104009 #1 마을에서 희망자가 나와. 그 시기가 돼영 곤란헌 사름덜 목감허켄 지원자가 나와.

104009 @ 음. 게른 그 목감한테는 그러면 그 쉼 봐준 대가로 해서.

104009 #1 우리가 그 사름안티 저 월급을 주는 거주.

104009 @ 아, 월급으로 줍니까?

104009 #1 예, 한달에 언마씩 해연.

104009 @ 으음, 게른 쉼 봐주는 사름을 목감이렌 허는 거라예? 그 사름덜

104009 #1 잇주.

104009 @ 그 집을 뒤편 헙니까?

104009 #1 목관 사는 막이렌 해영 지금도 시방 잇주.

104010 @ 목장마다 그런게 이시켜예. 여기는예. 그 다음에 혹시 쉼 치명 쉼 질 루멍 잇어불지 못허는 추억 같은 거 잇어마씨? 삼춘도 그 옛날에는 집에 쉼가 잇으면 그 목장에 몰아당 길루단 몰아단 집에 들어오는 거는 엇어마씨?번 서거나.

104010 @2 번째?

104010 #1 그런 거는 없고, 목장에 봄에 가면은.

104010 @ 예.

104010 # 가을 들어올 때 향시 그디 잇다가 들어

104010 @ 따로 그 당번행 보러 가거나 허진 아녀마씨? 목장에.

104010 #1 당번이 이녁이 자기 소를 보고 싶으면 강 보는 거지. 누가 왕 목감 지정 쉼 사름 잇이안 그 사름이 소가 어디 출을 안 먹영 쫓 이 쉼가 이상허다 허민 연락이 오지. 그거지. 그렇게 허면 소임제 이녁이 강 보고 싶은 사름이 이땅 심심허민 그냥 놀면서 가곡.

104010 @ 아, 그렇게 허영 보고예? 별도로 목감안티 메껴불면은 동네에선 뭇가질 안 허는구나예?

말 기르기

104011 @ 그 다음에 삼춘, 말도 여러 머리 질랐잖아예?

104011 #1 말은?

104011 @ 예.

104011 #1 지금은 이 제동목장이 생겨서 그디 뭇 지금 대한항공이 와서 뭇 다 허는데, 그 전에는 그 녹산장이라고 해서 그 사름 임체가 그때 서울 살아실 거여. 그때 땅 임자가. 그때는 봄철에 여기 물을 길루다가 조팏 다 불리고 나민 물이 이젠 목장으로 올라가벼야 이 물덜이 먹던, 뜯어먹던 자리를 출을 키와서 출을 빌 건디.

104011 @ 으음.

104011 #1 게면은 이 저 조팏 다 불려난 다음에는 목장으로 올려불어. 녹산장으

로.

104011 @ 녹산장으로.

104011 #1 물 올려불민은 이 물 봄에 놀멍 자리는 풀이 켜 자라민 출 이 낮으
로 비주게. 강 비여당 그거 낮당 겨울에 또 소도 주곡.

104012 @ 음. 그 다음에 이제 물예 종류도 하지예?

104012 #1 물 종류가 서너 네 가지 돼주.

104012 @ 예, 그거 알아봅서. 무슨?

104012 #1 켈 이 물 색깔을 일 가라엔 현 거는 가라물이 켈 센다는 거주.

104012 @ 예.

104012 #1 일 가라 이적다.

104012 @ 일

104012 #1 물 색깔이 일 가라엔 현 거는 이적다 스월라 저 오청충.

104012 #1 청충이엔 현 물이 잇어.

104012 @ 예.

104012 #1 이 노리 색깔 모양으로 흰털 박아지고 검은털 박아지고, 계난 청충이
도 두 가지라. 먹청충이 잇고. 흰청충이 잇고.

104012 @ 계문 한번이?

104012 #1 가라.

104012 @ 가라.

104012 #1 이적다.

104012 @ 이적다.

104012 #1 삼월라.

104012 @ 삼월라.

104012 #1 스 스, 낫싸 뭐엔 헛지.

104012 @ 유매

104012 #1 일가라 이청충 삼적다 스월라 아, 일 가라 이청충 삼적다 스월라 오
청충.

104012 @ 아 청충이 두번이렌?

104012 #1 아니,

104012 #청충이가 물 색깔이 두 개란 말이주.

104012 # 처음은 일가라 이적다 삼월라 아, 일가라 이청춘, 일가라, 이적다 삼월
라 스청춘. 물이 다섯 가진데. 아 일. 일가라 이청춘.

104012 @ 적다.

104012 # 삼적다. 스유마엔 현 게 잇어서.

104012 @ 스유매? 스유마.

104012 #1 스유마.

104012 # 그건 노런색깔도 잇고 검은 색깔 박아진 게 유마엔 허는디 그거 다섯

가지.

104012 @ 삼촌, 두 번째는 적다가 아니라 청충.

104012 #1 청충.

104012 @ 청충이. 일가라?

104012 #1 이청충

104012 @ 스월라.

104012 #1 그게 맞은 거 닐아.

104012 @ 아니, 스유매?

104012 #1 스유매가 뭐야?

104012 @ 유마. 오월라.

104012 #1 아니 이 저 거세기 유마가 막꿇텔 거라.

104012 @ 아, 유마는 막꿇데. 아무튼 알아수다. 유마는 어떤 말마씨?

104012 #1 유마는 노린 색깔에 검은털이 박아지주.

104012 @ 노린 색깔에 검은 털 박아진 거. 그 다음에 아까 월라는?

104012 # 월라는 흰털에 노린털 박아진 거.

104012 @ 흰털에 노린털 박아진 거.

104012 #1 대개 물 허는 사름덜이 우리도, 그런 물이 엇이면은 일부러 어디 강 그런 물을 사당 놔. 일부러.

104012 @ 아아.

104012 #1 먼디서 봐도 저거 우리 말이라 걸 헤봤는디 표시가 나주게. 나도 거 헤봤는디, 물 그 녹산장에 낱 보레 텅길 때는 먼 디서 이녁 물을 좇젠 허면은 눈으 로 뵈은에 서울로 헨엔 쌍안경.

104012 @ 예.

104012 # 쌍안경 주문해단에 오름 꼭대기가 딱 앓앙보민 우리 물은 저기 잇구나 헨엔 그렇게 헤연 물 좇아낫주.

104012 @ 털색깔이잖아예? 모양에 따라랑도 트나지 아녀마씨? 얼굴에 점이

104012 #1 얼굴에 점 이거는 이디 흰털 박아진 게 잇어. 코간전이라고 해서.

104012 @ 코가전이. 동글락헌 거는.

104012 #1 동글락헌 건 그건 몰르겠네.

104012 @ 태성백이?

104012 #1 아 맞아, 태성백이. 긴 거는

104012 @2 간전이.

104012 #1 코간전이.

104012 @2 간전이.

104012 #1 코간전이.

104013 @ 말은 무사 질룬 거라?

104013 #1 물은 옛날은 웨국으로 수출텐 . 순전히 이 저 이 밧 볼릴 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나이 들어가민 잡아먹는 것벳기는. 허단에 언제 물이 일본으로 수출이 됐는고 허니까 한 오십팔년도 한 육십년도쯤에 일본으로 수출했어. 물. 일본 수출할 때 일본은 개 양식으로.

104013 @ 아.

104013 #1 일본에서 개 멕일라고 물 완 받아가놔주. 나도 그때 물 멧 개 풀아보 명 했는디.

104014 @ 그런 식으로 이제 허는 거라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쉼 세는 거고? 물 나이는?

104014 #1 금승 이수매 삼수 스수 오수 이렇게 허주게.

104014 @ 음, 겐 건 멧 걸까지 세여?

104014 #1 난 다섯 술까지 그 이상은 안 세어봐서.

104015 @ 삼춘은 빨리 빨리 키워구나? 물 질루멍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 잇수과?

104015 #1 여멍멍 좇지 못.

104015 @ 여멍멍예. 어멍.

104015 #1 나도 물 좇앙 스십 일 땡여봣텐 허니까.

104015 @ 멧 머리?

104015 #1 하난디, 나가 삼십 멧 두를 했는디 목장에 갈 때에 암놈허고 숫놈은 하나를 놓주게. 숫놈이 이걸 다 몰앙 다니멍 출도 먹곡 물도 먹고 허는디.

104015 #1 좇다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트멍에 다리 접현에 간 녹산장에 츠남이 많으니까 초남봣디 강 죽은 걸 몰란 사십일 좇아놔어.

104015 @ 잊어불지 못허는 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물 허기 때면 물 부릴 때예? 지달쑈거나 이런 것도 해마씨?

104015 #1 지달은 담질 잘 허는 놈. 쉼는 지달을 싸봣는디 우리도 쉼는 지달을 싸 봤는데 바령힐 적에. 바령힐 댁에 담질 쉼를 물은 별로 지달ㄱ쁜 거는 안 싸주.

104015 @ 그런 거는 안 허고. 여기는 물바레기해마씨?

104015 #1 나가 열일곱 술부터 물바레게.

104015 @ 그 얘기를 해줍서.

104015 #1 그때 당시에는 마차조합엔 현 게 잇어. 판 부락은 몰라도 이 성읍리는 열두 사람이 다 사십 대 쉼 분인디 쉼 어린 사름이 나라. 마차조합에 마차를 게 난 가입헌 사름 웨외는 부락에서 나온 그때는 뭇 많이 운반했는고 허니깐 뜸허고 짐새.

104015 @ 예예.

104015 #1 짐새. 그거를 표선이 당케를 실러가는다.

104015 @ 음.

104015 #1 그때에 나가 마차조합에 들언에 거기 운반허면서 해놔는디. 그렇게 허단에 그게 그 짐새 허단에 한 이젠 세상이 쫘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쫘

진압이 되고 뭘 허니까 한라산에 도벌목을 허레 다님 시작했주. 그때는 사삼에 불타부런 없는 동네가 새로 생긴 마을에 취락구조엔 현 게 생겨서. 그런 디선 나무가 엇언 집을 못 짓게 돼난 해연 우리가 한라산에 도벌목을 내가 한 스물아홉 설쫼 다니기 시작해연 그때 한라산에 도벌목허레 혼 십 멧년 다녀서.

104015 @ 한라산에 몰바레기헐예? 그걸 바레기.

104015 #1 몰바레기. 옛날은 토종바레기엔 현 게 있어. 토종바레기엔 현 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만들엇단는 구루마가 있어. 이 장통도 나무로 쥔 거고 홀룽통엔 현 것도 나무로 쥔 거고. 일본놈덜이 여기서 망헐 나가버리니까 그 일본놈덜 쓰단 마차를 사용헐예 우리가 마차를 헐주. 그전이는 저 토종구루마라고 헐서 일 개 부락에 멧 개 엇엇어. 성읍리도 서너.

104015 @ 토종바레기는 높지 아년.

104015 #1 야트기도 허거니와 이 쌀 박는 디가 나무라.

104015 @ 예.

104015 #1 일본 구루마는 쌀 박아지는 디가 쥔디 토종 구루마는 홀룽통이라고 요만이 술진 쌀을 돌아가명 박안 마차를 만들앗주게.

104015 @ 삼춘 아까 장통이렌도 허고 홀룽통이렌도 허는데 장통이 뭐마씨?

104015 #1 장통이엔 현 거 웨정 때 구루마에는 꼬트머리에 장통을 썩와. 이거 웨냐면 기름을 불르민 기름 돌르지 말렌 허연. 웨놈들은 장통을 우리 국산은 장통이 엇어 뽕 끼와낫주.

104015 @ 음, 그 쌀 연결허는 거기에?

104015 #1 장통이 엇어.

104015 @2 바퀴 차이우과?

104015 #1 바퀴도 차이가 돼국. 일본놈덜 웨놈덜 쓰던 거는양, 장통 썩 바퀴에 다가 기름을 불르면은 장통 영 끼와버리면 한 메칠은 안 몰라. 쥔디 토종 구루마는 매일 아침마다 쓸라면 기름을 쥐야웨.

104015 @ 경혜영은에 이제 바레기를 하영 헐구나예, 삼춘예? 그 쥔나 물이나 먹는 것들은 어떤 걸 먹읍니까?

104015 #1 출.

104015 @ 출?

104015 #1 팔월 중 돼면은 출을 비기 시작허주. 일찍에

104015 @ 꺼낸

104015 #1 그것도 내

104015 @2 장낫이우과?

104015 #1 베와드렌 허민 베와줄 것이고. 성읍리 장낫 이신디가 난 지금은 산에 벌초허레 다닐 때 그걸 가져가주.

떡이

104016 @ 아아, 그 췌가 아니면 물이 잘 먹는 풀은 어떤 풀이우과?

104016 #1 풀? 소세엔 현 게 잇어.

104016 @ 소세예?

104016 #1 췌나 물이나 그거 비여당.

104017 @ 그 출허젠 허면은 언제 어떤 식으로 행 온 겨우과?

104017 #1 팔월 중 돼면 출을 비기 시작허여.

104017 @ 아까 무신 거 일기 시작하면?

104017 #1 팔월 중 돼면은 바람도 하늬브름 불곡 그때부터

104017 @ 여기서 하늬브름은 어느 쪽으로 부는 거라?

104017 #1 북풍.

104017 @ 하늬브름 올라오면 출 빌 때 노래도 부르고.

104017 # 으.

104017 @ 그때 부르는 노래는 무신 노래우과?

104017 #1 낫으로 허는 노래가 잇어.

104017 @ 한번 해봅서?

104017 #1 건들 건들~ 브름이랑 불건~ 동남풍이나 허~ 불어나 오라/어야뒤야
어으~ 서너너여어로구나/출단이랑 비거들랑 어흐어어~영 줌지롱허게헤에~ 비어나
놓라 허영 그치룩허영 부르주.

104017 @ 걸 홍에기렌 험니까? 여기서?

104017 #1 건 홍에기소린 딱로 잇주.

104017 @ 건 뭐헐 때 허는 겨우과?

104017 #1 짐맬 때.

104017 @ 검질맬 때를 출홍에기여 사대렌 안 허고?

104017 #1 응?

104017 #1 아니 아니

104017 @ 검질은 홍에기라예?

104017 #1 검질매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잇어. 아웨기소리가 잇고 이 홍에기소리
가 잇고. 이 저 농부가엔 현 게 잇어.

104017 @ 예.

104017 #1 세 가지.

104017 @ 아웨기는 홍에기는 어떻 트나.

104017 @ 소리가 트난 겨우과?

104017 #1 소리 자체가 틀려.

104017 @2 저쪽에서는 진스대 짝른사대.

104017 #1 경험니까?

104017 #1 아웨기 홍에기 험니다.

104019 @ 아웨기허고 흥에기는 나중예 들으쿠다. 흥꺼번에 해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 운반허젠 허문예, 어떻허고 저장은 어떻게나수가?

104019 #1 출비영 무끄민.

104019 @ 예.

104019 #1 모두와냥 밧디 놀어. 놀엇당 출 완전히 다 비어진 다음엔 가을 돼가민 집의 시꺼당 놀주. 집의 시꺼당 놀엇당 겨울에 쉼막에 영 빠당 낫당 게난 흥를 먹을 거만씩 빠다 놔.

104019 @ 쉼막에?

104019 #1 빠다 낫당 그날 그날 주고.

104018 @ 아까 출 빌 때 단을 줄바롱허게

104018 #1 단을 크게 허면은 단을 이렇게 출을 언주왕 이렇게 다리 트망에 이렇게 모두왕 사두암서 께틀영 무꺼. 여자가 다리 벌겨지민 못전디주.

104018 @2 으음.

104018 # 이걸로 틀어.

104018 @2 제께로?

104019 @ 출놀은 어디 놀엇수가?

104019 #1 출놀 우연예. 쉼막 쉼막 가까운디.

104020 @ 예, 거기를 우연예렌 허여?

104020 #1 우연.

104020 @ 다른 데허고 다르게예. 그 다음에 그 출을 여물도 해 줘니까? 쉼도?

104020 #1 사름 먹을 거도 어신디 쉼?

104020 @ 새끼 나거나 허면은?

104020 #1 사료 주기 시작헌 지가 불과 이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엇고 나도 사료 줘봐서.

104020 @ 예, 새끼 낳 때는?

104020 #새끼 낳 때는 어떻허여?

104020 @ 쉼죽이라도.

104020 #1 성읍리는 쉼죽엔 헌 게 잇어.

104020 @ 아아. 일 부리젠 허여도 쉼죽 썩

104020 #1 아니, 아니.

104020 @ 무조건 목장에 올리고.

104020 #1 이디는 밧가는쉼 출을 딱로 비여.

104020 @ 아,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4020 #1 자골엔 헌 게 잇어.

104020 #1 농사 봄 나근에 씨 빼영 갈아. 갈앗다근에 이거 그거 비여당 주는디 밧가는 쉼벧기 탄 쉼는 안 줘.

104021 @ 드르에 강 허는 거는 아무나 줘도 자골출예? 예, 그 다음에 그 출 벨

때라든가 이럴때 잊어볼지 못하는 거 잊수가? 팔월맹질

104021 #1 맹질 전에 도 들어오곡 팔월중 들어오면은 맹질 우린 맹질 출 무끄레도 놓 빌언 가왔어.

104021 @2 아아.

104021 #1 혼이 세여서 비는 어린 때 비어야

104021 @ 팔월 중 들엇 무신 날?

104021 #1 달력에 보면 팔월중엔 헛 거 잇어.

104021 @ 팔월중. 팔월절 들어

104021 #1 백로가 팔월절인디 백로 지날 십일 중

104021 @ 백로 중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팔월중.

104021 #1 그때부터 출 시작.

104021 @ 다른 때 가면 하늬브름 불면 출

104021 #1 팔월 중 돼면 하늬브름을 분텐 허니까. 그 절기가 딱 맞아.

멜감

104022 @ 딱 맞아예? 예예, 그 다음에 여기 지들커들 어떤 식으로?

104022 #1 진을 거. 검질. 검질은 어젠가 곶아져실 건디.

104022 @ 다 안 ㄴ니까.

104022 #1 이 드르에 가민 억새가 많아.

104022 @ 예.

104022 #1 어웁게 가을 돼면은 비영 무경 집의 시꺼당 눌엇당 일년내낭 일년멜 거를 가을 돼민 해당 놀어. 우연에.

104023 @ 어웁으로 전부. 그 다음에 쉼뚱히고 뭉뚱도?

104023 #1 그건 해당 굴목 땃주.

104024 @ 쉼뚱히고 뭉뚱은 술입 걷으레는 안 땡겨봣디가?

104024 #1 성읍린 그런 건 안 허고.

104024 @ 다른 지역 술입 글쟁이 아정강은예.

104024 #1 성읍린 술입 걷으레 땡겨보진 아녀고.

104024 @ 아아, 소낭 꺼끄레도 안 땡겨보고.

104024 #1 그런 건 아녀.

104024 @ 게문 성읍리에서는 그 진을 거가?

104024 #1 검질.

104024 @ 검질? 어웁 검질?

104024 #1 어웁 검질.

104025 @ 나무 허레도 안 땡기고예? 여기는 그런 낭덜이 엇영 안 간 겨우과?

104025 #1 엇긴 어.

104026 @ 솟 굽는 것도?

104026 #1 굿 굿젠 허민 이디서 오기로 이상 산에 가야돼여.

104026 @ 삼춘네도 숯 물어봐마씨?

104026 #1 그때 우리 사삼스건 보릿고개 댜니까 숯 물어 풀안에 먹언 살앗주.

104026 @ 숯 묻엇던 얘기. 어떤 식으로 헛던 거?

104026 #1 정석비행장 츄남밭인디 츄남 꿔영 그디 강 그디서 숯 묻영 아저당은
에 어디 강 숯 쥔 고구마도 바파당 먹고.

104026 @ 게문예? 숯 묻젠 허면 가마를 멘들아야 댜는 거 아니우과예?

104026 #1 가마가 아니주.

104026 @ 어떤 식으로.

104026 #1 나무가 이 정도로 쫄라. 게난.

104026 @ 초낭?

104026 #1 이렇게

104026 #1 세우면은 과썩허게 세우면은 이 사이가 빈틈이 엇어야 숯이 삭지 아
녀주. 빈틈이 생기민 불 삭아불어. 불부찌민 숯이 삭아부러. 데깅허게 흑을 올리주
게.

104026 @ 예.

104026 #1 흑을 올리면은 이 구텡이 숯구텡이가 이렇게 똥그렇게 이시면은 구
녁을 네 곤테를 내와. 연통.

104026 @ 예.

104026 #1 혼 밧디 세 밧디는 연통이주. 완전히 불을 불부찐 완전히 불부찐 구
녁은 막아부러.

104026 @ 음.

104026 #1 이 세 구녁만 내불주. 이 불이 숯 묻으민 밤에도 줌을 못자. 돌아보
당 이디션 불꽃이 보이면 막아부러. 안 막앙 내불민 막 삭아불어. 이디서 불꽃 모이
른 막고 구녁마다 불이 보이면은 알아서 막 경 막아근에 허면은 혼 삼사일 내뻗당
걸 숯을 파는 거.

104026 @ 게문 이제 그 숯 구텡이에, 그 구텡이를 무슨 거렌

104026 #1 숯구텡이.

104026 @ 숯긔 파는 거우과?

104026 #1 평지에 허는디 여기서 팡 흑을 팡 올려.

104026 @ 아, 별도로 구텡이를 파는 게 아니라.

104026 #1 여기서 흑을

104026 @ 평지에 낭을 이렇게 세왕.

104026 #1 낭을 이렇게 세운 다음엔 겹질 놓는 이유를 이 나무에 흑 닿지 못허
게 겹질

104026 @ 아아.

104026 #1 이디서 흑을 팡 올리주게.

104026 @ 그러면 난 세운 그 땡 돌아가명 검질을 놓곡 그 상태에서 옆에 흑을 팡 올리는 거라예?

104026 #1 솟구땡이.

104026 @ 건 네 곤텐 고망을 팡. 그 고망은 뭇렌 허여?

104026 #1 이딘 연통 고양이렌 허주. 이디 불 부찌게.

104026 @ 예.

104026 # 불부찌는 불을 짹허게 허고 이 나머지는 데깅허게 세우는다, 이디는 수세미헐 걸 놔.

104026 #1 이디 부치면은 이 나무에 걸 뭇 약헌 낭을 놔.

104026 @ 예, 수세미헐 거예?

104026 #1 요것에 불부찌른 그것에 달라붙주게.

104026 @ 경헝 허명 다 탓다라는 거는 불씨 보명예?

104026 #1 이 구녁에서 나온덴 허니까.

104026 @ 그 구녕 막는 거예? 그 구녕 막암덴 헛 말도 뭇렌 헛니까?

104026 #1 솟구땡이 막암젠 허주. 다른 건?

104026 @2 아까 불쏘기개를 수세미마씨?

104026 @ 불수세.

104026 #1 젤 뭇시 이디 말로는 벨레기엔 허는다.

104026 @2 에예예, 쥘레?

104026 @ 아니, 청미레덩굴.

104026 #1 그거는양 우리가 한라산에 도벌목 밥 비가 온 날도 성냥살 헛나민 이건 불을 부떠마씨? 그렇게 불이 잘 부땡니다. 그런 걸 헤다 땡 불을 부칩주.

104026 @ 걸 수세미.

104026 #1 벨레기낭 불

104026 @ 벨레기낭 땡땡허지 안 헛니까?

104026 #1 땡땡헌 디 성냥쌀로 불 부찌든

104026 @ 연기도 잘 안 날 거고예?

104026 #1 건 불습아도 연기가 안 나.

104026 @ 그러니까.

104026 #1 폭도놈덜이 우리 토벌 탱기당 보민 그걸로 밥을 헝 먹는덴 허니까.

104026 @ 밖에서

104026 #1 연기도 어디 안 나가고.

104026 @ 으음, 그거 허젠 손도 아프고.

104026 #1 아니, 아니. 그게 벨레기 나무가 나근에 헛 이삼년 땡민 죽어 새 순 나고 새 순 나고 허니까 딱딱 꺾겨져.

104027 @ 평소에는 그렇게 단단해 보여도예, 그걸로 수세를 허는 거라예. 수세미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땡그음 준비예, 아까 지들커 준비허명 잊어볼지 못허는 거

잇수가?

104027 @ 어웁 손 비엃다든가?

104027 #1 손 빌 때도 잇주. 호미질 잘 못허는 사름은 못 허여. 호미로 영영

104027 @ 그거는 낫으로 안 해영 호미로 험니까? 여기에서는 그 어웁을 비여웁니까?

104027 #1 출 빌 때에 돌 잇는디는 낫으로 못 비거든. 그런 디 내불민 어웁이가 낡 커 그런 디 강 베여.

104027 @ 나중에 출

104027 #1 그거는 가을에 겨울 들어도 비영.

104027 @ 다 쫓난 다음에 이제 막 삭고.

104027 #1 한글혈 때.

104027 @ 그거 일년치 허젠 허면은 잘도 하영 해영 와야?

104027 #1 어웁검질 혼 단이믄 혼 끼 밥은 허주.

사냥

104028 @ 혼 단이믄예? 삼춘, 사농도 해봄디가?

104028 #1 사농은 안 해보곡.

104029 @ 꿩사농?

104029 #1 꿩사농도 안 해보고.

104029 @2 지달인?

104029 #1 우린 우리가 꿩 나 간 날은 따시 안 가켄 해연 안 간.

104030 @ 노리도

104030 #1 사삼사건 총 쏘으레 노리 쏘으레는 탕겨 봤는디 개 가정 노리 사냥은 안

104029 @ 꿩사냥도 후야야 후야야 허명.

104029 #1 꿩사농 허는 사름은 개로 허주.

104029 @ 가보긴 험디가? 한번

104029 @ 꿩코 안 해판?

104029 #1 꿩 잡는 사름덜 재수가 없젠 우리는 코에는 꿩이 안 걸린텐 허니까?

104029 @ 아, 한 번도.

104029 #1 아.

104029 @ 꿩독새기 좇으레도 것도

104029 #1 이땅 쉼로 재수 좋젠 꿩독새기 우린 꿩독새길 봉가오지 안 허여.

104029 @ 특별히 안 봉가오는 이유가 잇어마씨?

104029 #1 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말씀한 게 늑짐승을 잡는 사름이 재수가 없나 해서.

104029 @ 기려서 부러 사농도 안 가고 좇영 오지도 그래서 사농도

104029 #1 핑 재수가 없다고 해서.

104029 @ 아, 그런 말씀 듣고 허니까 안 현 거구나예, 예예?

104031 @ 지달이는?

104031 #1 보긴 해도 심어보진 아녀고.

104031 @ 어디에 사는 거우과? 지달이는.

104031 #1 땅굴을 나갈 구역을 뚫버놔. 게난 지달이 잡는 사름덜 곤는 거 보니까 이 들어가는 구역엔 똥을 안 싸고 나가는 구역엔 똥을 썬. 이걸 뿡 나가는 구역을 간 모녀 막아똥.

104031 @ 예.

104031 # 일로

104031 @ 들어강.

104031 #1 불을 때여.

104031 @ 아아.

104031 # 지달이는 연기가 들어가민 깃딱을 못 허여. 게난 연기만 들어가민 지다리는 제절로 나온다는 거. 경혜연 때려 잡넨 허주.

104031 @ 지달이 허게 똥면 뭘예 쓰는 거라마씨?

104031 #1 그게 보약이주. 보신탕보다 낫주.

104031 @ 예예, 어느 정도 커마씨?

104031 #1 지달이가 막 커봐야 혼 십 오킬로.

104031 @ 이 족제비보다는 큰 거 아니라예?

104031 #1 막 커야 십오키로.

104031 @ 십오키로. 개 정도 험니까?

104031 #1 중개 정도.

104031 @ 중개 정도. 색깔은?

104031 #1 검은 물 청충이 모양으로.

104031 @ 우리 너구리비슷하게 생겼나보다예? 지달이는 굴 팡?

104032 @ 족제비도 뉇 놔뵈디가?

104032 #1 족제비 우리 어린 때 학교 텅길 때. 그때는 족제비 꼴리를 사는 사름이 잇어나서.

104031 @ 예.

104031 #1 이 족제비 꼴리를 가정 붓을 만들엇주. 게난 이거 행은에 족제비 끓영 풀젠 우리가 뉇 만들앙.

104032 @ 뉇 만들앙예? 삼춘도

104032 #1 그건 해보고.

104033 @ 아, 족제비 뉇 행은에예 잡으러 텅길 때 추억거리?

104033 #1 추억거리사 무신 거라. 강 뿡 족제비가 안 무신 혁숙혈 뿐이주. 추억엔 현 건 겨울에 족제비가 대개 담이 이렇게 잇으면은.

104033 @ 예.

104033 #1 담이 이룬데 요런 곱은데기에 잘 걸려. 이런 디가 덧을 우린 이 저 목장에 가민 잣담엔 현 게 잇어이. 겹담으로 잡담에 족제비가 그딜 많이

104033 @ 게른 여기 아까 저기 모구린가 뭔가 허면 멧 소장이라낫수가? 옛날에.

104033 @ 무신 거? 갑마장?

104033 #1 그 목장 갑마장이

104033 #1 성읍리는 이 저 동목장 서목장만 해낫주.

104033 @ 동목장 서목장. 여기도 잣담덜도?

104033 #1 잣담은 마을과 마을과 경계선.

104033 @ 여기는?

104033 #1 경계선이 이 대록봉.

104033 @ 대록산.

104033 #1 성읍리고 가시리허고

104033 @2 따래비

104033 #1 따래비 동쪽 잣담은 위쪽은 성읍리.

104033 @ 거기에 그 잣담이렌 허 그거는 상жат 중жат 이런 말은 안 험니까? 거기선 그냥 잣담.

104033 #1 잣담이 접담으로 돼어 잇주.

104033 @ 접담으로예. 예예. 이렇게 해서 하고. 잠깐만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삼춘, 여기서 옷감 종류들 옛날에 어떤 것들이 잇어나신고예?

106001 #2 광목허고 멥지허고 베허곡.

106001 @ 베허곡.

106001 #2 삼베.

106001 #2 그런 거나벳기 별다른 옷.

명주

106002 @ 혹시 멥지썰 만드는 사람 봐나수가?

106002 #1 아, 잇어나서.

106002 #1 우리 어머니도 해나서.

106002 @ 어떤 식으로 멥지썰 멘드는 거.

106002 #1 뉘인가 누에. 누에를 길랑 그거를 가지고 허더라고. 우리 어릴 때 보

니까.

106002 @ 예.

106002 #1 그게 저 요정도 돼게 집을 지어이. 누에가,

106002 @ 예.

106002 #1 딸리면서 누에

106002 #2 누에를 딸리멍.

106003 @ 아아. 그치룩허영은에 썰을 이제 뽑는 거라예. 게문 멍지도 삼춘, 멍지도 종류가 잇수가?

106003 #2 종류가 여라 가지주.

106003 @ 으.

106003 #2 육깃멩주엔 허영 육지서 오는 멍지가 잇어나서. 줌진 거. 토멩지엔

106003 #1 여기서 만든 거.

106003 #2 누에고치로 짜난 거 답수다.

106003 @ 예.

106003 #1 또 그 생멩지엔 현 저 노이지 아녕은에 노인텐 허는 건 삶으는 걸 노인텐 허는 거 답읍디다. 은 생멩지엔 생차로 버드락헌 멍지가 이십디다게.

106003 @ 예.

106003 #2 그거는 몰라.

(중략)

106003 #2 육지서가 온 건지 제주어 그런 거 잇어나수다.

106003 @ 생멩지

(중략)

106003 @ 예, 그치룩허영은에 토멩지하고 생멩지가 이신 거고예?

106003 #2 생멩지엔 해영 빠들락 바닥바닥헉디다.

(중략)

106003 #2 육깃멩지 멩진 육지서 온 거 답아. 우리 큰 후제는.

106003 @ 으음.

106003 #2 그런 거벧귄 멩지 종류 잘 몰르쿠다.

106003 @ 음, 아직 다 안 헤신가.

106003 #1 아, 나가불렌 허연. 나가부런.

106004 @ 경허면은 삼춘, 멩지로는 주로 무슨 옷 멘들아마씨?

106004 #2 멩지론 제사 때에 큰옷.

106004 @ 예.

106004 #2 신랑신부 장게갈 때.

106004 @ 예.

106004 #2 멩지로 우의 저고리도 허고 바지도 허고 두루막도 허고 다 멩지로 사용허곡. 또 호상엔 허영 죽으민.

106004 @ 예.

106004 #2 우의 입는 죽은 사름덜 입지는 다 멍지로만 만들언.

106004 @ 옛날에는 어떤 큰 행사나 잇거나 허면 전부?

106004 #2 멍지로 제사허는 집의 제사 제관덜은 도폭을 입영은에 제사를 헤엿수다게.

106004 #1 삼헌.

106004 #2 삼헌 चल.

106004 #1 삼헌허고 집사는 거 유건 쓰고 이렇게 해서.

106004 #2 장계갈 때 신랑도 바지저고리 입은 후에 그것 또 입곡.

106004 @ 그 새각시들은 어떻게 그?

106004 #2 새각시 멍지에 물들엿당은에

106004 @ 예.

106004 #2 색색이 토멍지 물들언 장옷엔 크게 만들언 저 이 새각시 옷 안네 입은 우의 영 입곡 쓰곡 영 얼굴 감추곡 경혜근에 가메 타곡 행 가는 게 잇어나서.

106004 @ 삼춘도 경혜연 험디가? 웃음.

106004 #2 우리 옛날 결혼이난 다 그치룩허멍 허연. 머리 건지 엿지곡.

106004 @ 건지 엿지고예?

106004 #2 쪽두리 쓰는 건 완전 고급이고 현재 난 후제.

106004 @ 그 족두리 나기 전에는 건지

106004 #2 건지라고 해서 질루민 이디 머리에 굴루히 저 머리를 엿날덜 할망덜은 질황은에 머리를 걸로 몬 마주 낵은에 무껏당 진진허게 헛당 여견에 그걸로 오그라 곱닥헌 이멍거리 똑 무끄곡 장옷 입곡 쓰곡 경혜연 가메 타낵수게.

106004 @ 삼춘, 아까 이멍거리 헛는데 이멍거리가 뭐우과?

106004 #1 머리띠.

106004 #2 이마띠.

106004 @ 이멍거리도 허곡.

106004 #2 머리창에 머리창에 영 꼬부락허민 이레 머리창이 잘락 둥기고 또 그 이멍거리엔 현 거 멍지에 물 들엿당 머리 안 떨어지게 무끄는 거.

106004 @ 아아.

106004 #2 경허영 장옷 벗어지지 아녀게 허는 식으로.

106004 @ 음, 경허영 삼춘이 다 경헌 거라예?

106004 #2 케난 흥꼰허민 가메 타곡 씨집간텐 말이 그거.

106005 @ 그거는 아까 이제 멍지를 현 거 앵아예? 멍지 말고 미녕썰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6005 #2 미녕은 막 노동헛 때 입는 옷덜. 감들이고. 옛날은 그 미녕에만 감들여낵수다. 요즘은 아무 것도 들이는다.

106005 @ 예.

106005 #2 미녕으로 노동복. 그걸로 해놔수다.
 106005 @ 예, 그걸로예? 미녕썰은 어떻게
 106005 #2 미녕썰도 아마도, 뽑아낸 거 닮수다. 멘네.
 106005 #1 그저.
 106005 #2 물레엔 현 거
 106005 #1 물레가
 106005 #1 그제 종자가 잇수다.
 106005 #2 멘네. 복삭허게 빠내영. 그 썰 내난 거
 106005 #1 그걸로 소게이불도 만들고.
 106005 @ 음.
 106005 #1 그걸로 뽑아내고.
 106005 #2 소게이불 멘드는 건 흥썸 멘네.
 106005 #1 그제 종자가 목화우다. 목화.
 106005 #2 멘네가 목화 말이주.
 106005 #1 멘네가 목화.
 106006 @ 예, 삼춘, 그 혹시 누에 치는 것도 봐봤수가?
 106006 #2 질루는 건 봐났다. 질루는 거.
 106006 #2 챗번 뭇로 만드아신고.
 106006 #1 누에가 원래 씨가 잇수다.
 106006 @ 예.
 106006 #1 베랭이 씨가 잇는디 그 씨를 사다근에 뽕입을 덮어서 놔두면 일주일
 만
 106006 #2 뽕입에서 나왔구나.
 106006 #2 엇수다. 뽕입 아니우다.
 106006 @ 씨.
 106006 #1 씨가 잇수다.
 106006 @ 이만큼씩 나오믄 그거 어떤 식으로 질완마씨?
 106006 #1 커. 손가락보다도 다 커.
 106006 @ 경허면?
 106006 #1 이게 자기가 클만이 크면은 둥지를 지영 들어얏넨 허니까.
 106006 #2 뽕입으로만 질와놔주.
 106006 #1 뽕입으로만.
 106006 @ 뽕입 하루에 삼춘네도 키웠으니까.
 106006 #1 하루 세 번은 줘야주.
 106006 #2 하루 세 번으로 돼카. 아빣 저녁.
 106006 #2 와상와상 곧 주민 다 먹어불곡 곧 주민 다 먹어불곡.
 106006 #1 어린 때

106006 @ 으.

106006 #2 누에 갈양도 허곡. 드르에 강 툔아도 멕이고.

106006 #1 우리, 우리가 학교에 텅길 때

106006 @ 예.

106006 #1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누에를 길좌낫다니까.

106006 @ 아아.

106006 #1 게영 우리가 뽕입 엇이난 가시리 강 솔가 사삼 땀 디 가버리난 그디
간 뽕입을 타단에.

106006 #2 스삼사건에 ㄱ장 누에 잇어나서.

106006 #1 잇어나수게. 우리가 길좌수게.

무녕

106007 @ 그치록허영 질루고예. 그리고 아까는 미녕,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잇수
가?

106007 #2 미녕 종류는 미녕 혼 가지주.

106007 @ 그것도.

106007 #1 말고는 광목.

106007 #1 미녕은 혼 가지고.

106007 @ 미녕은 혼 가지고예? 미녕도 고운 것도 잇고 설렁설렁 짚 것도 잇고
허좌아예?

106007 #2 경 험니다.

106007 @ 미녕.

106007 #2 미녕.

106007 @ 미녕 광목. 미녕허고 광목은 어떻 구별해마씨?

106007 #1 광목은 막 줌질주게.

106007 #2 미녕은 헝뎀 줌질곡.

106007 #2 폭도

106007 #2 곱질 아녀주.

106007 #1 넓이가.

106007 #2 또 옥광목엔 현 것이 건 옥짓광목이라. 옥광목엔 현 거 헤영현 거 난
거.

106007 #1 광목은 대개 옥지서 들어왔수다.

106007 #2 것 ㄱ란 옥짓광목엔.

106007 @ 예.

106007 #1 좋아서.

106007 #2 씨집가는 새각시덜 이불안허고예. 광목으로

106007 #1 전부 헛주.

106008 @ 계믄 삼춘
 106008 #1 미녕은 갈웃.
 106008 #2 미녕은 이불안 굿어부난.
 106008 @ 주로 갈웃 만드는 거예?
 106008 @ 광목은?
 106008 #2 광목은 이불안도 곤웃으로 중의적삼덜토 해입곡. 바지저고리 ㄱ라 중의적삼 중의적삼해낫주게.
 106008 @ 음.
 106008 #2 초상 나민 광목치메.
 106008 @ 광목으로 허는 거구나예?
 106008 #2 베로 해여낫주마는.
 106008 #1 가까운 근족.
 106008 @ 예.
 106008 #1 망인허고 사춘 이내 먼친족
 106008 #2 베 비싼애
 106008 #1 가까운 근족만 베로 허는 거.
 106008 #2 이 근래나난 베수건 복도.
 106011 @ 복도예? 거고 삼춘, 씨집갈 때 홍세미녕이렌 행도 들어봣디가?
 #1 홍세, 거 광목으로 많이 나서.
 106011 @ 용도는 뭇고예?
 106011 #1 용도는 이디 낫다가 새각시가 씨집가서 자식이 나면은 자식 샷바 하라고 해서.
 106011 #2 그거 맞아.
 106011 @ 맞아마씨? 삼춘도 경해근에 해낫수가?
 106011 #2 우리도
 106011 #2 애기덜 샷바. 계곡 홍세 놓는 거 미녕도 놓고 잘 사는 집의 광목 놓고 못 사는 집원 미녕 놓곡 허민 애기 낳민 샷바 만들렌 그거 놓는 거.
 106011 @ 음.
 106011 #2 흥썸 이펜디레 와가난 멍지로도 뵈나서.
 106011 #1 멍지로도 놓단 그 다음은 돈으로 멍지로 이젠 완전히 그게 엇어전.
 106011 #1 결혼식 헐 땐 이젠 홍세엔 헐 거 없어.
 106011 #2 홍세함에 헐에 그디 예장 씨놓곡 애깃 지성기 이제는 돈만 놓는 거 답안게이.
 106011 #1 예.
 106011 #1 우리도 결혼헐 때에 옛날은 홍세함 정 가는 사름 잇엇어.
 106011 @ 아아.
 106011 #1 마을 유스라고 허는 디.

106011 #2 물타곡 허영.

106011 #1 그 여자가 신랑신부보다 먼저 가. 신부침의 먼저 강 딱 드리면은 그 여장을 딱 때문에 갖당 드리면은 상객이 두 사람이 가는데.

106011 @ 예.

106011 #1 상객이 두 사람이 가는데, 이제 원래 신랑 쪽에서 한 사람, 신부 쪽에서 한 사람 해서. 어머니

106011 #2 건 우시 우시.

106011 #1 가는다.

106011 #2 지금도 그런 거 잊지이.

106011 #1 부동 자세로 탁 사.

106011 @ 음.

106011 #2 흥세함을 여기서 꺼내영 익어봐서 만약 글씨가 틀린 게 보이면 상객 보고 상당히 호령을 허주게.

106011 @ 예.

106011 #1 이 이상이 잊으면 여기서가 신부 쪽에서가 아 이제 통과됐었다고 들어오랜 허민 신랑이 들어오는 거주. 워낙 신랑이 유식헌 사름이 잊어이. 옛날 서당 한문을 익은 사름.

106011 @ 예.

106011 #1 예장 쓸 적에.

106011 @ 예에.

106011 #1 하나 아니민 두 개 썸은 틀리게 아 글자가 틀렸다. 이젠 신랑 못 받 아들이젠 막 허여. 신랑이 몰 우의 앓아두람서.

106011 @ 예.

106011 #1 붓 허곡 가져오라고. 신랑 으망진 신부 쪽에서 칭찬허고.

106011 @ 일부러예?

106011 #1 성읍리 사름도 일부러 틀리게

106011 #2 누게?

106011 #1 인준이마씨.

106011 #1 자기가

106011 #2 인준이가 써서?

106011 @ 삼춘, 근데 여기서 어떤 걸로 싸냇수가?

106011 #2 노란 거.

106011 @2 우리 동네서

106011 #1 자부동 색깔.

106011 @ 이렇게

106011 #2 여기선 완전 노란 거.

106011 @ 알아수다.

106011 #2 선생님네 어디우과?
 106011 @ 여기는 양반 동네라부난.
 106011 #2 웃음.
 106011 #1 모슬포 가난
 106012 @ 예, 맞수다.
 106012 #2 우리 그런 거
 106012 #1 우리 어머니 산 때난
 106012 #2 서쪽 분이주. 가시리. 옷귀냐?
 106012 #1 가시리마씨.
 106012 #1 어머니는 여기서 목화를 갈아서 우리보고 가을 댜 벨라진 소게 숨이
 나와. 따오렌 허영
 106012 #2 까근에 숨을 만들 씨 블라두곡 나는 그런 거 허도 아녀고 해나도 아
 녀고 허난.
 106012 @ 성읍리에
 106012 #2 이땅 가당 어떤 집의 헛주.
 106012 @ 소게들은 다 사당 쓴 거라마씨?
 106012 @ 여기는 땅이.
 106012 #2 멘네 농사를 많이 안 져.

모시

106013 @ 알아수다. 혹시 모시도 허는 거 봐봔디가?
 106013 #1 모시?
 106013 @ 예.
 106013 #1 모시는 드르에 가면 모시가 많아.
 106013 @ 아아.
 106013 #1 그제 해근에 모시, 모시적삼엔 해근에.
 106013 #2 그 모시를 질레에 드려 갈아낫주.
 106013 #2 모시가 무시건가 보난 쥔 닳은 거란게. 모시 비여당 대막탱이 쭉쭉허
 게 겹질이 뱃겨집디다게. 게난 그거 ㅋ칭허게 그거 쭉앙 마께로 게여가난 해열게
 뒀연게. 경허난 아저간 기계신디 강.
 106013 #1 모시가
 106013 #1 뱃겨가
 106013 #2 솟에 담아놔
 106013 @ 썰 빠는 것도 봐나난마씨?
 106013 #1 이견 손톱으로 갈라야 뒀.
 106013 #1 일일이 갈라내야 뒀.
 106013 @ 모시 대에서?

106013 #1 껌데기 깐 걸로.
 106013 @ 껌데기 깐 걸로예?
 106013 #1 모시나 삼베 베 짜는 거나 전부 손으로 갈라야 돼여.
 106013 #2 다리에 낳 영영.
 106013 #2 찢 연결을 요렇게 낳 요런 디서 영영허더라고.
 106013 #2 그 다음부턴 몰르쿠다, 뭇사 만들어난디.
 106013 #1 그거허영 베 적삼허곡 그 종류가 모시허고 베허고 틀린 게 바로.
 106014 @ 모시?
 106014 #1 증의도 허곡.
 106014 #2 이불도
 106014 #1 잘 사는 사름도 걸로 호상도 만들야.
 106014 #2 호상은 모시 안 들어. 모시 안 든다고. 지금도 모시 데가리 흰 자손
 난텐 허곡. 죽어도 지금도.
 106014 @ 예. 게난 그 제주도 아년텐.
 106014 #1 베로만 헛구나. 베론 해연.
 106014 #1 베는 이디도 그제 삼엔 허는디, 그 저 베 짜는 걸 이름보고 삼이엔
 해서.
 106014 @ 삼엔.
 106014 #1 삼엔 헨 우리 아버지네 갈아나신디.
 106015 @ 모시도 직접 갈고
 106015 #2 질레에 뱃기는 것
 106015 #1 삼은 갈아나고.

삼

106018 @ 삼 가는 애길헤줍서?
 106018 @ 어떤 식으로 갑디가?
 106018 #1 골 청 갈아. 이디 씨 나면은 강 비여오는 거주.
 106018 #1 우리 키보다 더 커.
 106018 #1 게난 비빌 때 보니까 연결.
 106018 #2 베 짤 때 비비는 거.
 106018 #1 삼으론 베를 짜니까.
 106018 #2 감양은에 일로 밀력 일로 밀력 베를 탁탁허난 베 그런 거 허는 거.
 난산리 사름덜.
 106016 @ 여기 사람들은
 106016 #1 여기는 어디 그.
 106016 #2 우리 마을은
 106016 #2 베짜는 디서 씨집 성읍리서 아는 사람이 엇어.

106016 #2 직접 해나진 아녀난.
 106016 @ 그 다음에.
 106016 #1 베틀엔 허잖아 베틀.
 106017 @ 그 다음에 그 베로는 어떤
 106017 #2 베옷게 상복.
 106017 #1 남자들 여름에 만들영 입영 놀레도 다니곡 허여. 어른덜.
 106017 @ 어른덜
 106017 #2 베옷 모시옷 그런 거 입영덜 살아. 모시옷은 산 사름은 입곡 산사름
 덜은 모시 해영덜 곱게덜 해영 입어났주마는 죽은 사름안티는 일절 모시를
 106017 #1 잘 사는 못 사는 사름 잇엇수가?
 106017 #2 옷을 여라 사름 헛수가? 아녀수다.
 106017 #1 잘 사는 사람들이주.

도구

106019 @ 삼춘, 씨 불르는 거.
 106019 #2 그런 것도 나 일절 안 해반.
 106020 @ 물레는
 106020 #2 아니, 아니, 썰 감는 거.
 106020 #1 돌령.
 106020 #1 이거 등겨 확허게 들어가더라고.
 106020 #2 것보라 꼬리 감는
 106020 #1 몰르쿠다.
 106020 #2 꼬리엔 험디다게. 그것에 영영 심어 감안게. 감는 건 본디 짜는 건
 안 반.
 106021 @ 건 꼬리 감는덴 허는 거라예? 아까 베틀 골안게, 베틀은 알아
 106021 #1 베틀 봐나긴 봐났는디 분명히 봐나긴 봐났는디. 한짝 발에 신발 신영
 뒤통 등것당 눅췌당 그건 봐나긴 봐.
 106021 @ 여자 삼춘도?
 106021 #2 나 일허레 땡기멍 살아나지 대개 곤는 거 들엇주, 직접.
 106021 @ 삼춘네
 106021 #2 우리 어멍네 밥이나 얻어 먹으멍 살아부난.
 106021 @ 웃음.
 106021 #2 일허는

바느질

106022 @ 바농질은 하영 헛지예.
 106022 #2 예.

106022 @ 바농질혈 땀
 106022 #2 손 자.
 106022 #1 잣대가 대, 나무로 만든
 106022 #2 자엔 현 것이 무신 거니? 자 하나가 열 치.
 106022 @ 예.
 106022 #2 하나 십 센치가 혼 치우다. 십 센티가 혼 치. 혼 자 열 개.
 106022 #1 아니, 아니.
 106022 #2 열 개.
 106022 @ 오십 센치.
 106022 #2 열 개.
 106022 #1 화갑살 끼레기 하나가 한 치우다.
 106022 @ 예.
 106022 #1 그거 계산허민 맞아마씨.
 106022 @ 이땅 사진 다 찍영.
 106022 #1 귀현 건디.
 106022 #4 사진 찍영 가켄
 106022 #1 이거, 이거.
 106022 #2 그거 혼 치.
 106022 @ 그 다음에 바느질 도구허면, 바느질 도구 놓는 거
 106022 #1 나 베와주카?
 106022 @ 예예.
 106022 #1 바농상지.
 106022 #4 거
 106022 @ 바농상지하고예, 그 다음에 바농들 꼽는 거?
 106022 #2 이제 실 거라.
 106022 @ 이거 뭐렌 험니까?
 106022 @ 이것도 직접 만
 106022 #1 이름은 몰르고.
 106022 #2 썰꺇레기.
 106022 #1 옛날은
 106022 #2 썰드레기. 옛날은 썰드레기.
 106022 @ 무시거 이신고? 바농은 뭐에 씹니까?
 106022 #2 썰 꿰영 이것에
 106022 @ 바농혈 때
 106022 #2 바농 혼 씹 열 개.
 106022 #1 바농
 106022 #2 여자가 알주. 남자가 바농 알아.

106022 @ 맞수다. 삼춘헌 건 헛꿈 죽은 거 다프다.
 106022 #1 바농 사례 텅겨낫주게 점방에 바농 사례 텅기난애.
 106022 @ 여자가 알아. 바농 열 개 혼 씹 열 개.
 106023 @ 계문 이 바농허는 방법도 트나잖아예. 옷이 듬성듬성 찌는 거.
 106023 #2 듬성듬성 뒷바농질.
 106023 #2 요레 줌질게 허젠 허믄
 106023 @ 건 텅침. 듬성듬성 허는 거?
 106023 #2 건 호는 거.
 106023 #1 상복 만들 때 빨리 허젠.
 106023 @ 단 풀어지지 못
 106023 #1 감추는 거.
 106023 #2 단 감춘덴도 허고 그냥 듬상듬상 호앙 허는 것도 싹곡 그건 뉘.
 106023 #1 단 감춘데.
 106023 #1 풀어지지 말게.
 106023 #2 호으는 거.
 106023 @ 이불 ㄱ튼 거 꼬맬 때 호우는 겨우과?
 106023 #2 듬상듬상
 106023 @ 주로?
 106023 #2 줌질게 허는 거 훑으게 허는 거 텅침허는 거 세 가지.
 106023 @ 세 가지로예?

옷 종류

106024 @ 그 다음은 감치고. 알아수다. 남자옷은 그 종류가 어떤 거 잇인고예?
 속옷부터.
 106024 #2 남자 입는 옷 곺아봐?
 106024 @ 여자가 만들어시난.
 106024 #1 뽀스허고 바지벳괴.
 106024 @ 옛날애
 106024 #2 뽀스가 속바지라 속바지.
 106024 #1 갈중의 농부덜 입는 거.
 106024 #2 속중의. 뽀스는 .
 106024 #1 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
 106024 #2 속중의
 106024 #3 이거는 으덜 개우다.
 106024 @ 예. 이거는 이제야 나온 거고.
 106024 @2 까만 종이에.
 106024 #1 이건 미승보냥

106024 #4 건 으둑 깨우다.
 106024 #2 흔 솜이 열 개.
 106024 @ 남자옷 곱아?
 106024 #2 속중의.
 106024 @ 예.
 106024 #2 또 속중의 입어나민 밑에 소곱게 뺨스 입어나민 우의는 것옷. 것중의 입을 거 아니라.
 106024 @ 것중의.
 106024 #2 저고리 쪼께.
 106024 @ 쪼께?
 106024 #2 보통으로 쪼께 입곡 속내의 안네 그거허고 두루막.
 106024 @ 두루막허고.
 106024 #2 그것뿐.
 106025 @ 그 다음에 여자옷은 어떤 거 잇어?
 106025 #2 여자옷은 중의 속중의 바깥디 입는 중의.
 106025 @ 예.
 106025 #2 속치마 것치마
 106025 @ 우에는?
 106025 #2 우네느 입는 사름은 조 마고자 행 입곡. 옛날 마고자 없곡.
 106025 @ 아, 옛날은 없고예?
 106025 #2 속적삼.
 106025 @ 적삼허고
 106025 #2 저고린 안안팍 끼와진 거.
 106025 @ 예.
 106025 #2 적삼은 홀로 댜 거.
 106025 @ 훗것을 남자들도 여름에
 106025 #2 게난 다 겨울에 입는 거게 남자는게 바지도 속 댜 허는 거. 안팍 끼왕 허는 거.
 106025 #2 여름에 입는 건 훗바지.
 106025 @ 훗바지.
 106025 @ 정뱅이 이런 말은 안?
 106025 #2 정뱅인 여름에 입는 게 정뱅이. 속정뱅이 헛꿈 긴정뱅이.
 106025 @ 여자들 치마 소곱에 입는 중의는 딱로 부르는 이름 없수가?
 106025 #2 굴중의.
 106025 #2 굴중의.
 106025 #2 나 아까 곱아신디. 여자는 굴중일 입어사 치멜 입엇주기. 아래 펄락허게 우의 주름 앞정 무끄곡 그거 입어낭은 속치마 입곡.

106025 @ 곁에?
 106025 #2 집의 신 뎨.
 106026 @ 집의 신 뎨예. 아이덜 옷은 어떤 게 잇어신고예?
 106026 #2 여자옷 만들앙 입. 경헛주.
 106026 @ 애기덜만 특별하게
 106026 #2 엇어.
 106026 @ 애기 때?
 106026 @ 태어나면?
 106026 #2 붏땃.
 106026 #2 붏적삼.
 106026 #1 건 베로 만들어.
 106026 #2 베로도 만들곡
 106026 #1 살그랑.
 106026 #2 베로 허는 건 붏땃적삼.
 106026 #2 이삼일 이
 106026 @ 음. 그렇게.
 106026 #2 갓 무산고 애기가 처음 난 때 그 베적삼을 입저사 등어리가 전설이
 잇어.
 106026 #1 베가 살그랑
 106026 #2 그거 일주일 아 사흘 입점신가? 안 신 거 입점쥬.
 106026 @ 게문 그거는 애기가 태어나자 입지는 겨우과?
 106026 #2 태어나자 입지는 스미도 베로 허는 거. 붏디적삼.
 106026 #1 붏디적삼인가.
 106027 @ 예, 그 삼춘 옷 혼번 만들어봣쥬. 이제 저고리 만들 쥬 허면 마름질은
 어떤 식으로 헨예?
 106027 #2 저고리 만들쥬 허면 우선 품. 뎨들아 소미 붙일 거 기 그 다음에는
 앞섭이여 깃이여 따로 따로 부치명 허는 거.
 106027 @ 경 허영은예 쥬 먼저는?
 106027 #2 쥬 먼저는 앞뒤를 먼저 뎨드는 거.
 106027 #1 앞에 허고 두이.
 106027 #2 영 놔지민 가운디 영 목고디 헐 디 찢라튀 가운딜로 벌렁 이디 등어
 리 허는 딴 아 앞의 헐 때는 두 개로 갈르고 옆이는 스미 부찌곡 소미 부쥬 다 즈
 난 다음 이거 깃 부찌곡 앞섭이엔 헨 거 따로 부찌고.
 106027 @ 그 다음에 옆에 무끄쥬 허면은?
 106027 #2 적삼이사 무껴게.
 106027 @ 저고리는
 106027 #2 깃 돌아단추나 고름이나 둘 거.

106029 @ 옛날은 단추는 무신 단추
 106029 @ 무신
 106029 #2 험벽단추 못인 거.
 106029 #2 보통 단추 사당 들고.
 106028 @ 음음. 경허고 삼춘 이제 옷 허면 이렇게 바지들이 잇잖아예? 바지 텔
 거잖아예?이 부분은 뭐렌 해?
 106028 #2 허리.
 106028 @ 이런 부분은?
 106028 #2 그건 바지폭.
 106028 @ 폭. 폭도 큰 거 잇고 조은 거 잇어예?
 106028 #2 큰폭 작은폭. 상복 작은복.
 106028 @ 아, 상복이렌 해? 큰폭.
 106028 #2 상복 작은
 106028 @ 이 밑에는?
 106028 #2 거긴 무시거라?
 106028 #2 이디 아무 것도 엇인거 아니?
 106028 @ 젤 밑에. 발 나오는 디?
 106028 @ 게문?
 106028 # 상복 부찌곡 단 허여불민 바지가 돼는 거주.
 106028 @ 단이구나예?
 106028 #2 허리 들앙
 106028 @ 여기는 허리 드는 거고. 허리 무끄는 거는 뭐렌 허여?
 106028 #2 허리띠.
 106028 @ 허리띠렌 허곡. 여자는
 106028 #2 치마는 무꿀 게 엇주게.
 106028 @ 여기는?
 106028 #2 치맛허리.
 106028 @ 치맛허리는
 106028 #2 허리를 따로 주름 앓저근예.
 106028 #2 곱 들앙 무끄민.
 106028 @ 건 치맛허리? 이런 옆에.
 106028 #2 건 아무 것도 아니. 치마폭은 두 폭짜리 잇고 베는 으섯 폭 헤사 광
 목은 두 폭으로 홀 수가 잇고. 미녕도 허젠 허민
 106028 @ 치마허리 통으로 허는 치마도 잇고.
 106028 #2 통으로.
 106028 @ 그건 무슨 치마 헉니까?
 106028 #2 그건 허리 치마.

106028 @ 이렇게 헛 거는?

106028 #2 우리 통으로 헛 거는

106028 @ 그게 깎치마우과?

106028 #2 깎치마가 곱 메영 감는 것이 그게 깎치마고.

106028 #2 이견 허리망 들앙 입는 거 신식으로 난 치마.

106028 @ 신식으로고, 위로 위로 무끄는 딴

106028 #2 허리 이젠 우리 할망덜 ㄱ트민 이런 딜로 무끄지마는 처녀덜 영 무
꺼근에 저고리 톡허게 무꺼불주게. 그 치메나 그 치메나 ㄱ튼 거.

106028 @ 옛날은 다 깎치메라예?

106028 #2 요즘에나 통치마 허리 치마 나오는 거예?

106028 #2 둘렁 뎡것주. 지금 빌락빌락 뎡겨나지 아녀수다.

106028 @ 그치 다예. 저고리 같은 경우에 하면 삼춘 이렇게?

106028 #2 저고린 모양 톡ㄱ치 헛 거.

106028 @ 이름이 여기는?

106028 #2 여기는 압섭.

106028 @ 여기가 압섭예? 이 옆에는?

106028 #2 건 저 소매.

106028 @ 이게 소매. 여기 끝에는 뭐렌 험니까?

106028 #2 소매부리.

106028 #2 옷스미 부리.

106028 @ 이 뒤편에는?

106028 #2 뒤편에 무신거 잇어. 짓 돌아볼민 말 거주. 앞섭 우에 짓.

106028 @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웬 데.

106028 #2 이것가 소매.

106028 @ 소매 밑에를.

106028 @ 아, ㄱ튼 거.

106028 #2 저고리 요디 영.

106028 #2 적삼은 여고 저고리 진동 요디 줍는 거.

106028 @ 아아, 이 아래 저고리 밑에도.

106028 #2 아래 도련.

106028 @ 도련.

106028 #2 여자옷은 알 도련을 곱게 줍아사 뿐이 나는 거.

106028 @ 제대로 뒤편. 이렇게 해서 보선.

106028 #2 보선.

106028 #2 뒤치기.

106028 @ 여기는 뒤치기?

106028 #2 앞의 건 앞치기. 여자들도 꼬짝허게 나오는 건 보선코.

106028 @ 요거는?
 106028 #2 뒤치기.
 106028 @ 이 앞에는?
 106028 #2 앞치긴 보선코 보선앞.
 106028 @ 이 우에는? 팔 허면 이렇게
 106028 #2 보선 ㄱ치 들어가는 거 아니.
 106028 @ 수눅은 어디우과?
 106028 #2 목.
 106028 @ 여기가 게른 이거 옆으로 뒤텔예?
 106028 #2 이거 영허면 발ㄱ치록 요디 앞코지 날 거 뒤치기 땔 거 가운디 ㅎ뽀 줄이는 거 땔산디 몰라.
 106028 #1 이디 보선 만들어신게. ㅎ뽀
 106028 @ 경허니까?
 106028 #2 것도 나도 모르켜 줄이는 건.
 106029 @ 단추 종류는
 106029 #2 단추 종류 사기단추 췌단추도 잇고.
 106029 #1 이디 주로 옛날은 험벅단추를 많이 햏주.
 106029 @ 험벅단추를 불르는 이름
 106029 #2 험벅단추. 여자
 106029 #2 속에[쏘게] 소중이엔 험 거가 잇어.
 106029 @ 그게 그 소중이를 입은 다음에 속바지도 입곡.
 106029 #2 바지 입곡.

재단과 염색

106030 @ 얼마나 옷 입은 게 하서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삼춘,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녕으로 옷허젠 허민 미녕 못 뎡들잖아예? 어떤 식으로 헤연 옷을?
 106030 #2 미녕 빨앙 잘 손 봐나서 옷 만들기가 좋주. 광목이나 무신 거라도.
 106030 @ 옷감 손질허는 거 한번 곴아줍서.
 106030 #2 미녕헤당 빨앙 풀헤영.
 106030 @ 예. 밀풀이나 밀 곴앙은에 짱 풀헤낫주기.
 106030 @ 밀풀예?
 106030 #2 문작허민 그거 막 주물가 밀풀이 췌 좋덴 헤낫주.
 106030 @ 습지 안 허여?
 106030 #2 풀 내왕 췌
 106030 @ 예.
 106030 #2 지금은 밀ㄱ르 얼마든지.

106030 @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옷 다린 다음에 옷을 멘들아?
 106030 #2 다려도 좋고 막 몰라볼지 낄낄
 106030 #1 손보주.
 106030 #2 바짝허민 믱들믹들허민 옷ㄴ슴
 106030 #2 발로 블라근에 것ㄴ가 손봄엔 허주.
 106030 @ 손봄예?
 106030 @ 옷ㄴ슴 손본텐 영 낄는 거라예?
 106031 @ 삼춘 염색도 해봣디가?
 106031 @ 어떤 식으로?
 106031 #2 물ㄴ음 사당 그것에 옷 적정.
 106031 #1 솟디 낱 솟앙.
 106031 #2 경헨 염색덜 허는 사름덜
 106031 @ 여기 옛날에는 갈옷덜 하영 입엇잖아예> 염색허는 순서? 어떤 식으로
 106031 #2 갈옷들 지금 사름덜 허는 거 보난에 염색해낱 감옷
 106031 #1 옛날 말로만 곁읍서. 시방 감으로만 옛날은 허난에.
 106031 #2 그 전엔 염색해보진 안 허여.
 106031 @ 감옷
 106031 #2 감 타당 도고리에서 마께로 밋앙. 물 짱 옷허영 주물주물 몽크려근에 판칙 주생이 안 부뜨게 판칙 빠작허게 손봐낱 경허영 넘 시작허민 것가 바라가는낱 물 적시.
 106031 @ 물적지명 너는 거를 어느 정도 허면은 그 색깔이
 106031 #2 허당허당 빨강헨 때꺼지 적저당 녀고
 106031 #1 흐루 혼 번 적지주.
 106031 #2 저 자꾸 녀영 감옷이 곱주.
 106031 @ 옛날은 요즘은 미리 다 헨 다음에 옛날 어른덜도
 106031 #2 감 들여낱당
 106031 #1 들영 놔두주게.
 106031 @ 천을 미리 여름에는 들영 낱당 겨울에 옷덜 멘들앗구나. 일 안 헨 때 예?
 106031 #2 멘들앙
 106031 #2 옛날은 멘들앙덜 하영 들엇주. 하영 아녀난게.
 106031 @ 예예.
 106031 #2 이녀 입을 거 감 타당 곱 들여은에 옷 멘들아낱 들이민 더 곱주.
 106031 @ 아, 천으로 허는 것보단 멘들아낱
 106031 #2 썰밥도 안 나고 아무 썰이나 들여낱 허젠 허민 감썰도 사살 거.
 106031 @ 아아.
 106031 #1 지금은 나오는다.

106031 #2 썰밥도 안 나곡 실도 안 나곡. 제 색 웨영은에.
 106031 @ 제 색
 106031 #2 하영 들엿주. 저치록 천에 들염주. 옛날은 톡 허게 들엿당.
 106031 @ 그러면 그 감옷은 계절없이 옛날들은 입엇수가?
 106031 #2 게에?
 106031 #1 농부는
 106031 #2 농부도 엇인 사름이.
 106031 #2 겨울에.
 106031 #1 땀이.
 106031 #2 이 감옷은 입으민 씨원헌 기가 시난에 저 여름에만 입으렌 헌 거주
 만 엇은 사름덜은 겨울에도 입어구나.
 106031 @ 누비허진 앓고?
 106031 #2 갈옷 누비진 앓고.
 106031 @ 아, 갈옷 누비진 아녀마씨? 미녕 소게. 여기도 누비옷덜도 헛지예?
 106031 #2 누비옷덜 잘 안 험니다.
 106031 @ 옛날도?
 106031 @ 소게바지는?
 106031 #2 소게바지는 광목에 바지 멘들앙 그 저 바지가 안안팍 시난게 소게를
 속바지, 소게바지가 완전 늙은사름덜이나 입주.
 106031 #1 늙신네덜 겨울에.

신발

106032 @ 소게바지 노비이불 만드는 건 아니구나예? 삼춘, 신은 여자가 만
 106032 #2 무신 신?
 106032 #2 초신 남자가 만들주.
 106032 @ 신 종류는 어떤 거 잇어나수가?
 106032 #1 옛날?
 106032 #1 옛날 초신
 106032 #2 초신 나막신
 106032 #2 고무신
 106032 @ 음.
 106032 #2 그것밧긴
 106033 @ 가족신은 엇어?
 106033 #2 가족신은 가족으로 만든 그건 어디 사농.
 106033 @ 사농 뎡기는 사름덜은 가족신 해?
 106033 #2 어디 화전에
 106033 #1 화전에 솟 묻으레

106033 #2 솟 노리 사 화전에 사는
 106033 #1 그런 사름.
 106033 #1 가족보선엔 해연.
 106033 #2 드르에 사는 사름
 106033 #2 우리는 가막창신 신영 잣다고.
 106033 @ 그건 어떻 겨우과?
 106033 #2 가막 창신 우단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난산리.
 106033 #1 난산리.
 106033 #2 성산읍 할망이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신저 주더라고.
 106033 @ 난산리는
 106033 #2 우리네 어멍네가 헝뎸 부제로 잘 살아난 생이라.
 106033 @ 어머니네가 그 정도 신엇을 정도니까.
 106033 #2 우리 할망 혼자 우리 어멍도 막 부제로 살았수다게. 곡석도 하영 허
 고 사름덜 곡석 나도 저 쫄 엇영 어멍네 부제난. 씨집간 후제도. 놈덜은 놈의 집의
 쫄 그런 거 허레도 히여뜩헌 일도 허레 안 땡겨뵈.
 106033 #1 겐디 우리 결혼헐 때는 남자는 물론 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해서
 씨집을 갖는다.
 106033 @ 예.
 106033 #2 대개 그 가막창신 가마에 붙어 잇다고.
 106033 #2 남자 겨주.
 106033 #1 여자 것도 잇수다.
 106033 @ 어.
 106033 #1 그때 동네마자 접이 가맞접이 잇어. 접꾼. 땡 사름씩 동아리해서.
 106033 @ 맞수다.
 106033 #2 접꾼에서만 사용허는 그
 106033 @ 남자 신은 무신
 106033 #2 남자는 보선 모냥으로 생긴 건디.
 106033 @ 예.
 106033 #1 아래 췌 박고 가막창신이
 106033 #2 큰큰헌 거.
 106033 @ 것도 가막창신이렌 헌
 106033 #2 우리 어머니 여자신 곱딱헌 거
 106033 #1 여자는 고무신
 106033 @ 보선예?
 106033 #1 장화 모냥으로예?
 106034 @ 거고, 그 신, 나막신 여기
 106034 @ 남신이렌은 안 곱아?

106034 #1 남신이옴도 곱아.
 106034 @ 남신 파는 것도 봐줍디가?
 106034 #1 이 미짱냥 나막신 파당 돌아가신 분이라.
 106034 #2 목시, 목수허는 하르방.
 106034 #1 건 아무나 못 허여. 그디 강 그거 허나 맞추젠 허민 미룻 강 맞춰 놓
 지 았으면 자기
 106034 #2 국췌옴 해실 거라.
 106034 @ 국췌?
 106034 #1 영 오그란
 106034 #2 그 췌로
 106034 #2 그것 국췌.
 106034 @ 남신은 주로 언제 신는 거?
 106034 @ 삼춘네도 남신을 신어봬?
 106034 #2 신어 봤.
 106034 #1 곧 현 때 남이 몰르민
 106034 @ 우리가 보기 뵤든 그렁
 106034 #2 남이 모르민 안 무거와.
 106034 #1 그 남 자체가 게벼운 낭이라.
 106034 @2 거무신 낭이우과?
 106034 @ 종낭?
 106034 #2 종낭.
 106034 #2 뵤쿠시낭.
 106034 #1 뵤쿠시낭이 마주목.
 106035 @ 뵤쿠실낭허고 종낭으로예? 경허고 가족신 멘드는 건 안 봐놋지예? 건
 안 봐놋지예?
 106035 #1 초신은 나도 만들어봐신디.
 106035 @ 게든 초신 삼는 거 곱아봬서?
 106035 #1 초신 놀이 잇어이. 역새가 저게 예 팔월 구물영 구월 초승 나면은 저
 그디 미비쟁이란 게 나오주게.
 106035 #1 그걸 뵤아당 그거를 뵤렁 그걸로 저 새끼를 꼬주게. 신놀 헐 걸.
 106035 @ 으.
 106035 #1 신놀을 네 개를 허는데.
 106035 @ 예.
 106035 #1 영 꼬부리민 영 네 개가 뵤여.
 106035 @ 으음.
 106035 @ 그거는
 106035 #2 산디췌으로도 하영.

106035 #1 깍 비비는 것도 산티쪽으로 허곡.

106035 @ 예. 게문 삼춘 이 찍신 허민 이렇게 돼잖아 예? 이렇게 해서.

106035 #1 신 모양으로 돼주.

106035 @ 신모양으로 돼면 가운데 이렇게 놓는 거 잇잖우과?

106035 #1 그디는 없고.

106035 @ 예.

106035 #1 이게 이렇게 돼면은?

106035 @ 예. 그러봅서.

106035 #1 늘 네 개가 돼여이. 요디서 무끄고 앞에는 신클엔 현 게 있어.

106035 @ 신클도 잇수과?

106035 #1 홀로 부터

106035 @ 여기 영영 현 거를?

106035 #1 신각이라고 해서 요꺼지 오면은 글 그대로 짱 홀로 가 발모양으로 빨아지게 짜주게.

106035 @ 예.

106035 #1 그걸 이렇게 요레 앓당 연결시키주게.

106035 @ 여기로 연결허는 거우과?

106035 #1 요건 또 홀로 깨여 각을 일부터 한 짝에 이십 개 이상 부치니까.

106035 @ 아, 신각을.

106035 #1 요레 앓장 연결시키주게. 맥신

106036 @ 맥신은 뭐우과?

106036 #1 맥신은 우리가 사삼사건 후에

106036 @ 예.

106036 #1 후에 겨울에 짱 이꺼지 장화모냥으로 올라오게 겨울에 땡겨도 발도 벨로 안 실렵고게.

106036 @ 맥신은?

106036 #1 그거

106036 @ 맥짜는 초신

106036 #1 맥 짜는 식으로 짜.

106036 @ 아, 맥짜는 식으로 맥신이라예? 초신도 곱게 삼는 것도 있고.

106036 #1 으.

106036 @ 대충

106036 #1 대충 허는 거는 드르에 다닐 때 그거 헐라고 짖고. 곱게 새각시도 초신을 신영 고무신 나오기 전엔.

106036 #2 완전히

106036 #1 그게 거 초신 신영 씨집 간 사름덜도 있다고.

106036 @2 각을 미빠쟁이로

106036 #1 아닙니다. 그 작은 산디뽕에양 소독 필라고 소독 나오는 게 잇수다. 요걸 가정 비뽕주게. 꼭 걷어다근에양 이것도 거풀 벗경 거풀 벗경 두 이게 해영해 마썸. 해영허민 그걸로 깍 부병.

106036 @ 작은 요런 식으로 짜는 걸

106036 #1 울로 처음은 이만이 부춧당 길게 부쳐가이.

106036 @ 이런 식으로 영영

106036 #1 여기보다 마지막 갈 때는 찢르게 부썸. 경해영 신을 삼아낫주.

106036 @ 여기 초신 잇수가?

106036 #2 거 그자 영 멘들아 깍

106036 #1 여기서도 저

106036 #1 경행 신영 간게.

106036 #1 장스가 낫을 때 상제신엔 .

106036 @ 거 이름

106036 #1 오갑엔 현 건. 현 짝에 신 상제가 신는

106036 @ 삼갑신엔 현 게 그건가?

106036 #2 삼갑신에

106036 @ 삼춘

106036 #2 우리 느랑 신어낫주.

106036 #1 영장

106036 @ 삼각신 그 이

106036 #2 삼각신이 맞아.

106036 @ 삼각신이 맞아.

106036 #1 장밧디서 만듭니다게. 동네 사름덜이 놀레와서.

106036 #2 장의사

106036 #1 장의사도 옛날은 동네 사름들이 모다들언.

106036 #2 깍 내 현 멧 개 부썸 삼각신엔.

106036 @ 예예, 영장 때는 웨인이니난 좋은 신을 못 신은 거구나예?

106036 #1 깍을 절아가면서 비뽕니다게.

106036 @ 그런 식을 불각신 이런 말도 험니까?

106036 #2 불각신 맞아. 붓각썸. 줄아가명 만

106036 #1 요새 그저, 육지에 그거 절아가면서 깍 내는 거.

106036 #2 그것이 붓각신. 상제덜 깍을 여라 개 안 부썸 현 멕

106036 @ 옛날도 초신 하나도 종류가 으라 개 멘든 거라예? 케난 신발 초신이 고운 것은 깍을 곱게 내면은?

106036 #1 깍도

106036 @ 쓰무 개 정도 헐 정도면.

106036 #2 놀 때도.

106036 #1 놀래 땡길 때.

106036 #1 그거 주로 그걸 신영 다니난에에. 곱게 절앙

모자 등

106037 @ 삼촌 아까 모자도 봐신디 모자 종류덜은 어떤 모자덜이 잇어나수가?

106037 #2 옛날 모자 종류가.

106037 #1 밀집페랭이 자기대로 절앙 쓰는 거고. 여긴 밀을 많이 갈아십주. 밀
허고 저 맥주맥 피는 꼭대기.

106037 #2 모자엔 현 거.

106037 #1 모잘 이넉냥으로

106037 #2 우리가 이젠 만드는 사름도 허젠도 허고.

106037 #2 ㄴ슴도 없고 허난.

106037 @ 그건 이름 뭐렌 헛수가?

106037 #1 페랭이

106037 #2 밀집페랭이.

106037 @ 밀집페랭이 아까 샷갯도

106037 #1 샷갯은 여자덜. 대나무로.

106037 @ 이 동네도 대로 만든 저는

106037 #1 잇어낫주.

106037 #2 잇어나서.

106037 #1 문택이 아방이 샷갯도 두 가지 종류라이. 서대샷갯 잇고

106037 #2 하르방

106037 #1 이거를 두 개를 꺾데기 부쨌 샷갯은 서대샷갯이엔 허고 요 속베설로
만 전 것은 샷갯이렌 두 개의 서대

106037 #2

106037 #1 질기기도 허주게.

106037 @ 예, 샷갯도 두 가지 잇는 거고?

106037 #1 보켄 어디 마직현 거 잇어.

106037 @ 그거 말고 남자들이 그 두리마기 입고 유생덜도 하나.

106037 #1 기생?

106037 #2 유생, 유생 향교?

106037 #1 거 유건.

106037 #2 두건.

106037 #1 두건 이디 꼭데기가 두건은 흥난디.

106037 @ 예.

106037 #1 유건은 멧 개 뒹여.

106037 #2 앞두이로 뒹 거.

106037 @ 갓
 106037 #2 옛날은
 106037 #1 잘 사는
 106037 #1 갓 쓰멍
 106039 @ 겨울모자는 어떤 걸 썼수가?.
 106039 #2 겨울 모자는 저런 나까오리. 지금
 106039 @ 노리 사냥 가거나 헐 때나
 106039 #1 가죽감티.
 106039 #2 가죽감티.
 106039 #1 개가죽이 노리가죽 껍데기 벗겨 낫당 그걸로 모자 만들어 써.
 106039 @ 그런 쉼털이나 이런 걸로는 모자 안
 106039 @ 그건 안 봐보고예?
 106039 #1 이 가죽옷도 있어. 이 겨울에 사냥 가죽옷 헐에
 106040 @ 그 다음에 양태도 좋아신가마씨? 양태.
 106040 #1 무신 거.
 106040 @ 양태?
 106040 #2 뭐허는 건데?
 106040 @ 갓 여기서 즈는 건 엇지예? 없고. 탕건이나 망건
 106040 #1 김녕서 헛수게?
 106040 #2 이 고단에선
 106040 #1 시방도 기능보유자고
 106040 @ 김녕 아니고 화북.
 106040 # 전원 김녕서
 106044 @ 물 부리고 헐 때 비올 때.
 106044 #2 우장.
 106044 #1 우장.
 106044 @ 우장도 직접
 106044 #1 우리도 헐 중을 알주게.
 106044 @ 입어보기도 허고.
 106044 #2 믱쉬 ㄱ꿀 때 죽장 입엇주게.
 106044 #1 국민학교 졸업허난 믱쉬 ㄱ꾸려 밤에 믱쉬 바령 직힘이엔 허영 그거
 씨근에 줌자고.
 106044 @ 바령허는 것도 지키고.
 106044 #1 으, 밤의 줌자당 하르버지허고 꼭 하루 즈녁 세 번을 일러. 일어남
 줌자는 거 일러 쉼은 혼 번 붉도록 똥을 안 싸.
 106044 @ 아아.
 106044 @2 아.

106044 #1 이레 저레 몰렌 흐 건 그건 뭐.
 106044 @ 우장도
 106044 #2 크게
 106044 #1 거의 저 우장은 거의 무릅 밑으로 내려오게.
 106044 @ 아아.
 106044 #2 크게 짜.
 106044 @ 게른 우장허게 뒤편 우에는 뭐 써?
 106044 #1 병것 밀짚페엥이 쓰주게. 우장은 쓰면은 습기도 차고 우장은 온종일 살아도 안 차고
 106044 #2 새로 영 짜진 거난. 새로 영 더퍼진 거난 물
 106044 #2 새 곱게 다듬아근에 그걸로 짠 거난 물 들어 갈
 106044 @ 알아수다. 잠깐만 여자 삼춘 쉬쿠다예?
 106044 #2 예.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예전에예 그 식생활, 밥들, 여기 밥 종류는 성읍에서는 어떤 밥덜 행 먹어신고예?
 107001 #3 가을을 들민 벨다른 쫄밥 먹영 살아젓수과? 그뎨 감저라양. 그뎨 감저 과당 썰어놓고 밥을 저먹고.
 107001 @
 107001 #3 고기 반찬도 잘 못 먹엇수다.
 107001 @ 고기반찬도 잘 못 먹고예?
 107001 #3
 107001 @ 예전에 주로 먹엇던 게?
 107001 #3 그거 말고는 밥 종류는.
 107001 #1 피썰.
 107001 #3 우리 프레밥도 먹고.
 107001 #1 고랑쫄썰에.
 107001 #3 ㄹ랑쫄썰에 무거리 완전 송년에 프레밥.
 107001 @ 예.
 107001 #3 예다가 프레도 성산 강 건너당 해영케 발래영 보릿고/르 무쳐가지고 바글바글 우티레 놔근에 뿔리른 것영 먹어나수다게.
 107001 @ 아아, 성읍에서도.
 107001 #3 우리 난산리서.

107001 #3 성읍리 오란은 역안 씨집을 오난게.
 107001 @ 예예예.
 107001 #3 해방 전의 그런 고생을 해영 살아서. 밧디 강 밧디 강 썰어놔
 107001 @2 콩입에 썰어왕
 107001 #3 예. 얼마나 ㄱ메기 잡아당 쏘/아 그거 열아 먹고 베도 차고. 옛날에
 물룻. 물룻알아집니까?
 107001 @ 예.
 107001 #3 물에 시쳐당 바다에 페라고 잇수다.
 107001 @ 예.
 107001 #3 메여 더경 그거 낵 물 우땡 그것도 먹곡. 걸로 이제 그 보리 보강 개
 역 행은에 아이고, 옛날 살아난 거 말도 못허여. 경허난 해방을 뒤난 살아질 건가
 그만 스삼스건이 독립만세 스삼을 일어놓난 우리 곱안만 살앗수다게.
 107001 #4 맛이양 꿀맛이 아니우다.
 (중략)
 107003 @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허영 허는 거우과?
 107003 #3 보리밥은양.
 107003 @ 예.
 107003 #3 밧디 호미로 비여다가 무꺼당 탈곡기로 털어가지고 그건 물류와. 물
 뱅이 옛날에는 기계도 엇엇어양.
 107003 @ 예.
 107003 #3 물뱅이에서 새떡 어머니가 일어낵 강 소 몰렌 물뱅이에 소를 메와
 소 메우민 소를 땡기곡 돌곡 곶아당 뱃디 널영 물류왕 따시 다까가지고 물뱅이에
 강 ㄱ레 맞ㄱ레로 거피어가지고 체로 청. 보리밥으로 줍쓰레기라로 ㄱ를은 물룻 ㄱ
 르 물룻 국물에 경허멍 살앗수다 우리.
 107003 @ 계난 보리밥허는 순서를 혼번 곶아줍서? 중간에 뜸도
 107003 #3 예예.
 107003 #3 보리밥을 바글바글 그것이 켈 거 아니우과? 그때는 뭘 츠식을 낵 푼
 레 놓던가 콩입을 놓던가 무말랭이를 줄이면은 거기 낵 뜸들이면 풀어집니다.
 107003 @ 예.
 107003 #2 짓어가지고 퍼 놔근에 먹는 거.
 107003 @ 거기에 보리밥에 무말랭이도 놔서예?
 107003 #3 무말랭이도 보리쫄은 아무 것에라도 거 웨정시대에 경 행 살아수다.
 107003 @ 옛날에 그 보리밥에 무말랭이 논 밥을 무신 밥이렌 곶아?
 107003 #3 짓도 보리밥이주게.
 107004 @ 반지기밥이렌도.
 107004 #3 반지기밥은 곤쫄 반 놓민 반지기밥. 피쫄에도 보리쫄에 피쫄 서꺼도
 그것도 양반덜 먹는 고급 밥이라양.

107004 @ 예.

107004 #3 곤밥. 곤솔만 낱 허는 거. 또 이녁 먹는 거 기냥 못밥을 허영 먹읍니다게. 경허곡 반찬은 테우리밥은 고기 흥나 구워 아지고 계란이 쥔 고급 반찬이랴수다.

107004 @ 예.

107004 #3 이제 국 끓여아지곡 메역 낱 국 끓여 아지곡 테우리밥. 그디 가민 테우리만 드리주 우리 우리는 식구덜은 영행 먹고.

1070 @ 아까 무밥은 무

107010 #3 황당허게 먹는 거고. 테우리밥은 막 대접으로

107010 @ 다른 거 썰어

107010 #1 아니, 아니.

107010 #3 무수 놓은 건

107010 #1 고구마 놓민 감저밥이고.

107010 #3 고구마 놓면은 경행 먹영 살아수다.

107005 @ 곤밥헛텐

107005 #3 곤밥은

107005 #3 산디쫄. 여기는 논나룩은 강답에 가는 산디 해근에 곶아오면은 막 귀현 쫄로 제스 때나 그런 테우리밥이나 그런 것 경혜사 그런 쫄을 아정텅기주 아무상엇이 곤쫄은 아저

107005 @ 무거리렌

107005 #3 무거리피쫄.

107005 #3 피라고양 피 알 걸. 육지도 그 눈에 보민 피가 이십니다. 그것을 해서 밧디 갈앗당 비여당 장만허영 그거 물리왕 테작허영 물방에 강 곶앗당 곶앗당 허민 치명 체로 치명 스레기 쥔 우의 거가 무거리 피쫄.

107005 #3 그 아래긴 스레기.스레긴 죽

107005 @ 중간에 거는.

107005 #3 피쫄.

107005 @ 우의 것은

107005 @ 아시 피쫄은?

107005 #3 아시 성은 엇고.

107005 @ 웃음. 스레기허고.

107005 #3 스레기는 줌신 거는 스레리라고 중간쫄은

107005 @ 쥔 좋은 거는 무거리고.

107005 #3 믰물쫄 메밀 알지양. 믰물쫄 낱 밥을 허민 손님 대접허고.

107005 #3 경허민 그게 고급밥이라.

107005 #1잔치나 영장 때.

107005 #3 보리쫄 반 쫄반 낱 밥을 허면은 그것이 풋밥이라. 영장 때나 잔치 때

나.

107005 @ 잔치 때나예. 예예예, 아까 피밥 허는 거는 무거리쫄피밥만. 다른 피밥도 헤마씨?

107005 #3 경해낫수다게.

107005 #2 피

107005 #3 고급시리게 살아갈 때. 쪼끔쪼끔 올라 스삼이 탁 일어분 거라양. 스삼 일언 살단 보난

107009 @ 그 다음 삼춘, 아까 이제 감저밥 현 덴 헛잖아예?

107009 #2 예.

107009 @ 감저밥은 어떤 식으로?

107009 @ 2 뒤편 굵니까?

107009 #3 보리쫄에 감저도 흐랑허게 익고 보리쫄도 익으면 땀들민 젓으면은 감저밥인가 범벅밥인가 경 먹언 살앗수다.

107009 @ 쫄쫄에도 ㄱ치 낱 헤마씨?

107009 #3 그 맛을 느쟁이라고 그 좀 그게 낫은 거.

107011 @ 어, 그게 낫은거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07011 #3 툄밥도 허여낫수다.

107011 #3 지금은 툄이 막 귀헌 거라도 툄이 솥양 걸로 막 그냥 반찬도 헤 먹고 밥도 헤 먹고 지붕에 낱 발레민양 하영힙니다.

107011 #3 헤영허고. 그냥 툄 물에 즐라근에 그거 빨경헌 물 그거 보리쫄이 툄 밥. 툄밥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많이 먹어뵤.

107011 @ 아, 많이 먹어뵤마씨?

107011 #3 걸로 크난.

107011 @ 집에서 허영헌 거를 그대로

107011 #3 아니 밥에 허는 건 안 발레힙니다.

107011 @ 발레 건.

107011 #3 달래 잇지 아녀우과? 몸 나민 뱅뱅 감양 경 맛힙니다.

107011 @ 여기서 달래를 뒤편 헤수가?

107011 #1 풀마농.

107011 #3 풀마농.

107011 #3 우리 아이 때 일이 마농. 오라 마농 캐레. 오라 고사리 꺼끄레 가고.

107011 @ 그냥 풀마농.

107011 #3 썰마농은 막 큰 거보고 썰마농엔 허주. 보통은 풀마농.

107011 @ 즐아.

107011 #1 넌어.

107011 @ 달래를 풀마농이렌

107011 #3 나난

107011 #3 꿩마농은 옛날엔 풀마농. 마농 큰 게 있어. 슬 저

107011 @ 큰 거는 꿩마농이렌 허고 쟈젠헌 거는 풀마농.

107011 #3 경혜낫수다.

107012 @ 그 다음 아까 폐밥도 허여낫수가?

107012 #3 물룻 굴 때 물룻 우의 폐를 물룻이 가 걷어베동 썩펠 놔근에 완전 물룻을 폐도 맛있고 물룻도 맛있고, 국물은 보릿ㄱ르 타근에 먹으면은 애기가 심웁 이 더운 못 국물도 혼 경 귀혜낫수다. 애기 심웁 곳은 더운 못국물도

107012 @ 애기 심웁 곳으민양.

107012 #3 경허멍 살안.

107012 @ 이거 목도 아픈덴 허멍예?

107012 #3 물을 알아맞창 귀야 뛴는 거.

107012 #1 잘

107012 #3 우리 할머니가 고성 할마닌디 성산읍 고성 할마닌디 난 준비헤 그건 걸 난 그냥 집의서 우리 난산리서. 성읍린 오란 안 헤보고.

107013 @ 예예예, 지금까지는 밥에 대헌 얘기를 헤서예? 국은 어떤 것덜 헤영 먹어신고예?

107013 #3 베추에 웬장도 끓여 먹고 여름은 나민 오이냉국도 보통 그거라낫주. 고기국은 만약 제스 때 허젠 허민 저 메역 잇인 때 메역도 없으면은 제스 때도 무 썰 갱거리라고 경험니다.

107013 @ 배추 낱은에 끓인 국은 무신 국 헛수가?

107013 #3 웬장국.

107014 @ 녹돌국. 웬장녹돌 국. 웬장녹돌국은 어떤 식으로 끓연마씨?

107014 #3 물 놔낱 간단히 먹언 살앗주. 무지려.

107014 @ 그냥 웬장만 끓영 녹돌만 놓른

107014 #3 다시달 그땐 소금도 장이나 담 장으로만 간도 안 경 맛있어.

107014 @ 다 장으로.

107014 #3 장으로만

107015 @ 예전에 콩녹물을

107015 #3 콩주름이주.

107015 @ 콩주름으로도 국 헛수가?

107015 #3 예.

107015 @ 건 어떻 끓여?

107015 #3 그것도 웬장에는 물장 혼

107015 @ 물장 낱?

107015 #3 예, 콩녹물 놓곡 메역 낱 끓이른 아무상없이 것도 못 먹음니까?

107015 @ 그건 무신 국 헛니까?

107015 @ 물장 낱.

107015 #3 메역을 서꺼야 맛이 나. 무테로 먹는 거 웬장에 누물 풀어놔 끓이는 거.

107016 @ 콩주름허고 메역 늠뻘로도 국허고?

107016 #3 웬장 풀어놔 늠뻘국 끓여.

107016 @ 늠뻘도 삼춘, 뿌리에 잇는 거 허고 썸허고 트나잖습니까?

107016 #3 늠뻘도 슬진 부분 썰어놓고 경 아녀민은 늠뻘만 놔 입사귀는 쫄앙 웬장에 주춤먹고

107016 @ 웬장에 주춤 먹는 거라예?

107016 @ 찰누물은 뒤흔과?

107016 #3 찰누물 썸뎡이.

107016 #3 예구야 완전 옛날 사투리.

107016 @ 예.

107016 @ 계문 찰누물은 뿌리 들기 전에 찰누물엔 험니까? 아니면은 우에 거?

107016 #3 무수는 찰누물이주게. 산에 보통 쓰는 건 그자 무수가 찰누물.

107016 @ 예.

107016 #3 늠뻘 찰누물

107017 @ 알아수다.

107017 #3 콩ㄹ 맛ㄹ레에 곶앙.

107017 #3 음.

107017 #3 맛ㄹ레에 곶앙은에 껍질 올라 ㄹ르만 나오민 그거 행은에 그 누물 농국 무에 끓려도 배추에 끌려도 좋고 콩국은 아무 것에 다 맞아 양반이라.

107017 @ 콩은 양반? 삼춘 말 근ㄹ르엔

107017 #3 말ㄹ르?

107017 #3 정ㄹ레.

107017 #3 맛ㄹ레.

107017 #3 노래 불르멍.

107017 @ 아아, 맛ㄹ레?

107017 #1 둘리 두 사름도 허고 세 사름도

107017 @ 예예. 그걸 말ㄹ레.

107017 #3 말ㄹ레 맛ㄹ레가 글자.

107017 @ 그러니까. 마주 앓앙 허니까. 혼자도 헐 수

107017 #3 혼자도 허는디 무거우기 때문에 마주 ㄹ는 거라. 맛ㄹ레.

107017 @2 계난 ㄹ렛즈룩이 길게 올라왔구나.

107017 #1 이제

107017 @2 맞수다.

107017 @ 삼춘 노래도 노래 헐 중은

107017 #1 ㄹ레놀렌 헤

107017 @ 해봅서.

107017 #3 에, 못허켜. 웃음.

107017 @ 계난 맞ㄹ레 해갓고.

107017 #3 저 삼반에서 헐 때 이거 허주게.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헐라 그거게.

107017 @ 삼춘 노래 잘 불르겠다.

107017 #1 젊을

107017 #3 우리 어머니 이거는 목청이 종앙 어머니광 이것도 방에 지는 것도
헤어나난 헐 중은 나이 들어 이거 마주허민 흘 수는 잇어.

107017 @ 음.

107017 #3 혼자는 못 허주게.

107017 #1 ㄹ레가 시면은.

107017 @ 여름에 둘이

107017 #3 이 사름 소리 잘 허난.

107018 #3 지금이 쥔 맛실 때.

107018 #3 여름이

107018 #1 이 백로가 돼야.

107018 #3 가을 호박입.

107018 #1 가을

107018 #3 못이면은 하나 톱 이것도 썩 타 뱃겨놓고 시쳐두고 썰어냥 팔팔 끓
영 익은 다음에 마늘이라도 놓곡.

107018 #1 가르.

107018 #3 마늘 ㄹ뜬 거는 쪽파 ㄹ튼 거는 냥 먹어거. ㄹ르 옛날에는 밀ㄹ르도
흔허지 아녀서 메밀ㄹ르 그렇게 고기국보단 맛있어.

107018 @2 아, 나는 여름에.

107018 #3 여름에는 호박잎국 맛 옛입니다.

107018 @ 가을에는?

107018 #1 철에

107018 @ 우리는 여름에

107018 #3 여름에 오이냉국.

107018 @ 가을에 호박입국. 으음.

107018 @2 계믄 호박입

107018 #3 지금 썬 먹어봅서.

107018 @2 새지 아녀수가?

107018 #3 요즘 요디 가단

107018 #1 이 어른네 집.

107018 @ 보민 이 어른네.

107019 @ 삼춘 여기는 몸국은 성읍은

107019 #3 므음국. 물망. 잔치 때.

107019 #1 고기 그것에

107019 #3 귀허주게. 옷드르라부만 므음이 귀허주게. 헤변 무시거 허주마는. 그거는 잔치 때에. 잔치 때에 고기 삶아놔 물에 무 썰어놓고 허영 그렇게 가문, 가문 알지 가문. 요즘은 가문 삼일 잔치로 허주게. 가문 그거 허영 가문반이라고 또 고기 삶아나쁜 귀통이덜 반도 허곡 경 헤영 살아수다게.

107019 @ 그거를 므음국이렌 헤.

107019 #3 므음국 허영 풀주. 게난 식당 같은 데도 므음국 풀주

107019 #1 무썽 싸야

107019 #3 무썽 아무 거

107019 #1 무썽이 채고로 좋아. 단지놈빼 무썽을 헤야 더 맛있어.

107019 @ 시에는 몸국 혈 때 몸만 놔 허는데.

107019 #3 그거를 들어가민 맛이 훨씬.

107019 @ 기구나.

107019 #3 므르나 흥끔

107019 @ 그때 므르는

107019 #1 므멀 므르.

107019 #3 메밀 므르벳기 엇엇주게.

107019 #3 다 재배.

107019 #1 이년 농사 진 거.

107020 @ 예, 예, 예, 예. 여기는 생선국

107020 #1 슬래기.

107020 @ 그 국도 허지예?

107020 #3 그 국도 보통 때에 못 먹주. 제스 때에 멍질 때에 그건 꼭

107020 #3 쟁국이라고 메역 놓고 끓리는 거.

107020 @ 간은

107020 #3 간장으로.

107020 @ 물장 넣은예?

107020 #3 요즘은 조미료도 잘 안 쓰주. 다시다에 그때는 장 넣은 건 아무 것도 없어. 간장으로 맛있게 듬양 막 그걸로만 먹영 사난게. 콩장에.

107021 @ 메역국은 어떻게 끓이는 거우과?

107021 #3 간장 넣 끓리주. 웬장에 메역 넣 끓리믄 맛이 엇어.

107021 @ 메역만 넣 허는 거.

107021 #3 콩늑물 서끄믄 더 맛좋주게.

107021 #3 고급 무썽건 길황 팔월 콩늑물도 못 들 받을 땐 콩 들이 안 어른덜 팔월멍질엔 고사리허고 이 양엇끈, 그거 허고 다른 채소 무시거 허여근에.

107021 @ 들 발른 때는?

107021 #3 콩늬물 못 키와.

107021 #3 여름 겨울 제스어나벳기 잘 못해수다. 나가 종가칩이서 제사만 제사만 허멍

107021 #3 제사만 많이.

107023 @ 그 다음에 삼춘, 생선국도 아까 슬레기국도 잊지만.

107023 #3 갈친 호박

107023 @ 갈치에 호박.

107023 @ 늪은호박?

107023 #3 늪은호박이고 젊은호박이고.

107023 @ 아아.

107023 #1 늪은호박이 맛잇주.

107023 # 삭삭 끓이면은 물 안 끓인 거는 물 안 끓인 거는 비린내 나주게. 호박국이 다 되는 거. 간은 간장으로 맞추와근 싱거우민 요즘은 요즘 다시다 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간장으로만 맛을

107023 @ 계란 옛날 게 더 맛잇어.

107023 #3 다 옛날 게 맛잇어.

107023 @ 빨리 커불엄신가. 다른 생선으로 국 끌리는

107023 #3 각제기 ㄱ튼 건

107023 @ 고등엔?

107023 #3 고등어도 배추가 좋주.

107023 @ 고등어도?

107023 #3 고등언 잘 조 고등어 반찬 먹엇주. 훈웃이 옛날에도 국이나 각제기는 끓리든 맛이 잇어.

107023 @ 거는 무수 낱?

107023 #3 으, 아니 배추가 좋아.

107022 @ 각제기는? 삼춘 아까

107022 #3 오이냉국.

107022 @ 데청?

107022 #3 썰어낱 웬장 좀 풀어낱 그것가 국이주게.

107022 @ 예. 늬물냉국? 웨냉국은 어떻 허여?

107022 #3 웬장

107022 @ 요즘은

107022 @ 물웨로 해서예?

107022 #3 옛날은 오이가 어디 서? 물웨 막 우잣에 그거 따 먹곡 밧디 출 비레 갈 때도 그거

107022 @ 웬장에 찍영 먹어도 맛있고

107022 @ 예.

107022 #3 그걸로 허기 때우멍 살아시난게.

107023 @ 그 다음에 바당 머니까 해도. 성계를 이 동네는

107023 # 귀.

107023 @ 귀로도 국 해마씨?

107023 #3 옛날에 우리는 귀국은 못해 먹어봐신디 가면은 강은에, 난 신산리.

강은에 걸로 굴쟁이로 찍어가지고 슴.

107023 @2 슴예.

107023 #3 슴.

107023 @ 슴으로예? 아, 아까 ㄹ메기로도.

107023 #3 ㄹ메기는 그 보말국도

107023 @ 삼춘,

107023 #3 차이가 잇주.

107023 @ ㄹ메기허고

107023 #3 보말은 훙은훙은헌 게 잇어. 보말은 알도 많곡 ㄹ메기는 쪼끔 알도

게난 끓러먹고 말고 배고픈 때 물 먹으민 배 ㄹ득는 거.

107023 @ 그러면 ㄹ메기는 그 껍데기가 막 알룬알룬

107023 @2 잘

107023 #3 수두린 먹보말이라고 보말도 두 가지라. 수두리보말 먹보말.

107023 @ 그 다음에 넵패로도 국 먹어봤수가?

107023 #3 시청 오락 집의 와서 안 시청. 찐물에 씻어야 맛있어. 그냥 쭈아근에

그거 거려놓고 간장 비와 농곡 ㄹ물ㄹ르.

107023 @ 옛날에는 국혈 때

107023 #3 밀ㄹ르가 엇주게.

107023 #3 ㄹ물ㄹ르게 제스에도 ㄹ물ㄹ르. 떡도 빙떡도 ㄹ물로 못허는 게 엇어.

아무 것에도 그냥 탄약에 감초라.

107023 #1 약방에 감초라.

107023 @ 탄약에 감초. 그 다음에 가시리로도 국 헤여봤수가?

107023 #3 가시리국은 맛 엇어.

107023 @ 건 맛

107023 #3 우리 할머니가 국 우리 아인 때 맛 엇언 못 먹언게.

107023 @ 그 다음에 폭레국은?

107023 #3 폭레

107023 @ 물훼 ㄹ튼 건 뭇로 헤낫수가?

107023 @2 자리물훼 허는?

107023 #3 아, 자리물훼 고춧ㄹ르 줌 놓고. 고춧ㄹ르도 많이 못 먹어서. 재배행

먹으니까 췌ㄹ르 꿰는 이녁 농스지난.

107023 @ 그치록 췌국 허는 것은 다른 걸로도

107023 #3 다른 거 배량 엇엇주. 우리 해 먹어 보진 바로 해변 살아시민 난산리 성읍리 완 혼 오십 년 살앗주마는 못해먹어봤.

죽류

107024 @ 죽 같은 거는 어떤 걸 해먹어신고예?

107024 #3 팥죽도 녹두죽도 그냥 찰에 메밀찰 낱 썬 먹고. 피찰에도 메밀찰도

107024 #3 좁쌀에 믫물찰도 낱 죽도 여라 가지.

107025 @ 그러면 하나씩? 곤죽은?

107025 @ 산디찰 낱 허는 거?

107026 @ 조축

107026 #3 조축.

107026 @ 좁쌀만 허지 아녕

107026 #3 좁쌀만 낱은 미음. 죽는 사름

107026 #1 가르르허주게.

107026 @ 가르르. 여기는 모힌좁쌀이어서.

107026 #3 폴폴헌 게 죽이 먹어지주. 죽어가는 환자는 가르르허게 뭐 문 내려오 난 그걸 그냥 사름 먹는 건 폴폴. 폴폴헌 거 알아집니까?

107026 @ 폴폴?

107027 #3 폴폴 안 허민 못 먹주.

107027 @ 팥죽은 어떻 쭈는 거?

107027 #3 짜고 뒤흔고 사돈님이 돌아가시면은 팥죽을 우리가 허베기로 저가주 게. 팥 두 관뒤 놓고 찰 혼 솟 두말땨기로

107027 @ 두 관뒤씩?

107027 #3 사돈님이 많은 문대여 땀들영 거땨허고 기냥 허면은 거땨허질

107027 @ 거땨헤야 맛싯어예?

107027 #3 거땨헤야 그렇게 아이고야, 아무디 사돈 무신 죽이니 춤 영 들으멍도 살아난.

107028 @ 음, 경허 삼춘 콩죽도 썬 먹어봤마씨?

107028 #3 콩 맛ㄱ레에서 굴아근에 요즘은 기계 ㄱ레에서 체로 안 치면은 이거 가 갈르지 못허야. 겁질 갈라두고 그거 놔근에 그냥 보리찰 솥앙.

107028 @ 예.

107028 #3 콩ㄱ를 낱 죽을 쭈민 그렇게 맛이 좋아.

107028 #3 거저 콩 믫녀 놓면은 부꺼불주.

107028 @ 예.

107028 #3 부꺼부는 따문에 훑은 거 좀 알러레 간 거 ㄱ를은 낫다가 거저 썬저 가른 부각 올라와.

107028 @ 음.

107028 #3 간으로 소금을 간수 끓이든 끓 짓으멍 경허당 보민 죽이 돼민 보리
쫄에 콩죽을 맛이 좋앙. 옛날에 송년에 경허멍 살안.

107028 107028 @ 콩으로

107028 #3 이녁이 재배허멍 못허민 굶으난에.

107028 @ 맞수다.

107028 #3 게난 놈의 쫄 웃이민 놈의 흐르 검질 메여사 관뉘 돼싱 흔 돼.

107028 @ 예.

107028 #3 식구 한 디 메틀 먹어. 흐르도 못 먹주. 경허멍 살아완.

107029 @ 성읍축제 믈죽?

107029 #3 믈죽은 믈 그냥 검피영 스레기 우의 곤 걸로 해근에 그자 물 끓
이민 놓민 또 끓이민 죽이라.

107029 @ 믈죽은 간

107029 #3 먹어봐.

107029 @ 두번 먹어본 거.

107029 #3 하찮은 거.

107029 #3 가스렌지 보글 흔 머리 퀘민 그게 죽이난게.

107029 #3 우린 아방이 저 요양으로, 위 흔 착 찢라된 십년 산텐 힌 하르방 삼
십 년 죽만 죽만 쭈멍 소고기죽 뭐 아니 썬 본 죽이 엇어. 이거 저거 뭐. 생선죽,
소고기죽, 그 개만 안 잡아봤주. 아녀본 거 엇어.

107031 @ 웃음. 득죽은 어떻 썬야 맛좋읍니까?

107031 #3 요새 쭈듯 허민 득 잡앙 그디 오갈피니 대추니 옛날에 그런 거 득
잡앙 득 비 그레 낱 그 삶아가민 거저 익어가민 요즘은 득 건져뒀 죽을 그때는 득
이신 채 쫄 비와와근에 쭈민은 득에 버무려지든 고기도 갈라 먹고 죽도 흔 사발씩
먹영 경허멍 살안.

107032 @ 경허멍 살안에, 맞수다. 예전에 그 녹물이랑 죽 쭈잖아예? 국죽

107032 #3 국죽.

107032 #3 녹물 낱 장 낱 쭈는 거, 장물 낱 쭈는 거.

107032 @ 아아, 국처럼. 그 국죽을 흔 번 썬봄서?

107032 #3 국죽도 그 죽이주게. 그자 쫄 놓곡.

107032 @ 예.

107032 #3 식은밥 시민 풀어져가민은 녹물 찢라와근에 썬 강, 다 익어갈 거 아
니. 경허민 간 맛 국죽 별다른 거 아니? 쫄이민 썬차 쫄 씻은 버릇이 엇엇어. 좁쌀
이나 좁쌀 죽 안 쓰는 건 원 엇어. 게민 끓여가민 그게 죽이 돼는 거. 녹물 무지려
낱 녹물 익으민 그게 죽 뉘 거.

107032 @ 옛날에는 그런 죽을

107032 #3 엇인 사람은 #1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107032 @ 예.

107032 #3 예, 혼 밧 풀지 말고 밥 혼나 얼마 가 혼 사름 안 먹는 게 쥔 유익
쉬정 한 잘도 곤라

107032 @ 혼 밧 풀지 말고 혼 입 덜라.

107032 #3 혼 입을

107032 #1 배운 어른덜이 의미 우리도 어른덜안티 배운 말.

107032 #3 오죽 해서 놈의 거 이녁 허기는 파지민 춤지 못허는게.

107032 @2 노름 뒤는 대어도, 노름 뒤는먹는 놈

107032 #1 술값은 대지 말렌 협주.

107032 #3 그거는 잇는 놈은 노름이 노름을 못 잇는 놈은 술값은 웨상 좋 낱
노름 뒤는 밧이고 들러 앓이 우리 완전 셋동네서 부자라나수다. 올딱 망허연 남은
거 집 혼나.

107032 @ 재난 노름 뒤 다

107032 #3 노름허단 보난.

107032 @ 아니

107032 #3 이거 꿀맛이 아니여.

107032 #2 보시 바위가 막 곱다.

107032 #3 맛은 좋다마는 꿀맛은 아니여. 맛은 좋다.

107032 @ 그치록 이제.

107032 #3 혼 밧 풀지

107032 #3 아이 때 우리 할머니가 막 그런 할머니 아이 속숨허라. 살아가 살아
가난 구짜 알아져.

107033 @ 살아가난 구짜 알아전. 여기는 산간이나 꿩죽.

107033 #3 꿩죽 나 많이 찢주.

107033 #1 아방 산 때 꿩을 잘 잡주.

107033 #3 꿩을 꿩죽도 그걸 쭈면은 고기도 죽이고 다 꿩고. 경 아녕 그대로 그
자 꿩만 낱 그것이 쫄 익으민 죽이 꿩고 고긴 고기대로 죽은 죽대로 먹는 거.

107033 @ 그거 말양 다른 죽도 쭈

107033 @ 쟁이죽이

107033 #3 바당에 강 쟁이를 잡아다근에 사 먹어 가몬 방에로 저. 절구로 저.
저근에 물 짜근에 그 것이 쟁이죽에도 기름에도 꿩죽에도 독죽에도 춤기름 안 든
것은 맛이 없어.

107033 @ 전복죽도?

107033 #3 전복죽도

107033 #3 나가 죽 대장이주.

107033 @ 삼춘 굴아볶서?

프107033 #3 꿩죽 독죽 아이고 다 못 세켜.

107033 @ 웃음.

107033 #3 장어죽. 영감이 위 수술 해부난 위 흔썩 찢라부난 죽벧기 삼십년 넘
영 육년을 들폐죽 쫓죽 죽엔 현 건 다 썩봐시난.

107033 @ 죽 대장

107033 #3 죽 대장. 이 하르방이 사고난 경운기 사고 난 경운기 사고 낭 장파열
웨연 죽어불언.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아이쿠, 그 다음엔예? 범벅은

107034 #3 흐썰허멍 멩청헌 게 범벅.

107034 @ 멩청헌 게 범벅아니.

107034 #3 식은밥 물에 낱 소금 그건 소금 낱 젓으믄 범벅.

107034 @ 예.

107034 #1 고구마도.

107034 #3 고구마도 솟디서 습다 ㄱ를 익으민 젓으면은 소금 농곡 젓으면은.

107034 @ 감저범벅.

107034 #3 그것도 늣뻘 새 비레 갈 때

107034 @ 예.

107034 #3 뜻뜻허게 아이스박스가 그 믈믈ㄱ르 무수 썰어놔근에 딸딸 낫다 정
심으로.

107034 @2 뒤에 쌍 갑니까?

107034 #1 옷입주.

107034 #3 대차반이 요만큼 현 거 있어. 이시민 그 차반에 범벅을 퍼넣. 또 쌍
또 쌍 또쌍 많이 쌍 구덕에 정 강 김치 쪼가리나 찰늣물 김치나 아지곡 일헨 왓수
다게.

107034 @ 점심으로 그 범벅을 아저가는 거라예?

107034 #3 마차라?

107034 #1 조금 쉬여?

107034 @2 쪼끔 쉬엇다허자.

107034 @ 예

107034 @ 그 다음에 범벅 종류는 아까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현 거?

107034 #3 모멸핍벅

107034 #1 느쟁이범벅.

107034 @ 감저범벅?

107034 #3 감저범벅이 놓고 싶은 거 감저 봐도 돼는 거 무수 봐도 돼는 거 배
추 낱은 못허는 거고. 느쟁이에도 감저 낱 범벅해도 또 그 곤믈믈ㄱ르에 감저 낱
허면 더 맛있고 무수 낱 곤믈믈ㄱ르에. 밀ㄱ르에도 범벅을 헐 수가 잇주. 감저 지슬
도 좋고. 범벅은 다 ㄱ튼 거.

107034 @ 계란 범벅은 감저나 ㄹ르
 107034 #3 소금
 107035 @ 여기는 즈베기 험니까? 저
 107035 #3 궁둥즈베기는 ㄹ뎡ㄹ르 카가지고 ㄸ박ㄸ박 궁둥즈베기고.
 107035 @ 예.
 107035 #3 칼로 썰민 칼국수. 건 국수엔 허는 거.
 107035 @ 예.
 107035 #3 모뎡국수.
 107035 @ 저베기도 반죽허영 손으로
 107035 #3 뜯어놓는 거 ㄹ뎡ㄹ르는
 107035 @ 뎡ㄹ르벧기.
 107035 #3 뎡ㄹ르는 뜯어놔 허주.
 107035 @ 궁둥즈베기는
 107035 #1 해산현 즉시
 107035 @ 해산현?
 107035 #3 거러놔가뎡 허여놔은에 ㄴ물 확 무지러놓곡 간장놓곡 간 맞췄 확 먹
 는 거.
 107035 #1 해산현 사름덜만.
 107036 @ 애기 낳을 때 궁둥즈베기 그 다음에 칼국수 밀어봔서?
 107036 #3 칼국수도 방뎡이로 밀영.
 107036 @ 예.
 107036 #3 칼로 찰랑. ㄸ뎡 썰영은에. 물 삭삭 끓이민 끓이민 국수주 무시거. 간
 장놓곡.
 107036 @ 칼국수.
 107036 #2 계란에 기름이라도 야튼 쪽판 들어가야 뉼여. 꿔허곡 꿔 놔야 맛잇
 어.
 107036 @ 예전에 꿔도 낳 칼국수
 107036 #3 꿔은 뜯어놔근에.
 107036 @ 거는 꿔칼국수?
 107036 #3 찌어놔은에 꿔 끓여지뎡은 ㄹ뎡ㄹ르 그 대충은 삶아놔근에 빼다기도
 안 들고 좋주게.
 107036 @ 뜯어놔근에 하고예.

김치

107037 @ 여기서는 김치 ㄹ튼 거는
 107037 #3 김치.
 107037 @ 거 두 가지. 김치는?

107037 #3 김친게 배추 무뻗고
 107037 @ 아까 저기 쪽파는?
 107037 #3 쪽파김치는 아무나 못허주게. 그건 그자 조그만이 싱것다가 양념이나 먹고.
 107037 @ 으.
 107037 #3 뭐허고 마농은 대산이 성읍린
 107037 #1 풀마농지시.
 107037 #1 풀마농지시로. 그거 동사면은 소금에.
 107037 @ 동 사민.
 107037 @ 동 산 걸로
 107037 #1 아니 뿌리차 캐주게.
 107037 #3 요즘은 밭되 그거 안 나주게.
 107037 #1 전인 많이 나났주.
 107037 #3 그 전에는 약이란 게 전혀 이걸 친환경농법이라. 바로. 아무 막 잘 돼주게. 그제.
 107037 @ 동삿덴 헌 게. 마농
 107037 #3 불휘가 봉오지 나올 때 그때 드룻마농 해당 드룻마농엔 허여.
 107037 #1 구월달 돼민 동사.
 107037 #3 지시를 허민 보리밥에 그거 행 먹으면 잘도 맛 좋아. 보리 ㄱ슬 밥 맛이 좋주게.
 107037 @ 게든 그제 이렇게 빨리
 107037 #3 거는 봐뵈야 다시 나주. 그 뿌리. 그 옛날 어른덜도 머리 쓰멍 살았 주게.
 107037 @ 잠깐예? 무얼
 107037 #1 대 올라오주게.
 107037 @ 아아,
 107037 #3 쫓, 쫓.
 107037 @ 쫓을 동 삿센
 107037 #3 쫓 삿덴 말 옛날은 동이라. 옛날은 동. 아이고야, 풀마농 동사. 지시 허게 경허멍덜.
 107037 @2 멩덕 비슷헉니까?
 107037 #1 멩덕?
 107037 @2 대산이 이만큼 중간에.
 107037 #1 그런 것도 잇어요. 그제 씨주게.
 107037 @ 그제 씨, 여기서는 멩덕이렌은 안 곧는 요즘은 동사민 캐지도 안 허 는디예?
 107037 #1 풀마농은 조금 동 사야.

107037 #3 지시가 맛이
 107037 #3 그 쫄이 나와야 맛있주.
 107037 @ 그거를 이에 영 찰랑 왕은에.
 107037 @2 지금 폰 거 보면 알맹이 뿌리에 것까지 다 메영오는디
 107037 #3 건 재배허는 거.
 107037 #1 내년은
 107037 @ 옛날 헐 때는 찰랑예?
 107037 @ 찰라예?
 107037 #3 밧디서 요즘은 재배허는 거난 상관 엇인 거.
 107038 @ 예, 알아수다. 삼춘 녹물김치 옛날도 하영 헛잖아예? 녹물 김치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38 #3 옛날 식이나 젓갈이나 좀 농곡 멜컷. 그거나주. 새우젓 그런 것도 없고. 멜컷은 바다에서 나니까. 그거 놓고 뭐 마늘, 췌. 고추. 그것만 넣 아무 것도 탄 거 안 놔.
 107038 @ 김장도 그런 식으로예?
 107038 #3 맛이 더 좋아.
 107038 @ 삼춘네는 제사도
 107038 #3 김장도 많이 해나수다.
 107038 @ 그 김장허는 녹물은
 107038 #1 베추.
 107038 #3 속앗는배추.
 107038 @ 속앗는베치
 107038 #3 나 우수한 말 곤주. 대승 스몏닷 말이민 소두로
 107038 #1 열괘주게.
 107038 #3 열 갠가?
 107038 #1 대두가
 107038 @ 읊,
 107038 #3 장도 많이 담아놔수다. 탁 부수와불민 새로 담고.
 107038 #1 장은 식구 혼 사름당 콩 혼 말을 계산허여.
 107038 @ 일인당 혼 말.
 107038 #1 그 정도로 담아야
 107038 #3 장 살 디도 나거라사만.
 107038 @ 맞아야.
 107038 #3 나 거라야.
 107038 @ 여기는 김치
 107038 @ 징뀌.
 107038 #1 옛날 할망덜은 징뀌렌

107038 #3 김치
 107038 @ 집끼.
 107038 #1 우리 어릴 때 할망덜 김끼해나서.
 107038 #3 요즘도 징귀엔 허는 할망 잇어.
 107038 #3 무신 징귀라게.
 107039 @ 징귀렌도 허메예? 그 다음에 삼춘, 요즘은 열무김치
 107039 #1 열무엔 헌 게 엇엇주.
 107039 #3 여름 나민 김치가 엇어.
 107039 #1 여름에
 107039 #3 대산이지시, 풀마농지시.
 107039 @ 그것만 해서 허고예? 요즘은 그 찰늬물김치 허잖아예?
 107039 #1 찰늬물김치
 107039 #3 찰늬물 총각김치.
 107039 #3 그 식으로 헤영 먹주게 그자.
 107040 @ 물김치도 헛수가?
 107040 #1 물김치도 좋주게.
 107040 @ 물김치는
 107040 #3 배나 하나 서끄곡 옛날은 그런 것도 엇어신디 요즘은 물김치
 107040 @ 옛날에 잔치 때 물김치 여기 안 해낫수가?
 107040 #3 중간엔 줌 잇주.
 107041 @ 중간엔 허고예? 동지늬물로도
 107041 #3 동김치.
 107041 @ 아, 동김치.
 107041 #3 봄나민 동 거꺼가지고.
 107041 #1 동김치.
 107041 #3 소금에 죽엿당 맛십니다. 그 늬도록
 107041 @ 배추 올라온 걸로 헤근예.
 107041 #1 무숫동도 헤영 허, 무숫동.
 107041 @ 무수 동으로?
 107041 #1 그걸로도
 107041 @ 그 김치는 어떤 식으로 헤야
 107041 #3 그식.
 107041 @ 물 여기에서는 소금에 절여 어떤 식으로.
 107041 #3 소금물 카근데 늬물 동은 적저근에 그냥 낫다가 누르땡 낫다 거 돼
 쌍 눌으뜨고 죽으민 돼는 거고 이 퍼기 김치는 벨라가지지 소금 산산허경 말 눌령
 낫당 거 죽주게.
 107041 @ 예.

107041 #3 뒤집으면 잘 죽을 거 아니? 덜 죽은 거 허민 허싹 활활 헤왕

107042 @ 계란 이제 봄에는 그 동침치가 맛 좋은 거예? 그게 누물동이나 아까
 누빠 그 못동이나 누빠집치는

107042 #3 누빠집치는 깍두기 것ㄴ라 누빠집치.

107042 @ 누빠집치.

107042 # 것도 양념이

107042 @ 누빠집치도 소금에 절입니까?

107042 #3 아니 그건 소금 누빠가 물을 빠져버야 김치 맛이 나주. 무 맛으로마
 는 굿인 건 맛이 었어. 소금 행 무우에 물이 나와. 확 건져가지고 그거 버무리민 돼
 는 거.

107042 @ 누빠는 깍테기보다는 두꺼운 게 맛좋아예?

107042 #3 으박으박 젊은 우리 아이덜은 그런 거 잘 먹는 아이덜.

107043 @ 아까 파침치 족파침치는 안 해?

107043 #3 쪽파 젓갈에 해야 맛싯주. 다른 양념에 주로 펠젓이 많이 들어가야.

107043 @ 아까 풀누물은 지만 헤먹고 침치는

107043 #1 풀누물은 침치

107043 #3 맛 었어.

107043 #1 국이나 끓령 먹고

107044 @ 풀누물

107044 #3 아아 풀마농. 풀마동 데평 무쳐도 풀마농 쉼 맛좋은 거.

107044 @ 계란?

107044 #3 쫄 올라오라가민 캐다근에 그것을 즈져, 즈져. 즈져근에 소금물에 꼭
 꼭 적지명 누르떠근에 돌 딱 지들황 놔두면은 익으면은.

107044 @ 거는 소금물에 그거만 담아근에 익으면?

107044 #3 지 맛으로 먹는 거.

107044 @ 아아, 지시. 그 다음에 여기도.

107044 #1 샷갓.

107045 @ 아니, 샷갓 말고.

107045 #1 갓 썰져.

107045 #3 갓누물침치는 그거.

107045 #1 이디 잘

107045 #3 양념에 서건 우리도 서건 좋아베지 아년.

107046 @ 제주도사람은 서경 잘 안 해예? 그 다음에 세우리도 침치해낫수가?

107046 #3 것도 맛 좋아. 젓갈로.

107046 @ 세우리는 젓갈. 그 다음에 누물침치나 무침치는 계절에 언제

107046 #3 계절?

107046 @ 어느 계절에 침치허는 거우과?

107047 #3 동지 전이 해야주.

107047 @ 늑빠는?

107047 #3 늑빠는 동지 늑몰이 퍼렁헌 것이 동지 전의 해도 요즘은 기자 동지 십이월들에만 이제는.

107047 @ 예전 같은 경우는 바당에 강은에. 동네는 바당에

107047 #3 그게 더 좋은 거.

107047 #1 소금이 덜 들주게.

107047 #3 늑몰 동글랑통 들이 돌지들 혼 이틀 거기서 씻영 오랑 김치해놔주게.

107047 #3 것도 해봐. 난산리 살명.

107047 @ 김장할 때 그냥 좀 맛 좋게 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담양 먹어수가?

107047 #3 새우젓도 농곡 액젓도 놓고 메리치도 딸렁 다시다여 무시 그럭적럭 허민 맛이 좋주게.

107047 @ 옛날에는 그런 거.

107047 #1 아,

107047 #3 제맛에 먹언 살안.

107047 @2 제맛에.

107047 @ 속앗지아년 거.

107047 #1 퍼테기.

107047 #3 퍼테기늑몰이주마는 속 겨울엔 맛 엇어. 퍼렁허연.

젓갈

107048 @ 퍼테기는? 그런 식으로 허고. 우리 제주도는 젓갈도 하영 답앗잖아 예?

107048 #3 제스 때에.

107048 @2 자리젓 멜젓.

107048 #3 자리젓 멜젓.

107049 @ 두 개? 자리젓은 어떤 식으로 허고 멜젓은?

107049 #3 자리에 맞게 소금도 놓고.

107049 #1 자리 일킬로에 소금 일킬로.

107049 @2 일 대 일.

107049 #3 경허민 좀 짜.

107049 @ 삼춘은 어떤 식으로.

107049 #2 자리가 삼킬로민 소금 이키로만 놓민 맞아.

107049 @ 이키로? 옛날은 항아리에 얼마

107049 #3 경 많이 못 담아봐.

107049 @ 아아, 자리젓은?

107049 #3 자리젓을 많이 담아야 장사 아니난. 먹을만큼.

107049 #1 이녀 먹는 거.

107049 #3 흔 십 킬로 이십 킬로

107049 @ 하영

107049 #3 요즘은 아녀뵈.

107049 @2 머리

107049 #3 머리가 맛 있어.

107049 #1 그냥.

107049 #3 그냥 익으면은 양 찍영 그냥 먹고 양념 경허는 거.

107049 #3 자리는

107049 #1 베도 마찬가진디.

107049 @2 어떤 동네 가니까 머리로 못고

프#3 젓허는 식이 자리를 상은에 장스 오민 소금 딱 버무령 그릇에 아시 담지 말고 소금 다라라도 더경 놔두면은 그 저 자리가 까지곡 물이 시커멍 경허민 그거를 활활 그레 그 국물 아쟁이 버려 영 보민 소금 작고 알여져. 게문 돌 지들령 놔두민 간이 맞아베여.

107049 @ 돌을

107049 @ 행굴 때는?

107049 @ 그 물에 행구는 거?

107049 #3 그것이 시커멍 요즘 자린 그거 영허여근에 경 건져근에 국물이 많이 남주. 곧 걸로만 아쟁이 버려불곡. 또 영 소금 서꺼근에 돌 조금 지들황 놔두민.

107049 @ 눈으로만 봐도 간을 .

107049 #3 음식혈 때 요거민 딱 맞아불주.

107049 @ 종가칩에서 오래 살아온?

107049 #3 음식허는 사름은 보통 경 돼는 거.

107050 @ 예, 그 다음엔 멜것은 어떻 담아수가?

107050 #3 멜것은 자리보다 소금이 작게 들주.

107050 @ 자리보단.

107050 @ 멜것은 하영 안 담아봄디가?

107050 #3 십 키로 정도 흔 오 킬로 간단히 헤나난.

107050 @ 하영 먹는 멜것은 김

107050 #3 김치 여름에 콩입.

107050 @ 콩입에?

107050 #3 콩

107050 @2 콩입은 멜컷.

107050 #1 멜컷이 젤.

107051 @ 삼춘. 아감것은 들어뵈?

107051 #3 알게미젓

107051 #1 먹어보긴 해서.
 107051 #1 많이 허여
 107051 #3 알게미것 갈치 아금지.
 107051 #1 갈치만 고기 내장.
 107051 @ 아금지렌 험니까?
 107051 #3 먹어보질 아년.
 107052 @ 강이로는?
 107052 #3 쟁이것. 쟁이것 죽은 썬마도 쟁이것은?
 107054 @ 죽은 썬보고. 출레는 뭐마씨?
 107054 #1 장보고 출레엔 허주.
 107054 #3 출레는 자리것 장ㄱ라도 짜다헌 거.
 107054 @ 짬 거는 다 출레예?
 107054 #3 짬 거엔 헌 게 출레.
 107054 @2 밧디 가면예, 거평. 전복 껍데기.
 107054 #3 예 예.
 107054 @2 자리것을 출레.
 107054 #3 맞수다.
 107054 @2 더 짜. 걸 출레.
 107054 #3 맞수다. 출레. 우리 웨갓집의가, 웨할머니가 물 가 살단 돌아가섯는디
 가민 그렇게 헤낫수다. 거 무시 거우과? 출레허염저.
 107054 @ 전복껍데기에?
 107054 #3 밥 솟의 낱은에 뭐헝 옛날 어른덜
 107054 @ 밥솟에서 청예?
 107054 #3 오곳허게 찌지주게.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다음에 삼춘, 지시 담근 거는 풀마농지시 담으고 또 무신 지시.
 107055 #3 대산이지시.
 107055 @ 풀마농 유도 지시
 107055 #3 베랑 아녀반.
 107055 @ 유는 안 헤보고. 그 다음에.
 107055 #3 양에끈 지신?
 107055 #1 아튼 것도
 107055 #3 지시 허게 많질 안 허난.
 107055 @ 반치?
 107055 #3 반치지는 웬장에 묻는 거.
 107055 #1 들망은.

107055 #3 국이나 끌렁
 107055 #1 생으로 무청이나 먹주.
 107056 @ 그러면 대산이지시는 어떻 헛수가?
 107056 #3 대산이 찰라근 좀 옛날엔 옛날 할망덜은 소금물에 죽였다가.
 107056 @ 예.
 107056 #3 그걸로 소금물 장물 께완
 107056 #1 아시에 장물.
 107056 #3 아시에 저 간장 끓여 끓영.
 107056 @ 아아, 예전에는 소금에 현 다음에
 107056 #1 장물을 덜 들일라고.
 107056 #3 예깁으로 경 예깁은 경 돼는 거.
 107056 @ 대산이지시하고. 아까 반치는 어떤 식으로?
 107056 #3 반치는 나가 우리 할머니허는 거 봤는디 반치가 막 좋주게. 딱딱 굵으로 찰라근에 뱃겨두고 깨끗허게 ㄹ로세로 썰어가지고 웬장 그제 익으면 여름 밥 반찬. 밋디 검질메레 갈 때 혼 토막 정심 반찬 웨나 물웨나 뒤 개 웬장이나 두어 술갈
 107056 @ 반치지시로예?
 107056 #3 옛날에.
 107056 @ 요즘은 이제?
 107056 #3 요새
 107056 #1 반치 잇는 디가 엇주. 다 씨져부런.
 107057 @ 바당에 휘 같은 경우는?
 107057 #1 그런 건.
 107057 @ 자리훼여 새끼훼.
 107057 #3 새끼훼사 먹는 사름덜은 당케 강
 107057 #1 지금에나 어디 당케 자리훼가 잇어어?
 107057 @ 새끼훼는 어떤 식으로 먹엇던 거우과?
 107057 #1 우리 집의 아방 도새기 잡으민 거 칼로 꺾 물 짹 나와 새끼 붓 그 새끼도 돼야지주게. 새끼 돼지기 찍어놓곡 그 물이 그거 그레 양념만 허민 돼는 거. 식초 놓곡 저기 저.
 107057 @ 새우리 놓고.
 107057 #3 간장 쪼끔 놓고 그자 고춧ㄹ르 놓고 게민 훌훌허게 시큼들큼허게.
 107057 @ 음, 예예.
 107057 #3 제맛에 먹언 살안.
 107057 @ 다 제맛에예?
 107057 #3 제맛에.
 107058 @ 그 다음에 반찬도 계절에 따라서 밥 반찬 봄에는 어떤

107058 #3 벨 반찬 못 먹었주게.

107058 @ 봄에 먹은 건 뭐 닭수가?

107058 #3 봄에도 무시거 그자 풀마농 캐당 먹고. 옛날 풀마농 엇어 그럭저럭 마농도 데왕먹고 대산이.

107058 @ 예.

107058 #3 데왕 먹고 쪽파도 그뎨 녹물도 삶양 무청 먹고. 썩으로 먹는 사름 썩으로 목적은 장이랏주.

107058 @ 장이 반찬이라예? 여름은?

107058 #3 여름은

107058 @ 웨냉국. 하영.

107058 #3 콩입은 나 콩입은 잘 못 먹으난.

107058 @ 아아,

107058 #3 이디 어멍.

107058 #1 콩입은 먹어나민 버릇 낭

107058 @ 여름에는 콩입 하영 먹고?

107058 #3 물웨 콩입 주장이

107058 @ 가을에는?

107058 #3 가을에사 녹물도 나민 데왕 먹고 짐치 가을짐치가 맛 좋아. 찰녹물 꺾든 거 뽑아 그거 총각짐치도 그럭저럭 먹언 살앗주.

107058 #3 고사리 반찬은 못 먹어보고.

107058 #1 돈 날 거난 풀앗주.

107058 #3 아이덜이 몬 공부 애기 5남매 공부 시켄 차비가 아방은 노름만 허레 뎡기곡. 오늘 놀차 풀아야.

107058 @ 예.

107058 #3 표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중학교 졸업허난 고등학교 고등학교 제주시에 갈 거난 더 어려 고사리 풀 정신이 엇이 살안. 꺼끄지 제우 그럭저럭허고.

107058 @ 옛날에는 탕쉬허는 것도 호박으로도.

107058 #3 호박으로 적도 허여. 적.

107058 #1 지금도 허여.

107058 @ 호박전은?

107058 #3 호박적 뜨박뜨박 점으로 허영 퀘영. 숯불에 쾡.

107058 #3 묵도 메밀물

107058 #1 썰영.

107058 #3 요샌 청묵이주만

107058 #1 고쟁이 퀘영.

107058 #3 숯불 돼야지고기 숯불에 굽고.

107058 @ 음.

107058 #3 그자 경해도 아메 어려와도 세 가지를 헤사난. 웨야지고기허곡 호박 적허고 이제.

107058 @2 목적.

107058 #3 저 목적허곡. 목적은 목적대로 허고.

107058 @ 건 따로 허고.

107058 @ 바닷고기.

107058 #1 바닷고기 잘 사는 소고기허주만.

107058 #3 소고기긴 어렵고 저 상어.

107058 @ 상어예?

107058 # 대산이로.

107058 #3 우린 아녀보고.

107058 #1 남탱이만 졸랑은에 남탱이만 굶주. 것도 헤나서.

107058 @ 쪽파로도

107058 #3 우리 죽은 쪽파적은 잘 헤나서.

장 담그기

107059 @ 쪽파적도 헌텐 험니다. 삼춘, 장이랑 하영 담앗덴 헨 게마는 장은 언 제.

107059 #3 석돌 그믐날.

107059 @ 마지막날.

107059 #1 그날.

107059 @ 메주.

107059 #1 겨울에 허주, 동지 웨영.

107059 #3 가을 쫓데 솥앙 돌아 허는 사름허죽. 경허민 잘 헤낫당은에 거소 선 돌 구름 아시날은 문딱 그거 씻어 물 빠정 장황디레 디리쳐불민 그것이 장.

107062 @ 아아, 그 메주 솥으는 거는 날 뿡허잖아예?

107062 #1 개날.

107062 #3 개헤치 신 날은 개날에 못허고. 본명일 잇어부난. 뭐 득날 개날이나 득날이나 토끼날이나 허민

107062 #1 메주가 뜨질 안 허여. 베염날 허 지사일에 허면은.

107062 #3 진일은 스일보다는 젤 날 중에 젤 스일허고 그 무시거. 원송이날.

107062 #1 털 잇는 날.

107062 #3 메주보단도 원송이날은 좀날엔 허곡이, 저 범날은 잉일에 제스가 인일이면은.

107062 #3 좀 늦게 허곡. 또 이제 요 날이 인일이면은.

107062 #1 이전에.

107062 #3 흥쓸 브디게 잉일에 사름이 죽으민 손도 못 보는 거.

107062 @ 으음.

107062 @ 거지지 못허는 거예? 장은 본명일 답앗당. 그 메주 슾양은에 얼마만 이 잇어마씨? 잇는 것은?

107062 #3 잘 므리 때에 따랑은에 잘 띄왕 장이 드는 거.

107062 @ 예.

107062 #3 안 뜨민 장이 안 돌아.

107062 #1 곰생이가 허영게 필 정도로 띄

107060 @ 경혜영 놈뒷당 장 담는 전날 시청 허는 거? 장은 어떤 장 어떤 장 잇 엿수가?

107060 #3 콩장이주.

107060 @ 콩장만 허영 허는 거라예?

107060 #1 그게 혼 백일 지나면은 메주 물장이 돼고. 메주는 바도 웬장이 되는 거고.

107060 @ 백날 정도 잇당예? 장 갈르는 날도

107060 #1 아니.

107060 #3 하이튼 선들에 담으민.

107060 #1 봄나민 허주.

107060 #1 백일.

107060 #3 웬장을 또 꾸어 낱 그거를 문드데경 놈근에 뭐 좀 놈사 좋아.

107060 @ 뭐 뇨니까?

107060 #3 콩이라고 그레 서꺼 놓던가 밀이라도 띄와근에 방앗간에 못 가면은 그냥 요즈음은 그건 게 뇨슬 만 밀 띄와근에 그 그릇에 슾아근에 그릇에 문닥허게 허 여. 게른 그거 장이 경 맛좋아.

107060 @ 으음, 밀을예? 아아, 그러면 그거는 웬장?

107060 #3 웬장.

107060 @ 삼춘, 고치장도 답아뵤마씨>

107060 #3 ㄴ췌ㄴ를 찹쌀에 허민 좋아.

107060 @ 찹쌀허고

107060 #3 찹쌀ㄴ를 .

107060 @ 예.

107060 #3 옛날엔 찹쌀 뇨사 끓영. 장물이 끓이민 그것이 죽 돼주게. ㄴ췌ㄴ를 서끄민 조금 든 거나 옛날에 중간에.

107060 #1 지금은 물엿덜 많이.

107060 #3 물엿도 안 놈도 돼여.

107060 #1 고치장 물엿.

107060 #3 이젠 고치장 찹쌀로 고추장 으라뵤 행 먹엇주.

107063 @ 그리고 장 담을 때는 뭐 허지 말라 허는 금기허는 거 잇수가?

107063 #3 영장밧디 강 오랑은 못합니다.
 107063 #1 부정 타.
 107063 #3 메주도 영장밧디.자
 107063 @ 영장밧디.
 107063 #3 부정이 그거.
 107063 @ 부정이 그러사.
 107063 #3 그것사. 천지.
 107063 #3 심방 다 큰곳 험니다. 그거 우리 집의서 나도 으라번 어떻 험니까?
 건 홀 수 없는 거.

떡류

107064 @ 그 다음에 삼춘, 떡. 떡은 어떤 떡들을 헤랏수가? 식게떡?
 107064 #3 식게떡은 정월멧질엔 침떡허고 술벤 절벤 술벤 알아집니까?
 107064 @ 예.
 107064 #3 우지시.
 107064 @ 우지시.
 107064 #3 경허곡 팔월멧질엔 송편. 경헤연 헛수다.
 107064 @ 팔월멧질엔 송편만 헤연?
 107064 #3 과질. 정월 멧질떡에 우지시라고 작긋을 열긋 작긋을 경허멍
 107064 @ 아까, 삼춘, 작긋은 뭐우과?
 107064 #3 작긋엔 현 건 여라 가지 떡. 친떡 다음은 인절미양.
 107064 @ 네모나게양?
 107064 #3 그 우티레 동글락떡은 절벤. 마주 낱. 술벤. 그 우티렌 또 동글락동글
 락 벨떡 그거. 열긋 떡에 우지시라고.
 107064 @ 열긋떡?
 107064 #1 별을
 107064 #1 제펜을 땅을 의미하는 거는.
 107064 #3 벨떡.
 107064 @ 열긋떡에 우지시.
 107064 #3 우지시. 과질은 부터다.
 107064 @ 열긋은 무사 열긋이렌 .
 107064 #3 모르쿠다. 무사 열긋산디 그것꺄장은
 107064 #3 침떡 인절미 절벤 술젠 우지시 다섯 굿베끼 안 웬디.
 107064 @ 중계
 107064 #3 중계 약래 강정 요에
 107064 @ 강정요웨 알
 107064 #3 고망 뜯른 소랑 튀긴 것가 약래. 강정요웨 몽클락몽클락 현 거 흐꿈

소름헌 거 하나에 강정 요웨. 과질.

107064 @ 계난 강정하고 요웨는 따로

107064 #3 ㄴ치, 혼 정반에 올리는 거. 중계 약케도 혼 정반에 올리는 거. 별떡은 다섯 가지. 과질은 과질에 올리는 거.

107064 #3 그것도 혼 쟁시 농곡 과질도 중계 약케 다섯 가지 큰 펜틀에 펜틀에 놓는 거 요것은 정반에 놔도 되는 거.

107064 @ 강정은 뭘로 멘드는 거우과?

107064 #3 다 밀ㄴ르로. 이 저 옛날은 기지라고 순다리.

107064 @ 예.

107064 #3 순다리 피여게. 피민 그걸로 해근에 동글동글 만들앙 꼭꼭 누르뜨고 어른덜 소장 때 경 험디다. 우리도 씨어머니 그런 그거 몬 튀겨. 튀겨. 튀겨 놔근에 옛 버무리고.

107064 @ 옛 버무리고. 손가락 그릇을

107064 #1 요만씩 길주게 소람허여.

107064 @ 강정 요웨는? 강정 요웨허는 요웨는 뭐우과?

107064 #3 요웨는 동글락 소랑 트멍 그거 혼 정반 허영 올리고 중계 약케 혼 정반 올리고 과질 혼 쟁 경허민 세 정반 아니우과? 네 정반 해영 올리곡 과일도 못 배허고 사과허고 미깡이라도 요새 촌의 제스에 무신 하간 대추여 밤이여 안 험니다 게.

107064 #1 성읍리는

107064 #3 저레는.

107064 #1 튀니 거.

107064 @ 비자?

107064 #1 비자도 안 허고.

107064 @ 계문 그 요웨하는 거는

107064 #3 밀ㄴ르.

107064 #3 상웨떡 알아집니까?

107064 @ 것도 튀겨마써?

107064 #3 예게.

107064 #3 중계나 약케도. 떡을 줌 피주게. 핀 다음 쥔 거 아니우과? 땃시 튀기면은 그것이 중계도 돼고 강정도 돼고 요거는 과질 집의서 못 집의서 집의서 허민 집의서 허는 거. 다 이건 튀기는 거.

107064 @ 펜틀에 올린 것만 안 튀기고 나머지는 다 튀기는 거예?

107064 #3 이거는 소름헌 거는 약케는 이렇게 납작헌 거.

107064 @ 약케는

107064 #3 궁길 톨라.

107064 @ 중계는?

107064 #3 중계는 소름하게
 107064 @ 게니까 열곳이네.
 107064 #3 열곳 맞아.
 107064 @ 것도 기름에 튀기고.
 107064 #3 주인공이주.
 107064 #1 켈 우에.
 107064 @2 어느 다섯
 107064 #1 다섯 가지
 107064 @2 준거가 있어?
 107064 #1 준떡
 107064 @ 작구떡.
 107065 @ 전부 현 게 작구떡예. 전부 현 게 작구떡. 그러면 이제 떡 종류 그렇
 게 얘기하고예? 옛날 시루떡을.
 107065 #3 친떡이주.
 107065 @ 친떡도 제에 올리는 거하고 툇날 거 아니우과? 친떡은
 107065 #3 친떡은 시리떡허는디 뭐 그거는 재료에 따라 허주.
 107065 @ 음.
 107065 #3 문친떡. 제스에는 풋떡 아니 올려. 설귀떡으로 그냥 먹는 거는 저 찰
 친떡이라고 문친떡이라고 무 썰어은에 시리에서 먹고. 맛 좋게 구신은 풋은.
 107065 #1 안 뽕주게.
 107065 #3 안 뽕주게. 반대라부난 웨 안 상에는 귀신을 방지 풋은 못 올린다 허
 는 거.
 107065 @ 게문 삼춘, 문친떡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를
 107065 #3 담아놔 풋 놓멍게. 혼 징 소박하게 비와놓면은 그것이 칼로 찔를 거
 아니우과?
 107065 @2 예.
 107065 #1 혼 빗.
 107065 #3 혼 빗. 옆빗은 먹어볼곡 곳인 걸로 어렵게 막 어렵게 소상 나민 저물
 떡이라고.
 107065 @ 무신 떡마씨?
 107065 #3 돌아 또 부모자 저물떡이라고.
 107065 @ 저물떡?
 107065 @2 제물떡?
 107065 #3 공정 요즘의 장의사 낫주마는 매장헌 어른, 손 봐난
 107065 #1 손 정시.
 107065 @2 관 찬 사름.
 107065 #1 무신.

107065 #1 매치라고.

107065 #3 대소렴해나야 혼 불르는 거 아니우과?

107065 @ 예예예, 경 행 이제 침떡을 하는 거고.

107065 @2 저물떡.

107065 #1 일가 가까운 자식덜은 저물떡일.

107065 #1 공정이 떡이 경 어려우난, 목시칩이여 혼 불른 사름이여. 문딱

107065 #1 상복 만든 디고 험니까.

107065 #3 신 삼은 디.

107065 #1 정시안티는 돼지 전각을 목시안티는 후각을 보내고.

107065 @ 공정 저물떡으로 멧 시리로

107065 #1 상제마다

107065 #3 상제가 혼 빗 요 상제

107065 #1 일가덜.

107065 @ 일가덜도 옛날치록 요즘 사름덜 다 도망 갈 거.

107065 #1 다섯 가지 제물떡 쉬를 안 놔가지고 그 새에는 대이파리. 대이파리
장을 만들었어.

107065 #3 그거 제펜이엔 해.

107065 @ 제에 허니까 제펜예?

107065 @ 팔월멧질에는

107065 #3 조계송펜이라고 동글락허게.

107065 #3 솔입 검질 옛날엔 막 조팏 검질 메어나민 솔입을 잘 벗어져. 뽕아당
톨리영 낫당 찻어당 멧질 때 떡헐 때는 그 솔입 농멍 솟디냥 거 처.

107065 @ 음.

107065 #3 경해근에 딱시 지름 블라근에 올령 경 제살 어렵게 했다고 요새ㄴ치
. 점방에 부모 죽을 일 탈상 물 혼 직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안.

107066 @ 맞아예? 옛날에는 여기도 조계솔벤헛구나예?

107066 #1 반들식으로.

107066 #1 요즘은 동글락.

107066 @ 여기 정기떡?

107067 @ 정기떡은 어떻 해야

107067 #3 정기떡은 정기 후라이팬에 지지민.

107067 @ 그 쏘콥에는

107067 #3 양념 맞게 행은에 무 농멍 톨면은 그것이 정기떡.

107067 @ 음, 그 다음은 아까 만뒤?

107067 #3 ㄴ톨ㄴ르 푯 속에 무 담고.

107067 @ 만뒤떡이고.

107067 #3 제스엔 안 쓰는 거.

107067 #1 만두떡 허면은 풋 솥양 그거 무쳐버리주게.

107067 #3 제사에 안 써.

107067 @ 예. 상웨떡?

107067 #3 상웨떡은 팔월맹질 주로 송편 상웨떡을 행 빗떡 친떡 모양으로 우리
경 해나신디 잘 피여. 찌근에 그거 우터레 그거 쟁반에 펜틀에 놔놔 그 우터레 송
편 즈근즈근 두 줄 놔근에 혼 줄로 그 막꼬

107067 #1 순서가?

107067 @ 계난 맨 밑에는 아까 이제.

107067 #3 친떡.

107067 @ 그렇게

107067 #1 빗상웨.

107067 @ 빗상웨. 옛날에 빗상웨 조사.

107067 #1 쌀가루 변허기 시간이 오래 가주게.

107067 @2 상웨떡이.

107067 @ 여름에는.

107067 #3 옛날은 주로 밀.

107067 @ 예.

107067 #3 밀 보리로 주장을 해영 사난게. 밀 엇인

107067 @ 밀로 멘든 밀상웨.

107067 #3 밀상웨.

107067 @ 보리상웨도.

107067 #3 서경. 서경.

107067 #1 밀허고 서경.

107067 #3 것만은 못 허여. 서끄민 좀 켜찮녀.

107067 #1 상웨도 동글랑

107067 #3 건 약래.

107067 @ 약래.

107067 #3 약래로 만들 수가 잇는 거.

107067 @ 상웨를예? 약래만 니 고

107067 #3 소상 그거는 아무 때나 중계 약래는 안 쓰는 거난게.

107067 @ 식게 때는 안 해마씨? 큰일 때에.

107067 #3 그런 때나 쓰주. 요새는 아무것도 안 써도 그때는 경헛주게.

107067 @ 예, 예. 그 다음에 식게 때 허는 거는 다섯 개.

107067 @2 오편.

107067 @ 식게 때는?

107067 #3 다섯 개.

107067 #1 다섯 가지.

107067 #3 가지 과질은
 107067 @ 식게 때도 과질 올립니까?
 107067 @ 요즘도 올려? 서쪽에는 안
 107067 #3 떡방아에 막 폼니께. 마트에도 폴아.
 107067 #1 마트에도 폴아.
 107067 @ 정허영 과질 올리고예. 상례떡 열곳떡에.
 107067 #3 건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
 107067 #1 대소상 때도 허주.
 107067 @ 그 다음에 설귀떡은 뭘엔 험니까?
 107067 #3 문친떡?
 107067 @ 설귀떡이렌 현 말은
 107067 #1 제펜 보고
 107067 @ 제펜예?
 107067 #3 이딘 제펜.
 107067 @ 제펜헤연 솔벤.
 107067 #3 솔벤 가르 빠 반죽 만들엉 끓여내영.
 107067 @ 예.
 107067 #3 그 저 절벤은 솥양 만들곡 솔벤은 뜻 싹싹 밀영 분이 있어.
 107067 #1 그것도 저 뭘 낵 허여. 솔입 낵
 107067 #3 접시라도 반들이난.
 107067 @ 예.
 107067 #3 그것도 솔입 놓고 찌는 거.
 107067 # 건 쳐.
 107073 @ 이렇게 바드랭이 낵. 그 다음에 절벤은 어떻게 하는 거.
 107073 #3 절벤은 솥아내영 막 달황 이렇게 동그려. 두 개 마주 부쳐. 이 분이
 있어.
 107073 #1 놀리는 거.
 107073 #3 글자도 나오곡
 107073 #1 절벤분이 있어.
 107073 @ 요즘도.
 107073 #3 우리도 제스 헐 땀 잇엇단에 아 치와비연 웃어.
 107073 @ 종손칩이난 잇일 거 닻은디?
 107073 #3 필요엇주.
 107073 #1 필요허게
 107073 #3 버려변.
 107075 @ 버려버럿수강? 그 다음에 그 아까 웃지시헛잖아예? 웃지시.
 107075 #3 웃지시는 본도 있어. 동글락헌 거.

107075 #1 그린 거 폴암주.

107075 #3 손으로 밀어놔 툇툇허게 떠근에.

107075 @ 음, 떠근에 우지시로 하는 거고. 웃지는 별떡예?

107075 #3 벨떡게. 벨떡.

107076 @ 삼춘도 당에 다녀마씨?

107076 #3 요즘 다녀나주.

107076 @ 당에 텅길 때는 무신 떡 혜영 가?

107076 #3 믱물떡.

107076 #1 메밀쫄로.

107076 #3 동짓들 초일 열일웨.

107076 @ 일렛당이구나.

107076 #3 동글락떡 돌레떡이라고 있어.

107076 #3 그거는 많이 가정 가야주.

107076 #3 너미 비참시 줌 믱음 먹엉

107076 @2 보시떡?

107076 #3 굿헐 때나.

107076 @ 당에는 무조건?

107076 #3 관청할망 성읍리 관청할망 밥도 세 그릇. 낭퐁이에 요쪽에 세 개. 떡도 요쪽에 양펜이 숟가락도 으섯 개 나 관청 할망 애기덜 출세 시키젠 허난

107076 @ 관청할망.

107076 #3 어떻사

107076 #1 많이 학생덜 학생

107076 #3 그것덜 믱 중학교부터 대학 직장 또 손주 큰손지 올히 내년 사학년 군대 올히 일학년 반 저 이학년 올히 복학허난 이학 그것도 군인갈 때도 이 할망이 더프지

107076 #3 이제 공무원 시험 수덕을 얻주.

107076 @ 수덕

107076 #3 수덕 언넨 복 많ㅇ 부처님 믱음이 착해서. 수덕 보는 거우다.

107077 @ 수덕 본다. 그 다음에 굿떡예? 어떤

107077 #3 심방 굿도 그 그냥 큰굿헐 때는 시루떡도 허고. 또 동글라 즈매떡이라고 동글동글허게 즈매떡도 허고 보시떡 굿에 따라

107077 @ 아까 동글락헌 떡은?

107077 #3 돌레떡.

107077 #3 마지나 그거는 할마님상에 보시떡 마제도 그 산메라고양 사발에서 할망상에 세 사발 동글라 즈매떡 접아진 거.

107077 #3 꼭 즈매떡

107077 #3 오무룩허게.

107077 #3 죽매떡이 되는 거라.

107077 @ 마제는?

107077 #3 마제는 할망굿. 애기 못 공들여 삼성굿 마제 치는 거. 불도할망

107077 @ 큰굿은 대신 대왕청이라고 막 대 돌아매고 그것ㄴ라 큰굿.

107077 @ 본향굿은 뭐?

107077 #3 본향굿은 여긴 아녘니다. 관청할망.

107077 #3 들여올 때 그것가 본향이라고 합니다. 막 심방 감장돌멍 그뎨 저디
ㅁ끄진 들럭퀴멍

107078 @ 큰굿이렌 허는 거라예?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헤 먹는 떡. 속떡도 이실 거고.

107078 #3 실프른 말고. 쭈버무리. 실프민 마는 거.

107078 @2 웃음.

107078 #3 췌기떡은 밀 ㅁㄴ레에 강 곶앙. 방에에서 췌. 정ㄴ레 맞ㄴ레 곶앙. 곤
ㅁ르 빠아상 두번차 훑은 중상웨. 세 번째 췌기떡. 췌기떡은 뭇로 만드는 순다리 걸
러 췌기떡을 만들.

107078 #1 곤떡 중상웨 훑은 경허는 것가 췌기떡 중상웨 곤상웨.

107078 @ 음.

107078 #3 나안티 너무 곤는 거 아니우과?

107078 @ 삼춘이 삼춘을 모성 왓수게.

107078 #3 뎡 시간고.

107078 @ 흐쑼만 더.

107078 #1 집의 가지 못허여.

소와 고물

107079 @ 떡허젠 허니까 떡 소굽에 놓는 거?

107079 #3 상웬 무시거 안 땡 헛수다.

107079 @2 송편에는마씨?

107079 @ 그 안에 놓는 거를 여기서는 뭇렌 헛수가?

107079 #1 쉬.

107079 #3 송편 쉬는 뭇을 허느냐면은 제스에 헛 때는 췌.

107079 @ 예.

107079 #3 쑷은 안

107079 @ 여기는 안 ㅁ?

107079 #1 제사

107079 #2 이 웬두콩이나 쑷 소굽에 송편 소굽엔 안 담음네다.

107079 #3 모르민 약이고 알민 뎡이라부난.

107079 @ 예, 맞아. 깨를 땡이 허는구나예?

107079 #3 꽤 많이 갈아. 거 허민 우리 느랑
 107080 @ 그 다음에 그 소곱에 거는 쉬렌 허잖아예. 징허는 디 노흔 거는 뭐렌
 107080 #3 징 놓는 거.
 107080 @ 문친떡헐 때
 107080 #3 풋쉬.
 107080 #1 흔 징 흔 징 놀 거난.
 107080 @ 그때 징 놓는 것은 풋
 107080 @ 주로 풋으로. 아까 경 안 허면 댓잎.
 107080 #1 제스에
 107080 #3 댓잎
 107080 #3 제펜이 맛이
 107080 #3 초상 나시
 107081 #1 시리떡 헐 때.
 107081 #3 여자가 새물이라고. 떡 시리 들어오면은 떡이 안 익나 허는 또 아니
 오라사 만약에 또 떡을 짐이 아니 올르면은 들 큰곳을 대시시리라고 쳐 옛날에. 펜
 안허젠 허민 이 떡이 잘 익고. 아저 떡이 게민 감상기라고 심방털이.
 107081 @2 감상기.
 107081 #3 감상기 앓당 떡을 쳐나수다. 나가 큰곳을 세번 헤나수다. 잘 아는 거.
 아녀나민 몰라.
 107081 @ 감상기 쳐반예?
 107081 #3 게난 익읍디다.
 107081 @ 밖으로 시리고망.
 107081 #1 부정탄덴.
 107081 #3 새물이라고.
 107081 @ 새물은 뭐마씨?
 107081 #3 부정현다.
 107081 @ 사물.
 107081 #3 어디 다 기분이. 탁 나도 오보바만 오도바 탁 아정 올레 길이 올렌디
 남자가 탁 넘어가민 그날은 돈은 여자가 싹 질칼르민 기분이 안 줍니다게.
 107081 @ 나가 여잔디도.
 107081 #1 여기는 아침에 남의 집에 함부로
 107081 @ 지금도예?
 107081 #1 지금도.
 107081 @ 아침에 나 오지 말아사켜.
 107081 #3 이
 107081 #3 이 동네도 그런 사름이 있어.
 107081 @ 채수 없는 사름

107081 #1 그런 사름이 가끔 있어.

107081 @2 떡을 칠 때에 익지 않으면

107081 #3 둘러 앉저근에 아니 익으면 흘 수 없는 거.

107081 #1 떡 침 주렌 혜영

107081 @ 예.

107081 #1 젓가락으로 막 침주고 이렇게 헉디다.

107081 #3 경해도 안

107081 #3 나 옛날 곶으쿠다양.

107081 @ 예.

107081 #3 사삼사건 일기 전의 보름떡이라고 열나홀 찌는디 떡ㄱ르 찢안에 재 수보기. 보름떡 보름떡 찌는디 흘 징 이름 가운데 떡이 안 바로 우리 언니라양.

107081 @ 으음.

107081 #3 열나홀 그해 우상우상 스삼사건 오꽃 심어단에 성산포 간 심 아이고, 어떻 현 일이 산메 쳐보게. 쓸 사발에 산메 치난 다른 사름 우리 물 카지명 안 뵈디다게.

107081 @ 보름.

107081 #3 그날 처낙 다시 산메를 그게 안 익어. 다른 쓸방울 물 골르멍 정월 그해 뒷해 정월 아시해 집 텔레비에 죽여부난에 스물 세 설이주. 안 죽어시난 갓단 안 질룰 사름 성산 믿는 봉가단 피 죽은어멍 그걸 질환에 돌아가난 오란 맥이곡 딱 돌아오는 죽게 그거 시방 그 아덜이 가이가 예순아홉인가.

107081 #3 아덜 손지보고 헛수다. 신기현 일

107081 @2 그 보름떡엔 헉니까?

107081 #1 산메 쳐보는.

107081 @2 방시리.

107081 #3 그거는.

107081 @ 입춘. 그 다음에 산메는 뭐마씨?

107081 #1 솟디 낱.

107081 #3 복을 산메가 잘 내려. 허곡. 스망 엇젠 허민 산메도 잘

107081 @ 보름떡은 산메는 밥을 쓸 산메.

107081 #1 큰제사 포제던지 토신 산메를 헉주.

107081 #1 사발에 솟디.

107081 @ 그때는.

107081 #3 물에 사발놔도 물.

107081 @ 그런 거를 산메렌 허는 거라예?

107081 #3 잘 웨여. 굿젠허민 아멩 머리를 또 풀어사.

107081 @ 오늘 특이한 말

107081 @2 솔직이 그 뜻을

107081 #3 나안티 배웁디가. 오 살암시난 인터뷰를 완.
107081 #3 작구떡에 열긱떡 우지시.
107081 @ 계난 지난 궂인떡 다 갓춘떡.
107081 #3 작구떡.

별식

107082 @ 예. 그럼 삼춘, 별식. 여기도 순대를 하영 해수가?
107082 #3 이 사름 잘 알아.
107082 @ 수에 어떻 해수가?
107082 #1 돼지베설 큰 것에서 담는디 옛날은
107082 #3 믱덜궂르 전부 양념 지금은 안 놓는 양념이 없주. 양념 기름 참기를.
107082 @ 음. 계영 수에예? 수에는 언제 먹는 거마씨>
107082 #1 고기 석 점 낱 전엔 현 게 잇어. 그것이 반이라.
107082 @ 삼춘이 도감도 해봬디가?
107082 #3 소리도 잘 허곡. 일도 잘허곡.
107082 @2 놔보다 두 시간 믱녀 일어난.
107083 @ 삼춘, 둬비.
107083 #3 그건 아녀반.
107083 @ 성읍은 둬비 안 험니까?
107083 #1 장이나 험 거 갓앗주.
107083 #3 출려사 아무상 엇이 못 허는 거.
107084 @ 모멸묵?
107084 @ 썬몹서?
107084 #3 말로 믱덜궂르 해당 카근에 카짜근에 빙떡 정도만 영허민 알아져게.
불 솟아 저르가 지수. 막 애가 쓰게 젓어 흐랑흐랑허고. 맞게 힘들어. 막 힘들게 잘
썬지민 묵이 트랑트랑 다라에 놔두민 식 칼로 썰영 웨민 그게 묵, 지름장 불랑 구
면은 맛 초상 나시 올리고.
107085 @ 청묵도 해봬마씨?
107085 #3 그냥 놀령 막 이것도 간이 맞아야. 여름에는 돼게 썬야 겨울은 봄에
는 어느 정도 해야. 작아도 안 돼고. 난 해나난. 경 해근에 무주건 잘 썬야만 잘 익
어야 토랑토랑허게 얼리면은 청묵은 톡톡 잘라근에 다섯 점씩 또 갈라 그릇에 지름
장 야
107085 @ 건 지름장에
107085 #3 맛이 엇어.
107085 @ 지름장은.
107085 #3 춤지름허고.
107085 @ 묵은 그렇게 해야 맛

107086 @ 삼춘, 개역도

107086 #3 새 보리 나민 장마 지민 장마비 출출 올 대 ㄹ레에서 체로 쳐근에 ㄹ르도 카먹고.

107086 @ 웃음.

107086 #3 밥에도 비병 먹고.

107086 @ 개역 스레기는 뭐우과?

107086 #1 개역스레기.

107086 @ 옛날에는 맞ㄹ레로

107086 #3 옛날은 ㄹ레로만

107086 @ 개역스레기가 나오는 거구나.

107086 #3 카 먹엇주마는.

107086 @2 개역스레기

107086 #1 숟가락으로

107086 #3 다습에기 ㄹ른 개역 준텐.

107087 @ 지지민은 어떻게연?

107087 #3 잔치 때 전이고.

107087 #3 지집이는 그 제스 지내지 동태도 까까당 부치고 계란에 이것저것 허고 허여도 우리 제사할 때 어느 정도 아덜네 말아 찹쌀 허영 도나스도 찹쌀떡도 찹쌀 농사 많이 지난.

107088 @ 삼춘, 술 오메기술도 직접.

107088 #3 오메기술은 조가 어디 서? 아덜 풀 때 오메기술만 큰항으로 오메기술을 헨에 막걸리 남으난 인심도 직원도 질어도 주고. 막둥이 교육청 시방 학교 서무과장으로 시방 교육위원 스무실에 이녀도 막걸리만 술만 그땐 조블리 그때도 그항으로 경혜연 해낫수다마는 풀아보진 못허고.

107088 @ 오메기술은 어떻 허여?

107088 #3 건겨내영 식으면은 꺾영 물에 문달문달 항에 남 이것이 혼 부각부각 부각 꺾여가주게. 막 꺾여근에 허민 먹을 두불 허면은 청주가 노랑케 골라앗아. 청주굴라 쓸 거 확 서경 걸르민 완전히 맛좋은 오메기술 나 두 번

107088 #3 흐린좁쌀로로.

107088 @ 요즘은 오메기떡.

107088 #3 찹쌀.

107088 @ 원래는 좁쌀로.

107088 #3 원래 좁쌀로.

107088 @ 옛날에는?

107089 #3 순다리.

107089 @ 밥 쉬영 허면.

107089 #3 드룻 카온 웬장 상뒤

107089 #3 상뒤에 가온 드룻카온 웬장. 쓸모 밥 남은 건 순다리 웬장은 버려볼
곡.

107089 @ 드룻카온 웬장은 집의 안 가정와마씨?

107089 #3 데껴불지 국이라도 맛이 돼양

107090 @ 상뒤 가온 비바리? 누룩은 어떻 만들아마씨?

107090 #3 누룩은 저 보리나 밀이나 골앙 것도 물 찬물에 뜻뜻하게 떡 만들앙
놔두면은 놔두면은 노랑게 뜨면은 검영허민 그것가 누룩. 물 누룩 별거 아니.

107090 @ 예. 요즘은 못허켄덜

107090 #3 실프난 마는 거.

107091 @ 삼춘, 옛도 해판마씨?

107091 #3 옛은 우리는 종가 설맹지 감지옛을 헛주게. 해년마다. 제관마다 우리
집의 오랑 정심 먹고 행 열두 시가 제스에 잘 하주. 경허난에 그거 감쥐옛도 옛도
게 무 옛은 누룩.

107091 @ 골.

107091 #3 골인가 누룩인가.

107091 #3 이 보통 약허는 거는 감쥐 밀궤르 옛어.

107091 @ 계난 밀궤르도 놔.

8. 주생활

구조

108001 @ 자 집 지엇던 거에 대행 물어보쿠다예?

108001 #1 예.

108001 @ 삼춘 이제까지 집 지엇던 경험, 어떤 집 지엇던 얘기

108001 #1 성읍리는.

108001 @ 예.

108001 #1 이칸 이렇게 해서 삼 단계로 집을 짓주.

108001 @ 예.

108001 #1 계민 사칸집은 네 칸을 말하는 거고, 삼칸을 세 칸을 말허는 거고,
이칸은 두 칸을 말하는 것이 초가집이라.

108001 @ 예. 계민 지금까지 혼 멧 채나 짓어봬디가?

108001 #1 나?

108001 @ 예.

108001 #1 아맹해도 열일곱 술부터 헤시난에 몰라, 멧 년사 헤져신디 원. 혼 육
십 년은 더 헛주.

108001 @ 게믄 멧 거리나 지언마씨?

108001 #1 지은 거 숫자로써는 혼이 엇주. 우리가, 지금은 초가집을 경 벨로 하영을 안 짓는디, 예, 한 팔년 전이부터는 나가 이, 저 문화재 그 저 지정 가옥을 많이 수리허레 텅기난에 그땐 일년에 혼 이십 거리도 허곡, 삼십 거리도 허곡 그자 경허연 허주.

108002 @ 알아수다. 집 종류도예, 초집 말고도 으라가지 잇잖아예, 초집 잇고 집 종류를, 삼간집 이간집 말고 어떤 집들이 이 성읍리에 잇수과?

108002 #1 초집은 이간집 삼간집 아니고는 집이 잇어. 경 아녀민 그루후젠 불চিত막엔 영 담 당 그자 혼 칸으로 뵈 거.

108002 @ 예.

108002 #1 그제 불চিত막.

108002 @ 그리고 여기 일관현이여 허는 거는 무신 집 험니까?

108002 #1 어디 거?

108002 @ 일관현 그 집을?

108002 #2 일관현 쓰레트 집이주.

108002 #1 일관현

108002 @ 지에집.

108002 #1 지와집은 우리 지으레 텅기지 아녀나니까.

108002 @ 흑 허영도 집 지엇수가? 흑집엔 험니까?

108002 #2 초가집이주.

108002 #1 흑은 옛날에 나가 이 우리 그 할아버지가.

108002 @ 예.

108002 #1 이 장사 때나 이 저 옛날도 흑질헐 때는 큰 생교, 대성전 같은 디 수리헐 때는.

108002 @ 예.

108002 #1 달구로 이 저 흑을 꾸주.

108002 @ 으음.

108002 #1 나무로 지어서 떡방아 지듯이.

108002 @ 예.

108002 #1 그땐에 우리 그 하르버지가 선소리를 잘허주.

108002 @ 아, 하르버지 성함은 어떻 뵈마씨?

108002 #1 윤 자 후 자.

108002 @ 송 윤 자 후 자 어르신, 아.

108002 #1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은 그때는 나가 막 어린 때고,

108002 @ 예.

108002 #1 그분이 많이 해낫젠 허는 소리만 들엇주.

108002 @ 음.

108002 #1 그 다음엔 아버지가 헛는디 아버지가 우리가 어린 때 한 열네 술 초

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우린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돈도 웃도 아무 것도 엇이난 아버지가 늘랑 일만허라 일만 허라 허난 이렇게 신세가 돼어부렀는디.

108002 #2 그때사 다 일만 허영 살았주게.

108002 #1 아버지가 장에 나가면은 강 노래. 우린 그땐 어린 때난에 일허레 가는 목적이 아이라 얻어 따라갓단 말야. 얻어 먹젠 따라갓는디 아버지가 노래 허는 거 들으면은 자꾸 들으면서 요렇게 허는 거구나, 요렇게 허는 거구나 자꾸 들어온 것이 나도 노래를 배우게 돼엇고 알게 뵈는디 그래서 지금까지 춤 노래를 허고 있주게.

108002 @ 예. 아버지 존함은 어떻 돼마씨?

108002 #1 으.

108002 @ 아버지 존함은?

108002 #1 남자 혁자.

108002 @ 그것도 다 기록해 드리쿠다.

108002 #1 이 책에도 나왔주.

108002 @ 그 다음에 여기는 흑집혈 때 돌집도 지엇수가?

108002 #1 돌집은 옛날부터

108002 # 4 초집허젠 허민 돌집이주게.

108003 @ 돌집예? 알아수다. 그러면 삼춘, 우리 집 채 허면 집 거리가 잇일 거 아니우과예? 안거리여 밋거리여 허는 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전마씨?

108003 #1 이게 만약 이제 남향집, 우리가 시방 우리가 앓아 잇는게 남향집인데 동쪽은 동모커리.

108003 @ 무슨 거리마씨?

108003 #1 동모커리.

108003 @ 아, 동모커리.

108003 #1 서쪽은 서모커리.

108003 @ 예.

108003 #1 이렇게 해서 집을 삼 채를 짓지.

108003 @ 모커리. 그 다음 맞은 채는?

108003 #1 맞은편은 안 짓지.

108003 @ 남쪽이니까.

108003 #1 짓어부리민 집안이

108003 @ 안거리 밖거리는 어떤 거?

108003 #1 안거리?

108003 @ 예.

108003 #1 만약 이 소막, 소오양간을 허게 뵈면은 옛날은 부엌을 딱로 허니까.

108003 @ 예.

108003 #4 백에 직산협서.

108003 @ 동모커리 서모커리 헛잖아예?

108003 #1 대개 서모커리를 부역을 해요. 서모커리는 소막을 아녀거든. 올레 출입 췌가 드나드는 디가 이디가 가까우니까.

108003 @ 으음. 우리 집허단 보민 밧거리도 잊지 아냅니까? 밧거리는 여기는 안이어도 밧거리는 어떤 디 밧거리 지읍니까?

108003 #1 밧거리.

108003 @ 밧거리?

108003 #1 동모커리 서모커리가 이게 밧거리라.

108003 @ 저쪽

108003 #1 이게 안거리고 동모커리는 창고고

108003 @ 예.

108003 #1 서모커리는 부역이고.

108003 @ 그것도 밧거리로 볼 수 잇는 거예. 알아수다.

108003 @ 주로 멧 칸 집을 짓엇수가?

108003 #1 보통은 초가집 이 안거리는 삼칸.

108003 @ 삼칸.

108003 #1 삼칸이민 약 예 평수로 따지민 이십 평.

108004 @ 아, 게민예, 삼칸집 짓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예, 어떤 식으로 바닥을 골르는 것으로 시작해갓고 삼칸집을 말로 짓어봅서?

108004 #1 이 삼 칸 집을 짓젠 허면은.

108004 @ 예.

108004 #1 목수허고 인력이 백이십 명 들어.

108004 @ 아아.

108004 #1 그러면 땅을 파서.

108004 @ 예.

108004 #1 땅을 이렇게 사각으로 파서 담 땅을 자리를 다지.

108004 @ 예.

108004 #1 땅을 이렇게 흙을 지 다져. 이때 달구소리 허면서 땅을 다지주.

108004 @ 게민 달구소리도 혼번 해불카마씨?

108004 #1 으.

108004 @ 달구소리도 해봅서.

108004 #1 이 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잇는디, 봉분 쌓을 때 허는 달구소리가 틀리곡.

108004 @ 예.

108004 #1 이 달구소리가 틀려.

108004 @ 봉분은 나중에 허고 땅을 다졌으니까 달구를 지어봅서.

108004 #1 이 달구소리가 선소리는 똑같은데 봉분 쌓을 때는 구신이 빨리 몰러

가라고 해서 멀구라고 하고.

108004 @ 멀구?

108004 #1 으.

108004 @ 예.

108004 #1 땅을 이 집안에 다질 때는 땅을 다진다고 해서 달구.

108004 @ 정행, 정행은에 달구를 짙는 거라예. 그 노래는 안 불르젠마씨?

108004 #1 무사 헐 중 알주.

108004 @ 예, 불리봅서.

108004 #1 어허여 달구/우럭삼촌 들어덜 봅서/에헤여 달구나/볼락조케 골으라
듣저/어허여 달구야/간밤에 꿈을 보난/어허여 달구야/췌공쟁이 걸려베고/어허여 달
구야/대구덕에 놓아베곤. 아이고 이꺼장만 허주.

108004 @ 예, 그게 우리 집 땅을 헐 때.

108004 #1 다지는 소리.

108004 @ 삼간집 지을 때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헐 일은 뭐우과?

108004 #1 그 다음에 헐 게 뭐라. 석공은 담을 담고.

108004 @ 예.

108004 #1 목수는 집을 짓고. 나머지는 잡부들은 흑질을 허여. 흑 꾸여다가 담
에도 브르고 이 튼기도 하고.

108004 @ 예.

108004 #1 이거는 지금은 저 뭐인가 이 브로쿠로 쌓아서 공고리를 헛지만은 옛
날은 튼기라고 헐 게.

108004 @ 예.

108004 #1 대나무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엮어서 이디 흑 불르는 게 튼기라. 튼
가 허영 흑브를 때 허는 소리가 잇주.

108004 @ 그것도 일단 해봅서.

108004 #1 막 부러먹젠 험서.

108004 @ 이왕 삼촌 잘허는 거난게.

108004 #1 이허~어 혁이여 어이 오우 오우 혁이 두러매라/올러 매라 어어어어
메여치라 이여 혁이여 어어어 오 우 흑이 들어 메라/요 집 짓엉 삼넌 만에 이에이
어 어허여 아덜 낳면 효잘 낳라/어어허 어어 혁이 두러매라/딸은 낳면 어어어어 열
넌 낳라 이여/허어어 혁이 두러매라. ㄱ만허주.

108004 @ 흐으, 그건 무슨 노래마씨?

108004 #1 흑블를 때 허는 소리주. 집 짓엉 흑 블를 때.

108004 @ 그렇게 해서 튼기 해서 벽을 다 만들 거 지붕도 멘들거 아니? 방도
멘들고. 튼기 만든 다음에는 뭐 허는 거우과?

108004 #1 그 튼기 만든 순간에 집은 이 서까래엔 헐 게 이어.

108004 @ 서까래.

108004 #1 서까래는 표준말이고 제주도 말은 서리. 서슬.
 108004 @ 제주도 말은 서슬.
 108004 #1 대나무 땡 서슬해여근에 그 위에 저 어웁으로 일주. 억새엔 허민 표준말이 이딴 말로 어웁.
 108004 @ 어웁 으.
 108004 #1 어웁으로 혼 불 일어.
 108004 @ 예.
 108004 #1 혼 불 일엉 혼 이십 일쯤 잇당 또 혼번 새로 더끄주.
 108004 @ 새로 더꺼예. 새로 더끈 다음은 또 새로만 더끄른 웹니까? 거 줄도 매여야 될 거 아니?
 108004 #1 줄이사게 그 더플 때 매주거주게.
 108004 @ 그 준비를 집을 지붕을 일젠 허면 준비해 놔야 될 거 잇지 아녀우과?
 108004 #1 준비 해 놓을 건 뭐이라. 재료만 준비허민 새 준비해 놓곡.
 108004 #4 응. 줄 비른 똥곡.
 108004 @ 경행 삼춘 삼간이렌 헛잖아예? 그러면 혼 칸 혼 칸마다 이름이 이실 거 아니?
 108004 #1 이게 삼칸이라.
 108004 @ 이 삼칸에 뉘뉘 잇수가? 이 거는 무신 방?
 108004 #1 이건 큰방이고.
 108004 #1 저건 작은방.
 108004 @ 옛날에도 작은방 영 곶아수가?
 108004 #1 이게.
 108004 @ 예.
 108004 #1 이 자식이 많은 데는 우린 자식이 많으니까 방을 많이 꾸몄는디.
 108004 @ 옛날에는.
 108004 #1 큰방에는 잠을 자고 저 방에는 제사를 제삿방.
 108004 @ 제삿방으로 죽은 방. 성읍은 정제는 모커리에.
 108004 #1 정제는 동되리.
 108004 #1 모커리 쉼막.
 108004 @ 쉼막허고. 옛날도 이 집 삼간집 허면 정제는 삼간에 따로 만들지 따로 만든디도 잇었어.
 108004 #1 저 집안이 곤란 따로 저걸 못 만드니까 이디 저 방허곡 마루 부엌.
 108004 #12 그 안넌 고팡허곡.
 108004 @ 고팡허곡.
 108004 #1 부엌허단 나머지 고팡허고.
 108004 @ 정제 따로 현 디는 고팡도 멘들아? 고팡은 어디에 만드는 거?
 108004 #1 고팡은 이것이 방이민 저쪽 마루

108004 @ 마리 부튼 디가 이제 고향하고.

108004 #1이 여유가 잇는디는 부역을 따로 헌디는 부역에 고향을 부역에 부짱 여자덜 쓸거리레 탕임 쉽게게.

108004 @ 그럼, 삼간집 헐 때는 방이 두 개?

108004 #1 아니, 방 두 개 헌 디도 잇고 세 개 헌 디도 잇는디 두 개 헌 디는 부역이 부떠 잇고 그 집에 그 집에. 세 개 네 개 헌디는 부역이 따로 잇어.

108004 @ 옛날부터 그렇게 딱로 헨예?

108004 #1 저것이 부역인디 방 네 개. 팔십이년도에 지었는디 이 집을.

108004 @ 삼춘이 지은 집. 부역은 따로 잇고. 알아수다.

108004 @ 그치록허영은에 삼간집을 지은 거라.

108004 #1주춧돌.

108004 #1 쫓지 으섯 개 맞아. 개윗지등꺼저

108004 @ 대위지등?

108004 #1 개윗지등.

108004 @ 여덟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마다 밑에 주춧돌을 놓는 거우과?

108004 @ 보는 뭐우과? 포는 뭐우과?

108004 #1 포는 이렇게 저쪽 포 저쪽 개워 길게 나오는 게 포.

108004 #2 상마루.

108004 #1포는 두 개라.

108004 @ 계민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헌 거는 상마루 이렇게 헌 거는 여기 하나 둘 네 개씩 행은에.

108004 #1 여기에서.

108004 @ 예.

108004 #1 요렇게 나강 개윗지등.

108004 @ 개윗지등. 네 개 이것도 네 하나들 요거는 아까 쫓지등.

108004 #1 개윗지등.

108004 @ 개윗지등이 뒤편 거고. 아까 삼춘, 서슬힐 때는 무신 낭으로 헛수가?

108004 #1 대나무로.

108004 @ 대나무로?

108004 #1 대나무로도 허고, 이 대나무가 그때 옛날은 어려우니까 나무 깨어근에.

108004 #1 나무를 줄게 깨어근에 낭으로도 헌 디도 많아.

108004 @ 그 다음에 서리, 서리는 어느 쪽으로 거는 게 서리?

108004 #1서리 이렇게 직선으로 거는 게

108004 @ 이렇게

108004 #1 이렇게 거는 게 서리라.

108004 @ 집이 이렇게 뒤편 서리 거는 거는 네 군데로 뒤편거네.

108004 #1 그렇지. 일로 걸어가록. 이거는 강량이렌 허는디, 이쪽 강량 저쪽 갈양 허민 네 거리가 맞아.

108004 @ 서리 걸때는 모서리로 가는 게 서리우과? 지붕허면은?

108004 #1 지금 집이 요렇게 잇잖아이, 요렇게 거는 게 서리고, 요렇게 거는게 강량. 이쪽으로 가는 것도 강량.

108004 @이렇게 허는 게 그.

108004 #2 지붕에는 서리

108004 @ 이렇게 걸 이렇게 가는 게 서리고, 이게 강량이라는 거?

108004 #1 게난 나 말은 이렇게 잇잖아이 집이, 이렇게 거는 건 서리고 요렇게 거는 건 강량.

108005 @ 알아수다.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예. 옛날에 주춧돌은 우리 돌예? 현무암.

108005 #2 지둥 받치는 게 주춧돌 아니?

108005 @ 주춧돌을 여기에선 뭐렌 해수과?

108005 #1 여기도 주춧돌.

108005 #1 지둥굽앤도 허고. 주춧돌을 도리는 뭐우과?

108005 @ 도리는 뭐우과?

108005 #1 집이 요렇게 상므루 가운데 잇는 게 도리라.

108005 @ 아아, 이게 도리로구나. 이렇게 툐 게. 게문 도리는 몇 개가 툐 거? 두 개 툐는 거. 집 하나에.

108005 #1 상므루 중므루 하므루. 하므루에는 문백선 지둥 없이 중므루.

108005 @ 중므르, 상므로 가운데 가로 질렁은에 중므르. 양쪽에?

108005 #1 백선

108005 @ 상므르 중므를 하므로, 하므루는 두 개우과?

108005 #1 하모루는 양쪽에

108005 @ 거 백선

108005 #1 그디 문백선을 세와야돼니까

108005 @ 중므르로 게문 보몽 제주도 집 짓을 때는 어떤 낭으로 짓언마씨? 상므루 걸거나 이런 거 헐 때?

108005 #1 옛날은 모르겠는디 우리가 커난 후에 집 짓는 거는 주로 한라산 도벌목을 많이 헐주.

108005 @ 예. 무슨 목?

108005 #1 한라산.

108005 @ 예.

108005 #1 한라산 산감덜 모르게 행 도벌목.

108005 @ 도벌해당 그 낭 종류는 몰르고?

108005 #1 낭 종류는 소나무가 있고 낙엽송이 있어.

108005 @ 어느 냥이 좋아마씨?
108005 #1 좋은 낙엽송이, 소나무허고 낙엽송은 비슷헌데.
108005 @ 예.
108005 #1 이 산나무는?
108005 #2 츠남.
108005 @ 츠남.
108005 #1 초냇이 아니고 숙대냇 산나무.
108005 @ 아, 삼나무?
108005 #1 이렇게 곧앗당도 벳만 맞아가든 이렇게 휘여부러. 게냇 그게 좋지 않
덴 헌 거.
108005 @ 소냇이나 이런 건 안 휩니까?
108005 #1 건 휘지 안 허여.
108005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그 지똥포를 허거나 이거 다 그런 냇으로 허
는 거네예?
108005 #1 포는 특별한 냇으로 허주.
108005 @ 아 포는마씨?
108005 #1 좋은 냇 상뭇루도 좋은 냇만 허젠 허는디.
108005 #2 가시냇
108005 #1 이 옛날은 가시냇을 많이 썰는디, 한라산에 강 베어오기 전에는 없단
말이야.
108005 @ 예예.
108005 #1 소냇도 쓰고 산나무도 쓰는디, 원래는 옛날은 가시냇허고 소리냇허고
솔피냇을 많이 써서.
108005 @ 소리냇 허고 솔피냇예. 그게 썬 냇이우과?
108005 #2 솔피냇은 어떤 거?
108006 @ 그런 냇으로, 알아수다. 삼춘 여기에 그렇게 이제 하면 뽕기도 해야
뽕텐 허고, 그 뽕기는 몇 군데를 허는 거우과? 벽마다 다 허는 거?
108006 #1 그렇지게. 이기도 올로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서 두 군데를 만들어야
뽕. 넓으면은 흑 블라가면 흥창흥창 무너져버려. 불과 일 메나 간격으로.
108006 @ 이 넓으면 뽕 개를 허는 거냐예?
108006 #1이 벽선 한 네 개쫘 세왕 뽕길 만들어야지 경 아녀민 사름 건드리면
홀랑홀랑.
108006 @ 벽이 이만큼 허더라도 나뽕은에
108006 #1 일 메다 간격으로.
108006 @ 일메다 간격으로 전부 뽕기를 하는 거라예. 뽕기 밑으로는 문을 벽장
이렇게 허면 여기 뽕기 요기는 이런 나무 식으로.
108006 #1 무슨 거게. 빈지.

108006 @ 이건 빈지. 빈지는 뭘로 현 겨우과?.

108006 #1 옛날은.

108006 @ 으.

108006 #1 제제공장이 없잖아.

108006 @ 예.

108006 #1 목수 길이를 재어서 찢라와서 깨엇어.

108006 @ 아아.

108006 #1 이렇게 깨어서 했는디 이제는 제제소가 생기니까 옛날은 거의 이 저 대문도.

108006 @ 예.

108006 #1 대문 널도 깨여서.

108006 @ 무신 걸로 찢니까?

108006 @ 말목을 딱 놔갖고.

108006 #1 이 길이른 말목을 열 개쫘 박당 다 때리지. 게민 나가잖아.

108006 @ 아아, 말목을 박으니까 깨른 옛날 집덜 보민 울통불통

108006 #1 시방 대문 강 봐. 반득헌 디가 엇어.

108007 @ 울통불통 깨서 현 거고. 이게 빈지가 돼고 튼기가 돼고 그 다음에 방에 허면 이불 개어 놓는 디?

108007 #1 시렁.

108007 @ 시렁도 꾸며야

108007 #1 요거 시렁인디 이게 원래는 한 일 메다 정도 그디 시렁 만들엉 궤도 농곡 옷 놓는 궤, 옛날 궤.

108007 @ 궤

108007 #1 옛날 궤도

108007 @ 게난 삼춘 우리는 시렁 아녕 백장이엔 허주마씨.

108007 #1 백장엔도 허여.

108007 @ 이디서도 서귀포 쪽에 이쪽에 시렁

108007 #1 서귀포허고 모실포허고 여기허고 틀려. 말이 틀려.

108007 @ 백장엔도 허고 시렁엔도 허고예? 그 다음에 시렁을 멘들아야 웰 거고. 마리에 보면 그 여긴 뭇렌 허드라. 제기 같은 것도 담양 놔두는.

108007 #1 아아 장래.

108006 #4 아아.

108007 @ 장래. 꼭 장래덜은 마리에 멘들앗수과?

108007 #1 잘 사는 사름덜이 못사는 여지가 엇어.

108007 @ 장래는 멧 군데 멘드는 거?

108007 #1 두 군데 멘들앗주. 혼 쪽은 젓그릇 농곡. 혼 군텐 제상 농곡.

108007 @ 장래는 다른 건 아니고.

108007 @ 지난 번에도 장쾌가 잇엇잖아예?

108007 #1 거 켓상 놓고 켓그릇 놓는 디.

108007 @ 무사 장쾌렌 허는 겨우과?

108007 #1 모르주게. 나 낳기 전에 곶을 말 어떻 알아.

108007 @ 장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큰구들 이렇게 마루 텔 거 아니라 이렇게 허면 여기가 큰구들예, 여기는 족은구들. 옆에도 뭐 잇수가? 구들도 두 개 이신 거.

108007 #1 대개 이 구들 허당 나머지는 시성, 시령을 만들엇주게.

108007 @ 이렇게 허면 시령행은에 하고.

108007 #1 이불도 놓고

108007 @ 시령, 방마다 시령을 멘들아수가?

108007 #1 방마다 잇주. 방마다.

108007 @ 방마다예? 이건 족은 구들.

108007 #1족은구들 큰구들.

108007 @ 여기는 뭐우과?

108007 #1 삼방

108007 @ 게문 삼방에 여기는 대문예. 대문 잇일 거 아니라예? 여긴 뭐?

108007 #1 대문 베꼈딘, 대문 베꼈딘 게 풍채벳기 더 잇어?

108007 #1 텃마리.

108007 #1 난간마리엔도 허꼭 난간마리엔도 허여.

108007 @ 난간마리 여기는 신발 벗는 디?

108007 #1 풍채.

108007 @ 난간 아래

108007 #1난간 아래 돌로 이렇게 경 아년 사름은 경헤낫주.

108007 #1 잘 사는 그냥 신 벗어똥도 경

108007 @ 그 돌로 헌 건 뭐렌 해?

108007 #2 잇돌.

108007 @ 잇돌예?

108007 #1 잇돌.

108007 @ 풍채 세울 거 아니라예?

108007 #1 으.

108007 @ 이 문은?

108007 #1 이 뒷문게. 삼방 뒷문.

108007 @ 삼방뒷문도 멘들앗고예. 이 뒤편은 뭐엔 해?

108007 #1 뒤편.

108007 @ 장황들은 어디 놓니까?

108007 #1 장황은 부엌 두에를 만들어.

108007 #4 삼방등어리도 허주.
 108007 #1 부억등어리에 많이 멘들았어.
 108007 @ 부억을 이 동네를 뭐렌 해수가?
 108007 #1 정지. 정지.
 108007 @ 삼촌 정지렌 골아줘야 돼. 정지등어리렌 그거를 뭐렌 해?
 108007 #1 장항
 108007 #2 아니, 아니. 무신 거 하시니?
 108007 @ 장팡뒤. 장독?
 108007 #2 장항뒤.
 108007 @ 삼촌 어디 가부럼수과?
 108007 #2 브름 썩 와야주. 하영 들어가난애.
 108010 @ 정지등어리에 장항뒤를 이제 놓을 거라예? 이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정지를 한번 멘들아보커라예. 정지.
 108010 #1 부억.
 108010 @ 예게.
 108010 #1 지금 말론 부억.
 108010 @ 정지를 멘들면 어느 펜이에 저기.
 108010 #2 솟 앓지는 거?
 108010 @ 예.
 108010 #1 솟 앓지는 이 서북향을 향행은 솟을 안 앓지주게.
 108010 @ 서북향을 솟은 안 앓져? 주로
 108010 #1 성읍리 같은 한라산을 향해서 솟을 안 앓져.
 108010 @ 그 말은
 108010 #1 몰르주게. 옛날부터 서북향을 향해서는 저 솟을 안 앓진다 해서.
 108010 @ 서북향은 아니고 삼촌네 집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108010 #1 우리는 북향이라.
 108010 @ 솟은 몇 개?
 108010 #1 네 개에서 다섯 개.
 108010 #1이 개에서 다섯 개.
 108010 #1 솟덕.
 108010 @ 솟덕 앓져서 네 개에서 다섯 개를 하면?
 108010 #1 두말떼기엔 허주기.
 108010 @ 두말떼기? 그 다음에 두번째는?
 108010 #2 웨솟.
 108010 #1 웨솟.
 108010 #1 다솟 개 앓지기 켈
 108010 #2 세 개 보통으로 앓져낫주.

108010 @ 두 말 떼기 허민 세 개예?
 108010 #1 국 두말떼기는 이 콩. 메주.
 108010 @ 예.
 108010 #1 메주 삶을 때 하영 허주.
 108010 #2 밥 하영 헐 때.
 108010 #1 두말떼기는 큰 제사 때나.
 108010 @ 예.
 108010 #1이런 때 사용
 108010 #3 아르미.
 108010 @ 두말떼기 솟히고 웨솟은 어느 정도 .
 108010 #1 웨솟은 밥 허영 먹어.
 108010 @ 거는 밥 허는 솟에는 혼 말 헛수가?
 108010 #2 혼말짜리가 두말떼기.
 108010 #2 하영 허는 건 서말떼기.
 108010 #1 우리가 보통 밥 행 먹는 거는.
 108010 #2 보통 두말떼기 두말 떼기 웨솟.
 108010 #1 웨솟으로 두 웨. 관웨로 두 개.
 108010 #4 두 말
 108010 #1 중솟.
 108010 #1 웨솟으로 관웨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108010 @ 알아수다. 그렇게 하면 부엌 정제에 다가 여기에 뭐 하나를?
 108010 #1 살레.
 108010 @ 살레. 살레를?
 108010 #1 사발도 농곡 수꾸락도 농곡 젓가락도 다 놔. 이디 접시도 농곡.
 108010 @ 삼춘 직접 살레 짜판?
 108010 #1 짜는 건 목시가 짜는 거주.
 108010 @ 삼춘은 목시가 아니고 집 이는 게 전공.
 108010 #1 돌담 쌓는 것도 전공.
 108010 @ 돌담 쌓는 것도? 그 다음에
 108010 #1 물항. 물항은 대개 큰솟 옆에 놔. 거려서 가까우니까.
 108010 @ 그러면 잘 그릇네예? 물항 그리고, 지들커는
 108010 #1 지들커는 이쪽에
 108010 @ 지들커
 108010 #1 이딘 검질이엔 허주. 검질.
 108010 @ 아, 검질. 이게 옛날.
 108010 #1우리 생활해난 거주.
 108010 @ 그 다음에 이 불 솟아나면 이 두에를 뒤편 솟

108010 #1 불치 놓는 디가 잇주게. 솟혀고 축담 사이에 거리가 한 오십 전 한 팔십 전 간격으로 떠와.

108010 #2 불숨으멍 불치가 나가는 거.

108010 @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앉앙덜 불 숨지

108010 #1 방석 깔안 앓앙 헛주.

108010 @ 무신 방석 헤낫수가?

108010 #2 줄방석.

108010 #4 줄께로.

108010 #2 예, 벨 거

108010 #1 제기 들으라게.

108010 @ 줄방석이렌 곶아븍서. 줄방석이 이렇게 잇는 거라예. 옛전에는 불치헌 벽에다가 불싸는?

108010 #1 각제기불.

108010 @ 각짓불허는 거.

108010 #2 각제기불.

108010 #1 각제기불인디 요디에서 지등을 세와.

108010 @ 예.

108010 #1 요디 돌이 잇어. 그 우의 각제기 낭 불싸낫주.

108010 #4 각제기 몰라.

108010 #1 지름각제기.

108010 #2 지금도 어디 실 거라.

108010 #1 석유. 박물관에

108010 #2 영 지등 닳은 거 아래 납작허고 영 각제기

108010 #1 각제기불 잇어게.

108010 #2 각제기 행 불 싸는 거?

108010 @ 삼춘네도 잇수가?

108010 #1 우리도 엇주마는.

108010 @ 여기서는 각제기불.

108010 #1 밤에 싸는 건 등피.

108010 @ 등피

108010 #1 등피에

108010 @ 영 웬 거예?

108010 #2 등피는 현대 나난

108010 #2 불각제기.

108010 @ 삼춘네도 지름불도 싸봍디가?

108010 #1 지름불은 석유가 떨어질 때 지름불 쏘주게.

108010 #1 제스 때에도 뒤인가. 초 기름 종으로 썰헤근에 접시

108010 @ 그것도 싸판예?

108010 #1 제사

108010 #1 초 었인 때 종어로 씹지 멘드랑 불 켜.

108010 @ 제사 때에도 그런 식으로.

108010 #2 완전 옛날 식.

108010 @ 게도 지금까지 현대.

108010 #1 선생은 팔자 좋은 걸로 생각허여.

108010 #2 우리 대에 나난 제사 때 불 안 싸뵈저게.

108010 @ 봐난 건 현 거 아니라예?

108010 #1 으,

108010 #1 우리 역은 후제까지 각제기불 등피

108010 #4 시방은 오십 안 쉼 거 님은게.

108010 @ 게문예,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예전에 큰방에 큰방에 놓는 거는 시렁
허고 또 다른 거 논 거 었수가?

108010 #1 시렁 우의 켜 ㅁ뽕 잘사는 집인 켜 두 개 놓곡 못 사는 사름은 흐나
놓고.

108010 @ 옛날에 이불상엔

108010 #1 이불상[쌍]엔 현 건 었고.

108010 #4 이불상은 무사 었어어.

108010 #2 옛날에 었어서. 시렁 우의

108010 #1 예 현 켜 웃인 시렁 우의 이불도

108010 @ 알아수다. 이불상은 후제 난 거.

108010 #1 중간에사 닛주. 이불상은.

108010 @ 이제야 보일러 옛날 집 허게 뵈면 굴목은 어디 놓은 거우과?

108010 #1 큰방 두이로. 아니, 이것이 백이면 이 돌담백 안으로 시렁을 만들엇
짚아이.

108010 @ 예.

108010 #1 이 사이가 굴목이 뵈는 거라.

108010 @ 시렁 만든 사이가. 이 사이로 이렇게 시렁힐 때예.

108010 #1방마다 그렇게 헛주.

108010 @ 그게 굴목. 굴목 짓젠 허면

108010 #1 구는데.

108010 @ 구는데. 흐 집에 으라 개 잇네.

108010 #1 방마다.

108010 @구는데. 옛날에 날레 너는.

108010 #2 구는데.

108010 @ 굴목 짓는 거는?

108010 #2 굴목 구는데
 108010 #1 요렇게 네모만 요렇게 이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허니까 다 구는덴
 구는덴디 이거는 이렇게 곡석이 새어나가나면서 골로로 게
 108010 #2 젓어가민
 108010 @게민 별도로 굴목구는데.
 108010 #2 굴목구는데 날렛구는데.
 108010 #1 ㄴ튼 거고.
 108010 @ 그 다음에 삼춘 불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밖에 돌 막지 아녘니까
 예?
 108010 #1 돌 막는 디 잇고 우린 돌 막아보진 아녀고.
 108010 @ 게민 어떻게 허여?
 108010 #1 이게 이게 굴목이 방 놓을 때에.
 108010 @ 예.
 108010 #1 여기서 저레 돌을 십 전 나가게 놔. 이 안으로 불부썬 거는 이상이
 엇주게.
 108010 @ 아, 절대 나가지 않고.
 108010 #1 게난 이거를 우린 이 정의는 이게 굴목 나가게 허민 이디 돌이 이렇
 게 길게 나가주게.
 108010 @ 아아, 정의 집 짓는 거 허고 저기 우리 서촌 짓는 거 허고?
 108010 #1 틀려, 틀려.
 108010 @ 구들 이렇게 있으면 굴목 쪽에는 무신 거 험니까? 구들 아래를 뭇
 해? 아랫목이여 웃목.
 108010 #1 이디.
 108010 #1 아랫목
 108010 #1 안자리 밧자리
 108010 #1 이딘 안자리 밧자리
 108010 @ 안자리 밧자리.
 108010 #2 아랫목은 안자리.
 108010 #1 안자리 밧자리.
 108010 #2 손님이라도 오민
 108010 #4 굴목은
 108010 #2 뜻뜻헌 디레 안목이주게.
 108010 @ 삼춘 이렇게 보면, 이제 집을 영 지엇잖아예? 문덜을 여기에 이렇게
 현 거는 아까 무슨 문?
 108010 #1 대문,
 108010 @ 그 다음에 여기는 무신 문이우과?
 108010 #4 뒷문.

108010 #1 아니, 아니, 방에는 반창이 없어.
 108010 @ 예예.
 108010 #1 옛날은 반창이 었어.
 108010 @ 전부 이런 거?
 108010 #1 삼방으로 이디 들어왕
 108010 @ 이 문은 무슨 문?
 108010 #1 여기는 마루로 방에 들어왔지. 이디는
 108010 #2 셋문.
 108010 #1 이디 창곱 식으로 쪼끄만 넷지.
 108010 #2 큰대문.
 108010 #1 대문.
 108010 #1 후문.
 108010 @ 뒷문.
 108010 #4 성님네 집도 죽은대문 잇수가?
 108010 @ 지갯문은 어디우과?
 108010 #1 지갯문은 이디 드는 거. 삼방으로 방드레 들어온 게 지갯문.
 108010 @ 삼방에서 방으로 들어온 거 지갯문. 이쪽도 게민 지게문이우과?
 108010 #1 이디.
 108010 @ 삼간집 헐 때 지게문을 멧 개 드는 거?
 108010 #1 두 개.
 108010 #2 방마다 드는 거.
 108010 #1 아 이디 방문이 잇엇네. 밀장이라고 해서.
 108010 @ 밀장.
 108010 #2 갓가 창문이 웰 거주.
 108010 @ 밀장
 108010 #2 무똥
 108010 #1 이 가끄를 크게 밀장두께비엔 현 집이 잇어나서.
 108010 @ 밀장두께비마씨?
 108010 #1 으.
 108010 @ 밀장두께비가 어떤 역할을 허는 거?
 108010 #2 두께비.
 108010 #1 나 말 들어봐이.
 108010 @ 예.
 108010 #1 밀장 일로 쥐가 들어올 수 잇어이. 두께비허영 쥐가
 108010 #2 쥐도 허고, 비 온 때도 비 막음 돼고.
 108010 @ 게민 밀장은 대문처럼 문을 돌안?
 108010 #1 즉 말허민 이거주게. 이 문 잇잖아이. 이거 밖에 문 잇고 안에 문 잇

잖아. 뱃긴 문은 밀장이고 안네는 요것이 두께비집이라 이거여.

108010 @ 아아, 예예,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다.

108010 #1 그렇게 설명 들으른 맞아.

108010 #2 안으로 받쳐 지는 거.

108010 @ 으음.

108010 #1 밀장두께비. 아지망네 집원

108010 @ 나중에 가면예. 다음에 오면 옛날에는 이제 그 방 앞에 죽은방 앞에.

108010 #2 큰방이나 죽은방

108010 @ 두 군데 다 밀장을 만든 거구나예? 이런 대문처럼 든 것을

108010 #1 지계문보다는 지계문은 쌀이 촘 밀장은 쌀이 간격이 넓어.

108010 @ 아아.

108010 #2 그 밀장엔 허는 건 시방 널문을 더꺼분 거 아니? 더꺼부난 콤콤허난 밀장 돌아가지고 칸을 넓게 종이로 흥끔 씨원허렌 그걸 든 거.

108010 @ 밖으로는 널문 둘앙 잇으니까. 안에는. 안에는 두께비.

108010 #1 안에거는 종이로 블라.

108010 #1 밀장도 종이로 블라.

108010 #2 두께비 만약이 밀장이 안트레 털어지지 말라.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고 널문 세 가지로 뒤편주게.

108010 @ 세 가지로 뒤편는 거. 그 사이를 막는 게 두께비렌.

108010 #1 여기도.

108010 @ 예.

108010 #1 지계문을 돌아나서이. 이거는 태풍이 부난 바람이 막 심혈 땀 저 지계문을 걸어버리고.

108010 @ 예.

108010 #1 경 아널 때 창문만 닫앙 자곡. 계난 이거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지계문을 닫안.

108010 @ 대문처럼 양쪽 널문으로?

108010 #1 빗물이라도 돌아낫주.

108010 @ 예예예.

108010 @ 예예. 옛날에는 다 여단이로.

108010 #1 요디는 널로 만드는 건디 요기는 쌀로 만든 거야. 이딘.

108010 @ 아, 지계문은 쌀로 만들고?

108010 #1 지계문은 쌀로

108010 @ 예. 바깥에만 널로 지계문을 하나더.

108010 #1 여기도 지계문은 종이로 블라낫주.

108010 @ 예예예, 평소에는 열었다가예?

108010 #2 종이로

108010 @ 이 집은 옛날 집 아니라부난.

108010 @마루에 여기 돌 화리 같은 거 박고 헤나수가?

108010 #1 부섭,

108010 @ 부섭.

108010 #1 그거는

108010 #12 잘 사는 집.

108010 #1 성읍리는 부섭 잇는 디 멧 개 안 돼여.

108010 #1 조하르방네 집 뜰어부러 실 거라. 새집 집 수리허면서

108010 #2 엇어, 엇어 시방 생각허난 엇인게.

108010 #1 잘 사는 집은 마루에 요렇게 부섭을 백여서 이디 불 살랑 겨울에도 이디 앓앙 멍석도 즐고 맥도 즐꼭 불 초기 위해서 부섭을 박아나서. 잘 사는 집.

108010 @ 잘 사는 집.

108010 #1 못사는 집

108010 @ 송당을.

108010 #1 정지 현 디도 잇어.

108010 @ 정시에 현 디도 잇어마씨?

108010 #1 이칸집은 정지에 헛주게.

108010 #1 성안에 살 땐

108010 #1 겐디 요디 성수 부억에 부섭을 박아나서.

108010 @ 음, 경허민 거기에서 피 같은

108010 #1 고리.

108010 @ 고리.

108010 @성읍도 옛날 피 갈아낫잖아예?

108010 #1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헨 뭇

108010 #1벧 안 나민 어떻 말이라.

108010 @ 밑에 불 피왕

108010 #1 이 책자에 고리가 나왔어.

108010 @ 나중에 한번 찾아보쿠다.

108010 #2 돌아매영은에 알로 불 살룬 거.

108009 @ 그 다음에 삼춘 고팡?

108009 #1 으.

108009 @1 고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겨우과?

108009 #1 고팡은 이디 들어가민 지금은 방인디 저게

108009 @ 고팡 되는 거잖아예. 고팡에 뭐뭐 놔?

108009 #2 쌀독

108009 @ 쌀독은 어떤 걸로 놔?

108009 #2 대정향도 놓곡.

108009 #1 향.

108009 #2 대정향이나 무시 거니?

108009 #1 육깃향덜도 그거는 지새향에 물이 놔도 변허질 안 허여.

108009 #2 곡석.

108009 #1 곡석 놓는 게 옛날은 대개 향. 간직할 때 쥐 안 간직해 볼 게 거벳기
엇거든.

108009 @ 삼춘, 쫄 간직

108009 #1 두지.

108009 @ 두지.

108009 #1 두지도 잘 사는 집벳기 없엇어.

108009 #2 곡석 하영 허는 집.

108009 #1 조일훈이네 집의도 두지가

108009 #2 시방 밋거리에 이신가?

108009 #1 안거리에 이십디다.

108009 @ 두지를 놓면 보통 두지는 삼방에 낫수가?

108009 @ 삼방에 주로 놓는 거라예. 삼방에 놓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고팡은 문
을 지게

108009 #1 뒷문 잇어. 쪼꼴락허게. 크진 안 허고.

108009 @ 그 문은 무슨 문 허여?

108009 #1 반창 모양으로, 반창 식으로 허주게.

108009 @ 반창식으로, 창곰 같은 거

108009 #1 그걸 못헌 딴 창곰을 내주게.

108009 @ 반창 못헌디는

108009 #2 창구멍.

108009 @ 창구멍에는 비여서예. 거를 막지 않고 겨울에만 브름, 공기 통허게.

108009 #1 공기도 통허고 글로 방에 붙아져.

108009 @ 경 아녀민 콧콧허난.

108009 @ 이 안칠성 고팡신 험니까?

108009 #1 안칠성 밋칠성

108009 #2 허는 집원 허는디 아무 집의나 엇어.

108009 @ 것도 허는 집만예? 안칠성은

108009 #2 안칠성은 고팡직이, 밋칠성은 베염당.

108009 #1 그거는 나가 설명을 드리겠는디.

108009 @ 예.

108009 #1 제스 때에 여기는 문제라는 게 잇어이.

108009 @ 문제.

108009 #1 제사 지내기 전에 마루에서 이 대문을 향해서 이 모관디레.

108009 #2 모관디레 안 허는가?
 108009 @ 허는 딴 헤마씨?
 108009 #2 문제 지내
 108009 #1 이제 문제를 지낸
 108009 #4 멍호
 108009 #1 문제를 지낸 다음에는 또 잡식을 허영 이게 어디 가시고 허니까 조왕제라고 해서이, 조왕에 솟 앓진 자리 부억에.
 108009 @ 솟덕에 강.
 108009 #1 솟 앓진 쪼끔씩 뿌려이. 그게 조왕제를 문제 지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조왕제를.
 108009 @ 그 다음에 안칠성은?
 108009 #1 안칠성은 아녀는 집인 아녀난 몰라.
 108009 @ 삼춘넌 아녀난?
 108009 @ 안칠성은 고평지기? 그 다음에 안칠성하고, 그 다음에도 여기 찾방 이런 거, 청방 그 부억으로 가는 따로 이렇게 찬장 같은 거 놓는 방도 만듭니까?
 108009 #1 성읍린.
 108011 @ 그런 건 아녀보고예? 그 다음에 삼춘, 이 문을 이렇게 들앓잖아예, 마루 이렇게 허면 이 문 들젠허면 이 밑에 거를 뒤편 해? 뭘 세워야 뿔 거 아니우과? 문 달젠 허면?
 108011 #1 이렇게 백선.
 108011 @ 우로 세우는 거 백선.
 108011 #1 우로 세우는 건 백선.
 108011 @ 귀클하고 백선예?
 108011 #1 이디도 이렇게 귀클 잇어.
 108011 @ 게문 귀클이 문지방 그런 겨우과?
 108011 #2 문지방은 문 아래.
 108011 #1 이 문이 여기 쫓지등이 잇어이.
 108011 @ 예.
 108011 #1 네 귀에.
 108011 @ 예.
 108011 #1 일로 이 새에 쫓지등 이렇게 귀클허곡 이렇게 귀클허곡 다 허주게.
 108011 @ 이 밑으로 옆으로 귀클이고, 이 귀클 옆으로 문 달 자리는 이진 뒤편, 삼춘?
 108011 #1 문대방.
 108011 @ 이 옆에는?
 108011 #1 문벽선.
 108011 #1 아래 이렇게 간 건 귀클이고

108011 @ 귀클이고, 아아. 문백선, 방.

108011 #2 하나도 모르켜.

108008 @ 문대방허는 거고. 삼춘 마리 놓젠 허면 어떤 식으로 난?

108008 #1 마리귀클 난.

108008 @ 이거를

108008 #1 이게 마린디이,

108008 @ 예.

108008 #1 귀클을 이렇게 허여.

108011 @ 가로로예.

108011 #1 수평 봐단 우에 널로 마리 놓는 거.

108008 @ 삼춘 널 노는 것도 종류가 트나잖아. 건 무신 널 헉니까?

108008 #1 흠마리엔 현 게 잇어.

108008 @ 흠마리?

108008 #1 흠마리엔 현 거는 이 귀클허고 사이에만 놔. 귀클 나와. 마리허곡 꼭 흠마리엔 허는 거.

108008 @ 그 다음에 이게 네모나게 허는 널로 놓는 거?

108008 #1 게난 지금 아까 나가 설명했잖아이. 이 저 귀클 이렇게 메운텐는게.

108011 @ 가로로.

108011 #1 귀클을 보이게 허는 흠마리. 귀클 못 이건 평마리 귀클 우에 널 깔아

108008 @ 그게 널마리우과?

108008 @ 평평하게 헉다고 해서 옛날집 현 게 흠마리.

108011 #1 으.

108008 @ 길게 이렇게 허는 마리가 길게

108008 #1 그게 평마리엔 허니까.

108008 @ 그게 평마리엔 허는 거.

108008 #1 널을 장으로 깔아부러.

108008 @ 그게 평마리예.

108008 #1 게난 흠마리는 올로 요 사이마다 다 널을 요 정도만 찰랑 올로 요 사이는 요거는 귀클이민 귀클 우에서 보여.

108011 @ 예예예, 알리지쿠다. 옛날 집들 보면은. 그 다음에 삼춘, 이제 문을 달젠허면 아까 대문을 달젠 허면 왜 이렇게? 삼춘, 녹음 댜난 호꼼만 조용해 줍서예?

108011 #2 예.

108011 @ 이렇게 고리에 달 잼아예? 여기는 문대방에 저 우에 거는 문대방 아니 저 우에도예? 대문 달 때. 문이 이렇게 켜이는 거잖아? 게문 이 부분은 뭐렌해? 여기 이렇게 해근에 이렇게 돌아야 텔 거 아니?

108011 #1 이거이, 주치 이거 주치 뭐엔 헉다마는 대문 드는.

108011 @ 예.

108011 #1 대문 드는
 108011 @ 계민 이렇게
 108011 #1 나온 게 있어.
 108011 #4 도절귀.
 108011 #1 췌로 만든 게 도절귀에
 108011 #2 문 저 문 드는 거, 문 드는 거 고망난 거.
 108011 @ 예.
 108011 #1 문대방 아니.
 108011 #1 문을 찢럽네께.
 108011 #2 목시가 알지 뭐.
 108011 @ 문대방에 그 다음에 여기 영허여근에.
 108011 #1 대문 중그는 거?
 108011 @ 예.
 108011 #1 대문꼴이엔 허여.
 108011 #1 틈내 미릇 굴아시민
 108011 @ 다른 때 굴아주민 돼주.
 108011 #1 이진 대문꼴이가 맞아.
 108011 @ 돌쳐귀는 어디에 허는 거?
 108011 #1 돌쳐귀?
 108011 #2도절귀는
 108011 #1 도절귀는 지게문 들 때는 필요헌 거지.
 108011 @ 지게문헐 때는 어느
 108011 #1 지게문 헐 때는 즉 말허민 이런 거라. 조방 식으로 이.
 108011 #2 도절귀.
 108011 #1 이거 지금은 조방엔 허는 디 옛날은 도절귀.
 108011 #2 도절귀 췌로 허영 영 끼우는 거.
 108011 #1 그게 옛날 도절귀 시방은 조방이라고 허는디
 108011 #2 조방?
 108011 @ 지게문에만 잇고 대문에는 없는 거구나.
 108011 #1 대문에는 중그
 108011 @ 삼춘, 문입쟁이는 어느 거?
 108011 #1 으.
 108011 @ 문입쟁이는 무신 거?
 108011 #1 문입쟁이
 108011 @ 문얼굴?
 108011 @ 모르쿠다. 써지난. 그렇게 하고.
 108012 @ 뽕창문엔 현 거 있어?

108012 #1 으?

108012 @ 반창?

108012 #1 반창엔 현 건.

108012 @ 요즘말.

108012 #1 큰문

108012 #1 창곱이라. 쪼그만.

108012 #2 아래는 저 그냥 빈지로 우의 중간에 거가 반창 아니라게.

108012 @ 그거를.

108012 #1 옛날은 그걸 창곱은 족아낫주마는 반창은 문 우의 드는 거난 큰 거.

108012 #1 처녀덜 반창 총각놈 반창을 족게.

108012 #2 웃음.

108012 #1 문 크민 총각놈덜 들어온 텐 허영 쪼끌락허게 멘들아낫주.

108012 @ 그거는 방에 다는 거예?

108012 #1 뒤쪽에. 죽은 방 뒤쪽에 그 그게 반창이주기.

108012 @ 아아, 앞에 잇는 거는 그냥 이제?

108012 #1 어른이 사는 죽은방엔 딸덜이 자니깐 그 소님 못 들어오게 반창 멘 든 거라.

108012 @ 쪼끔만 현 건 반창이고?

108012 #2 소님 못 오게

108012 @ 쪼꼬만 알아수다. 옛날은 창덜 불랏잖아예?

108012 #1 창오지로

108012 @ 창오지로 불른 거. 옛날부터 창오지 불랏고, 그 다음에 방은 방을 구 들을 놔알 거 아니? 구들은 어떤 식으로 난? 옛날에.

108012 #1 돌로.

108012 @ 그 돌은 무슨 돌헛구과?

108012 #1 구들돌.

108012 @ 구들돌 다 깎면 그 우엔 흑 불란?

108012 #1 구들돌을 이렇게 놓면 받침대가 있어이. 아래 뜨시지 여기로 불을 때 면 환풍이 돼영 연기가 돌아야 방이 뜨실 건데 이걸 다 메와버리면 이디 불 때나 마나라.

108012 @ 아아.

108012 #1 게난 일로 주칫돌 모양으로 다 밧았어.

108012 @ 둘러지게.

108012 #1 즉 말하면.

108012 #2 궁기를 뚫는 거주게.

108012 #1 요것이 구들돌이라면 가운데 공간을 비게 만들었다 말여. 게면은 불 때면은 열이 돌아다니라고 해서.

108012 @ 예예예 구들들을 다 놓고, 그 다음에 허는 일은 뭐.

108012 @ 그 흑은 무슨 흑으로 끌아수가?

108012 #1 아무 흑이라도 돼여.

108012 @ 촌흑으로 끌고, 촌흑 끌면 이견 뤄렌

108012 #1이걸 천 물 주멍 막 다려.

108012 @ 아아.

108012 #1 이거. 물 주멍 막 다려근에.

108012 @ 예.

108012 #1 이걸 또 수평 만들젠 허면 뭘로 밀었냐 허면 사발.

108012 @ 예. 사발.

108012 #1 사발로 밀었어. 사발로 밀어서 수평대가 없으니까.

108012 @ 사발은 어느 쪽에를? 굽으로.

108012 #1 너븐 거를

108012 @ 사발 어평.

108012 #4 사기사발일 거라.

108012 #2 시방 미는 췌손이 없으니까

108012 #1 수평 보는 게 계난 옛날도 이 방바닥이 저기서 물을 비왕 흘러오는
 줍자기가 편하는데 여기서 물을 비왕 줍자기가

108012 @ 이렇게 올

108012 #1 사람이 꽤까롭데 해서 저리 물을 이레 흘러 경사져사.

108012 @ 아랫물은 위로 흐르게. 게문 방은 평평헌 게 아니라 머리맡 잇는 디
 가 흐끔 더 낮아.

108012 #1 흐끔 경.

108012 @ 수평 보는 거를 사발로. 게문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우에는 이제
 장을, 장판을 헤알 거 아니우과?

108012 #1 장판 옛날은 마분지렌 현 게 있어. 종이가. 마문지를 혼불 발라놔 따
 시

108012 @ 그 우의는?

108012 #1 장판지도 쓸푸대 ㄱ튼 거 그 무신 유치름 불르곡 옛날 어디 장판지
 가 어디 있어?

108012 #2 유치름 불르민 장판지 벤찍벤찍 곱게.

108012 @ 보통은 유치름 불랏수가?

108012 #1 들깨지름 그걸로

108012 #2 장판 절룬덴 허영 경 해난.

108012 @ 장판 절루는 거예? 지름을 멧 번 불라?

108012 #1 두세 번. 어디 서?

108012 @ 옛날에는 장판을 허민 계난 노랑헤영 잘도 고와예?

108012 #1 유치름 불른 거.
 108012 #1 콩지름은
 108012 #2 콩지름은 절지 아녀주게. 절루젠.
 108012 #1 그것이 유치름 불른 거.
 108012 #2 유치름은 절루
 108012 @ 절룬데
 108012 #2 잘 절게 허젠
 108012 #4 빗갈나게.
 108012 #1 유치름이 불르면은 이 종이가 이 저.
 108012 #2 빗갈이 나고
 108012 #1 빗갈이 나곡 경 아녕 다른 종이
 108012 #2 일어나며.
 108012 #1 유치름 불르면 문지가 안 나와.
 108012 @ 절좌진 거구나.
 108012 #1 콩고리 절루기 위해서
 108012 #2 절루기 위해서 유치름 불르는 거.
 108013 @ 게문 문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우리 지난번에 올 때도 우리 선생님
 이 불러봐게 마는 호령창 현 것도 잇수가? 하르방덜 앓앙은에.
 108013 #2 호령창 족은문 말이라. 족은 대문.
 108013 #1 그게 잇수다. 아무 집안이나 잇는 건 아니고. 성읍리도 호령창 잇는
 디가 나가 알기론 흔 네 군데.
 108013 @ 음.
 108013 #1 지금 민속마을 안에 그 집이 지어정 잇는데 그게 호령창이엔 현 건
 이작은 작은 문을 달고 이작은 큰문을 달주게.
 108013 #2 예펜덜 안 땡기는 디.
 108013 #1 이 호령창으로 손님들 못 다녀.
 108013 @ 아아.
 108013 #1 집주인이 베갯 호령창이라.
 108013 @ 예.
 108013 #2 남자가가 땡이는 문.
 108013 #1 성안에 가민 흥
 108013 #2 흥의원이 누게?
 108013 #2 행자아방
 108013 #1 성안에 가면은 흔
 108013 #4 멍자네 살아난 딴 엇구나?
 108013 #1 멍자네 살아난 딴 엇어. 그딴 엇어?
 108013 #1 석근이네

108013 @ 재난 그 호령창으로는 여자는 못 땡겨예?

108013 #1 예.

108013 @ 무사 못 다녀?

108013 #1 여자가 씨집 온 여자가 마루방으로 들어가지 못허여. 부엌으로.

108013 @ 마루.

108013 #1 절대 건. 불법이라.

108013 @ 게문 방으로 들어갈 때도.

108013 #1 만약 씨아버지가 여기 앓았으면 일로 문이 잇어이.

108013 @ 예.

108013 #1 여기 들어강 아버지 왔습니다. 일로 절대.

108013 #2 제발 가라.

108013 @ 아아.

108013 #1 그래서 호령창이

108013 #4 옛날에 부엌으로 삼방에 아버지 나 왔수다. 흔 기억이 잇저.

108013 @ 대문이든 호령문이든

108013 #1 여기 대문은 두 개가 잇는디 이디는 남자가 통허지 여자는 보통.

108013 @ 텃마리 쪽으로 남자들은?

108013 #1 여기엔 달린 게 부엌이 잇거든. 부엌으로 들어강 마루 글로 들어가
지.

108013 @ 부엌에서 마리레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 허여?

108013 #1 셋문이옴도 허곡 셋문.

108013 @ 셋문. 부엌에서 마루로 들어가는. 여자들이 그 문만 여자들이 이

108013 #1 여자가 그만이 답답했어.

108013 @ 재난마씨? 어떻허민 좋아.

108013 #2 옛날 법도가 경 해놓으니까 흘 수가 없주.

108013 @ 여기 성읍 현청 여기는예.

108013 #1 그릴 수가 잇주.

108014 @ 그런 식으로 허고. 굴묵 허젠 허면

108014 #2 뭇똥.

108014 #1 뭇똥 쉼똥. 보리태작해난 보리깍스락.

108014 @ 예.

108014 #2 주로 그거

108014 @ 그런 식으로

108014 #4 불경

108014 #1 불경 꺼내벼야.

108014 #2 경허난 근은대.

108014 @ 메와나야 놔야.

108014 #1 뭇말 같 때 쓰주
 108014 #2 어디
 108014 #1 불치 서꺼근에 영 접아냥 모말 같아낫주. 지금은 씨 빼영 허주마는
 쟁기 골 굿으민 그레 접아봐. 여자덜이.
 108015 @ 그거로 하나씩 허면서예? 그것도 나중에 물어보쿠다. 풍채는 어떻게
 만드는 거.
 108015 #1 집 앞에 들리는 게 풍첸디 보통 삼칸집인 두 개 사칸집인 세 개를
 해여
 108015 @ 풍채도 세 개도 세와마씨? 풍채 세우젠 허면 옆에
 108015 #1 풍채작대기.
 108015 @ 풍채?
 108015 #1 풍채작대기
 108015 @ 풍채작데리를
 108015 #2 받치는 거.
 108015 #1 서리에 돌아매여.
 108015 @ 서리에 돌아매영 게문 그 경사지게 허는 풍채 우에는 뭇를 뭇 놓는
 거우과?
 108015 #1 대나무 낱 여끄주. 여끄주.
 108015 #2 대나무 낱 새 더꺼.
 108015 @ 아아.
 108015 #1 육깃말론 떤디 성읍리 말론 새라이. 대로 요렇게 대나무를 요렇게 낱
 여끄주게. 무끄주게.
 108015 @ 이게 풍채라고 생각하면 이 짜마씨? 짜는 건 아니?
 108015 #1 짜는 건.
 108015 @ 예. 느람지도 예피기도 하지예?
 108015 @ 새를 낱기도 느람지 예평은에 더프기도 허는 거? 그냥 새 더끈 거는
 확 불리기도 허켜예?
 108015 #1 그니까 대나무 낱.
 108015 #2 지둘람주게.
 108015 #1 올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쫘 낱.
 108015 @ 게문 삼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를 영 더끌 거? 이렇게 새 더끄
 고 영 헤근에 헤영 놓는 거? 대나무는?
 108015 #1 새는 이렇게 더끄고.
 108015 #1 대나무는 이렇게 길게 낱 무끄주게.
 108015 @ 이렇게 낱은예.
 108015 #1 옛날은 이렇게 했어.
 108015 #2 노로 해서

108015 @ 풍채 잇으면?

108015 #1 풍채쌀. 요기를 대나무를 놔서. 새로 일부러 손으로 이 노로 해서 빗
엇어.

108015 @아아, 그러면 풍채살이.

108015 #1 대나무를놔.

108015 @1 이거는 풍채살.

108015 #2 한 네 개쯤 놔근에 새 이렇게 놓면서 풍채를

108015 @ 새를 영 낳은에 엮언예?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 무겐. 그거 도망가
지 아녀게.

108015 @ 새를 나중에 더끄기도 헛다는 거네예?

108015 #1 기주게. 대 샌 젤 내중에.

108015 @ 맨처음에. 이것을 풍채살허고 풍채작테기 현 거. 어어. 물팡은 어디
놔수과?

108016 #1 물팡은 부엌 앞에 놓주. 부엌에서 젤 가까운디.

108016 @ 으음. 물팡은 멧 개 놔마씨?

108016 #1 그 집의 식구에 따랑 물허벅이 만약 두 사람이 질어올 수 물팡을
크게 만들곡 경 하녀민 풀팡 하나만

108016 @ 물팡은

108016 #1 물 질어올 사름히 허벅이라도 두 개 딸 하나 잇는 사름은 허벅 하나
놓을 정도로.

108016 @ 물팡도 비지 안 헉니까?

108016 #1 계난 돌을 이렇게 싸주게.

108016 #1 이디는 작은 돌을 메와부러.

108016 @ 속에는.

108016 #1 우에 큰 돌 하나 놔.

108017 @ 예예예. 풍팡에는 허벅, 물구덕에 허벅을 항상 놔두는 거라예? 경허고
삼춘, 여기는 집에 잇으면 다 그 올레들이 다 잇잖아예?

108017 #1 으.

108017 #1 이 올레도 이름이 잇수과?

108017 #1 올레

108017 #1 어떤 디 가난

108017 #2 먼디난 먼올레 브든 디 브든올레.

108017 #1 도로허고 가까우고 멀고헌 차이.

108017 #1 먼올레 멀리 나갓덴 현 말인디.

108017 #2 올레가 먼덴 먼올레.

108017 @ 여기도 브딘올레.

108017 #1 브딘올레

108017 #1 이게 도로면으 보딘올레주게.

108017 #2 질민 먼올레.

108017 @ 계난 도로하고에

108017 #2 멀고 보든 차이.

108017 @ 기냥 올레예? 계믄 올레 얘기를 하고, 그 올레도 보면 옛날에 곧장 안 행 에스자 곡선처럼 허는 이유는 무사라마씨?

108017 #1 아니, 그거는.

108017 @ 못

108017 #1 이 집의서 땅 모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108017 @ 부러 에스허는 게 아니?

108017 #1 다니기 차가 불편할 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소유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헐라고 남의 소유기 때문에.

108019 @ 계난 에스 자로 허는 이유가 잇다고.

108019 #1 건 몰라. 우린.

108019 @ 그건 아니다 삼춘은 계믄 이 이 마당, 마당 허민 옛날에 쉼막도 잇고 헐 거 아니우과? 계믄 쉼출

108019 #1 출.

108019 @ 출 누는 디?

108019 #1 우연.

108019 @ 우연. 우연이 잇고. 우연에 출놀을 누는 거. 거기에 승키

108019 #1 승키는 쉼가 나가분 다음에 겨울엔 필요가 엇지. 승키 가는다.

108019 #2 쉼출

108019 #1 쉼 드르에 산에 승키를, 느돌 갈 거난 쉼출 놓을 때는 필요가 엇지.

108019 @ 아,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집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드르에 올렝 내분 거구나예?

108019 #1 쉼명뎀면은 사월 오일 쉼명 아니라게. 쉼명 뎀면은 쉼가 나가가 하튼 동지꺼지 저 입동ㄱ진 안 들어와.

108019 @ 집에는 엇인 거우과?

108019 #1 입동 뎀야 들어오지.

108019 @ 계믄 그 우연에 쉼 따로 우영이 잇고 여기는.

108019 @ 우리 동네는예, 따로 우영이 잇고 놀왓이 따로 잇고.

108019 #1 저디는 놀 누는 디 보니까.

108019 @ 예.

108019 #1 돌멩이 쌓아서 돌멩이 이렇게 놀 누는 디 만든 디가 잇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놀어도 습기 차지 말앙 썩지 말렌 현 이윤디 여기는 멧 개월 동안이니까 그렇게 안 해.

108019 #2 한겨울

108019 #1 건 오래 놔둘 필요.

108019 @ 우

108019 #1 시월달 들어왕 이삼월 엇어져

108019 #2 소 다 먹엉 나가불민 메기.

108019 @ 집 울타리를 뭐렌 허여?

108019 #1 울담.

108019 @ 울담. 음, 울담이고 허면 삼춘 저기 올레에서 들어올 때도 돌덜 이렇게 놓지 아녜니까?

108019 #1 건 광돌. 비가 오면은 이 땅이 수평 쥔 디는 물이 비와도 싹싹 빠지지만은 땅이 수평 안 쥔 디는 물이 고인디가 잇거든. 그거를 방지허기 위해서 담 쪽으로 돌을 놔.

108019 @ 으.

108019 #1 광돌. 불랑 들

108019 @ 거는 광돌이고 집 앞의 놓는 거는 잇돌? 이름이 트난 거다예?

108019 #1 잇돌.

초가 지붕 이기

108026 @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춘한테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아까 집 이는 얘기를 안 험 거 닙아 예, 집 여기서는 집 몇 년에 혼 번 일어수가?

108026 #1 일년에 혼 번.

108026 @ 그 여기 브름 쥔 편이우과?

108026 #1 브름 좀 강하고.

108026 #1 장마도 강하고.

108026 @ 비도

108027 @ 집 일젠 허면 준비하는 게 잇을 거 아니우과?

108027 #1 저 동지 돼민 밋디 강 새 비여와사주. 동지 돼민 새 비여당 줄 낱.

108028 @ 예.

108028 #1 줄 놓는 거 알아져?

108028 @ 예.

108028 #1 줄 낱. 십이월 돼민 지붕 더프는 거주.

108028 @ 줄 놓을 때도 이렇게 हे주는 사람도 잇고. 영허영

108028 #1 거 줄 비는 사람.

108028 @ 줄 비는 사람

108028 #1 이건 놓는 사람.

108028 @ 영허영 줄 놓는 사람?

108028 #1 줄 어울릴 뒤치기라고 뒤 돌리는 사람.

108028 @ 예.

108028 #2 뒤치는 거.
 108028 @ 뒤치는 거?
 108029 @ 그거 줄 빌 때 쓰는 거는 호랭이.
 108029 #1 호랭이. 뒤에서 돌리는 건 뒤치기.
 108029 @ 그 뒤치기. 영 줄 놓는 거?
 108028 @ 어울리는 거.
 108029 #1 그거 사름이 허는디
 108029 #2 사름 손
 108029 #1 사람 손으로 헛어. 사람이 이젠 하도 손이 아프니까 이젠 나무로 해서 줄로 만들었어. 나무로.
 108029 @ 옛날은?
 108029 #1 머리가 비상하니까 걸 만든 거지.
 108027 @ 네 명이 필요한 거구나. 삼춘네 삼간집 헛 때 옛날 그 지붕 일젠 새가 멧 개 멧 못 필요해?
 108027 #1 이십 평 기준으로 한 백이십 단.
 108027 @ 백이십 단. 백이십 단 허는데, 이렇게 줄 놓는 거는 새가 아니라 다른 거
 108027 #1 각단. 각단인디 지금은 다 새로 해. 각단 딱로 비어오는 사름 엇어.
 108027 #2 짝른 거.
 108027 #1 옛날은 각단 낮으로
 108027 #1 낮으로 후려근에
 108028 @ 거고 이 저 집 일 때도 새 더프지 안 헛니까? 거기도 진 것도 놓고 짝른 건 어디는 진 새
 108028 #1 어디 진 쉼 어디 짝른 새 엇고 왜 진새가 하나면 짝른 새는 두 번을 덮어줘. 길이가 ㄴ따.
 108028 @ 줄은 딱나지 안 헛니까?
 108028 #1 긴줄
 108028 @ 가로로
 108028 #1 이 짝른줄.
 108028 #2 길이로
 108028 #1 길이로 가로로
 108028 @ 길이로 매는 게 진줄. 저쪽 가로로 허는 거는?
 108028 #1 짝른 줄.
 108028 @ 짝른 줄. 진줄은 멧 개 필요하고 짝른줄은 멧 개 필요한 거?
 108028 #1 삼관 긴줄이 짝른줄 마흔두 개쯤
 108030 @ 조른 줄이 더 하영 필요한 거구나예? 줄 무끄젠 허민 앞에 대나무로 따 헤갖고.

108030 #1 거왕.

108030 @ 거왕예? 게 거왕 허는 거는 주로 뭐로 헤여?

108030 #1 대나무로.

108031 @ 왕대로. 으, 거왕. 그 줄 지붕 일젠 해도 사름 빌어사지

108031 @ 집이는 사름을 뭐렌 불르는 사름 엇수과?

108031 #1 집 이는 사름이주게. 이름 경허여도 송순원이 허여도 돼여.

108031 @ 그런 식으로 옛날에 집 일젠 혼자가 안 되는 거잖아. 수눌영허젠 허면은 수는 사람덜 수눈 사름덜은 물도 질영 물은

108031 #1 그거를 나가 설명허겄는디 한 이십 대까지는 줄 집 수눌음이라고 해서

108028 @ 예.

108028 #1 우리가 오닐은 이 저 집의 거강 일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이십년 전에는 국가기능보유자, 문화재로 지정 집이는 더프는 집값이 나와요.

108031 @ 맞수다. 맞수다.

108031 #1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무상으로 안 해주겠다. 이젠 돈 받기 시작헌 거야. 그래서 돈 받고.

108031 @ 옛날에 문화재, 천구백팔십년 전에. 그때 수눌어 전에

108031 #1 그때에는 돌아가면서 헛주게. 댕 사람이 옛날은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아홉 시 전에. 그집이 세 개가 텃든 네 개 잘 허민 조반 얻어 먹고 아침이 강 잘 허민 술이 잘허민

108031 #2 담배

108031 #1 담배도 옛날은 골련이 없었어요. 저 이 몰아초 그거 저 헨 주고 헛주.

108031 #2 몰아초.

108031 #1 옛날은 우리 처음 어린 때 집 이는 입담베엔

108031 #2 입담베가 잇어났지 아녀.

108031 #2 집에서 칼 주명 썰영 가렌 허여.

108031 @ 아아.

108031 #1 우리 그거 헤봤다니까. 그 다음 봉초 나오고 켈련이 담배를 헛주.

108031 @ 그때는 음식 같은 것도 특별하게 헛덴 헛게?

108031 #1 음식 못 사니 우리가 백반이엔 헌 건 먹어보질 못 헛거든. 그때는 집 이는 날은 잘허민 곤썰에다가 이 저 좀 이 저 무신 거 피썰 있어. 피썰 서끄곡 저 오코미.

108031 @ 예.

108031 #1 생성, 그거 사당 식사 대접 헛주.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허니까.

구조

108020 @ 서로 돌아다니고. 이젠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집집마다 도새기 질렀지 아니우과? 돛통은 어떤 식으로 만들아마씨?

108020 @ 여기 불 어디 잇수과?

108020 #1 무시거?

108020 #1 도새기 방위방 질렀주.

108020 @ 돛?

108020 @ 보통은 어느 방위해

108020 #1 보통은 건방이라고 해서

108020 @ 예.

108020 #1 건방은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허고 이 남산망 사이를 곤방이라고 하여.

108020 @ 곤방? 으으.

108020 #1 이쪽 방을 화장실을 멘드느냐 도새기 잘 큰텐 허영 경헤낫주.

108020 @ 그러면 도새기 질루는 디를 뒤편 굴안? 여기서는?

108020 #1 돛통.

108020 @ 조일훈하르방네 집의 가난?

108020 #1 그거 잘 사는 사름이나 그걸 헛주.

108020 #2 그디 돌로 돼서?

108020 #1 그디 허고 몽구 살아난 디 돌로

108020 #2 몽고 살아난 디 어디라?

108020 #1 거 안방손에

108020 #2 그디도 몽고 살아난딘가?

108020 #1 그디도 화장실 지붕이 돌로 돼어수다. 그디 허곡 어디냐. 저 태범이네 집.

108020 #2 저어.

108020 #1 폭낭 아래

108020 #2 그디도 돌로 돼어잇어?

108020 @ 그런 식으로 돛통 할 거잖아예? 돛통 하면은 도새기가 사는 집도 건무신 거렌 해?

108020 #1 이 도새기집.

108020 #1 돛집이 아니라 도새기집. 돛집이라는

108020 @ 여기는 돛집이라는 말 안 허는 거구나예? 도새기집. 도새기집 허게 뒤편 주변에서 보면 가이네 것 먹는

108020 #1 돌도고리.

108020 @ 돌도고리.

108020 #1 돌도고리.

108020 @ 돌도고리 냥 허곡 밖에는 항

108020 #1 이 곳인물항.

108020 @ 곳인물항도. 곳인물항 옆의는?

108020 #1 웨냐른 옛날은 그릇 씻을 때 비누 같은 거 세탁기 안 쓰잖아.

108020 @ 예.

108020 #1 이거 밥티도 들어가곡 그제 곳은물일 돼서 그제 갓당 도새기 줘주.

108020 @ 예, 도새기 저기 주는 저기 곳인물항 또 항이 잇지예?

108020 #1 채 놓는

108020 @ 채 놓는 것도 잇고. 하나 더 잇인게. 오줌항은

108020 #2 오줌항은 아무 집의나 안 놔.

108020 @ 아무 집의나 안 놔마씨?

108020 #1 집집마다. 젊은 사람.

108020 @ 옛날은 거름이난.

108020 #1 옛날은 늙신네덜이 밤에 오줌 요강은 비우 젊은 사람

108020 #2 항아리 냥 오줌 받앙.

108020 #4 우리 씨집갈 때도 오줌 요강은 다 허영 가나서.

108020 #1 그거는 이 새각시, 새새각시덜 의무라.

108020 #2 항 냥 오줌 누물팍디도 주곡

108020 #1 보리밭디도 주곡.

108020 #2 보리밭디도 주곡 오

108021 @ 우리 그 응가나 허젠 허면 화장실도 돛집 도새기집 볼 일

108021 #2 짚을팡 놔사 그디 강 똥싸사 도새기도 먹곡?

108021 @ 무슨 팡?

108021 #1 짚을팡.

108021 @ 그 다음에 돌로 영 쌓아갓고 그런 것도 이름 이수과?

108021 #2 갓가 지들팡 아니?

108021 #1 요렇게 돌을 쌓아.

108021 @ 예.

108021 #1 올로 도야지가 불일 보면은 먹어. 이 우의 ㄱ로 이렇게 놔. 여기 사
름이 앓앙 똥 싸민 떨어

108021 #2 갓가 디들팡.

108021 @ 디디는 거난 디덜팡이구나. 디덜팡 이제 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
저기 그 통시에 가면 통시엔 험니까? 여기도.

108021 #1 돛통.

108021 @ 돛통예. 영 사람 영 누게 와가민 거기에서 인기척허고.

108021 #2 똥 나 이디 잇노렌 응허주.

108021 @ 이렇게 해서예. 나 여기 잇으니까 건들지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8021 #2 지금 화장이

108021 @ 예전에 뒤통에 보면 막대기

108021 #2 도새기 다울리젠.

108021 #1 도새기 다울리젠.

108021 #2 똥 싸민 도새기.

108021 #1 공간이 야튼 디는 야튼 디는 설사 난 사름덜 볼일 보민 머리뺍에 도새기가 머리뺍에 탁탁 털민 튀어오르거든.

108021 @ 예.

108021 @ 오래허는 중 알안 지도 죽어부림신게. 게난 매낭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읍 오니까 특이한 게 춤.

108025 #1 춤.

108025 @ 예.

108025 #1 물이 어려우난 물 받앙 쓰젠 춤을.

108025 #1 이디는 물

108025 @ 여기는 어디 강 물 질영와마씨?

108025 #1 시건이

108025 @ 시건이물. 나 여기 쓴 거 잇수다.

108025 #2 시건이 정수암

108025 #1 정수암. 옷동네 사름덜은 경허난 먹는 것만 질어왔지. 이 집의서 잇당 발도 씻고 뇧도 씻고 춤 받앙

108025 @ 춤 받젠 허면 보통 춤 받젠 허민 무신 낭?

108025 #1 아무 낭이라고 관계 없어.

108025 @ 아무 낭이나 상관 없고?

108025 #2 제일 좋은 건 돛박낭. 먹는 것도 좋곡. 아무 낭이라도 춤 받아사 물

108025 @ 예예예.

108025 #1 춤 받은 물은 보통 먹을 용으로 안 허고. 그자 발도 씻고 뇧도 씻고 모욕이나 허주.

108025 @ 춤 받젠 허면은 그 다음에 춤을 멘들아사 헐 거 아니라예? 춤은 뭇로 멘들아?

108025 #1 새로.

108025 @ 새로.

108025 #1 느람지 예프는 식으로

108025 @ 그걸 춤이렌 허는 거라예?

108025 #1 으.

108025 @ 춤 매는 낭은?

108025 #1 동백낭도 잇고 쑥대낭 아무 쟁낭에도 매곡.

108025 @ 춤받는 낭 이런 말은 안 써?
 108025 #1 아니.
 108025 @ 향아리는?
 108025 #2 춤 받는 향.
 108025 @ 그냥 그것만 춤 받는 향이렌 허고, 낭에 대해서는 이름은 엇구나예?
 계른 새로 이렇게 허는 거는 춤.
 108025 #1 잇날도 가정에서 돛박낭 아니면은
 108025 @ 예.
 108025 #1 이 다른 낭 히여뜩헌 낭은 집안에 싱그지 아녀주게. 이 좀 필요헌 낭
 만 집안에 싱것지. 무신 요새 소낭이나 이런 삼나무 그튼 건 울안에 가정 내에 싱
 그지 아녀.
 108025 @ 보통 집에 싱그는 게 돛박낭을
 108025 #1 돛박낭을 주로 많이 썼을 거라.
 108032 @ 그 다음에 초가하다가 허는 거예. 그 쓰다 남은 거, 아까 줄로 해갖고
 아까 주로 뭐 만든 거마씨? 아까.
 108032 #1 정젯방식게. 밥헐 때 낄앙 앓앙 불 숨는 거.
 108032 @ 정젯방식예?

연장

108033 @ 집 짓젠 허면 연장덜이 잇어얄 거 아니우과?
 108033 #1 목시
 108033 @ 목시 아정 땡기는
 108033 #4 우리도 줄방석 만들어나서.
 108033 #1 목시가 지금은 이 장비덜이 워낙 좋은데. 엇날 목수덜은 가정 땡기는
 게 톱허고 귀자기허곡
 108033 @ 예.
 108033 #1 손자귀허고 고분자귀허고 먹통허곡 돌끌 저 낭끌허곡 것벧괴 아정
 108033 @ 낭끌? 돌끌도 가정 땡기고.
 108033 #1 낭끌은 백석 세울랴고 구녁을 팔랴고 끌 아정 땡기는 거.
 108033 @ 나무에 구멍 판덴 허여 췌로 뒤도예? 이거는 목수가 가정 다니는 거
 곡.
 108033 @ 돌 쌓는 거는
 108033 #1 이 석공.
 108033 @ 그 벽을 뒤엔 험니까?
 108033 #1 이거 축담.
 108033 @ 축담을 안 곶아신게.
 108033 #1 축담은 계난 집을 세와.

108033 @ 으.

108033 #1 저 상머루까지 걸고,

108033 @ 으.

108033 #1 서리 걸기 전의 축담을 쌓아.

108033 @ 으.

108033 #1 축담 싸냥 서리 걸주.

108033 @ 게든 담만 째 게 아니라 흑질해

108033 #1 아니 게난 서리 집 우에 더픈

108033 @ 나중 흑질허는 겨우과? 흑질헐 때도 옛날 큰일이엔 헨에.

108033 #1 그게 잇어이. 저 새 더프기 전의 잘 사는 사름덜은 고대라고 해서

108033 @ 예예.

108033 #1 그 집 서슬헌 우에 흑을 올려이.

108033 @ 예.

108033 #1 고대 그게 고덴디.

108033 @ 으.

108033 #1 그거 올령 집, 억새 어웁으로 더픈 사름도 잇주.

108033 @ 고대 올린 다음에 음.

108033 #1 여유 잇는 사름덜.

108033 @ 옛날에는 고대 안 올령 천아반도 아녕 그대로 살앗잖아예?

108033 #1 게난 그 대신 또 고대 안 올려도 내중에 다 덮은 다음에 양토 그게 안으로 흑블라. 양토엔 허는 디.

108033 @ 양토.

108033 #1 예전엔 고대 올령 양토허는 게 쉽주게. 허젠 허민 우에 달라부틀 게 엇이난 흑이 부찌민 어웁에 흑을 부찌민 그게 부떠게. 안 부땡 자꾸 털어정 좀 고대올린 디는 흑이니까 잘 달라블거든.

108033 @ 그 고대흑허젠 허민 힘든 거 아니?

108033 #1 힘들긴 허주.

108033 @ 그게 고대흑이엔 헉니까?

108033 #1 그게 양토. 안으로 ब्ल르니까 양토.

108033 @ 고대는 우에 눌러주니까 고대 삼춘 축담 블라알 거 아니우과? 이기는 것도 물도 질어와야 돼고.

108033 #1 건 여인들이 대개 흑을 어디 강 파울 디가 어시니까 집을 마당에 마당에 흑질을 허여.

108033 @ 마당흑으로?

108033 #1 여저덜이 삼사십 명이 허벽으로 물을 질어와이.

108033 @ 예.

108033 #1 게든 진토긋이엔. 흑긋이엔 젊은 물 비우 흙 지우고 자꾸 흑 이렇게

서끄곡 서끄곡 허주게. 경해낭 쉼로 불리주.

108033 #4 그때 산디찍 썰어완신가?

108033 #2 믱덜 혼이 서

108033 @ 산디찍 썰고 그신새 썰고 뒤편 곱아?

108033 #1수세. 수세.

108033 @ 수세 놔야 잘

108033 #1 이게 엇이면은

108033 #2 수세가 많아야 잘 부르는 거.

108033 #1 수세가 잇는 디는 비가 와도 견더 내는데 수세가 시청 떨어져부러.

108033 #2 수세 하영 놔사 부르는 게 돈돈허주.

108033 #1 겨난 수세미를 많이 놓주.

108033 #2 흑 불리는 게 오죽 공들어. 건 말은 못허여 쉼벧기.

108033 @ 그 안에 쉼?

108033 #1 발이 들어가면은

108033 @ 예.

108033 #1 쉼은 말굽이 이렇게 생겼잖아. 말은 이렇게 불라도 깊게 들어가지 아
녀. 소는 말이 이렇게 소를 많이 허는 거.

108033 @ 쉼을 뱅뱅 그치록 쉼가 무신 일

108033 #1 흑블럼젠 허주게.

108033 @ 흑블럼젠. 삼춘, 흑 블럼젠

108033 #1 봐나도 아녕 어느

108033 #2 직접 헛덴

108033 #1 어느제 봐나서.

108033 #2 나가 봤주.

108033 @게난 웃음

108033 #2 흑불리는 거 초벌 불령 쉼 내놓아텡 그 뒤편 두불 또 불린다고. 풀풀
허게 잘 부뜰 때까지 불려사.

108033 @ 예.

108033 #3 시방은 막 기계로덜 험주게.

108033 @ 흑질허젠 허면 세미떡 만뒤떡허영도.

108033 #1 저 피력,

108033 #2 흑블릴 때 방상덜은 밥 헤가고. 피력도 떡도 해당 맥이고. 떡도 해당
방상 좋은

108033 #2 모멸만뒤나 돌레떡으로 허나.

108033 #1 정심이나

108033 #4 흑피력이라고.

108033 #2 흑질허는 날엔 막 세주게.

108033 @ 집 짓젠 허면 제일 큰 일이 흑질허는 날이구나.
 108033 #2 젤 못전던 일이 흑질이주게.
 108033 #1 그게
 108033 #4 그때 부지도 허주게.
 108033 #2 여자덜은
 108033 #1 물 질어올 디가 삼스십 명 질어와봐도 혼번 비우민
 108033 #4 옛날은 잔치혈 때도 우리 씨집갈 때도 허벽으로 질어와서.
 108033 @ 부주도 헌텐 허멍?
 108033 #1 일가덜
 108033 #2 흑밥 해가는 거.
 108033 #1 흑밥도 허고 현찰로 부주허는
 108033 @ 질 큰일이니까.
 108033 #1 젤 큰 일이주게.
 108033 @ 삼춘, 흑밥해갓텐 허는 말은 무신 말?
 108033 #2 흑질혈 때 친축덜이나 켜
 108033 #1 가까운 근친 가까운 흑밥엔 해근에.
 108033 #2 아침도 맥이고 점심도 맥이곡.
 108033 @ 떡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집 짓는 연장혈 때 아까 이제 그 목시
 가 갖는 톱 뭐 먹.
 108033 #1 먹통
 108033 @ 먹술. 이런 건 허잖아예?
 108033 # 으.
 108033 @ 돌허는 사름이 쓰는 연장은 무
 108033 @ 축담허고 허젠 허민
 108033 #1 갯노는 일본
 108033 @ 갯노는
 108033 #2 갯노는
 108033 #1 옛날은 돌차귀엔 허여.
 108033 #2 맞아.
 108033 @ 돌차귀.
 108033 #1 지금은 갯노엔 헌 건 일본말이라.
 108033 @ 돌차귀가 필요허고. 돌 해오젠 허민.
 108033 #2 그걸로 ㅋ칭허게 만드는 거주게.
 108033 #2 때리멍
 108033 @ 돌차귀.
 108033 #1 담만 돌차귀 베와주켄 허믄.
 108033 @ 나중에 사진 찍으쿠다.

108033 @ 이거 말앙 들 수 잇는 게 뭐가 잇지. 옛날에는 못은 안 썰수가?

108033 #1 못. 못은 아주 옛날에는 못 대신

108033 @ 예.

108033 #1 구녕 뽕아근에 대나무 왕대.

108033 @ 예.

108033 #1 왕대로 못 모양으로 동글락허게 만들엉 이디 때령 못으로 사용해서.

108033 @ 아, 왕대로. 그 못은?

108033 #1 대못. 대나무로 만든 대못.

108033 @ 그래서 대못이구나. 대나무 못이?

108033 #1 췌로 해방 후에 이제 나왔지. 그전엔

108034 @ 그래서 대못. 게문 그거는 못하는 거고, 삼춘, 그 다음에 톱도 종류가 으라질 아니?

108034 #1 손톱 잇고, 줄톱 잇고,

108034 @ 손톱은 뭐우과?

108034 #1 손톱은 혼자 허는 거고, 줄톱은 양쪽에 앓앙

108034 @ 그게 대톱이우과?

108034 #1 대톱은 커.

108034 @ 건 어떤 식으로?

108034 #1 건 널판 오릴 때. 옛날도 관널.

108034 @ 예.

108034 #1 관널을 옛날은 건재사가 없으니건 거의 개판이나 집에서 오련 썰단 말여. 그때 대

108034 @ 두 개 너이가 허여.

108034 @ 이렇게 넷이서 하는 거고. 줄톱은 둘이서 하는 거고. 톱도 세 종류.

108034 #1 으.

108034 @ 그 다음에 양쪽에 톱이 이렇게 잇는 것도 잇지 아너우과?

108034 #1 늘 두 개 잇는 거.

108034 @ 어디 가난 양날베기.

108034 @ 양쪽으로

108034 #1 혼자만 쓸 수 잇는 톱. 지금도 그런 톱 잇어.

108037 @ 자귀도 아까자에.

108037 #1 곱은자 저기 강 안

108037 @ 곱은자도 잇고, 곱은자만 잇습니까? 다른 자도 곱은자 이ㅇ

108037 #1 곱은자엔 지금은 뭐 줄자가 잇는디, 옛날은 줄자엔 현 게 엇어시난.

108039 @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즘은 바를 때 손으로 현 다음에 흑허는 영 손 받는 거 뭐? 요즘은 췌손 흑손.

108039 #1 옛날은 남자덜은 브르곡 여자덜은 접아주곡. 경행 그대로 헛어.

108039 @ 손으로예? 옛날에는 요즘은 받치는 거?

108039 #1 이제는 사깁 받치는 허는 거지. 옛날은 그런 게 었어.

108039 @ 췌손 이런 거.

(중략)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가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상감, 숨굴
201005	제비초리	생이총데기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길다
201009	짧다[短]	쭈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땡다
201014	비녀	빈혜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감
201017	쌍가마	쌍가마
201018	가르마	앞갈르다
201019	이마	임뎡이, 이뎡이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빼기	마뺨
201022	숨털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놋바닥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세멘기[끼]
201028	씻다[洗]	씻지다
201029	거울	색경,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볼

201032	뺨따귀	뺨얌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볼	볼
201035	볼따구니	볼따귀
201036	볼거리	*
201037	광대뼈	볼뼈
201038	보조개	*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눈뚜께
201044	거적눈	더께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눈썹)짓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201049	수침(垂針)	바놓세우다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까랍다
201052	눈곱	눈꼽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돌아진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적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구녕
201061	코딱지	꼬푸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
201066	입	입, 입주텅이
201067	쓰다[苦]	쓰다, 씹쓰름허다
201068	참말	춤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닭달하다	닭도리(허다)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주땡이 조심허라
201075	말하다	말허다
201076	입방아	입방아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굴앗닥굴앗닥
201079	침[唾]	꿈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춤, 가래
201082	뱉다[吐]	마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훅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벌은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니중그다
201099	턱	턱 /아래턱 우턱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알아구리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귀알짝

201106	꿇구멍	꿇구녁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꿇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꿇등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모가지
201114	굶다[飢]	술지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목고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머리
201119	꼭뒷	뒷꼭지
201120	뒷덜미	뒷고개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풍채짱
201124	겨드랑이	저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썸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굽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뼈, 짱
201134	뼈다귀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오른손, ㄴ 단착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툽	손콥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국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름[손꺼름]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가슴) 탕탕히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멩줄
201157	명자리	멩줄, 붓븐디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베또롱
201167	옆구리	역구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따리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담 부뜨다
201176	등목(=목물)	등 밀다, 등어리 밀어주다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엉덩이
201184	살집	술집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
201189	살	술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불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즈게미
201195	가래뿔	멍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독무릅
201201	무릎뼈	물짱뼈
201202	뼈다[櫪]	ㄴ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중에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툑
201208	복사뼈	*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발목) 빠다, 발 빠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발바닥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ㄱ롭다
201220	간지럼	저금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꺼름
201223	까치눈	발가락벨라지다/발가락 눈트다(발가락 뒤 가로로 벌어진 것)
201224	티눈	(발)퀴눈이
201225	고린내	고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북부기
201230	마음	ㅁ음새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쥬베설,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멍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베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애깃봇
202007	젓줄	베또롱줄, 멍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몬이[모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끌이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제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시롭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
202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늛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봇땃옷
202030	기저귀	삿바
202031	배두렁이	*
202032	포대기	지성기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애깃걸랭이, 애깃걸레
202038	띠	애깃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줌매줌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마섬마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짹짹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박아지다
202049	곤두서다	곤주왓사다
202050	가동가동	발도당치다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계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보다
202056	엄살	엄살, 췌병
202057	쌔	새웁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길다
202059	부아	부에, 용심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으쟁이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뺏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뜰락
202073	풍계문이	수건찾기
202074	줄넘기	베뜰락
202075	줄다리기	베둥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치기
202078	공깃돌	공기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망추제기
202083	말놀음질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등당물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대물
202085	달음박질	들을락
202086	겨루다[競]	숨백허다
202087	제기차기	쫓끼차기
202088	헤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독베기
202090	웃가락	웃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을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쌍쟁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파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들엉 때리다
202100	편벽하다	펜들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드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사각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브름구녕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	----	----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밧신개	밭판
202121	굴렁쇠	도레기
202122	구르다[轉]	굴리다, 둥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진개
202125	키[身長]	지레, 키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하위염
202129	기지개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기지개치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깊은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잠꾸러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래기
202145	딸꾹질	툔국지
202146	재채기	재치기
202147	개치네췌	허취
202148	방귀	방귀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
202151	구린내	똥내, 똥냄새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기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충	이발충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
202167	진버짐	도리버줌
202168	주근깨	꼭리점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검은사막
202171	여드름	니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푸리룽허다
202174	굳은살	멍구쟁이
202175	부스럼	부시럼
202176	종기	허멀
202177	습종	썹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인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본치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러기
202189	땀띠	땀 데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청맹과니	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개씹
202195-2		둘럿
202196	언청이	청부
202197	외언청이	웨청부
202198	쌍언청이	쌍청부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은사름, 귀막시
202201	병어리	버버리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새배출렝이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곰사등이	곰새
202209	절뚝발이	다리절레기
202210	얹은뱅이	얹은베기
202211	문둥이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남편
 203008 아내 00어멍
 203009 부부 부부, 두갓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큰놈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셋놈
203012-3	셋째아들	말셋놈
203012-4	막내아들	죽은놈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둘찾아덜
203012-7	셋째아들	셋찾아덜
203012-8	넷째아들	넷찾아덜
203012-9	막내아들	다섯차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없다
 203020 자손 자손, 자손
 203021 어비딸 에이새끼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세끼
 203026 맏이 맏이
 203027 막내 막녕이

203028	형	형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언니, 형
203032	아우	아시, 동생
203033	외아들	단아덜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ㄴ쁘다
203038	양자	양제, 양자
203038-1		양제가다
203038-2		양제데려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씨집장게감찌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중매
203045	권당	퀀당
203045-1		덥덜
203045-2		일가, 방상
203046	얹은잔치	안팏잔치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203050	시아머니	시아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동네삼촌
203056	아주버니	(씨)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늡으신네	늡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벙쭈시
203064	거동하다	거동ㅎ다
203065	손자	손지, 손자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친촉
203072	외척	웨펜친촉
203073	종내기	*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8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방, 생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친어멍, 생모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구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 ㄴ음
204002	끓다	기치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실[멩지썰]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지캣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폴숨	설멩지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멘네테우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줌박
204024	번데기	죇
204025	고치	(누에)고치
204026	뽕잎	뽕입
204027	뽕나무	뽕남
204028	산뽕나무	들뽕
204029	오디	뽕남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개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끔
204035	물거품	버꿀레기
204036	빨랫돌	광돌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세답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물르다
204042	바지랑대	바드랭이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204046	헹겔	헹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헹벅주제기, 믹흐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알
204054	폴치마	두루치메
204055	옷고름	곰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섵	섵(안앞섵, 맞앞섵)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벌므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옷)소미
204062	중의	중의, 정벙이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마기(홀), 후루메(안감 넣은 것)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
204070	누더기	누더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약방주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띠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찔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뒷꿈치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수늑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뻗은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맨보선착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훗옷
204084	겹옷	겹옷, 접옷
204085	숨옷	소개옷
204086	얹다	얹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접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털
204097	홀칭	소게싸는 거, 호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재우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호칭
204107	베갯머리	머리맡디
204108	베갯모	베갯오메기
204109	목침	몽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충박이	불각신
204118	탄충박이	각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보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채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상지[쌍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손골매
204134	실	쉴
204135	실꾸리	쉴꾸랭이
204136	실패	쉴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절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쥼다
204143	실밥	쉴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곱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즈봉틀, 미승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다편
204152	누르다[壓]	누르뜨다
204153	씨아	물르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칼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앞는 앞을깨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래기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새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渴水]	틈자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쌍밥, 꼬들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지, 누랭이
205016	눌은밥	누랭이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
205019-2	파래밥	팍레밥
205020	밥보	식량 크다, 식량 든허다
205021	밥술	(밥)수까락
205022	밥알	밥방울, 밥티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냥	누렁이물, 송냥물
205029	화독내	밥카는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베치나물국, 나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국)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흰죽
205041	팔죽	팍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쾌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피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꾸, 징꾸
205050	배추김치	베치짐꾸
205051	무김치	눔베짐꾸

205052	열무김치	춌늑물 짐뀌
205053	물김치	물 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 짐치
205055	갯김치	갯늑물 짐치
205056	파김치	쪽파 짐치, 쪽파 김치, 패마농 짐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듬다
205060	간장	간장, 물장, 장물
205061	장물	물장,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병댕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바치
205066	간	곤,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금허는 거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늑뻘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늑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순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지경
205077	고비	허궁고사리,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민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쉼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승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춌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만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귀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깻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ㄴ르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차다, 짜다
205107	초(식초)	취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제편
205110	부스러기	(옆)보스레기
205111	송편	송웬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ㄴ르
205118	국수	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들크름ㅎ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가냥ㅎ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부침개
205149	산적	(고기)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정제
205151	부엌문	정깃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젓비차락
205156	내[煙氣]	연기, 내
205157	낮다[低]	놋다
205158	높다[高]	높다,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름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화덕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쾌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 숫뚜껍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군손
205178	군일	헛부지런, 굴채부지런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정짚방석, 전방석(결은방석)
205182	성냥	성냥, 화곽
205183	성냥개비	화곽살
205184	성냥갑	불곽, 화곽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싯돌	부돌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싯돌주맹기, 부싯돌주머니
205189	부시통	왕대활통
205190	등잔	각지, 불각제기, 등잔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등피, 호야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접싯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꺼멍허다
205198	숯가마	*
205199	뜬숯	숯망구레기
205200	숯검정	숯끄끄렁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끄렁냄새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봉덕, 부섭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덴디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저불
205215	다리쇠	세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춤	춤
205217-2	춤향	춤향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태우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배통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돛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든은접시, 꺾말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수까락
205242	젓가락	저분, 젓가락
205243	수저통	제통
205244	설거지	그릇젓지다, 그릇씻다, 그릇설르다
205245	구정물	긋인물
205246	도시락	밥당석
205247	주전자	주젠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한박
205250	박	꺻
205251	뒤옹박	뒤옹박
205252	조롱박	꺻박
205253	쪽박	꺻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게
205260	시룻번	시룻마게
205261	경그레	바드레이
205262	함지박	도고리, 도구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송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축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허베기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숫돌	썰돌
205282	날카롭다	늘쓰다, 늘이나다
205283	행주	상뻘
205284	번철	전판
205285	국자	국자, 낭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낫밥자, 밥주걱(전복껍질)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미(산디찍)
205289	떡살	(절벤)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마께, 웨마께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코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일)
205295	삼발이	쉐발쉐
205296	달이다	딸이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초가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판나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담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집, 웨거리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팍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
206016	곁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돛통
206026	부춘돌	지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돌아얏얏저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연, 승키밧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 람지
206041	주저리	주지
206042	엮다[編]	여끄다, 여피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전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소문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구들, 큰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청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춘 브름
206061	안방	족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백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시렁
206070	시렁	사다리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옷걸이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허다
206081	안뒤결	집뒤
206082	지붕	지붕, 집
206083	함석	도당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
206089	낙숫물	집가짓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혁
206092	진흙	*
206093	찰흙	춘 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백에 흑불람찌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沍]	이기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생깃지둥
206101	뒗기둥	뒗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둥굽, 지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장포, 대들포
206108	반자틀	청장살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椗)	튀기
206111	인방	가폴목
206112	문설주	문백선
206113	문곶도리	문대방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대방
206116	문머리	문대방, 옷대방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중그다
206125	구멍	구녁
206126	미달이	밀문
206127	여달이	지계문
206128	살문	문쌀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톨쩌귀	암토절귀
206134	수톨쩌귀	숫도절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웨툽, 대툽
206147	틀툽	줄툽
206148	툽밥	툽밥, 툽ㄴ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국쇠
206151	노루발장도리	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빠루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깨
206157	방망이	낭마깨, 던드렁마깨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뚫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췌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시, 농사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밭)트쟁이
207006	병작(竝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잠대)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벧틀레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땀’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설칫못

207009	옥보다	숫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흑병탱이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밭)층거리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파니
207017	거웃	파니
207018	극쟁이	* 중경벧(굴가는 벧)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켁이
207022	꼭팽이	꼭켁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렁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씨멩탱이
207034	꿈게	섬피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막물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글라
207043	호미	글쟁이
207044	홍아기	홍애기소리(빠름), 아웨기소리(느어짐)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샷	품샷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째기	미
207055	새끼	숫, 새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게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줄대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괘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벌레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겟세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겟방석
207068-5	지게꼬리 (밀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겟끈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작대기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밭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삭	이석
207073	짚	짖, 남뎡이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보리클, 산디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태작하다, 마당질하다
207079	땀	땸
207080	진땀	진땸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젖먹은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 어시, 도깨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 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틀레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쪽정이	줄레
207087	꼴	출
207088	꼴발	출왓
207089	꼴꾼	출놈
207090	꼴단	출단[출판]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물)바레기
207093	북두	베, 구루맛베
207094	명석	명석(대)
207095	덕석	덕석(소)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끄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술박
207109	풍구	*
207110	홉	홉
207111	홉되	(흔) 홉사리
207112	되	뒬
207113	관되	관뒬
207114	사삿되	관뒬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골르다
207118	고무래	구는대
207119	불당그래	굴묵구는대
207120	먹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멩이, 가마니
207122	꿋다[引]	꿋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한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리롱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뽏다
207134	까끄라기	ㄴ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솔
207136	보릿겨	보릿채
207137	겉보리	짱보리
207138	쌀보리	솔보리
207139	맥주보리	주녕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감비역이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힌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솔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모중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딧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솔
207163	밭벼짚	산디쩍
207164	맷돌	ㄴ레, 정ㄴ레

207164-1	맷돌 짝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
207164-2	윗돌	맷돌의 위 짝	ㄴ레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 짝	ㄴ레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 짝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 짝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쫓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즈록

207165	맷방석	덕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기꺾방
207174	븀비다	몰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고랑
207178	방앗돌	창돌
207179	연자맷간	물고랑 집[찢]
207180	절구	*
207181	절긋공이	*
207182	빻다	빻다
207183	뉘	뉘, 생썰
207184	고르다[擇]	골리다, 줏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지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쫄남뎡이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두부
207194	두붓물	둠빋물
207195	뜨겁다	떼불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지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앓은베기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פות
207202	팔알	פות방울
207203	팔밥	פות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קֶמֶח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깻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허다
207210	메밀	מִמְל
207211	메밀밭	מִמְלפֿאט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겉질	מִמְל체
207214	메밀국수	מִמְלקוש
207215	메밀수제비	מִמְל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מִמְלק알국수
207217	메밀떡	מִמְלק
207218	메밀묵	מִמְלק
207219	무르다[軟]	얕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뻬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대산이
207225-1	마늘대	*
207225-2	마늘밀	대산이뿔리

207225-3	마늘중	대산이쫄
207226	마늘장아찌	대산이지시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밑동	꽤마농빨리
207228	무	늪빠
207229	무청	늪빠썸
207230	시래기	쓰래기
207231	장다리무	씨늪빠
207232	열무	춤늪물
207233	배추	배추늪물
207234	고깁이(배추)	배추속
207235	나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유으래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부래기대축
207240-1	옥수수	대축부래기
207241	수수	대축
207242	쌀수수	*
207243	비목수수	비대축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축
207245	수수깡	대축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길	늘길
207248	물웃	잠수복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테왁, 킷박세기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돛구멍	*
207273	돛줄	*
207274	돛	*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
207277	돛돌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터베

기타

207285	이웃	이웃, 동네
207286	더불다[與]	화목하게
207287	마을	믄을, 동네
207288	고을[村]	*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전렴허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
207293	마을가다	믄슬카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상점, 점방
207296	구멍가게	점방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즌돈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존돈
207305	받다[受]	받아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돈)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메
207317	갓양태(양태)*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사냥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라먹다, ㄴ뉘먹다
207331	갖다[持]	아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고,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은
208004-4	(50)	쉬은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은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관뒀)	말
208005-1	(1/한)	흔	흔
208005-2	(2/두)	두	두
208005-3	(3/서, 석)	석	서
208005-4	(4/너, 녀)	녀	너
208005-5	(5/닷)	닷뒀	닷
208005-6	(6/엿)	읏뒀	읏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흔두	흔두
208006-2	(2-3/두세)	두세	두서	두서
208006-3	(2-3-4/두서너)	두서녀	두서녀	두서녀
208006-4	(3-4/서녀)	서녀	서녀	서녀
208006-5	(4-5/네댓)	녀댓	녀댓	녀댓
208006-6	(5-6/대여섯)	대읏	대읏	대읏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	예실곱	예실곱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	일고으답	일고으답
208006-9	(8-9/여덟아홉)	으답아읏	으답아읏	으답아읏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절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22자
208014-2	명주	22자
208014-3	광목	통
208014-4	베	22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한마지기 100평
 208016 뭇 단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
 208019-1 *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열두 단
208021-2	조(이삭 있음)	6단
208021-3	콩	6단
208021-4	밭벼	30단
208021-5	꿀	30단
208021-6	띠	30단
208021-7	각단	16단
208021-8	어욱	16단

208022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
208025	포기	퍼기
208026	그루	개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	머리
208028-2		머리
208029	축	*
208030	웨미	웨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채,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무덤
208034	결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뭇	단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베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땃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배안넛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씨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딸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아덜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둘러리, 상객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樛]	무너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여제사돈, 여사돈
209021-2	바깥사돈	베갯사돈, 남자사돈, 남사돈
209022	접사돈	접사둔, 부찌사돈, 부친사돈
209023	상갓집	초상집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아버지	왕대
209031-2	어머니	머귀낭
209032	짚동	복시미(일곱매듭)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견다다
209035	뒹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예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접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호축
209048	무덤	봉분,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석공,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토
209053	마치다[終]	막끄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전, 제월밭, 소분전, 소분밭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침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멧밥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제펜
209065	인절미	(막물)은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우지시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반허다
209070	몫	찍세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뽕과리	뽕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절), 오월맹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구침, 모살뜸
209085	추석	추석멥질, 팔월멥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올레꺾시(심방), 칠갈이(심방), 안택(스님)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밧
210008	명두	멥두, 멥두칼
210009	추다[踊]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술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술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비유적 표현)
210016	허깨비	허께
210017	어둑서니	그신새
210018	무섭다	몹습다
210019	겹쟁이	검쟁이
210020	고사(告祀)	꺾시
210021	고수레	꺾시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켜지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엿불

211004	불다[點火]	내불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내창뚝
211007	물가	물엿
211008	따르다[從]	쫓다, 들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낭떠러지
211011	다리[橋]	다리,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설덕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서덕
211016	갈림길	세커림, 스커리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동산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굴형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가생이
211023	큰길	큰질, 대로, 한질
211024	분화구	곰부리
211025	꼭대기	(산)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오름)밭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형지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엎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씨러지다, 드러누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곳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물먹다
211046	모래	몰레, 모살
211047	모래밭	몰레왓
211048	자갈	작지, 자갈
211049	갯가	개껏이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큰절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

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 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세물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네물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4일, 29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16일 1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일 2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8일 3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19일 4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일 5일
211059-13	(열서무날)		
211059-14	아끈췌기	아끈췌기	21일 6일
211059-15	췌기	조금	22일 7일
211059-16	한조금	한췌기	23일 8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늘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재작날
211072	어제	어제, 아시날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ㄱ슴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지폰밤,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별
211091	은하수	미릿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몸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상고지, 향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ㄱ슬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새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ㅎ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몸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쉐
211110-6	엿새	웃쉐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쉐
211113	대엿새	대웃세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초흐루보름,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새해, 내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돗다, 돏돏허다
211128	땡별	불벧
211129	가을별	ㄱ슬벧, 가을벧
211130	양지받이	헤빏난디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대, 애깃그늘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구미
211137	바람	븃름
211137-1	바람위	븃름발른디
211137-2	바람아래	븃름의지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븃름코지
211140	바람살	븃름살[븃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뵈오리, 도깁이주제
211142	동풍	샛븃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갈븃름
211145	북풍	하늬븃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발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오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사니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사노룽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븃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힘벅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몰론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오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얼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곶다	곶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눈짐벙이(비+쓰레기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두, 뒤
211184	결	즈끗디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븄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어둑다
211190	왼쪽	웬쪽
211191	오른쪽	늑단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홀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모사리
211199	가장자리	꺄디, 가생이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부랭이
212005	쇠소	식췌(검정+노랑)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차디
212008	황소	맛갈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흰+노랑)
212010	부리땅	땅울
212011	쇠고삐	췌늑대
212012	끝다	끗다
212013	송아지	송에기
212014	배넛소	반작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
212015-6	여듭(6)	으섯슬	으섯
212015-7	이릅(7)	일곱슬	일곱
212015-8	여듭(8)	여덟슬	여덟
212015-9	아듭/구릅(9)	*	*
212015-10	열릅/답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여물
212018	구유	구시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죽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 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춘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
212028	얼룩말	월라
212029	유마	유매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등곰새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달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녹대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렝이
212048	비루먹다	도렝이 일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쾅이	식고녕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턱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독고리
212060	닭장	독막
212061	달걀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붉은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빙아리, 비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분짓허다, 갈라먹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새끼
212074	돼지우리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몰
212081-3	둘암돼지	*
212081-4	둘암개	*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베랭이, 버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쉬꼭리
212090	쉬파리	똥꼭리
212091	쇠파리	췌꼭리
212092	똥파리	똥꼭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고노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빋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훤충
212103	거머리	거멀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머느리	*
212110	노래기	구데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 일다
212114	하루살이	하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뽕이, 집벗은들뽕이
212117	민달팽이	집이신들뽕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물케미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메뚜기(小)-누리룽허다, 말축(大)-푸리룽허다
212123	방아깨비	소금바치
212124	여치	썩썩이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꿈중이
212127	풍뎡이	덤비에기
212128	장수풍뎡이	하늘썌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썌똥덤비에기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잠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212142	매미	자리
212143	매미허물	왕자리 옷벗엇저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자리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פות자리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물방개
212148	반딧불이	물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두기
212155-1	작은 것	서미역
212155-2	늪은 것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송충이
212157	개구리	가굴레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허물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쿨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의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에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헝이
212172	갸다	굶다
212173	쥐구멍	헝이고냥
212174	박쥐	다람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지달이, 오로
212176-1		지달이굴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생이)꿀랭이, (생이)출리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고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내천이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버썩이
212200	종달새	쥐주머리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비에기
212207	두루미	*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ㄹ메기
212211	개울타리고등	참 ㄹ메기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
212242	성게	성게
212243	말뚝성게	슴
212244	군소	*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뽕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바릇궤기
212255	맑다[淸]	몹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베르싸다
212261	생선(生鮮)	늘궤기
212262	미끼	니궤
212263	갯지렁이	게우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참대
212266	만들다[造]	멩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참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
212272	주낙배	*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랭놀래기	어랭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

212291	벵에돔	벵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뜨다	자리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흰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불바리	*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귀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조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 품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풀짓다
213009	뻥기	뻥이(어웁 뻥이, 새 뻥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돌 ㅁ작풀, 돛풀, 도새기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대룽제완지
213017	망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꽃, 메마꿀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고름풀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비다, 툴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생이, 냉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룻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오나릿불휘
213045	영경귀	스랭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함박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케낭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
213059	왕모시풀	찢냥, 찢쩍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생이콩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
213066	까마중	물오줌낭
213067	하늘타리	하늘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레기
213069	부처손	푼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ㄴ니풀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칙,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꼭불휘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죽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추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줄
213084	인동	운동고장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췌정당, 고냉이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베염술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싸리
213093	땡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갯	갯늑물
213096	달래	풀마농, 췌마농(뿌리)
213097	췌바귀	ㄹ름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봉오지,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성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물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박달꽃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제비새꽃
213137	복수초	복수초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뿔리
--------	----	----

213142	잔뿌리	즌뿌리
213143	줄기	줄기, 남탱이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낭쌌, 잎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술잎	술입
213151	술가리	술입
213152	술방울	술똥
213153	땨감	검질
213154	마디다	밋디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돔박낭
213160	붉다[赤]	빨강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믈쿠시낭, 마주목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옴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신낭
213180	굴나무	미짱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小)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즈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로기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펙펙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중낭
213195	마가목	마께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가시들굽, 춤들굽)
213199	향나무	향낭
213200	옷나무	칠낭, 춤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
213208	섬귀똥나무	가시레기낭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죤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죤때	돌오죤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누룩낭
213231	풍개나무	가메기폭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츠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생이도꼬리
213240	사철나무	스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담쟁이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
213246	불나무	북칠낭
213247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열매

213249	과일	으름
213250	껍질	껍질

213251	깎다	벧기다
213252	벗기다	벧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염지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복분자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리(小), 둥당멀리(大)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리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상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낭
213283	감	감, 풋감, ㄴ레감
213284	떨다[柿]	쫓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선감

213288	청미래덩굴	멥게낭, 벨레기낭
213289	멥감	멥게낭으름, 벨레기으름
213290	찔레나무	독고리낭
213291	영실	독고리낭으름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능금,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재배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속껍데기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에낭
213303	복숭아	복숭에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새
213311	김	짐
213312	과래	과레
213313	툇	툄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넌페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몰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